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사천 항일독립 운동사

사천문화원

발간사

사천문화원장 **장 병 석**

1919년 3월 1일 전국은 만세 소리로 넘쳐나고 독립을 위한 민중의 함성은 세계로 퍼져나갔다. 3·1운동의 민주적 정부형성 의지와 해외각지에서 성숙 된 민주공화적 자립의욕의 결과에 의해 복합된 2,000만 민중의 욕구분출로 4월 11일 상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된다. 이후 해방되는 그날까지 우리 민족은 끝없는 항일투쟁을 펼치며, 민족의 자존감을 되찾고자 노력하였다. 우리 사천지역은 동학혁명과 의병활동부터 시작하여 3·1 의거, 신간회, 청년회 등 끝없는 항일운동을 이어간 지역으로서 수많은 항일독립 투사를 배출하였다. 이는 우리 사천시의 자랑이며, 시민들의 큰 자부심이 될 것이다.

내년은 3·1 의거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100주년의 의미와 함께 사천시에서 활동하거나 태어난 독립투사들과 사천시 전역에서 펼쳐졌던 항일운동을 하나하나 정리하여 이 책을 편찬하였다. 해방 후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목숨으로 싸워온 흔적들을 찾지 못하고 이제야 그 흔적들을 찾아 밝히면서 조상들에 대한 죄스러움이 밀려 왔다. 그러나 우리의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사천시가 펼쳐온 항일운동의 참모습을 보여 주어 애국애족의 참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발간되기까지 믿고 따라주신 사천문화원 회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다. 아울러 집필과 편집에 노력하신 분들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 특히 『사천시 항일독립운동사』 가 발간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송도근 사천시장님을 비롯한 사천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 전하고자 한다.

감사합니다.

축간사

사천시장 **송 도 근**

황금돼지의 해인 기해년을 맞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사천항일독립운동사≫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12만 사천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 전통문화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장병석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사천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사천항일독립운동사≫는 일제 36년 동안 사천지역에서 일어났던 항일독립운동과 3.1운동의 활동을 재조명하고, 사천의 근대사를 심도 있게 정리하는 한편, 빛나는 항일 운동 정신을 계승하면서 일제에 항거한 사천시민들의 위대한 역사를 대외에 알림으로써 우리지역 역사의 올바른 위상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이 책자가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역사 바로 세우기는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길러 줄 수 있는 귀중한 역사적 자산이 되도록 많은 시민들에게 널리 읽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사천항일독립운동사≫가 미래에 우리지역의 향토사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자료로 활용되기를 다시한번 기원하며, 이 책을 발간하기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사천문화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축간사

사천시의회 의장 **이 삼 수**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황금 돼지'의 해인 올해를 시작하며, 사천지역에서 일어난 3·1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선인들의 업적과 공적을 정리하여 그 숭고한 정신을 새기고 전승하고자 하는 『사천 항일운동사』발간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사천 지역 항일투사들의 행적을 일일이 밝혀 잊혀져 가는 독립운동을 재조명해 시민 정체성 확립과 역사문화 창달에 앞장서기 위한 이번 발간사업을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선인들의 고귀한 정신을 잇는 초석을 다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사천 출신 항일독립투사들을 기록한『사천 항일운동사』 발간을 통해 우리 시민들이 사천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시작하는 이 사업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며, 모든 시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獨立章

위 건국훈장 독립장은 항일투사로서 7년이상 옥고를 치루거나 의병장 등으로 큰 공을 세운 분에게 추서함.

愛國章

위 건국훈장 애국장은 항일투사로서 4년이상 옥고를 치루거나 순국하신 분 또는 큰공을 세운 분에게 추서함.

建國褒章

大統領表彰

위 대통령 표창과 건국포장은 6개월이상 옥고를 치르거나 3년이상 독립운동한 공적이 있는 분에게 추서한다.

愛族章

위 건국훈장 애족장은 독립운동으로 1년이상 옥고를 치른 분에게 추서한다.

1920년 3월 1일 중국 상해시 올림픽 대극장
3.1절 첫돌 기념식 장면

항일의병 전투 상황
(독립기념과 역사관 제2전시실에 보존)

삼천포지역 3.1운동 지도자들

강 금 수

손 우 상

박 종 실

고 광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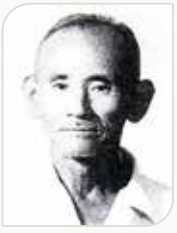
장 태 영

박 상 진

김 우 열

장 지 린

정 종 호



정 종 주

박 상 윤

정 한 영

장 덕 익

박 인 욱

신채호, 신석우,
신규식 선생
(왼쪽부터)

사천 출신 의병 지도자

이상수

이상수 의병장과 함께한 의병장

유명국

손기혁

이상수 의병장과 함께한 의병장

효당 최범술

문영빈

만해 한용운

곤명면 항일투사

문수열

이경호

이범호

김범부

김직성

박낙종

최연종 님과 함께 한 일심회

최연종, 김차형, 김병길, 박준기

최연종

김병길

김차형

김오장

문수열 의사와 함께한 독립군

장호강

조동린

진주에서 활동한 사천출신

강대창

장덕익

강두석

조우제

김형권

축동, 곤양, 사천읍 항일투사

강달영

강대호

강민호

강우석

박형안

안재홍

이금복

장주학

홍명희

황원방

탄광에 끌려간 한국인

일제에 징용된 조선의 청년들

구한말 의병의 복식

의병들이 사용하던 무기

의병이 사용하던 화승총

동지역 독서회

사천읍 기적비

서포면 기념비

우천마을 기념비

최원형 기적비

2·8 독립선언서

1919년 2월 8일 동경의 유학생들이 조선독립청년단 명의로 발표한 선언서이다. 선언서에는 1. 한일 병합조약 폐지와 조선독립 선언 2. 민족대회 소집 요구 3. 만국평화회의에 민족대표 파견 4. 요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혈전 선언 등의 4개 항목의 결의문이 실려있다.

※ 출처 : 독립기념관

대한독립선언서(무오독립선언서)

1919년 2월 김교헌 등 39인의 명의로 만주 길림에서 발표한 독립선언서이다. 작성자는 조소앙이며 서명자는 김교헌, 김동삼, 조소앙 등 당시 해외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인물 32명이다. 발표 일자는 "단군 기원 4252년 2월 일"로 되어 있다.

※ 출처 : 독립기념관

3.1독립선언서(보성사판)

3·1만세운동 당시 국내외에 배포한 독립선언서로 최남선이 기초하였다. 이 선언서에서는 민족자존의 정당한 권리와 인류 평등의 대의를 천명하고 있으며, 평화적인 시위 운동을 벌일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 자료는 1919년 3·1만세운동 당시 천도교 인쇄소인 보성사에서 조판 인쇄된 것이다.

※ 출처 : 독립기념관

3.1독립선언서

3·1만세운동 당시 국내외에 배포된 독립선언서이다. 최남선이 작성하고 민족대표 33인이 서명하였다. 조선의 독립선언과 민족자결에 의한 자주독립 전개, 인도주의에 입각한 평화적인 운동, 제국주의 열강과 일본의 이성에 기대를 건 비폭력주의 외교론적 운동노선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공약삼장도 선포하였다.

※ 출처 : 독립기념관

3.1독립선언서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독립만세운동 당시 발표한 독립선언서이다. 선언서 중간 중간에 글자를 수정한 흔적이 있으며, 2·8독립선언서와 함께 목포 정명여중에서 발견되었다.

※ 출처 : 독립기념관

독립선언서(국한문)

하와이 대한인국민회가 발행한 독립선언서로 3·1만세운동의 실상을 미주 동포 및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작성되었다.

※ 출처 : 독립기념관

대한독립선언서

1919년 3월 18일 경상남도 하동에서 박치화를 비롯한 12인이 작성한 독립선언서이다. 3·1운동이 일어나자 하동군 면장으로 있던 박치화는 사표를 제출하고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여 자체적으로 이 독립선언서를 만들었다. 선언서는 인도와 정의의 방법으로 독립을 이루어나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 출처 : 독립기념관

독립선언서(영문)

미주지역에서 독립만세운동 시위 당시 배포한 영문판 독립선언서이다. 1919년 3월 9일 원동통신원 현순(玄楯)에 의해 국내 3·1만세운동에 관한 소식이 미주 각지와 하와이에 전해졌다. 이에 대한인국민회에서는 영문판 독립선언서를 발행하여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천명하였으며, 조국에서 일어난 3·1만세운동의 실상을 미주 동포들과 세계 만방에 알렸다.

※ 출처 : 독립기념관

조선독립선언서(朝鮮獨立宣言書)

1919년 2월(음력) 만주의 임강현 모아(臨江縣帽兒) 부근에서 한규설(韓圭卨) 등에 의하여 선포된 독립선언서이다. 이 독립선언서는 3·1독립선언서의 첫 머리만을 약간 고쳐 만든 간략한 독립선언서이다. 이 선언서에는 "우리는 이에 조선의 독립, 조선인의 자유를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려 인류 평등의 대의를 복명(復命)하고, 이로써 자손 만대에 전하여 민족자존의 정권을 가지게 한다"는 내용이 실려있다.

※ 출처 : 독립기념관

대한독립여자선언서(1919. 2.)

1919년 2월 간도(間島)에서 애국부인회가 우리나라 독립을 선언한 대한독립여자선언서이다. 3·1만세운동 직후 미국·연해주·만주 등지에 있던 한인 여성들은 대한부인회를 조직하고 '대한독립선언서'를 작성하였다. 선언서에는 부녀자들도 독립운동에 동참해야 하며 독립운동은 우리의 제일의 의무로 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속히 분기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 출처 : 독립기념관

경남 통영의 3·1만세운동 격문(동포에게 격하노라)

경남 통영에서 3·1만세운동 참여를 호소하는 격문이다. 격문에는 한일강제병합과 총독부 정책의 기만성을 고발하고, 조선민족은 자유와 조국을 위하여 궐기하자는 내용을 싣고 있다.

※ 출처 : 독립기념관

경남 하동에 배포된 독립선언서

1919년 3월 18일 경상남도 하동에서 박치화를 비롯한 12인이 작성한 독립선언서이다. 3·1만세운동이 일어나자 하동군 면장으로 있던 박치화는 사표를 제출하고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여 자체적으로 이 독립선언서를 만들었다. 선언서는 인도와 정의의 방법으로 독립을 이루어나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 출처 : 독립기념관

태극기 목판

3·1만세운동 당시 태극기를 대량으로 찍어내기 위해 제작된 목판이다. 가로 32cm, 세로 30cm의 정사각형의 두꺼운 원목에 4괘와 태극 문양이 새겨져 있다. 3·1만세운동 당시 태극기의 제작 과정을 유추해볼 수 있는 자료로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 1985년 남궁용이 독립기념관에 기증하였으며, 2008년 8월 등록문화재 제385호로 지정되었다.

※ 출처 : 독립기념관

남상락자수 태극기

남상락이 1919년 4월 4일 당진 대호지면 장터에서 예정된 만세운동에 사용하기 위해 부인과 같이 만든 태극기이다. 가내수공업 방식으로 짠 명주에 손바느질로 테두리를 마감하고 사괘를 검정실로 수놓았으며, 홍색실과 청색실로 태극을 만들었다. 남상락의 후손이 독립기념관에 기증하였으며, 2008년 8월 등록문화재 제386호로 지정되었다.

※ 출처 : 독립기념관

대한독립만세 태극기

1930~1940년대 미국에서 제작된 태극기로 미국 대학교에서 사용했던 깃발과 같은 모양으로 제작되었다.
깃발의 전체적인 형태는 청색과 홍색의 모직 펠트를 연결한 가늘고 긴 삼각형 모양이다.
청색 펠트에는 "대한독립만세(大韓獨立萬歲)"라는 글귀를 박음질하였고, 홍색 펠트에는 날염된 태극기를 부착하였다. 2008년 8월 등록문화재 제387호로 지정되었다.

※ 출처 : 독립기념관

김구 서명문 태극기

대한민국임시정부 김구 주석이 1941년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미우스 오그(梅雨絲) 신부에게 준 태극기이다. 신부는 뉴욕에서 약 1년 동안 활동하다 안창호의 부인 이혜련에게 이 태극기를 전달하였다. 태극기의 4괘는 재봉틀로 박음질했고 태극문양은 세로 방향으로 감싸안는 형태이다. 바탕에는 한국광복군에 대한 지원을 당부한 김구 선생 친필이 수놓아져 있다. 1985년 3월에 이혜련 여사의 유족이 독립기념관에 기증하였으며, 2008년 8월 등록문화제 제388호로 지정되었다.

※ 출처 : 독립기념관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

1945년 2월경 한국광복군 제3지대 2구대 대원 문응명(일명 문수열)이 동료 이정수에게 선물로 받은 태극기이다. 1946년 1월 문응명이 다른 부대로 옮기게 되자 동료 대원들이 문응명이 소장하고 있던 태극기의 여백에 자주 독립과 독립국가 건설에 대한 염원의 글귀와 서명 등을 적어서 떠나는 동료에게 마음을 전달하였다. 2008년 8월 등록문화재 제389호로 지정되었다.

※ 출처 : 독립기념관

유관종 부대원 태극기

한국전쟁 당시 소위로 활동한 유관종이 1950년 10월 초 호남지구 진격 작전에서 사용했던 태극기이다. 4괘는 먹물로, 태극문양은 물감으로 그렸다. 태극기 바탕에 무운장구를 염원하는 글귀과 서명, 백두산에 태극기를 휘날리겠다는 각오 등이 적혀있다. 1987년 유관종이 독립기념관에 기증하였으며, 2008년 8월 등록문화재 제390호로 지정되었다.

※ 출처 : 독립기념관

▶ CONTENTS ◀

1. 발간사 ····· 3
2. 축간사 ····· 4
3. 축간사 ····· 5
4. 화 보 ····· 6
5. 목 차 ····· 19
6. 제1편 사천의 항일독립운동 ····· 23
   1장. 한말 서부경남의 항일운동 ····· 24
   2장. 사천 및 서부경남의 국채보상운동 ····· 34
   3장. 일제하 사천청년운동사 ····· 39
   4장. 사천의 3·1 의거 ····· 53
      1) 1919년 3·1 의거 ····· 53
      2) 사천의 3·1 의거 ····· 54
      3) 사천읍 3·1 의거 ····· 54
      4) 동지역 3·1 의거 ····· 55
      5) 곤양면 3·1 의거 ····· 64
      6) 곤명면 3·1 의거 ····· 64
      7) 서포면 3·1 의거 ····· 65
      8) 사남면 3·1 의거 ····· 66
   5장. 신간회 사천지회 연구 ····· 67
   6장. 다솔사와 항일운동 ····· 75
   7장. 사천시 천도교와 3·1 의거 ····· 82
7. 제2편 사천지역 항일독립투사 ····· 89
   1장. 정부 포상이 추서된 항일투사 ····· 90
   2장. 정부 포상이 추서되지 못한 항일투사 ····· 218
8. 부 록 ····· 303
   1. 국채보상운동 의연금 납부자 ····· 304
   2. 사천 3·1운동 지도자 ····· 304
   3. 사천 청년 단체 임원·회원 ····· 305
   4. 사천의 학교 설립자, 교원, 후원자 ····· 307
   5. 신간회 사천지회 임원 ····· 319
   6. 동아, 조선일보 지국장, 기자(1920-1940) ····· 321
   7. 일제하 강제 동원 법령 ····· 325

사천의 항일 독립운동사를 집필하면서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자주 받아 왔다.

임진왜란 등 침략 전란을 통해 크고 작은 항쟁이 있었지만, 19세기 말과 20세기에 들어서 일제의 침략에 대한 민족적 항쟁은 잊어서는 안 될 역사이다.

한말 일제의 침략야욕이 노골화되면서 의병활동도 거족적인 항쟁으로 확대되어, 전국에서 의로운 용사들이 조국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떨쳐 일어난 시기별 역사적 배경을 살피고, 기미년 독립만세 의거에 참여한 우리 지방 각지역별 의거 활동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하였다.

1894년 일본군이 경복궁을 강점한 갑오왜란과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전후한 의병전쟁. 1896년 아관파천과 1897년 경운궁으로 환궁한 시기에 일어난 의병활동을 제1기로 하고, 1904년 한일의정서 조인과 1905년 을사늑약을 계기로 언론기관의 규탄과 유생들의 상소로 촉발된 항일 국권 회복의 열기가 지방까지 확산하여 일어난 제2기 을사의병전에 이어, 1907년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이준 등의 파견을 이유로 고종황제를 강제 퇴위, 순종황제를 즉위케 하고, 순종은 일제의 강압으로 군대를 해산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이를 반대하는 시위대와 일군 간에 총격전이 있었고, 해산 군인과 의병들이 합류하여 전국적으로 항일전투가 전개되는 등, 수차례의 의병 전쟁이라 할 만한 사건을 필두로, 1919년 기미년 3·1 독립 만세 의거로 절정을 이룬, 약 25년여에 걸친 전국적인 의병 운동과 궤를 같이하여 우리지방 의병 활동을 단위 지역별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아울러 사천의 청년 운동사와 신간회 사천 지회와 국채보상운동의 경과 등을 항일 독립운동 역사의 일환으로 기술하였다.

사천 하동 산청의 3·1운동은 경남지역에서 가장 치열한 투쟁을 전개한 지역으로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희생자도 두 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인 항일 투사의 항쟁내용과 인적사항을 적시하되, 정부 포상이 추서된 분과 자료 발굴이 미흡하여 정부 포상이 추서되지 못한 애국 투사의 명단을 각각 싣는다.

항일 의병의 자료는 매우 미비하기로, 일제가 1945년 패망하여 도주하면서 중요 문서를 소각 처리하거나 가져가고, 일부 문서는 6.25 한국전란 때 소각 분실되었다. 재판기록으로 대구복심원에 항소한 사실이 있을 때에 재판기록 등이 남아있어 다행히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항일투사들의 공적도 일제의 고등경찰 기록물, 판결문 등에 의지하다 보니, 순수 우리 민족의 투쟁과정을 규명하지 못하고 자료 부족을 아쉬워하는 바이다.

인적 지역적 범위는 사천지역 출신을 위주로 하고, 사천에서 일시적으로 항일 운동에 동참 활동한 경우 일부 포함하였다.

미 포상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새 문헌 증거자료들을 발굴하여 포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이다.

2018년 12월 일

제 Ⅰ 편

사천의 항일독립운동

제 1 편 사천의 항일독립운동

제1장. 한말 서부경남의 항일 의병

1. 서론

우리 민족사의 전개에 있어서 외침에 대처하는 저항 투쟁은 시기와 시대 상황에 따라 구별되게 전개되었다.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자주 받아 일찍부터 의병의 활동이 유명했다.

고구려와 백제 유민들의 국권 회복을 위한 의병 투쟁이 있었고, 고려 때는 몽고의 침략에 대처하는 강화도 항몽 등이 있었으며, 임진왜란 시에는 전국적인 의병 투쟁이 뜨거웠다.

한말 의병 전쟁은 일제의 침략에 대한 민족적 항쟁으로서, 1894년(단기4227) 7월 일본군의 경복궁 강점, 즉 갑오왜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갑오년 말과 을미년의 의병을 초기 의병전쟁이라 하고, 을사조약을 전후한 1904년 8월 이후를 후기 의병전쟁이라고 구분한다.

의병전쟁은 1894년 이후 약 25년간 계속된 항일전이었다. 이 기간에 불굴의 항일 정신으로 싸운 의병들이 얼마나 희생되었는지 확실히는 알 수 없다. 다만 의병 전쟁이 본격화된 1907년 후반 이후 5년간 일본 군경과 싸운 의병의 숫자는 약 15만 명에 이르렀으며 1907년 후반부터 약 2년 동안 순국하신 의병은 약 2만 명이 넘는다.

을사의병에 참전한 의병들은 10년 전 을미의병을 일으켰던 분들이 많았고 보다 확대된 민중들의 지지 기반 위에서 의병 전쟁이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한말 의병전투의 역사성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서부 경남의 의병투쟁은 주민, 지식인, 유생, 농민 들이 모두 민족의 자존과 국권을 수호하려는 의도에서 꾸준히 지속적인 항일전을 지리산을 중심으로 활약해 온 점이 특기할 만한 것이라 하겠다.

지리산과 덕유산을 왕래하며 전개된 서부 경남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 경남의 대표적 의병전쟁이었으며 노응규, 문태서, 유명국, 이학노, 손기혁, 권석도, 김동신 등의 활약상은 전국을 대표할 만하다. 약 15~20만 명의 의병이 활동하였고 2만명이 순국했으나 그 이름이 지금까지 밝혀진 의병 수는 더 적다. 대부분의 의병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졌는데 그 이름만이라도 전해진다면 아주 놀라운 행운일 것이다.

2. 본론

<전국의 항일 의병>

2-1. 갑오을미전쟁(甲午乙未戰爭) 제 1차 의병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났다. 이 혁명을 구실로 당시의 위정자들은 청국군을 불러들였다. 청국군이 아산만에 도착하기 전에 일본 군대가 인천에 상륙하고 곧 서울에 입성하여 경복궁

을 차지해 버렸다. 일본은 한국 정부를 협박하여 내각 개편을 요구하였고 무력한 우리 정부는 이 요구에 굴복하여 친일파 내각을 발표하고 내정 개혁에 착수하였다.

일제 침략은 이듬해 더욱 강화되어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단발령의 시행과 복제의 변경 조치 등으로 국민들을 격노케 했다. 이를 계기로 전국에서 의병들이 일어난 것이다.

초기 의병의 시작 시기를 갑오왜란 직후로 올려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어 정설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초기 의병은 을미사변(乙未事變)과 단발령(斷髮令) 이후에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 초기 의병의 지도층(指導層)들은 명망 있는 양반(兩班), 유생(儒生)들이었지만, 의병의 군사력을 지탱한 것은 동학 농민, 소작인이며, 혁명 운동에 참가했던 농·상·공인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이해는 일치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임진왜란 이후 원수였다는 의식은 침략에 대항해야 한다는 목적 때문에 단결할 수 있었다. 여주, 보은, 원주, 제천, 춘천, 문경, 안동, 안의와 진주, 영양, 장성 등지에서 일어나 초기 의병은 경기도, 황해도, 평안도 국경지대까지 확대되었다.

제천의 유인석 부대와 춘천의 이소응 부대, 의주의 조상학, 광주의 기우만, 기삼연, 안의 진주의 노응규 등이 유력부대였으며, 선두 주자는 보은의 문석봉, 이천의 김하락 의병진 이었다. 전국의 봉기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잘 아는 의병들이 대부분이므로 개화파 관리의 처단과 추방, 단발금지, 탐학한 관리의 처단, 일본군 및 관군과의 혈전이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이었다.

한편 정부에서는 선유사를 파송하여 의병의 해산을 강요하였다. 남로 선유사 신기선, 동로 선유사 이도재를 임명하여 국왕의 해산 조칙을 지참하여 각지에서 활동하던 의병장들을 설득하였다. 의병 해산에 반대하던 유인석, 민용호 등은 조상학 의병장의 도움으로 만주로 이동했으나, 대부분의 의병들은 국왕의 조칙을 거역할 수 없었으므로 결국 해산하고 말았다.
초기 의병 전쟁의 침체 요인은 이 시기에 의병장 대부분이 유생이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볼 때 반침략적, 반봉건적 성격이 매우 빈약하였다는 사실이다.

2-2. 중기 의병전쟁

1904~1905년에 이르러 일제의 침략은 더욱 노골화 되었다. 1904년 2월에 체결된 한일의정서에 의해 한국 땅에 일본군의 군대 시설이 들어서고 일본군의 영구적인 주둔이 인정되고 말았다. 그 해 8월 1차 한일협약에 의해 한국 관리로 임명될 수 있게 됨으로써 한국의 내정은 일본인에 의해 좌우될 수 밖에 없었다.

1905년 11월의 을사조약의 체결 소식이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표제로 한 황성신문의 전파로 전국적으로 알려지니 애국 여론이 크게 상승했다.
항일 언론기관의 계속적 규탄과 유생들의 상소 등으로 항일 국권 회복의 열기는 마침내 지방까지 확산되어 각지 의병의 도화선이 되었다.

중기 의병을 주도한 의병장들은 학문적 스승과 제자 관계(崔益鉉)를 이용하여 의병을 모집하기도 하였으며 활빈당 조직을 결성(梁會一)하여 그것을 의병진으로 전환시키기도 했다. 특히 향리들에 대한 불만을 이용하여 조직(白樂九)한 경우도 있다. 중기 의병이 초기 의병보다 전투 능력이 다소 보강되었는데 여러 곳에서 무기의 구입과 의병 훈련에 관한 내용이 발견

되기도 한다. 일반 의병들도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의병의 선두에서 생애를 바친 경우가 많았다.

이 시기의 의병장으로는 평민 의병장 신돌석(申乭石), 원주 원용팔(元容八), 홍주 민종식(閔宗植), 영천 정환직(鄭煥直), 정영기(鄭永基) 부자, 홍천 박장호(朴長浩), 광주 구만서(具萬西), 진보 이현규(李鉉圭), 지리산 유종환(柳宗煥), 문태서(文泰瑞)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중기의 의병은 성리학적 명분론을 극복하고, 국가적 현실을 자각하게 됨으로써 국가와 민족을 보존하려는 방식으로 발전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2-3 후기(3차) 의병 전쟁

1907년 6월에 헤이그 밀사 사건이 있었다. 일제는 이 사건을 계기로 고종 임금을 퇴위시키고, 통감부에 의한 내정 간섭을 강행했다. 7월에는 정미 7조약이 체결되고, 8월 12일에는 군대까지 해산되고 말았다. 군대 해산은 바로 침체된 항일 전쟁에 새로운 전환기가 되었다. 당시 의병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고 조직적으로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은 해산 군인들의 합류로 전투력이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평민 출신 의병장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국 군인 출신 의병장의 대표 급을 보면 울진(박준성), 인제(박여성), 여주(김봉기), 파주(조인환), 춘천(지용기), 경기(연기우), 영광(정원집), 해남(추기엽 해상 의병장), 무주(문태서), 장성(강재천), 예천(백남규), 상주(노병대), 원주(변학기), 강화(손재규), 임실(이초래), 경성(장성호), 경기(김덕제), 경홍(김명학), 황주(지홍율), 부여(민창식), 양주(황재호), 연천(현덕호), 조재호, 허 준, 오명수 등이다.

이 시기의 일본 측 기록에 의하면 1908년 후반부터 약 1년간 3,714차례 교전이 있었고, 참가 의병수가 12만 1,360명이었다는 통계로 보아 의병의 항쟁이 어느 정도 강렬했는가를 알게 해준다.

그 외 후기 의병장으로는 고광순, 고승천, 김동신, 김상대, 김수민, 김용구, 김윤, 김태원, 민치도, 박춘실, 박정빈, 심남일, 안규홍, 안중근, 윤극범, 이대극, 이학노, 이범윤, 이석용, 이은찬, 전해선, 차도선, 유진환, 홍범도, 양문칠(양치환) 등이다.

일본은 대규모로 군대를 한반도에 증원하여 수시로 군사 작전을 감행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진회원이나 불량배들을 헌병 보조원으로 특채하여 의병 진압에 나서게 하였는데 그 수가 6,600명이나 되었다. 또 한인 순사 5,000여명을 뽑아 의병을 포살케 했다.

1909년 9월부터 시작된 남한 대토벌작전 때문에 전라도 의병장(義兵將) 300여 명이 전사하고 경남도 1백여 명의 의병장이 전사하였다. 남한일대에서 2천여 명의 의병이 체포되니 후기 의병은 거의 무너져 버렸다. 전국적으로 약 5만명의 의병이 활동했다. 그후 1909년 10월부터 1918년경까지도 의병 활동이 계속되었지만, 도회를 떠난 산중이거나 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의병장으로는 김상태, 유시열, 정경태, 채응언, 강기동, 한정만, 지관식, 임병찬, 홍범도, 이진용, 전성구, 안범성 등이 활발했다.

이들은 무기 부족과 중과부적으로 만주로 가거나 체포되고 말았지만, 특히 안중근 의병장은 1909년 10월 29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여 의병의 기개를 세웠고 홍범도와 김좌진의 봉오동(鳳梧洞) 전투와 청산리(靑山里) 전투의 승리는 의병의 계승이란 측면에서

큰 성공작이라 할 수 있다.

<서부 경남의 항일 의병>

경남도 관찰사 황철은 경남 각 시군에 훈령을 내렸다. 훈령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폭도(의병을 가르킴)가 내습하면 즉시 밤낮을 가리지 말고 수비대 또는 헌병 분견소에 통고할 것.
- 수비대에 통고할 때 폭도의 수와 주(主)장의 성명, 총기소유와 내습시간을 알릴 것.
- 촌리에 습내하지 않았고 통과할지라도 통과시간을 신속히 통고할 것.
- 인근 마을에 습내할 때도 신속히 통보할 것.

이와 같은 관찰사의 노력에 의해 진주감옥에는 죄인수가 급증해 재감자 수가 250명이 되었다.

전국적으로는 내무부 성무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1909년 1월부터 11월까지 의병 체포 건수가 552명, 괴수(의병장)가 45명, 자수자가 61명이며 충돌건수가 1298건이었다는 것이다.

1910년 3월 진주시 정촌면 승동에 이태구 강도(의병) 2명이 들어 말포, 여자상의, 현미 한 말, 현금 2원 50전을 가져갔는데 한명은 군도를 휴대한 것으로 봐서 군졸 출신으로 추정된다.

삼남에서 귀순한 폭도(의병)들은 도로수축에 동원되었는데 도로공사 후 임금을 받게 되었는데 총 1904원 19전이라 하였다.

경남일보 1910년 6월 5일자에 의하면 일본관헌이 지방토벌 정책을 주민들에게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비전화를 증설한다.
- 밀고자를 장려하고 포상한다.
- 매 12회 연합 대수색을 실시한다.
- 폭도를 동정하면 마을 전체에 고통을 준다. 등이다.

의병들은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지리산, 가야산, 와룡산 인근에 숨어 밤낮으로 고생하며 한끼 죽도 먹지 못하는데 친일파 주구들은 호의호식하며 일본왕의 은사금으로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완용은 20만원 은사금을 받았고 각 대신들은 15만원 씩, 김윤식은 10만원, 각 고문들 5만원, 기타 고위직은 3만원씩 하사(분배)했다.

그 당시 쌀 60Kg이 2~3원 할 시대였으니 엄청난 은사금이었다.

경남도 전체 은사금 160만원이 배정되고 곤양군 4만 1400원, 사천군 4만 1300원,
진주 은사금 8만 3500원이 배정되었다.
각 지역 친일인사와 노인들에게 소위 일본 천황 은사금이란 명목으로 분배하니 일본이 고마운 존재로 부각되고 의병들은 아주 나쁜 자들로 인식되는 상황이었다.

한일합방이 되자 황철 안찰사를 사퇴시키고 일본이 향천휘(香川輝)가 도장관이란 이름으로 10월 9일 진주에 부임했다.

사천 축동면의 김모(60세) 15원, 강모(65세)에게 20원을 분배하고, 곤명면 정모(66세) 20원, 김두완, 이병의 등에게 각각 20원씩 분배했다.

일제가 주는 은사금을 받기 위해 줄을 대고 하사명단에 없으면 항의하여 결국 받아가는 형태가 진행되기도 했다.

일제는 의병포살에 힘을 더해 경남을 배회하던 적괴(의병장) 윤극범(尹克範)이 헌병분견소에 의해 피족되고 사천과 진주 일원에서 활동하는 적도(의병) 4명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있게 되자 곧 출동하여 사천(泗川) 축동면 대동에 살던 오상숙(吳相淑, 22세), 사천 기공면 축봉동에 살던 강선중(姜善中, 31세) 등을 체포해 심문조사중이라 했다.

안의군 신평동 거주 김성범(전성범)을 잡아 형법에 의해 교수형을 처하기도 했다.

오직 민족과 나라를 위해 의병들의 투쟁은 계속되었는데

1911년 2월 27일자 경남일보에 의하면 지난 밤(2월 26일) 사천 곤명면 흥사, 묵곡, 검정, 황덕. 삼정 일대에 적도(의병) 5명이 나타나 엽전 2백냥, 당목 등 물품을 탈거당하였다는 신고에 따라 경찰이 즉시 출동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사천 정동면 감곡리, 학촌리 일원에도 1911년 2월에 출몰했는데 5명이 주동이 되어 각자 수십 명을 모아 활동했다.

부산 수창동까지 잠입해 활동했는데 사천 정동면 출신 이찬구(李燦久, 27세), 일명 이진태(李鎭泰) 등이 활빈당이라 칭하고 대장(적괴)이 되어 이재선(李在善), 안몽생(安夢生), 정한필(鄭漢必), 이화선(李化善) 등과 함께 각 병면에서 부하 수십 명 씩 거느리고 부호들을 찾아다니며 군자금을 요구했는데, 1910년 2월 경 사천 헌병분견소에 체포되었다가 압송 도중 탈출해 다시 의병활동을 했다.

산청 향리에서 이진태의 친필서신이 발견되자 지난 1911년 2월 22일 부산 헌병대로 연락해 바로 체포되었고 압송되었다.

유명한 폭도(의병) 김수민(金守敏)의 아우 김백수(金白洙)는 2, 3년 전부터 김수민이 체포된 후에도 수민의 선봉장이라 말하며 일본군 수비병 2명을 살해하고 돌아다니며 곧 자수한다고 말하고 각지로 출몰하므로 헌병들이 향리에 잠복 중, 지난 2월 23일 거창군 헌병대에 의해 체포되었다.

1911년 3월에는 사천 헌병분견소에서 적도(의병) 5명이 체포되어 진주재판소로 이송되었다.

사천 마동 이기선(李基善)이 의병장이 되고 진주 중안동 정한필(鄭韓弼), 산청 정이양(鄭陽), 사천(泗川) 수남면(현 삼천포) 죽전동 정인선(鄭仁善), 고성(固城) 오읍면 남성진(南星珍) 등이다.

1910년 한일병탄 기념으로 소위 일본 황제(왕)의 은사금을 받은 인사들이 1911년 11월이 되자 은사금 기념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지역 친일파들, 쓸개 빠진 이들은 은사금 기념비를 세우기도 했으며 함안, 진주, 사천 등지에서는 기념조림을 조성중이라고 한다더라.(경남일보 1911년 11월 23일)

서부 경남의 초기 의병은 노응규(盧應奎)와 양한규(梁漢奎) 등이 격문을 돌리고 유생들을 규합하여 창의를 서두르면서 시작된다.

양한규는 내금위장 출신으로 전북 남원 출신인데 경남, 전북 지방 의병들을 모으는 데 성공하고, 초기, 중기에 걸쳐 지리산 북부의 유력한 의병장이었다.

신안 노응규는 함양군 안의면 당본리에서 출생하여 향교가 있는 안의군 안의면 당본리 죽정에서 성장하였는데 노이선의 차남이다. 유년 시절부터 영리하여 천자문, 명심보감을 배울 때도 우등을 차지하더니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등을 허전(통정대부 행김해도호부사) 선생에게 배움으로써 훌륭한 선비로 성장했다.

경남의 항일 의병은 동부에서 아주 미약했고, 주로 서부인 지리산을 중심으로 유생들이 주도하여 활약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초기 의병은 안의, 진주, 산청, 함양 등지에서 항일 전쟁을 전개했으며, 중기 의병은 산발적인 활동 때문에 존재성이 미약해 보인다. 그러나 후기 의병은 알려진 의병장이 50여 명, 의병 수에 있어서도 1907년 4천 5백 명, 1908년 4천여 명, 1909년 1천 8백여 명에 이른다.

청일전쟁에 이은 갑오왜란은 전 국민의 여론화로 각처의 선비들이 봉기하게 되는데 신암 노응규도 언제나 민족을 염려하는 애국 충정에서 의로운 자들을 모으게 된다.

임최수, 김재풍, 이도철 등이 친일 대신들을 처단하려 할 때 노응규도 협력하여 1896년 1월 안의로 내려온 노응규는 그 전에 연락해 두었던 승려 서재기를 선봉장으로 정하고 제자 정도현, 박준필, 최두원, 임경희(정6품 전사과), 진양출신 성경호, 유명국 등과 협력하여 무기를 준비한 후, 경상우도 중심인 진주성으로 진출했다. 이때 관찰사 조병필, 경무관 김세진은 사천 바닷가로 도주했다.

의병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수많은 백성들이 호응하였다. 그 수가 많아지니 진주 부민들은 별도로 정한용을 의병장으로 세우게 된다. 노응규 의진이 진주성 내에 유진할 때 전 찰방 오종근, 전 수찬 권봉희, 그리고 정재규 등이 수백의 의군을 이끌고 합세해 왔다.

의병대장 노응규는 진주 창의 유생으로서 국왕을 위해 몸 바칠 각오와 결의를 피력하는 창의 상소를 올렸다. 또 경남 사방에 격문을 보내니, 십여 일 만에 수천 명의 군중이 모였다. 의령에 포진한 경무관 김세진 관군을 서재기와 오종근을 보내 격퇴시키고, 진주 참서관 오현익과 정탐꾼 몇 명을 포살했다.

3월 28일(양력)에는 일제 침략의 시발점인 부산항을 공격하기 위해 김해로 진격했다. 이때 정한용, 정재일 등이 관군과 결탁하여 의병을 배반했다고 오해가 있는 것은 그 당시 상황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후손도 있다. 진주를 관군에게 내주고 노응규를 비적이라 배척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전국 의병을 해산하라는 고종의 조칙이 내려졌으므로, 할 수 없이 그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정한용 선생의 입장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노응규는 호남으로 가서 기우만 참봉을 만나 위로를 받고 순창을 지나 상경했다. 1897년 10월 27일 상소문을 올린 후 1899년 3월 19일 부모님의 상장을 모셨다. 노응규도 역시 봉건적 애국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생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1902년 10월부터 1905년까지 규장각 주사, 경남 사도 겸 독쇄관(9품), 중추원 의관, 동궁 시종관을 역임하였다.

1905년 11월 고종의 무효화 선언과 대신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을

사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을사조약은 고종의 옥쇄나 수결이 없었고, 일본 측만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내용이었다.

이 무렵 신암 노응규는 고종으로부터 시찰사의 부인(符印)과 암행어사의 마패(馬牌)를 하사받았다. 노공일과 함께 광주의 노종일을 찾아가 의거하려다 다시 태인에 거주하는 최익현 선생을 찾아갔다.

1906년 6월 4일 태인의 무성서원에는 전국에서 수많은 의군이 집결하고 있었다. 이때, 경남 의령의 조재학, 함양의 전성범 등도 참여했다. 최익현 의군이 순창에 이르렀을 때, 싸워보지도 못한 채 면암 최익현 선생 등 13명이 체포되니 의군이 해산되고 말았다. 13인 중에는 최재학도 있었다. 노응규, 노공일은 경남 창녕군 용배 등으로 피신하고, 조재학, 전성범 등은 재기를 위해 함양, 진주 쪽으로 후퇴했다.

노응규는 충북 횡간에서 의병을 모집하니 1906년 가을이었다. 의진의 조직을 정비하니, 선봉장에 엄해윤, 중군장에 서은구(함양출신 참봉), 김보운, 오자홍 등으로 편성하여 항일전을 재개했다. 이들은 경부 철도와 일군 시설을 파괴하고, 일본 척후대를 포살하는 등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그러나 1907년 1월 21일 수뇌 참모진과 함께 체포되었고 1907년 3월4일 옥사했다. 참모인 엄해윤, 서은구, 김보운 등은 7년 유형을 받고 백령도로 잡혀갔다가 뒤에 석방되었다(혹은 도주하였다).

일제는 헤이그 밀사사건을 구실로 고종황제는 황태자에게 양위하도록 하고 1907년 8월 1일 식민지 체제의 완벽한 구축을 위해 군대를 해산하도록 했다. 군대의 시위 보병 제 2연대 1대대에는 뒤에 전국 유일의 해상 의병장이 된 담양군 출신 추기엽 육군 1등 군사와 의령군 출신 남상덕 참위(소위)가 있었다.

추기엽은 소령급(1등 군사, 향관)이었으나 2연대 연병장 부근에서 전투하다가 멀리 익산으로 피신하여 의병을 모집하여 싸우다가 체포되어 유형 10년의 언도를 받고 완도로 유배되었다. 완도서 탈출하여 해남, 완도 해양 의병장이 되었다.

남상덕은 군대가 해산되는 날, 나라가 망하였으니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하며 8월 1일, 2일 이틀간 치열한 전투를 하였으나 남상덕 외 장교 7명과 병졸 98명이 전사하였다.

서부 경남 군인 출신 의병장은 안의군 서상면의 문태서(下士)와 삼가의 신중근(正校) 정도만 알려져 있다. (문태서가 하사 출신이 아니라는 김성진 편저 『문태서 연구서』도 있다.)

군대 해산은 일시적으로 침체된 의병 투쟁을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도록 했다. 이는 경남, 특히 서부 경남에서 의병들이 봉기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것은 해산된 군인들이 의군(義軍)에 합류함으로써 의병 부대는 더 조직화, 전투화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덕산 의병장 유명국(유진환)은 500여명의 부하를 거느린 지리산에서 호랑이 장군으로 호칭되었는데 1908년 8월 일군 수비대장과 교전하다 생포되었다.

서부 경남 의병장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봉근 : 하동	고제량 : 전남	권봉희 : 진주	권석도 : 함양
김대수 : 하동	김동신 : 장수(함양)	김상진 : 장수(산청)	김선일 : 울산
김성두 : 밀양	김의홍 : (구례)	김현규 : 김해	박인환 : 함양

노응규 : 안의	노성화 : 의령	문태서 : 안희(장수)	민용호 : 산청(관동)
박동의 : 산청	박매지 : 하동	박참봉 : 지리산	박춘실 : 장수(함양)
박치문 : 경남	박홍지	서명국 : 경남	서병희 : 양산
서은구 : 거창	석상용 : 함양	손기혁 : 하동(산청)	손재식 : 곤양
손몽상 : (하동)	송경도 : 지리산	신석원 : 하동	신중근 : 산청(삼가)
안범상 : 경남	양문철 : 산청(하동)	양한규 : 남원(함양)	오대근 : 거창
오종근 : 진주	유명국 : 진양(산청)	유종완 : 거창	윤승지 : 산청
윤영수 : 경남	이만용 : 산청(사천)	이백응 : 하동	이선영 : 삼가
이성노 : 경남	이학노 : 영천(산청)	임봉구 : 하동	임치지 : 하동
장석현 : 산청	장우만 : 산청	전성구 : 함양	전성범 : 함양
정일국 : 구례(하동)	정자선 : 경남	정재규 : 진주	정한용 : 진주
조기섭 : 하동(구례)	조덕삼 : 산청	조재학 : 의령	지귀국 : 삼가
차은표 : 거창	차호연 : 거창	최교로 : 곤양	신명선 : 무주
황의중 : 지리산			

※ 군명칭(郡名稱)은 출신지 또는 활동지

동부경남 의병장은 박춘백(밀양, 청도), 김춘서(양산, 언양) 정도로 그 활동이 미약했던 것 같다. 이들 65명의 의병장들은 적게는 10여 명, 많을 때는 5백 또는 천여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목숨을 건 항일 구국투쟁을 전개하였다.

특히 서부 경남의 의병들은 지리산, 덕유산 일대 깊은 산중을 무대로 투쟁하다 보니, 의식주 문제에 엄청난 고역을 치렀을 것이다. 생명을 담보로 했던 의병장들 중에서 2017년 8월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공적을 인정받아 건국 훈·포상이 추서된 분은 모두 39명 뿐이다.

전남, 전북 출신 의병장인데 부하들이 경남 지방까지 진출한 부대는 고광순, 이석용, 양한규, 정일국, 박춘실, 유종완, 김동신, 김상진, 황대연 등이며, 경남 출신의 의병장으로 전남, 전북 일대에서 활약한 분은 문태서, 권석도, 전성범, 석상용, 노응규, 정영필, 조재학, 노공일, 유종환, 유명국(유진환), 전성구, 손기혁, 서은구, 차은표, 황의중 등이다. 이들이 1907~1909년까지 서부 경남에서 500여 전투를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반일 사상을 가진 민중적지지 기반이 존속했기 때문이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각오로 싸운 의병 중에 밝혀진 부장급 명단은 아래와 같다.

노공일, 강춘삼, 김해운, 김보은, 강이봉, 김진화, 김백원, 성경호, 서은구, 서학삼, 박준필, 박화윤, 박진길, 오자홍, 엄해윤, 손마생, 박순용, 박동식, 신임전, 박주일, 전문식, 장응주, 장광옥, 이춘실, 이석표, 이용운, 이문재, 이달서, 이사필, 이제사, 정도현, 추교문, 한진수, 하준태, 최두원, 최두연, 최재학, 최정근, 조병주, 조문현, 추용구(추상관), 정재호, 정영필, 임경희, 오태윤, 황대연

하동군 악양, 옥종 일대에는 박매지, 박홍지, 양문칠, 임봉구, 손기혁, 이백응, 김대수, 임치

지, 조기섭, 손몽상, 김의홍 등의 활약이 대단하였다.

1910년 한일합방 후에도 끊임없는 항일 의병 전쟁이 지리산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의병장 신석원은 하동군 옥종 일대에서 활동 중 체포되었고(1910년 1월), 의병장 안범성의 부하인 이용운, 신임전 등은 1913년부터 1916년까지 경남 각 군에서 활동 중 1916년 1월 체포되었다.

박동의 의병장은 산청에서 거병해서 지리산 일대에서 활동할 때 50여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활동하나 점차 부하숫자가 늘어나기도 했다.

산청군 금서면 출신으로 강원도 관동창의대장으로 활약하면서 전과를 올린 민용호 의병장은 유명해 강원도 강릉에 기념비와 흉상이 건립되기도 했다.

산청 출신 조갑역(64세)은 구국운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군자금을 모집 중 1915년 6월 체포되었고 전성구 의병장은 10년간 지리산 화전민으로 숨어 살던 중 체포되기도 했다.

후기 의병은 곧 일어날 3·1운동 정신으로 계승되었다.

1908년 의병 전 상황표

도 별	전투회수(%)	전투 병력 수(%)
경 남	116(8.1%)	4,128(5.0%)
경 북	178(8.8%)	5,702(6.9%)
전 남	274(13.9%)	10,544(12.7%)
전 북	219(11.1%)	9,960(12.0%)

※ %에 전국에 대한 비율

1909년 의병 전 상황표

도 별	전투회수(%)	전투 병력 수(%)
경 남	128(6.9%)	1,804(4.2%)
경 북	241(13.2%)	5,197(17.5%)
전 남	547(31.5%)	17,579(45.68%)
전 북	273(15.8%)	5,576(14.5%)

※ %에 전국에 대한 비율

3. 결론

전국 의병 및 서부 경남의 의병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다.

초기 의병들의 활동 내력을 보면 춘천과 제천을 중심으로 연쇄적 작용에 의해 전국적으로 파급되었지만 서부 경남은 노응규를 중심으로 정한용과 함께 안의, 진주, 김해까지 진출하는 등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 의병의 성격은 전국 의병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는 반일 사상은 분명했으나, 봉건적 애국정신을 벗어나지 못한 점을 지적하

지 않을 수 없다. 초기, 중기 시간 중 노응규의 이동하는 의병전 수행은 각처 각 군민에게 자극을 주어 나중에 후기 의병장이 수십 명이었다는 것은 지리산과 덕유산을 근거로 활약한 지리적 특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앞의 도표에서 전북, 전남의 전투 병력 수는 경남 출신의 혈전이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남 의병장 수와 전투 횟수에 있어서 약 85% 정도가 서부 경남, 특히 지리산을 중심으로 항전하였다는 것도 밝혀졌다. 당시 지도자들이 모두 일어나 개인의 안정와 영달을 버리고 불굴의 구국정신과 희생정신으로 행동했다면 민족적 수치는 없었을 것이다.

1894년 7월 일본군의 경복궁 강점에서 비롯된 구한말 의병의 봉기는 이후 약 25년간 계속되면서, 우리 민족의 확고한 독립의 의지를 확인시켜 주었고, 오늘날 우리의 가슴속에 민족정신으로 살아남아 영존할 것이다.

▶ 참고문헌

독립운동사, 편찬위, 1974년.
한국독립운동사, 국사편찬위, 1989년.
조선독립운동, 김정명, 1967년.
독립운동사 자료집, 국가보훈처, 1973년.
일제하 한국 36년사, 국사편찬위, 1969년.
독립유공자 공훈록, 국가보훈처, 1989년.
고등경찰요사, 경북경찰국, 1934년.
일성록, 1907~1908년.
구한국관보, 1910~1921년.
독립운동사(항일의병사), 국사편찬위, 1970년.
고종시대사, 국사편찬위, 1969년.
독립운동사 연구, 박성수, 1980년.
한말의병 전투사, 전남일보사, 1977년.
매천야록, 황현, 국사편찬위원회.
기려수필, 송상도, 국사편찬위, 1956년.
민족의 저항, 한국현대사, 김용덕, 1970년.
진주항일운동사, 추경화, 2008년.
산청항일운동사, 추경화, 2010년.
대구복심법원 판결문.
조선왕조실록(고종.순종황제)

제2장. 사천 및 서부경남의 국채보상운동

1.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초대 통감으로 부임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내 세운 “시정개선”이라는 정책이 있는데, 그것은 ‘서천 소가 웃을’ 정도로 가소로운 작태로 보인다. 조선 말기 정부에 1천만 원 차관을 강제로 빌려주고 그 돈으로 일제가 필요로 하는 각종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이토 히로부미가 가장 우선으로 시작한 일은 경찰관서를 늘리고 군·병 출신들을 경찰과 행정직으로 대거 영입케 하고 조선인들은 촉탁 또는 임직으로 임명케 했다.

두 번째로 시행한 일은 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글과 글씨를 모르면 다스리기 어렵다고 보고, 각급 학교를 세우게 했는데 조선인들이 건립하고 졸업한 횟수와 명단을 모두 무시하고 삭제시켜 버렸다. 조선인들이 세운 학교를 비인가라는 핑계로 폐교하고 일본인 교사를 배치해 일제 식민지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진주의 경우 중안(진주)초등학교와 봉래초등학교 졸업생 명단과 졸업 횟수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제 당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제1회로 사용케 하여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세 번째로 은행을 늘리는데 처음에는 한일합작으로 조선인들을 이사, 직원으로 채용하다가 조선인들을 점차 몰아내고 일본인으로 채우고 일제하 시키게 된다. 1904년 고문정치를 실시하면서 조선경제를 파탄시키고 일제하로 예속시키기 위해 차관을 도입케 하고 일제의 식산은행, 조선은행을 설립해 모든 금융의 수부로 내 세우게 된다.

이와 같이 일제는 차관정치를 실시해 반항을 잠재우게 하고 경찰관서와 순사를 증원해 조선인을 통제하게 된다. 일본이 거류를 원활하게하기 위해 토지조사를 통해 순박한 조선인들의 토지를 빼앗아 점차적으로 일인에게 넘어가게 했다.

조선 정부가 받은 외채는 모두 1,300만 원이나 되었다. 이는 1년간 국가예산에 해당되는 거액으로 조선 정부의 세입액에 비해 세출 부족액은 77만 원이나 되는 적자예산이기 때문에 외채 상환은 거의 불가능한 경제 상황이었다.

이때 전 국민의 주권수호운동으로 전개된 것이 국채를 상환하여 국권을 회복해 보자는 투쟁이 시작되었다.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때는 1907년 2월 16일이다. 발기인 대표는 서상돈(徐相敦), 김광제(金光濟), 박해령(朴海齡)이다.

대구 광문사(廣文社) 사장 김광제, 부사장 서상돈 등이 광문사의 명칭을 대동광문사로 개칭하고 특별회에서 서상돈이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의했고 참석자 전원찬성으로 국채보상취지서를 작성하고 발표하게 된다. 당일에 2천 원이 수합되었는데 서상돈이 800원, 추교정이 500원을 기부해 활성화가 이루어졌다.

대동광문사를 조직하게 되는데 회장 박해령, 부회장 김광제, 회원 서상돈, 장상철, 강영주, 심정섭, 김우근, 서병오, 윤하선, 정재덕, 이종정, 길영수, 이우열, 강신규, 정규옥, 추교정(秋敎廷:敎鋌) 16명이다.

2. 본격적인 활동상

서상돈(1850~1913) 선생은 국채보상운동 등으로 1999년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되고 김광제(1866~1920)선생은 국채보상운동 등으로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1. 김광제 선생은 충남 보령군 출신으로 무과급제, 용양위 부사용, 동래 경무관, 사립학교 교장을 역임.

   서상돈, 김광제 등이 단연동맹회를 조직해 시·군에 격문을 보내 "2천만 동포여 한 달간 담뱃값 20전을 3개월간 모으면 1천만 원 차관을 능히 갚을 수 있다." 라는 요지로 호소하게 된다.

   1907년 2월 21일 서상돈 등이 '대구민의 소'를 창설하게 되었고 다음 날 1907년 2월 22일 서울에서도 국채보상기성회(김성희, 유문상)가 결성되었고 곧이어 전국 각지에서 기성회, 보상회 등의 이름으로 단체가 조직되어 모금 운동이 전개되었다.

   부인들도 남자 못지않게 반찬값을 아끼고 반지를 팔아 모금 운동에 동참했다.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이들은 신분의 고하, 종교 불문,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았는데 숫자로는 농민의 수가 월등히 많았으나 노동자, 차부, 학생, 아줌마, 기생, 군인, 떡장사, 유학자, 외국인, 유학생들까지 호응할 정도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2. 서상돈 선생은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재무담당 간부로 활동했고, 1907년 2월 광문사 부사장으로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고 즉석에서 800원을 내놓고 금연운동을 시작했다. 정약용 선생의 저서를 발간했다는 기록도 있다. 2016년 여름에 갑자기 서상돈의 아들이 중추원 참의를 했으니 친일파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으나 또 다른 연좌제일 뿐이다.

   국채보상 노래가 있는데 앞부분을 읽어보면 "애국심, 애국심, 대구 서공상돈 일세. 1천 3백만 원. 국채에 단연회 설립하여 마음을 발동케 하니 대한민국 분명하다. 대구 땅만 나라 땅이냐. 대한 2천만 명 가운데 서상돈만 사람인가. 이 나라 강토가 없어지면 가옥 전토 뉘 것인고…"

3. 서부경남의 국채보상 운동의 전개

대구와 부산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이 서부 경남에 전달된 때는 1907년 3월 초순이다. 신문, 잡지를 통해 이미 2월에 소식이 전달되었겠지만, 모금 운동으로 연결되기까지 약 20일간이 소요되었다.

도청 소재지 진주에서는 유향소(향교·유도회)에서 먼저 시작하고 예수교도(상업 기독교도)들이 애국 보상회에 참여하고 시장 상인들도 동참했다.

진주와 서부경남지역에서도 남녀노소, 종교불문,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동참하게 되는데 강주제(강주식), 안헌(안확), 강경호(강상호) 등이 맨 선두에 지도하고 이어 전 군수(郡守) 윤순

백, 전 사과(司果) 최동호, 전 감찰(監察) 천수현, 이상관, 전자현, 전 주사(主事) 서진욱, 전 출신(武科) 최의언. 전 참봉(參奉) 강선호, 김정수, 정재화, 전 참봉(參奉) 정경칠과 부인, 전 도사(都事) 강성원, 전 사과(司果) 하윤익, 하기용 등이 2~10원씩 기부하게 된다.

진주 시내 약국 일동 27명이 70원을 수합하기도 했다(국채보상운동 100주년 기념자료집 386면). 박현경 3원 90전, 최한섭, 정상진 각 10원 씩, 탁석수 8원, 박정숙, 임병필, 김명서, 각 3원씩, 정의화, 정상식, 안자익, 윤우은, 박재중 각 2원씩 기부했다.

진주는 경남도청 소재지로 소재지답게 대체적으로 4~5개 보상회가 조직되었다. 애국보상회 경남회, 진주애국상채소, 경남 보상 부인회, 기생조합, 유향소의 애국보상채소, 예수교인 상업 회원 등 이름으로 조직화 또는 협력화 하게 된다.

국채보상경남회는 시내 중요지역 길거리, 시장, 관공서(객사 앞 사거리) 앞에서 모금운동을 전개해 3개월 만에 거액 720원 95전을 모아 운송했다.

다시 1907년 8월 17일에는 155원을 모아 운송했다. 총액은 알 수 없다.(국채보상운동 100주년 기념자료집 제5권)

국채보상경남회는 1907년 3월 9일 취지서를 발표했는데 3명의 대표 발기인은 강주식(姜周湜), 안헌(安憲), 강경호(姜璟鎬)라고 했다.

취지서 일부를 인용하면 “나라와 국가의 근본은 무엇인가 충효입니까? 재정입니까? 충효와 재정도 없으면 안된다. 국채를 완전히 갚고 외채의 걱정 없이 함께 부모의 나라에서 평안히 지내시기를 눈물을 흘리며 삼가바랍니다.” 라고 호소했다. 사무실을 진주 대안동 1동(현 갤러리아 백화점) 강주제의 집으로 하고 3월 9일 개회식을 한다고 고지했다.

안헌(安憲)은 초명이고 마산에서 안확(安廓)으로 개명했다. 강경호(姜璟鎬)는 초명이고 뒤에 강상호(姜相鎬)로 개명했다. 그 당시 제적등본(除籍謄本)에 개명 사실이 등재되었다.

4. 사천지역의 보상운동

사천지역의 국채보상운동 역시 남녀노소, 신분 고하, 종교 불문으로 동참하게 된다.

사천시(사천군) 곤양면(1907년 당시에는 곤양군으로 보도됨)의 김필원, 이광종 등이 애국보상운동을 전개했고, 조상순(趙相淳), 조상도(趙相道), 문창현(趙昌現), 문두관, 조상근(趙相根), 최채술(崔采述 제헌의원 최범술의 숙부), 김도연(金道蓮), 백차성(白且成), 조용진(趙鏞振), 조용익(趙鏞益), 손봉구(孫鳳九), 김재묵(金在默) 등도 앞장서서 지도하고 보상금을 기부한 항일투사로 기록된다.

이광종은 부인 손씨, 아들 기환, 기용, 기진, 기호 4명도 동참케 했다.

이력으로는 곤양향교 발기인(1914. 5), 초대교장을 역임하고 곤양 청년회 고문(1920. 8)이 되고 일신여고(진주여고, 진주고) 설립 당시 1923년 3월에 거액 100원을 기부했다.

경남 18개 군 지역 악공(樂工)들이 모여 57원 60전을 수합하고 기부하게 되는데 사천군의 장기진(張基辰), 우치백(禹致伯), 한금진(韓金振) 등과 곤양군의 서영두(徐永斗), 방송철(方松哲), 이치선(李致先) 등도 거금(巨金)을 기부했다.

진주 악공들은 안영순(安永淳), 김치관, 오명국(吳明國), 신덕수(申德洙) 등이고, 하동 악공들은 박만기(朴萬杞), 이완국(李完局), 박영채(朴永彩) 등이다. 총 44명이 애국모금활동에 동참했다. 총 44명이 애국 모금활동에 동참했다.

곤양군 금양면 대현리에 사는 충의공 정기룡 임진공신의 후손들도 42명이 동참해 202원을 수합해 기부하게 된다.

그 당시에는 곤양군 관할이었으나 지금은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가 되었다.

정규영(鄭奎榮) 60원, 정채영(鄭菜榮) 20원, 정기영(鄭琪榮), 정권영(鄭權榮) 각 3원을 기부했다. 정희봉(鄭禧鳳 : 3·1운동 유공자로 정부포상이 추서된 정몽석의 부친)도 동참했다.

곤명면의 다솔사 스님들도 애국 모금 운동에 동참하게 되는데 스님들 명단은 다음과 같다. 황성신문 1907년 7월 9일자에 의하면 寺中(신도들 포함) 3원 80전을 수합하고 월초(月蕉), 환허(幻虛), 영암(影庵), 설재(雪齋), 봉문(奉文), 무겸(武兼), 경우(景祐), 상연(相連), 지흔(芝흔) 9명의 스님과 신도들이 6원 50전을 수합하여 송금했다. 경남 합천군 해인사 스님들과 신도들 90여 명이 1907년 6월 초순과 중간에 68원 40전을 모아 발송금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곤양군(곤양면)에는 형제, 친척들이 동참한 경우도 많은데 김종오(金宗五), 김춘오(金春五), 김문배(金文培), 김록배(金祿培), 추명서(秋明瑞), 추경서(秋景瑞) 등 4촌 또는 형제들이 동참해 친·인척들을 독려하고 적극성을 보이자 총 228원 96전을 수합하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5. 국채보상운동의 실패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2월 16일부터 1908년 가을까지 계속되고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 모금액이 외채를 갚을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일제는 보상운동이 단순하게 왜채보상운동으로 그치지 않고 국권회복 운동과 반일투쟁으로 판단하고 탄압을 시작하게 된다.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한 양기탁을 공금횡령죄라는 명목으로 구속하고 보상금 전액을 몰수해 버렸다. 양기탁은 결국 무죄로 석방되었으나 보상금은 돌려주지 않았다. 일제는 강제로 차관을 쓰게 하고 일제의 침략정책에 사용하고 애국, 애족정신으로 모은 모든 돈을 빼앗아 버렸다.

고성군과 서부경남에서도 신분고하, 종교불문, 남녀노소가 모두 보상운동에 떨쳐 일어났으나 서울에서 가짜 횡령사건이 발생하자 일시에 중단되고 말았다. 국채보상운동은 경남 각지와 깊은 산중과 해안에서도 전개되었고 약간의 돈을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내면 애국(愛國), 애족(愛族)이 된다고 여기고 열심히 수합했다. 일제의 탄압과 간섭으로 중단되자 이때부터 경남도민들은 실의에 빠져 일제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여기게 되었고 친일로 돌아서는 이들이 점차 많아졌다.

고종황제가 양위 조칙을 발표하자 정부의 힘이 미약함을 알게 되었고 1907년 7월 24일 정미7조약으로 군대가 해산되고 의병들이 산중과 해양에서 투쟁한다는 소식이 수시로 들려 왔으나 일제보다 더 큰 세력이 오기 전에는 일제 손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일제 당국에 의해 촉탁이나 임직으로 채용되면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다. 혹시 정식 직원(훈도, 부훈도, 순사, 군청직원, 도청직원)으로 임용되면 일본인보다 더 철저한 주구(走狗)가 되어 날뛰게 된다. 조선 주민들 앞에서 철저한 친일파가 되어 위압적 자세로 임하게 된다.

어떤 이들이 1910년 8월부터 1945년 8월까지 일제강점기로 계산하고 35년 몇 개월이라고 말하지만 1908년 보상 운동이 실패하고 군대가 해산되자 이미 일제 강점기가 시작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일합방(병탄) 1910년 8월, 1년 전에 벌써 일본인 10만 명이 조선 전역에 퍼져 살았고 조선인들은 일제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몇 년 사이에 1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만주, 중국, 러시아 등지로 이주했다는 기록이 있다.

일제가 패망 후 일본으로 가면서 일제 당국자들은 다시 온다고 장담했고 조선인들의 자세가 나약하다고 놀리고 있다. 지금이라도 일제와 대항 할 힘을 기르고 남북통일을 달성해 고구려, 발해, 부여 땅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연구는 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서부경남지역의 위대한 항일투쟁, 국채보상에 대하여 전혀 언급되지 못했으며 별단으로도 연구되지 않았다.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성금 모금 과정과 개인적 경험, 투쟁 기록, 개인 일기, 일제가 일본으로 반출한 문서 등이 발견되면 구체적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믿는다.

제3장. 일제하 사천청년운동사

<발생 원인과 배경>

3·1운동 이후에 전국에서 수천명의 청년들이 하나의 구심체를 구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일단 만나서 무엇인가를 해 보자는 의견을 따라 조선청년회 연합회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가지게 되었다.

일제가 폭압정치에서 문화통치 방식으로 선회하게 되자 합법적인 방법으로 청년운동이 변환적 청년운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1920년 6월 28일 서울 명월관에서 50여명의 대표들이 모여 조선청년회 연합회 기성회를 발기하였다. 이 때 일반 사회의 여망이 높았기 때문에 민족적 사회학적으로 기대에 의해 내부 분열을 무마시키는 계기가 되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선청년연합회 기성회의 임원으로 집행위원, 서무부, 경리부, 사교부, 지방부 등을 조직하였다.

집행 위원장 오상근(吳祥根), 집행위원 윤자영(尹慈瑛), 이영(李英), 재무상무위원 안확(安廓), 교무 상무위원 장도빈, 안준, 장덕수, 박일병, 권영락, 최종철, 박해돈, 이일, 장기욱, 이시완, 김명식 등으로 조직되었다.

이사장은 고용환, 이사로는 이인선(女), 주기철, 김압호, 박영석, 배면하, 박상설, 신영희, 이영재, 강창오, 임학찬, 장인환, 이동혁, 이예용, 김철수, 박봉수, 김우범, 허성묵, 박영모, 여병섭, 한용진, 이춘재, 유병운, 김탁, 인건, 박채우, 곽현진, 신기익 등이다.

1922년 3월 1일부터 6일간 조선청년연합회 모임이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 집행위원장은 정노식이고 상무위원 3명, 집행위원 16명을 개선하였다.
부산 출신 김철수와 50여 명이 참석했는데 지방 대표가 20명이었다. 첫날은 임시의장 선출, 경과보고, 3일에는 임원 선거, 4일에는 예산안 심의 지방의 건의사항, 5일에는 의안 토의와 보고 등이 논의되었다.

사기 공산당 사건 관계설로 제명 건을 제출하자 대혼란이 생겼지만, 그 의안은 폐기 되었고 새 임원 정노식(鄭魯湜) 등을 불신한다고 했으나 이 안건도 폐기되었다.
개선된 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집행위원장 정노식, 상무위원 최순탁, 김철수, 고용환, 집행위원 유세광, 김탁, 이춘재, 이명섭, 조종구, 박영석, 이시완, 김종범, 강제모, 배종철, 박운표, 남백우, 어선형, 고원섭, 이만규, 여병섭 등이다. (서부 경남 출신 2명 포함)

비슷한 시기에 대구에서 3월 9일~11일 2일간 남선노농동맹이 개최되었고 이곳에서 14명의 중앙상무집행위원이 선출되었는데 사천의 박종실(朴琮實), 하동의 조동혁(趙東赫), 진주의 박태홍(朴台弘)이 포함되었다.

1924년 1월 27일에는 학생과 청년 100여 명이 모여 조선노농대회 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서울 청년회의 별동조직이었다.

이곳에서는 집행위원 11인이 조직되었다.

전국적인 모임이 먼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지방에서 시 군별 조직과 더불어 서로에게 힘이 되고 기초가 되는 일이므로 이와 같이 전국 모임에 참석한 서부 경남 인사들의 의욕을 높이 사지 않을 수 없다.

1920년부터 1929년까지 문화적 항일투쟁 계몽운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으니 약 9년간의 청년 활동을 궁구해 보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과 본받을 수범이 무엇인지 연구·조사해 보았다.

〈사천지역 청년회 창립〉

사천지역 청년회가 창립된 시기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가 없어 알 수 없다.

그러나 경남 각 시·군별 청년단체들이 1920년 전반기에 창립되었으므로 사천 삼천포 지역도 1920년도에 창립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동아일보 1921년 5월 24일자에 의하면 사천청년회 제2회 춘기 운동회가 개최되었다 했으니 그 이전 1920년 전반기에 창립되었음이 거의 확실하다. 전국대회 참석한 박종실 선생이 지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제1회 춘기 운동회가 1920년 전반기에 개최되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즉 사천청년회도 1920년 전반기에 처음으로 창립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이때 사천청년회관도 신축되었을 것으로 본다. 1922년 5월 8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사천청년회관이 증축되었다고 함은 1920년도에 처음 건립 또는 새로 구입하고 1922년 5월에 증축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천청년회는 1922년 4월 3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장 서덕주. 부회장 구성조가 선출되었다.

사천청년회는 진주시 문산면의 애우회와 축구 경기를 개최하고(1922년) 고성청년단체와 축구경기, 테니스 경기, 강연회 등을 개최하여 체력향상, 지식 향상을 기하였다.

사천읍 방향과 삼천포 지역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각기 다른 단체 이름으로 발족되었다.

삼천포청년회에 대하여 1921년 9월 10일자 동아일보에 보면 순회 강연단을 조직하여 서부 경남지역으로 다니게 되는데 도처에서 대환영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삼천포청년단체도 1920년도에 창립되었다는 뜻이다.

1922년 6월에는 순회 강연단이 각지로 다니며 강연을 실시했고 주된 강사는 박연동, 강주수 등이라고 했다.

사천 삼천포 청년들은 축구대회, 정구대회, 야구대회 등을 개최하여 체력 단련과 친목을 다졌음을 알게 해 준다.

야학을 개설하여 후배들과 지역민들에게 글과 글씨를 모르는 까막눈을 깨우치는 봉사를 했으니 참으로 훌륭한 일이다.

그 당시 청년들은 나보다 남을,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

는 건전한 정신을 가졌음을 보게 된다.

조선일보 1924년 12월 14일 자에 의하면 삼천포. 고성지역 주민들이 시민대회를 개최하고 수백 명이 운집하여 경남도청을 이전하는 일을 방지동맹회 각 지부를 설치하고 총독(總督)과 정무총감에게 전보를 보내기로 했다.

진주의 별동대 적심단(赤心團)을 조직해 사천으로 행진하고 삼천포까지 자동차로 행진하기도 했다.

청년들은 야학교를 개설해 문자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애국 강연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청년회가 애국 애족 단체라고 말할 수 있다.

야학교는 예수교(사천) 여자야학교가 활성화되었고 오늘날 자료가 부족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

청년회에서 주관한 야학회 또는 노동야학회가 있었고 사천 광명야학회는 1922년 봄을 맞이하여 원족(소풍)을 다녀오기도 했음을 알게 해준다.

청년회원 중에 강사가 선정되어 강연하기도 하고 외부 도는 서울 지역 강사를 초빙하기도 했으며, 향리 출신이 일본 유학을 갔다가 귀국하면 방학을 이용하여 바로 초빙해 강연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 당시 육체적 노동시간이 길고 피곤해 쉬는 시간이지만 야간을 이용하여 강연을 실시해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운집하였고 평균 2~6Km가 넘어도 한·두 시간 듣기 위해 도보로 참석했다고 하니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삼천포무산(재산 없음) 청년동맹에서는 11일 제1회 정기대회를 개최했는데 '우리 동맹은 프로레타리아의 진실된 최고 목표를 향해 최후까지 돌진하는 동시에 부단한 노력과 굳건한 투쟁으로 역사적 필승의 조건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비판한 것이라는 의기(意氣)양양(揚揚)한 개회가 있은 후 결과 보고가 있었고 집행부 선거가 실시되었다. 임시의장에 정혁, 서기 이인규, 사찰 김기홍을 당선시키고, 삼세 삼창으로 폐회했다.

조선일보에 보면 청년동맹원 재판을 하면서 전 조선 민중의 의사를 무시하고 공안방해라는 이유로 공판 공개를 금지하자 경무국장에게 항의문을 발송했다.

(조선일보1927년 10월 16일 1929년 8월 29일)

사천청년회는 지난 1월 1일부터 사천청년동맹은 창립준비위원장을 조직하고 박남준의 개회사가 있었고, 이동우의 경과보고가 있었는데 삼세 삼창으로 폐회했다.

사천청년동맹 위원장 이동우이며 위원은 강휘생, 박남준, 이선동, 박남섭, 정태우, 배형윤, 김학권, 전종옥, 목창섭, 김봉현 등이다.

삼천포농민조합원 4명이 일경에 잡혀 검사국으로 송치되었는데 그 사유는 '삼천포농민조합에서 금년 봄에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에 있었던 동양척식(주)의 논 4두락을 공동 경작하였는데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체포(1929년 11월 4일)되어 최갑환. 김기현, 최효근, 남 형 등 4명은 지난 22일 진주 검사국으로 압송되었는데 죄명은 업무방해죄로 무리한 지주들의 비행에 있다하여 일반인들 4명을 고소한 동양척식(주)의 농감 정두호를 비난한다더라.

(조선일보 1931.9.14. 1931. 9.29)

경남 삼천포에서는 수일 전부터 각 마을 구장들을 통해 삼천포농민조합원들에게 탈회를

강요한 사실이 있으니 그 자세한 내용을 들을 때 본 월 18일에 삼천포주재소 당국에서 본 읍 구장들을 불러 각 동리에 농민조합원들에게 탈회를 의뢰한 사실이 있었다.
(조선일보 1933년 2월 28일)

이는 일제가 만주와 중국으로 진출·침략하기 위해 조선 내의 청년들과 청년단체들을 단속할 필요가 성급했기 때문이었다.

1차적으로 각 마을 구장을 통해 각 단체에서 탈퇴를 권하고 2차로 검거와 압수를 하기 위한 전 단계가 시작된 것이다.

삼천포농민조합 간부 최갑환 외 4명이 업무방해로 경찰서에 유치시킨 다음 조합회관에서 조합원 명부 규약과 다수 서류를 압수해 갔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1931.9.29.)

삼천포청년동맹 지부 설치대회가 3차례 금지당하였고 지난 24일 오후 9시경 임시회관에서 최효근 회원의 사회로 제4회 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면대회를 8월 27일 개최키로 정하였으나, 25일 오후 9시에 정사복 경찰들이 임시회관으로 쳐들어와 대회의안을 등사해 둔 서류를 압수하고 25일 오후 1시경 준비위원들을 피체 해갔다.

1920년~1928년 시대처럼 마음대로 개최하고 토론하며 전단지를 돌리는 시대가 이미 지난 것을 청년들이 감지하지 못한 것 같다.
(조선일보 1929.8. 29)

삼천포청년동맹에서 집행위원회를 수차례 개최하려다가 경찰이 무리하게 금지함으로 청년들이 여러 대책을 강구중이다. 동 준비위원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박순철(朴淳哲), 서무재정부 전석원, 박영수, 조사정의부 정한구, 탁철, 선전부 전석구, 황달봉 등이다.

삼천포 청년동맹원 3인은 벌금 30원이 지난 6일 선고되었다.

삼천포청년동맹 준비위원장 강봉우 외 3인은 치안유지법 위반 및 출판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1년 구형한 다음 지난 6일 부산지법 진주지원에서 각각 벌금 30원이 언도 되었다.
(조선일보 1929.11.9.)

일제가 금하는 집회를 가지고자 하므로 일제 경찰은 사천. 삼천포 청년들을 검거하고 검사국으로 송치하게 되는데 지난 10일 오후 5시 사천경찰서에서 돌연 경부보 이하 고등계가 총출동하여 삼천포에 자동차로 급행하여 청년동맹 간부들 중심으로 박대영(이금복 남편), 박영수, 배장영, 탁 철, 김석원, 전석원, 배성기, 배두환 등 9명을 총검거하였으므로 삼천포 일대는 물정이 소연해졌다.

9명은 검거된 채 취조를 받게 되는데 사회 단체의 집회 금지를 불응한다는 이유로 고압적인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1931.9.14.)

1973년 발행 <한국청년운동사>에 의하면 391~392면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삼천포청년연구회가 1922년 4월 30일 제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장 성중호(成重鎬), 부회장 박영주(朴永周), 재무부장 김을수, 덕육부장 장지학, 지육부장 강한수, 체육부장 원철상 등을 선출했다.

1년 후 1923년 4월 22일 제6회 정기대회가 개최되고 회장 장지린, 부회장 손우상, 총무부 박두석, 재무부 천병식, 자육부장 박봉준, 체육부장 장지제 등이고 평의원 강상기, 성중기, 윤진권, 원정상, 박영주, 김정원, 박채규, 고인주 등을 선출하였다.

삼천포지역에서는 1925년 1월 11일 혁신총회에서 다음 청년들이 선출되었다.

회장 김우열(金瑀熱), 부회장 손우상(孫羽翔), 총무 최재문, 지혜부장 강봉수, 덕육부장 강봉수, 체육부장 김영태, 기록부장 문태동 등이고, 평의원은 김홍득, 장지린 외 5인이다.

1925년 5월 10일 혁신 후 제1회 정기총회에서 다음 청년들이 임원이 되었다.
회장 천병식(千炳植), 부회장 박두석, 총무 강금수, 덕육부장 강봉수, 지육부장 여중기, 체육부장 장지린, 평의원 장지린 외 6명을 선출했다.

통영경찰서에서 일경들이 청소년들을 특별한 이유 없이 잡아 가거나 강금하는 일이 잦아지자 삼천포, 사천 청년들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항의하는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사천·삼천포 청년들의 주된 사업은 유치원을 경영 또는 지원하는 것이었다. 각 마을에 야학교를 개설해 가르치는 일도 중요한 일이었다.

청소년들이 지식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야 개인을 보호할 수 있고,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항하거나 지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문맹 퇴치에 앞장선 사실을 알 수 있다.

일제와 싸우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고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가르치고 개인적으로 장사를 하더라도 배워야 한다는 점을 가르치자 못 배운 청소년들이 마을마다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가끔 외부 강사가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강연장이 차고 넘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1930년 9월 14일 삼천포청년동맹 제1회 정기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임원들이 선출되었다.
회장 황달봉(黃達鳳), 정치부 최효근, 최홍석, 조사부 김 홍, 황달봉, 조직부 최홍석, 소년부 배장영, 체육부 이봉필, 서무부 김석귀, 김만상, 여성부 탁 철 등이다.

청년회가 아니고 청년동맹이라 함은 사회주의적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 사천·삼천포 뿐만 아니라 전국적 현상으로 1925년부터 발생한 사회주의가 상당한 기세를 부리기 시작해 1928년이 되면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와 마르크스 사상이 상당한 힘을 가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을 발휘하게 된다.

청년회보다 청년동맹이 힘이 있어 보이게 되는데 사천· 삼천포 청년들도 청년동맹을 조직함으로서 적극적으로 일제와 대항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되었다.

그러므로 황달봉, 배장영, 최효근 등 전투적인 청년들이 앞장서서 삼천포청년동맹을 조직하였다.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있거나 불만이 있는 경우 즉시 면사무소 경찰주재소로 달려가 민원을 해결해 주거나 직접 방문해 항의하고 해결해 주는 적극성을 보였다.

이와 같은 적극성은 곧 일경 측에게는 반항아로 비쳐 지고 세상 돌아가는 낌새를 모르는 철없는 행동으로 보였을 것이다.

일제의 방침이 개인, 단체 행동을 엄중하게 감시 감독하는 당시였기 때문에 충돌 할 수 밖에 없었다.

<경남 청년연맹과의 관계>

각 시·군마다 청년회가 창립되었고 5~6년간 활동하게 되자 각 시·군별 정보교환, 교류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발전적으로 경남도 단위 청년연맹 창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1925년 1월 마산에서 경남 청년연맹이 발기하였으나 사천청년회와 진주청년회는 일경의 방해로 참석하지 못했다.

1925년 11월에 다시 도 단위 모임을 위하여 준비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천 박두석, 강금수 등 총 90여 명이 참석하였고 사천 청년들은 집행위원 겸 교육담당으로 선임되었다.

그동안 일제의 방해 공작으로 도 단위 모임은 개최되지 못했는데 1927년 10월 29일 간담회를 열기로 했으나 그조차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

1920년 초기에는 집회 신고하면 바로 승낙해 주었던 상황과 완전 다른 정책 때문에 혼돈하고 충돌하게 된다.

1928년 2월에도 도 연맹대회를 개최하려고 집회 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되었고, 할 수 없이 얼굴을 서로 대면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대회를 개최키로 하고 본부를 진주에 두기 결정했다.

이 대회에서 고성청년동맹위원장 천두상이 경남도 대표가 되고 사천의 이동우, 진주의 정창세, 강수영 등이 위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때 사회주의자 성격이 짙은 화요파 지도자 고경인(高景仁), 박태홍(朴台弘), 정병채(鄭秉采), 박원석(朴尹錫) 등이 활동하였다.

1928년 4월 29일 진주시 계동 소재 진주청년회관에서 경남도연맹대회를 개최하여 사천의 이동우, 진주의 김기태, 강수영, 하동의 김계영, 마산의 김형윤 등이 집행위원으로 선임되었다.

1929년 6월 11일 경남도 연맹이 일경의 위협과 탄압으로 또다시 서면대회가 되어 버렸고 사천의 이동우, 진주의 정창세, 강수영, 김기태, 고성은 천두상(해방 후 경남경찰국장)등이 집행위원으로 선정되었다.

일제는 시·군의 활동은 각 경찰서에서 감시 통제가 가능하나 점점 확대되어 경남도 단위로 활동하게 되면 일제 측에서 감당하기 어렵게 되고 총독부 방침도 아니었기 때문에 뒤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 문제로 어려워진다는 것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각 시·군 청년회원들이 도 단위 연맹에 참석할 수 없도록 시·군에서 출발 자체를 금지시키고 있었다.

직접 얼굴을 보지 않고 서류상으로 서로 왕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서면대회를 개최키로 했으나, 계속해서 수년간 개최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없었고, 구체적 의견 개진을 들을 수 없었다.

1928년 4월 서면대회 제1회 집행위원 모임이 결정되었으나 이때 간부들 7명(김계영, 전혁, 배상현, 천두상, 전갑봉(고성), 최돈, 강수영)등이 구속되어 대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1929년 6월 진주에서 개최된 제2회 서면대회를 끝으로 경남 연맹대회를 개최되지 못하고 말았다. 임원 강수영, 전갑봉, 천두상, 최돈, 전혁, 김계영 등이 피체되어 옥고를 치르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장소를 정하지도,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니 의견을 교환이나 토의·토론은 물론 각종 정보 또한 서로 교환할 수 없으니, 안건을 세우거나 일을 진행할 수 없으니 일제를 타도하는 일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일경(日警)은 청년회원들에게 명하기를 자택에서 출발할 때 경찰서에 보고하고 오후에는 무슨 일로 어디에서 누구와 만나 무슨 의견을 교환했는지 상세하게 보고 하도록 요구하여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총독부는 1928년 후반부터 전국 청년단체들을 엄중 감시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했고 1929년 전반기까지는 사전·사후 보고만 하면 집회가 가능했지만 1930년 이후에는 모든 모임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더욱더 경상남도와 같은 도 단위 모임이나 조직은 완전히 차단되었다. 각 시군 단위 청소년 단체도 1929년까지 활동이 가능했고, 1930년 이후에는 청년회, 청년동맹, 신간회, 농민운동 등의 활동이 거의 금지되었다.

문맹 퇴치를 위한 야학교 운영하고 가르치는 일은 허용되었으나 제약이 심했고, 그 역시 사전에 보고하고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했다.

2, 3명 이상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경찰이 입석하거나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순수한 학문의 범위를 벗어나 일제를 비판하거나 식민정책을 비판하면 즉시 체포해 유치장에 감금해 버렸다.

작은 비판도 허용되지 않았고 유치장에서 엄중한 조사를 받고 자술서(시말서)를 쓰게 하고 잘못을 인정하면 석방하고, 계속해서 비판하고 반항하면 즉시 혹독한 고문을 자행하며 검사국으로 송치했다.

<사천, 삼천포 청년들의 활동상>

삼천포는 경남의 출입구이며 사천의 관문으로 어업. 농업이 활발하고 풍부하여 육산물은 연간 4백만 원에 달하였고, 해산물은 연간 5백만 원에 달하여, 고성·진주 사이에 매일 8회 자동차가 왕래하고 부산과 목포까지 이어진 연안선과 발동선이 왕복 15~17회 이어지고 남해 창선으로 매일 8회 왕복하는 등 물류량이 많았어나 제반 설비가 부족해 백사장에 대한 매축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매축 평수가 7600여 평, 공사비가 1만 5천여 원으로 해안선과 방파제 공사가 시작하게 되었다.

이때 삼천포 청년회에 소속된 장응상은 고(高)면장이 개회사를 하자 1926년 2월 15일 시민대회를 개최하고 지방 발전을 위하여 열변을 토하고 번영회를 조직할 것을 제안해 번영회 임시의장에 당선되었다. (동아일보 1926. 2.26)

삼천포 해안 매축공사는 1927년 7월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일하는 이들은 주로 삼천포 사람들이었으나 부족하면 중국인 10여 명을 사용하되 일당은 90전~1원으로 결정했다. 삼천포 청년들은 집에서 놀면 무엇하나 조금이라고 벌자라는 심정으로 고생을 각오하고 앞장서서 일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 (조선일보 1927.7.6. 동아일보 1927.7.6.)

삼천포 청년회에서는 지난 11월 14일 청년회관에서 제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시의장 여중기(呂仲起)를 선출하고 다음 사항을 결의 하였다.

1. 노동야학회를 영구적으로 유지한다.
2. 회비 정비에 관한 건
3. 보통학교 증설. 의연금 징수에 관한 건 (동아일보 1926.11.20.)

사천 삼천포 기자단을 조직하게 되는데 동아일보 삼천포지국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는데 위원 강봉수의 개회사, 임시의장에 문태동을 선출하고 경남 기자단에 가입키로 했다.

기자단의 강봉수, 문태동 역시 청년회 임원을 겸하였으므로 기자단과 청년회는 밀접한 관계였을 것으로 확실하다. (동아일보 1927. 5.16)

사천기자단 위원회는 지난 1927년 7월 31일 조선일보 지국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는데 통영 3·9회 폭행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실행위원으로 정순종, 강휘생을 선정했다. (동아일보 1927.8,4)

이 사건은 일제가 동아일보 통영지국을 습격해 지국장을 죽인 사건으로 필화 사건으로 연일 보도된 사건이다.

사천 삼천포 기자단이 1927년 5월 10일 창립되었는데 임원들을 보면 모두 청년들이다. 개회사 임시의장 임원이 모두 청년들이기 때문이다.

서무부 임명종, 문태동, 사회부 강봉우, 박남준, 강휘생 등이다.

1927년 6월 강원도 철원에서 일본인 등택장태랑藤澤帳太郎이 조선인 여아를 대검으로 무자비하게 절각 혹형한 사실이 알려지자 철원 인사들 은희송, 문양섭, 이용수 등 20여 명이 검거되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삼천포청년회 이름으로 경고문을 발송했다. (조선일보 1927.7.16.)

삼천포 청년들은 야학교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었고 체력향상을 위해 축구대회. 정구대회를 개최했으며 제3회 남조선 개인 정구대회가 2인조로 남해지국 주최로 남해공립보통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동아일보 1929년 3월 24일에 개최되었고 1929년 3월 2일자에 예고로 보도되었다)

조선소년총동맹 경남도소년연맹 제2회 정기대회가 1928년 7월 28일 진양에서 개최되었으나 김철수 사회, 박해쇠의 개회사, 임시의장 김형윤, 서기 이재봉, 박석정 등을 선출했다. 그러나 신간회 본부에서 보내온 축전의 낭독은 경찰이 금지하기 때문에 실시되지 못했다. (동아일보 1928. 8.1)

경남소년연맹 사무실은 마산시 해운동에 있었다. (동아일보 1928.8.26.)

삼천포 청년유지들이 발기하여 사천청년동맹 삼천포지부의 창립대회를 개최키로 했으나 일제 당국이 갑자기 연기했다. 또 다시 개최 날자를 정했으나 일경은 연기를 통보해 옴으로서 개최되지 못했다.(동아일보 1929.8.28.)

사천군 삼천포에서는 지난 8월 22일 삼천포청년동맹 창립준비를 하다가 금지당하고 서면

대회를 위한 회칙을 인쇄하여 각 회원들에게 배부 하였으나 모든 서류를 압수당하고 준비위원 4명은 검거되어 사천경찰서로 압송되었다. 압송자 이름은 집행위원들 박영수, 이보모, 손형규 등이다. (동아일보 1929.8.30.)

삼천포청년동맹 긴급회의를 서면으로 하려다가 7명이 검거되었고 또다시 2명이 검거되어 사천경찰서로 압송되었다. 2명은 최흥석, 강몽우 2명이다.(동아일보 1929. 9.2)

삼천포 청년회에서 제2회 긴급집행위원회를 지난 2일에 10명 중 6명은 석방되고 4명은 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 최효근, 황달봉, 박영수, 강몽우 등이다. (동아일보 1929. 9.7)

삼천포청년동맹 사건의 공판이 9월 26일 개최키로 하여 삼천포 지역민 2백여명이 진주법원 앞에 찾아갔으나 일본 검사가 서울로 갔기 때문에 21일로 연기되어 청년회원들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채 귀향했다. 결국 손형규, 최흥석, 김점수, 김홍 등은 석방되고 강일산(몽우), 최효근, 활달봉, 박영수 등은 송치되어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다. (동아일보 1929.10.20.)

삼천포청년동맹 사건은 검사가 1년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11월 6일 등목藤木 재판관은 벌금 30원을 언도하였다. (조선일보 1929.11.8. 동아일보 1929.11.9.)

벌금 30원은 석방된 청년회원 삼천포청년동맹 준비위원회를 1930년 2월 15일 청년회관에서 개최하고 2월 18일 노산(魯山)공원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동아일보 1930.2.20.)

삼천포청년동맹에서는 벌금 30원이 언도되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1930년 9월 14일 제1회 정기대회를 개최하고 임시의장 황달봉이 사회자가 되어 임원을 개선하였다.

위원장 황달봉, 정치부 최효근, 최흥석, 조사부 김홍, 황달봉, 조직부 최흥석, 소년부 배장영, 체육부 이봉필, 서무부 김석구, 김만상, 여자부 탁철. (동아일보 1930.9.23.)

경남소년연맹 상무집행위원회가 마산에서 개최될 때도 삼천포 청소년들이 참석했다. (동아일보 1930. 11.12)

경남소년연맹 위원회가 지난 3월 20일 의령소년연맹에서 개최되었고 사천지역 청소년들도 참석했다.(1931년 4월 11일)

1930년도에 소년연맹 도(道)대회를 개최할 수 있음이 신기한데 그것도 의령. 마산 등지로 돌아가면서 개최됨은 일제가 나이 어린 소년들은 일제에 대하여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고 집회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모임은 준비 모임이나 본 행사 등을 무조건 못하게 방해하고 원천 봉쇄하던 일제가 소년들의 모임을 허가해 준 것은 나이가 어려서 일제 당국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1932년부터 도 단위. 시군 단위 행사는 허가대상이 되지 않았고 원천 봉쇄되고 간부들은 집 밖으로 출입이 금지되었다.

사천 곤양면 유치원은 애국청년 조용익(趙鏞益)선생이 갑자년(1924년) 5월에 설립해 약 5년간 운영할 때 사천군수의 지원을 받아 왔으나, 한석명 군수가 취임한 이후에는 100원 지원금에서 50원으로 줄고 또 지원해 주지 않아 경영난에 빠졌다고 보도되기도 했다.

이후 곤양유치원은 계속하지 못하고 문을 닫고 말았다. (동아일보 1930.4.6.)

삼천포 청년들과 유지들은 야학교에 대하여 열정을 다하였는데 삼천포 대방리 노동야학회가 대정 5년(1910년) 4월 1일 이후로 계속 이어졌는데 비용 관계로 폐쇄할 지경에 이르자 지

역 유지 송호묵(宋鎬默), 김용우(金容佑) 양씨가 비용 일체를 자부담키로 하고 교편은 같은 동네 김황오(金黃午), 송부헌(宋富憲) 양씨가 맡아 교수키로 했다. (동아일보 1931년 4월 29일)

사천군 정동면은 보통학교가 없어 보통학교 설립기성회를 조직하고 추진했으나 수년간 흉작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었다.

이때 지역 유지 애민. 애족의 최보경(崔保卿)씨가 1천 2백원 거액을 자부담키로 하자 교실을 신축하고 곧 개학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동아일보 1931년 5월 3일)

사천노동조합은 수리조합공사를 진행하는데 역원회를 조직하게 되었는데 총무는 구성식(具聖植), 재무 구윤조(具允祖) 청년들로 결정하였다. (동아일보 1931년 5월 10일)

1931년 4월 1일부터 읍동면을 정동면으로 읍서면을 사남면으로 읍남면을 용현면으로 변경했다. (동아일보 1931년 5월 20일)

사천보통학교 20주년 기념 대운동회가 6월 1일 개최되는데 그렇다면 1911년에 개교했다는 뜻이다. (동아일보 1931년 5월 31일)

(사천초등학교 연혁에 보면 1905년 7월 30일 사립 명달학교 설립. 1911년 6월 1일 사천공립보통학교 개교라고 기록되었다)

경남소년연맹 확대 집행위원회가 양산에서 개최하려다가 함안에서 6월 18일 함안소년동맹회관에서 개최키로 했다. 박승표(朴承杓)가 사회를 보고 집행위원을 보선했다.

이재근(李在根), 김영욱(金榮旭)을 보선하고 7월 25일 대회를 위한 준비위원은 조진경, 박근식, 김원용. 이태식, 박남기 등을 선정했다.

(동아일보 1931년 6월 23일)

1931년 7월 18일 경남 소년연맹 확대위원회가 함안에서 개최되었다.

3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키로 결정 했다. (동아일보 1931년 6월 24일)

사천기자단 창립대회가 지난 6월 20일 사천 곤양노동회관에서 개최되었다.

한무영(韓珷榮)의 개회사, 조경제의 회원 점명이 있었고 의장에 조경제, 서기 한무영이 선출되었고 의안 및 토의원으로 조경제, 박기종, 박영진, 조순제, 한무영 4명을 뽑았고 안건은 기자 채용건, 기자연맹 정기회의건, 조선인 생활상, 통계의 건, 사천군 내 야학교 문제, 지주와 소작인의 문제 등이다.

이를 위해 집행위원장 한무영, 위원들 조경제, 박기종, 박영진, 정한영, 조원제 등을 선정했다. (동아일보 1931년 7월 30일)

동아일보 삼천포지국에서 면장 송만갑, 화중선, 김추월 등을 초빙해 독자 위안회를 7월 26일 개최했다. (동아일보 1931년 7월 30일)

경남 소년연맹 제3주년 기념대회를 경남 김해에서 개최키로 했으나, 경찰당국이 불온 집회라고 금지시켰다. (동아일보 1931년 6월 28일)

경남소년연맹 제4회 정기대회를 7월 26일, 27일 양일간 마산에서 개최키로 결정하고 삼천포, 김해, 함안, 통영, 진주, 창원 등지에서 대의원들이 모였으나 25일 마산경찰서에서 돌연 금지시키고 대회 준비위원들 3명을 경찰서로 소환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김원동, 한성주, 박근식 등을 잡아 유치장에 감금했다.

(동아일보 1931년 7월 29일)

경남소년연맹 확대위원회가 경남 김해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나 집회 금지로 실시되지 못했다. (동아일보 1931년 9월 3일)

지난 8월 5일 삼천포경찰서에서는 소년동맹 위원장 28세 박대홍의 자택을 수색하고 박대홍, 박이기, 탁효관, 박영준, 배두환, 김실백 등 6명을 체포 취조 중인데 삼천포면사무소 소사 김모가 삼천포소년동맹을 모욕한 일이 있었고 박대홍이 소사의 빰을 때린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1931년 8월 8일)

삼천포청년동맹이 지난 1931년 2월 이후 정기대회를 개최키로 했으나 경찰이 집회 금지를 하자 지난 9월 1일 서면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조선일보 1931년 8월 29일. 동아일보 1931년 9월 6일)

삼천포청년동맹에서는 집회를 금지 당했지만 9월 10일 삼천포 노산공원의 회관에서 70여 명이 모여 집회를 강행하게 되는데 일경은 즉시 출동하여 박대준(朴大俊) 외 8명을 잡아 유치장에 감금(監禁)했다.

(동아일보 1931년 9월 13일. 조선일보 1931년 9얼 14일)

삼천포청년동맹원 9명이 일경에 검속되었다가 암중한 조사를 받고 다시 청년동맹 모임을 개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9월 12일 오전에 9명이 모두 석방되었다.

청년회원 9명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순철, 배장영, 탁철, 전석원, 박영수, 배두환, 김실백, 배성기, 김진권 등이다.

(동아일보 1931년 9월 17일. 조선일보 1931년 9월 29일)

삼천포농민조합 간부 최갑환, 최효근, 김기현이 검사국으로 송치되었는데 삼천포 외곽에 소재한 동양척식(주) 농감 정두호가 3명을 고소했기 때문이다.

부당한 소작쟁의에 대하여 청년들이 해결하려다가 도로 고소를 당하였고 재판을 받게 되었다.

1931년 9월 이후 사천 삼천포 지역 청년운동은 완전히 차단되었고 집회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일반인들의 생활상은 매우 곤궁하여 한재 · 수재가 겹쳐 매월 내는 50전 월사금을 내지 못해 곤명, 곤양, 서포지역 3개 공립보통학교 입학생이 불과 백여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7할이나 격감했다. (동아일보 1930년 4월 6일)

삼천포지역에서도 금 년 한발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일본 광본, 조기 등 2개 회사를 통해 일본으로 가는 소년들이 많아지고 보통학교 퇴학생도 45명이라 했으며 더 많다는 소문이 퍼질 정도로 심각했다. (동아일보 1929년 10월 12일)

전국에서 굶고 유랑하는 이들이 엄청 많았고, 30만~50만명이 굶주린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고 만주, 중국, 적국 일본으로 떠나는 이들이 부지기수였다.

일제 당국은 삼천포, 통영, 마산 항구에 쌀, 보리, 콩 등을 산처럼 쌓아두고 매일 매일 일본으로 가져가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와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직·간접적인 요건을 갖추면 일제와 대항 하겠다고 소년운동, 청년운동, 농민운동, 소작운동, 신간회 운동을 전개했으니 참으로 고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투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때를 같이하여 1931년(19세)부터 1939년까지 7년간 노동운동을 전개한 아름다운 여성이 있었으니 출생지는 하이면이지만 삼천포 · 부산 등지로 왕래하며 노동운동을 전개한 보기 드문 여성활동가 이금복 선생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포상자 편에 기록했으며 참고문헌은 <고등경찰관계적록>113면이다.

청년들은 노동야학, 여학생 야학, 도청이전 반대운동, 순회 강연회 실시, 운동회, 축구대회, 정구대회, 수영대회 등을 개최하였으나 이는 수업이나 체육활동이었다고 단순하게 평할 수 없고, 이를 통해 애국계몽, 문자보급, 체육활동, 체력향상을 기하여 애국·애족·애향심을 실천한 직·간접적인 항일투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 론

이와 같은 항일 투쟁의 역사를 찾아 기록해 두고 명예회복을 위해 애씀은 후손으로서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이다.

항일운동이 소극적인 면에서 진행되고 청년회 운동으로 약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미약한 활동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진정한 항일투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일부 시각도 있으나 애국 계몽 운동, 야학운영, 체육활동,

문자보급운동, 조합운동이 직접적인 투쟁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고 영향을 크게 끼친 일이며, 오히려 개인적, 개별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주었고 생의 방향을 바꾸는데 영향을 주었음이 확실하다.

다른 선각자들로부터 듣는 강연회, 교육이 일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천·삼천포 청년들은 경찰서와 검사국으로 오가며 조사와 징역형이 언도 되었고 출옥 이후에도 간접적인 항일운동을 전개한 끈질긴 활동을 전개했음을 볼 수 있다.

2020년은 청소년 운동이 시작된 지 100주년이다.

2019년 3·1운동 백주년과 더불어 아주 의미있는 기간이 될 것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기념사업이 필요한 일이다.

약 10여 년간 지속된 소년운동, 청년운동, 신간회 활동, 농민·노동자 운동을 기리는 사업이 긴요하다.

사천·삼천포 지역 청년운동사에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자세한 기록을 남기지는 못했다.

그러나 일제가 광복 이 후 일본으로 반출한 자료가 입수되고, 직계 후손들이 보관하고 있을 활동 일기, 개인적 자료 등이 나오면 더욱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자료만으로 자료를 정리했지만 시·군지가 발간될 때 신간회, 청년회, 농민운동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는데 이번에 발간하는 책을 통하여 언급할 수 있었음은 보람된 일이었다.

그러므로 이번 사천청년운동사에 대한 연구는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 어려움이 많았다.

<사천청년회 임원 명단>

삼천포청년연구회 1922년 4월 30일 보통학교에서 제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을 개선하였는데 당선된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성중호(成重鎬)재선(再選), 부회장 박영주(朴永周), 총무 윤진권(尹鎭權), 재무부장 김을수(金乙秀), 덕육부장 장지학(張志鶴), 지육부장 강주수(姜湊秀), 체육부장 원정상(元晶常), 회계 김을수(金乙秀), 서기 손우상(孫羽翔), 천병식(千炳植), 강금수(姜今秀)

(동아일보 1922년 5월 12일 4면)

삼천포청년연구회 지난 1923년 4월 22일 오전 10시 보흥의숙에서 제6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부회장 박영주의 사회와 회항 보고, 회계보고를 하고 임원을 선정하였다.

회장 장지린(張志麟), 부회장 손우상(孫羽翔), 총무 박두석(朴斗石), 평의원 8명 강상기(姜相箕), 성중호(成重鎬), 윤진권(尹鎭權), 원정상(元晶常), 박영주(朴永周), 김정원(金晶元), 박채규(朴彩奎), 고인주(高麟柱), 재무부 간사 천병식(千炳植), 덕육부 간사 강봉수(姜鳳秀), 지육부 간사 차봉준(車奉俊), 체육부 간사 장지제(張志霽), 서무부 간사 김우열(金瑀烈), 손명석(孫命石).

(동아일보 1923년 5월 2일 4면)

1925년 1월 1일부터 보흥의숙에서 삼천포청년혁신총회를 임시 석장 최재문의 사회로 제반 사항을 토의하고 임원을 개선하였다.

회장 김우열(金瑀烈), 부회장 손우상(孫羽翔), 총무 최재문(崔載文), 지육부장 강봉수(姜鳳秀), 덕육부장 강붕수(姜鵬秀), 체육부장 김종대(金宗台), 회계 김을수(金乙秀), 서기 문태동(文台東), 평의원 김홍득(金洪得), 장지린(張志麟).

(동아일보 1925년 1월 16일 3면)

보흥의숙(普興義塾)을 위하여 교육 봉사하신 분들

사천유지 장응상(張膺相)은 보흥의숙을 전력을 다해 설립하였는데 일절 교무와 교수의 일을 독담(獨擔)하여 교육(敎育)에 열심함으로 교항(校沆)이 착수 진보(進步)되는데 고유의 한문(漢文) 서재(書齋)를 별도로 새로 건축(建築)하고 사천군수 하정용(河正龍)씨도 열심히 보조금(補助金)을 권유(勸誘)하여 기금(基金)이 적립(積立)되었다.

지역 유지 장경상, 강영기(姜永基), 정원숙(鄭元淑) 3명이 각각 50원씩 기부하였다더라.

(경남일보 1910년 5월 28일 3면. 1910년 6월 9일 3면)

보흥의숙을 위해 의연금을 내신 이들 명단

정두기(鄭斗機) 50원, 장응상(張膺相) 50원, 윤진동(尹鎭東) 30원, 구회숙(具會淑) 30원, 천영진(千永璡) 30원. 장규한(張奎漢) 25원, 신준수(申俊秀) 20원, 조근수(趙根秀) 20원, 여종하(呂鍾夏), 강영문(姜永汶) 14원, 박인교(朴鱗敎) 10원, 박경홍(朴景洪) 10원, 김재근(金在根) 10원, 김상규(金相奎) 10원, 강영림(姜永琳) 5원, 유기훈(劉基訓) 2원, 이창영(李昌榮) 2원, 김상진(金相珍) 3원, 이회준(李會俊) 1원. 허완(許浣), 김기선(金基善) 4원, 김기진(金基珍) 1원, 최

귀현(崔龜鉉) 2원, 강영문(姜永汶) 14원. 박용주(朴龍柱) 3원, 강상한(姜相瀚) 1원, 여응주(余應注) 2원, 김사원(金士元) 1원, 손종석(孫宗錫) 3원, 김정한(金鋌漢) 1원, 원세증(元世增) 3원, 이진우(李震佑) 2원, 김백현(金白賢) 6원, 김정우(金鼎佑) 2원, 강영온(姜永蘊) 1원, 김만조(金萬祚) 1원, 강우수(姜宇秀) 1원, 강휘종(姜彙宗) 3원, 전중윤(全中允) 5원, 김봉도(金奉鍍) 1원, 김익선(金翊善) 2원, 김내일(金乃日) 2원, 윤태진(尹泰辰) 4원, 박봉우(朴鳳羽) 2원, 황성오(黃性五) 2원, 김금표(金錦杓) 2원, 김채홍(金埰洪) 1원, 김정홍(金鼎洪) 1원, 김돈희(金敦熙) 3원, 여좌현(呂佐鉉) 5원, 김성삼(金成三) 3원, 김근선(金根善) 3원, 정서윤(鄭瑞允) 5원, 박찬극(朴燦克) 2원, 손선유(孫善有) 5원, 김인순(金仁順) 3원, 차내옥(車乃玉) 2원 40전, 고원숙(高元淑) 1원, 김익명(金益明) 3원, 김찬옥(金贊玉) 2원, 김중선(金重善) 1원, 박태일(朴泰日) 3원, 정자순(鄭子順) 1원, 김무극(金務克) 2원, 손운경(孫雲卿) 2원, 박정오(朴正五) 2원, 김시현(金時賢) 1원, 이성춘(李聖春) 1원, 고명선(高明善) 1원, 최경열(崔敬烈) 2원, 이화현(李化見) 5원, 정관영(鄭寬永) 1원, 장기찬(張基贊) 2원, 김정호(金正浩) 2원, 강찬수(姜贊秀) 1원, 양세환(梁世煥) 3원, 강상수(姜相秀) 1원 50전, 김두호(金斗皓) 2원, 문선욱(文善旭) 1원, 장홍범(張洪範) 1원, 장경한(張慶漢) 2원, 일본인 이등(伊藤) 1원, 연필을 의연 12본, 연필깍기 12본, 기록장 20권, 수장(手帳) 23권.

(경남일보 1911년 1월 8일 3면)

제4장. 사천의 3·1 의거

1) 1919년 전국의 3·1의거

1. 발단

1919년 2월 8일 일본 동경의 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 조선 유학생들이 모여 독립선언서와 결의문을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에 일본 경찰과 유학생들 사이에 격투가 벌어져 회관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여기서 일본 경찰은 유학생 20여 명을 체포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자기 민족의 운명은 자기 민족 스스로 결정해야한다는 민족자결주의의 원칙을 내세웠다. 그 영향으로, 강한 나라의 지배를 받던 여러 약소 민족이 독립을 선언하고 나섰다.

일본은 조선 총독부를 두고 우리 민족을 탄압했으며, 농민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제때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지를 빼앗고, 우리 국민에게 일본을 섬기게 하는 식민지 교육을 강제하였다.

2. 전개과정

1919년 3월 1일의 독립운동은 그해 1월부터 준비되었다. 조선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서를 만들어 전국에 비밀리에 전달하고, 서울 탑골공원에서는 수많은 학생, 시민과 고종황제의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모인 20만명이 참여하였다. 일본경찰과 군대의 무지비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은 상점을 닫고 학생들은 등교를 거부한 상태에서 3월 말 이후에도 지방에서는 주로 장날을 이용하여 계속되었다

3. 결과

4월 말까지 전국에 걸쳐 계속되었다가 일제의 극심한 탄압 때문에 비밀 독립운동으로 바뀌어 나갔다

4. 영향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후, 우리 민족은 독립운동을 좀더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세웠다.

2) 사천의 3·1 의거

사천의 3·1운동의 효시는 1919년 3월 13일 사천시 곤양면 송전리 출신 김진곤(金鎭坤)외 4명이 태극기를 흔들며 곤양 일원에서 시위함으로서 서부 경남에서 최초로 만세를 고창한 역사로 기록된다.

근대문화재로 지정된 <하동독립선언서>도 사천시 곤명 출신이 대표자 가운데 들어가 크게 활약한 기록이 있으니 사천시가 항일의 고장으로 우뚝 서는 일이다.

사천지역에서 3·1독립운동의 봉화가 요원의 불꽃처럼 전파된 일은 천도교 사천교구 책임자였던 장태영(사천시 이금동 봉전마을)님으로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남양면에 사는 박종실 선생도 진주로 달려가 진주의거 주동자인 강달영. 박진환 등을 만나 <독립선언서>를 입수하는데 성공했다.

이들은 진주의 천도교인들과 수시로 연락하며 시위하니 해인사 지방 학림의 학생 최범술 등에게 전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되니 서부 경남에서 최초의 시위로 기록되는 일이다.

3월 13일의 곤양 의거는 진주 의거보다 5일간. 사천 의거보다 8일간이나 앞선 의거로 기록된다.

3) 사천읍 3·1 의거

사천읍 의거는 황순주, 박기현, 김종철 등은 진주로 달려가서 보니 3월 18일부터 일주일간 전개되고 3만 여명의 군중이 참여한 것을 보고 감화감동을 받고 강대창(축동면)을 만나 의거를 약속하고 사천읍에서 임순백, 윤수상, 김성언 등과 사천공립보통학교의 졸업반 학생 이윤조 등을 만나 포섭하는데 성공했다.

의거일은 졸업식 하는 날인 3월 21일로 정하고 주동자들은 태극기 200여 매와 <독립선언서>를 인쇄하여 졸업식이 끝나면 바로 의거하기로 약속했다.

3월 21일 졸업식이 끝난 후 식후 행사인 축구시합을 하기 위해 학생들이 운동장에 집합했다. 축구시합에서 이윤조 편이 이기자 바로 이때 흥분한 이윤조 학생이 가슴속의 태극기를 꺼내어 독립만세를 외치기 시작했다.

사천보통학교는 그 당시 사천읍 읍내면 선인동 577번지에 소재했고 학교 연혁지에 의하면 객사 터에 학교가 있었고 토지대장을 보면 577번지가 공립학교 부지였음을 확인해 준다.

1905년 현청 소속 객사(客舍) 터에 사립 명달(明達)학교로 개교하고 1911년 공립보통학교로 설립 인가되어 1913년에 군수와 지역민의 지원을 받아 교사(校舍)를 신축하였다. 일제 강점기에 증축되었다가 광복이후 철거되고 현재 사 용중인 교사(校舍)는 1988년에 신축했다.

학생들은 일제히 교문을 박차고 길거리로 나왔다. 주민들도 다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니 사천읍은 온통 만세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시위를 지도한 황순주. 박기현. 김종철 등은 몸을 피하여 서당 스승의 집으로 피신했다. 황순주 선생 등은 다시 모여 일본 제국주의 앞장이 들은 “우리 민족에 대한 야만적인 살육

행위를 중단하라"는 요지의 격문을 돌맹이에 싸서 사천헌병대 분대장 집에 던져 넣었다.

일 헌병대의 수색에 의해 주동자들은 모두 피체되었고 박기현 등은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1919년 7월 22일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월형을 언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사천읍 중선리(현재 사천공항 중앙지로 개발해 사용중)는 하치장 설치를 위해 도로가 개통되고 있었다.

사천 동면 두량리 유승갑은 사천지역 곳곳에 독립만세 소리가 진동함을 듣고 마을 구장인 당숙에게 '내일 중선포 도로 부역의 인부는 제가 인솔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4월 14일 마을 주민 100여 명을 인솔하여 도로 보수를 진행했다.

도로 부역을 마치고 귀가하던 유승갑은 손계묵, 하말금 등과 함께 주민들에게 '오늘 우리가 왜놈들에게 나라와 국권을 빼앗기고 우리는 지금 부역에 시달리고 있으니 원통하다'라고 말하자 모두 함성을 지르고 독립만세를 외치자라고 말하자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삽과 괭이를 들고 사천읍 내로 진출하게 된다.

시내로 들어서자 수 백 명의 군중이 동참하여 시위를 전개했다.
사천헌병대가 나타나 총검으로 탄압하고 주동자 유승갑, 손계묵, 하말금 등 36명을 검거하여 유치장에 강금 하였다.

손계묵은 혹독한 고문으로 혼절하여 천수(天壽)를 살지 못하고, 유승갑은 태형(笞刑)으로 수년간 고생하다 순국(殉國)하였다.

4) 동지역 3·1 의거

1919년 3월 중순, 사천군 남양면의 박종실(朴琮實, 1885~1966))은 3·1 독립만세 분위기에 감격과 흥분으로 진주로 갔다. 진주 주동자인 강달영 박진환을 만나 독립선언서를 손에 넣고 돌아와 장지린 강금수 장태영 등과 만나 삼천포 공립보통학교 교사 황병두 선생과 더불어 삼천포 의거를 협의하였다.

이들은 제3대로 나누어, 제1대는 황병두 선생의 학생들을 선두 주축으로 삼천포 보통학교(당시 노산 호연재가 삼천포 공립보통학교였음)에서 출발하고, 제2대는 청년대를 주축으로 삼천포 면내 중심해변(팔포)에서 제3대는 일반 면민들을 규합하여 장터에서 일제히 거사하였다. 그들은 비밀리에 태극기를 만들고 군중 동원을 위해 각 면리 마을별로 연락망을 구축하여 태극기를 엄밀히 배부하는 일에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거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1919년 3월 25일 장날이면서 삼천포 공립보통학교 제2회 졸업식이 있는 날이었다. 학생들은 황병두 선생의 은밀한 지도아래 학교장의 교육칙서 낭독을 신호로 일제히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뛰어나오기로 약속되어 있었으나, 학생들은 긴장과 흥분으로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졸업식이 시작되자마자 간부 학생 박상윤, 박종대 등이 큰 소리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나가자 학생들은 일제히 교정(노산) 밖으로 뛰쳐나오면서 감추고 있던 태극기를 높이 들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학교밖으로 나온 학생들과 박종실, 장

지린, 고광세, 이계중 등이 선두에 서고 학부형이 호응하는 거사는 시작되었다.

1, 2, 3대로 나뉜 시위대는 팔포 모래사장, 벅수골목, 서지골목, 새미골목, 통창앞강을 휘돌며 북, 장구, 소구, 징 등의 농악기를 울려 대면서 왜인들의 거주지역을 위협하였다. 이에 집안에 있던 면민들도 모두 밖으로 뛰쳐나와 열렬히 호응하였다. 문선면 장터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왜놈들의 침략 만행을 성토하는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은 온 시가지를 메아리쳤다.

삼천포 보통학교 졸업식 거행 중 느닷없이 전개된 봉기에 놀란 왜경은 황급히 출동하여 주동학생들과 의거 청년들과 대치하여 총검으로 위협하고 구타하면서 제1대의 박상윤, 박종대 등을 먼저 검거하여 갔다.

제2대인 청년대는 해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학생들이 먼저 앞장서게 되자 예정장소를 변경하여 선구리 장터로 달려갔다. 중앙에 임시가설한 단상에 올라간 강금수는 운집한 군중을 향해 우렁찬 목소리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다. 낭독이 끝나자 박종실, 장지제, 강천수, 손우상, 고광세, 김우열, 박상윤, 장지린 등이 대한 독립만세를 선창하고 모여든 수백명 군중이 따라 독립만세를 외치니 만세의 함성은 온 장내를 흔들었다.

이어서 김기문 박두철 이계철 이욱래 강상조 장지린 등을 선두로 대열을 지어 거리로 뛰쳐 나와 독립만세와 용진가(勇進歌)를 부르면서 거리를 누볐다.

용 진 가

4천여 년 찬란한 역사국으로
오늘날 이 지경이 웬일이던가
천부(天賦)의 자유권은 사(私)가 없거늘
우리 민족 무슨 죄로 욕을 당하는가
철사 줄로 결박한 줄을 우리 손으로 끊어 버리고
독립만세 우레소리
더 높은 곳에
바닥 끊는 듯 산이 동(動)하네

시위군중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났다. 당황한 일경들은 급기야 총검을 휘두르며 시위대열을 해산시키기에 혈안이 되었다. 대열의 선두에서 대형태극기를 흔들면서 시위대열을 이끌던 고광세는 일경의 총대에 무차별 난타당해 유혈이 낭자하였다.

시위대가 경찰서로 돌진하는 폭동으로 이어질 것 같은 위협에 50여 명의 무장 경찰을 동원하여 경찰서 앞에서 선두를 차단하였다. 악랄한 왜경들은 대열에 뛰어들어 총칼을 휘두르며 대열을 허물고 닥치는 대로 짓밟으며, 선두의 주동자를 검거하였다. 이날 검거되어 옥고를 치른 애국 투사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성 명	형 량	감 옥	집행유예기간	비고
강금수	징역10월	진주 감옥	집유 3년	
강천수	징역10월	진주 감옥	집유 3년	
고광세	징역10월	진주 감옥	집유 3년	

성 명	형 량	감 옥	집행유예기간	비고
김우열	징역10월	진주 감옥	집유 3년	
장지린	징역10월	진주 감옥	집유 3년	
손우상	징역10월	진주 감옥	집유 2년	
강상조	태형 90도	진주 지청		
박두수	태형 90도	진주 지청		
이계철	태형 90도	진주 지청		

이 사건 이후 광복되기까지 이 지역의 기록에 전해지는 항일 독립운동가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	독립운동계열	당시 연령	본 적	옥고 기간
강금수	삼천포 만세	미상	삼천포면(1918~	금고 3월 징역 2년
강몽우	사천 청년동맹	20세	삼천포면 동리	
강상조	삼천포 만세	25세	삼천포면 동리	태 90도
강천수	삼천포 만세	21세	삼천포면 동금리	징역10월
고광세	삼천포 만세	25세	삼천포면 동금리	징역10월
김우열	삼천포 만세	20세	삼천포면 선구리	징역10월
김판연	독립자금모금책	20세	삼천포면 동금리	
문갑이	삼천포농민조합	31세	삼천포면	징역1년
박대영	노동운동	미상	삼천포면 선구리	태 90도
박두수	삼천포 만세	1892생	삼천포면 선구리	태 90도
박상윤	삼천포 만세	1892생	삼천포면 선구리	
박영수	사천청년동맹	1929활동	삼천포면 동리	금고 3월
박영준	격문배포	1913생	삼천포면 서리	
박이기	농민조합	미상	삼천포면 동리	징역 3년
박종실	삼천포 만세	1890생	남양면 노룡리	재판거부
박종대	삼천포 만세	미상	남양면 노룡리	
배상영	비밀 독서회	1911생생	삼천포면	
손영섭	농민조합	1914생	삼천포면	징역3년
신용희	독립자금모금책	미상	용현면 송지리	
이계철	삼천포 만세	미상	삼천포면 동금리	징역10월
이활인	독립자금모금책	1921활동	남양면	
장지린	삼천포 만세	1898생	삼천포면 동리	징역10월
장지제	삼천포 만세	미상	삼천포면	
정성기	농민조합	미상	삼천포면 동리	징역10월
정종주	용산독서회	1908생	삼천포면 이금리	징역 1년
정종호	농민조합	1913생	삼천포면 이금리	2년 6월
최을환	용산야학	1932활동	삼천포면 이금리	징역 8월
최효근	청년동맹	1909생	삼천포면 동리	징역 8월
한종일	독립청년단	1920생	삼천포면 동리	징역 2년6월
황달봉	청년동맹	1908생	삼천포면 동리	금고3월 징역1년
임응주	해인사 만세	1903생	남양면 죽림리	
장백윤	농민조합	32세	삼천포면	징역8월

1919년 3월 삼천포 만세를 주동한 박종실은 기미년 독립만세 이전부터 경술국치의 망국의 한을 품고 독립투혼을 불사른 애국 투사이기에 선생의 항일 독립운동에 관련된 실적을 여기 싣는다.

단춘(檀春) 박종실

1. 출생, 성장기

단춘 박종실 선생은 1890년 4월 22일 사천군 남양면 노룡리 297번지에서 송파 박진규선생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은 밀양, 호는 단춘, 아버지 송파 박진규 선생은 일찍이 갑신정변에 참가한 민권 투쟁가이며, 교육자로서 지역민이 숭모하는바, 단춘의 충절 정신과 행적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여겨진다.

단춘은 7세에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하고 17세에 고성향교에서 수학, 19세에 진주 농업전문학교를 수료하고 평양 대성학교에 진학하여 도산 안창호 선생의 지도를 받았으나, 일제에 의해 폐교되는 제1회 졸업생이 된다.

2. 독립운동기

대성학교를 졸업하고 귀향한 선생은 엄친이 건립한 남양 지신학교를 인계받아 교육사업에 힘을 썼다. 知新學校는 1911년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신학문과 애국사상을 고취 시키기 위해, 송파 선생이 중심이 되어 지방 유지들과 힘을 합쳐 설립한 이 고장 최초의 신교육기관이었다. 그런데 일본 경찰은 단춘선생을 도산 선생의 제자라는 점과 항일 독립정신을 고취한다는 이유로 심하게 탄압하다가 마침내 지신학교를 폐교 시키고 만다.

그러나 단춘선생은 불사조의 심정으로 야학운동을 전개 남양의 노룡 신벽 대포 송포등의 마을에 야학을 개설 운영하였다. 또한 헐벗은 와룡산에 나무를 심자는 식림(植林)운동을 전개하여 도산 안창호 선생의 교훈을 실천에 옮겼다.

선생의 이런 활동 또한 불은 사상이라고 산에가면 산에 야학당에 수업하면 야학당에 나타나서 감시하더니 결국 야학운영과 나무심기 운동마저 불법집회로 몰아 선생을 연행하게 되니 유치장에 드나드는 생활이 연속되었다.

하여 선생은 향리에서의 활동이 좌절 됨으로써 선생은 고향을 떠나 만주땅 북간도로 옮겨 보다 적극적인 항일운동을 하고자 했다.

선생은 북간도에서 석주 이상룡 선생 휘하에 군사훈련을 받고, 청년 독립대에 편입되어 활동하다가, 다시 귀국하여 효율적인 독립운동을 하려 하였다. 한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선생이 향리에 나타나자 일경은 긴장하여 선생을 무조건 연행하여 구속하고 만주 독립군 활동상황을 탐지하려 고문하였으나 선생은 끝까지 독립군 활동을 함구하였다. 이후 1919년 3월을 맞이하여 기미 독립만세의 횃불이 타올랐던 것이다.

3. 재판거부 일화

삼천포 만세운동의 선두에서 지휘하다 체포되어 진주일제의 법원에서 재판을 거부한 일화는 유명하다. 만세운동에 가담한 주동자들이 모두 형을 받았으나 단춘선생은 끝내 재판을 거부했기 때문에 검사의 논고도 판사의 판결도 없이 미결수로 1년여의 형무소 생활을 하다가 석방된 이례적인 일화를 남겼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재판정에 나가지 없다는 선생의 논리는 이러했다.

"내가 무슨 이유로 일본인들의 법정에서 일본인들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가? 나는 조선사람이다. 그리고 죄를 지은 일이 없다. 조선이 일본의 법치하에 있다는 사실을 나는 부정하는 사람이다. 재판할 이유없는 사람을 붙잡고 무례를 범하고 있다. 나를 석방하든지 죽이든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호통을 치며 꿋꿋하게 옥중투쟁함으로써 선고를 하지 못하여 미결수로 계속 옥고를 치르다가 1년여 만에 석방됨으로써, 결국 1년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결과였지만 일제에 항거한 꿋꿋한 줏대를 보였던 것이다.

4. 민족 계몽운동

1919년 독립만세운동으로 조선 민족독립을 부르짖는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자 일제는 문화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애국지사들의 민족 계몽운동이 전국각지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선생께서도 적극 호응 보명학원을 세워 계몽운동에 나섰으며, 1926년 남양국민학교를 설립 삼천포국민학교에서 분리 독립의 터전을 닦았다.

또 일제의 가혹한 수탈로 북간도로 떠나는 농민이 늘어나는 안타까움에 '조상 전래의 농토를 지키는 길이 애국이요 애족하는 길'이라고 절규하며, 새끼꼬기, 가마니 짜기, 생산조합을 만들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양봉, 양계, 양돈, 약초, 재배 등 농촌 소득증대 계몽운동에 앞장섰으며, 특히 저주지 축조사업으로 천수답이 많던 남양지역에 수리안전답을 만들 운동에 적극 나섰다. 그런데 수리조합 저수지를 만드는데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청을 수십차례 찾아 진정함으로써 6개의 저수지를 완성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남양면 일대는 옥토로 바뀌어 농민의 생활이 안정되었으니, 선생은 이웃사랑, 조국과 민족을 사랑한 진정한 애국자요 한그루의 상록수였다.

5. 단춘 선생의 독립만세 운동 회고록

반만년 역사를 가진 조국강산을 왜놈들의 더러운 발길아래 여지없이 유린당하고 영웅의 눈물과 지사의 피를 얼마나 흘리게 했던가? 그러나 할 일없이 10년을 지냈구나! 이제는 더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다. 온 겨레의 분노가 폭발 직전, 일차 세계대전 종막 무렵 민족자결주의가 지축을 흔들고 돌아가는 억센 바람에 부딪친 2천만 동포는 세계 피압박 약소민족의 선두에 서서 독립운동을 일으켰다. '조국을 찾자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두 가지 밖에는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는 애국청년의 격노는 『사내정의』란 놈의 무단정치 총칼 면전에서 적수공권으로 달려들었던 것이다.

기미년 3월 1일을 기하여 서울 탑동 공원에서 자유해방의 상징으로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대한독립 만세 소리는 삼천리강산에 차고 넘쳤다.

경남 진주에서는 원근에서 모여든 여러 혁명 객들, 진주 읍의 강원영, 박진환 제 동지들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인쇄하여 각 면에 전하였다. 인중(人衆)이 절로 모여드는 음력 2월 12일(양 3월 17일)진주 시장일을 택하여, 오전 11시경 대중 앞에서 대한 독립을 선언하고 태극기를 휘두르며 행렬을 지어 시위를 하다 사나운 왜경들에게 포박되어 끌려가는 동지들을 감옥소로 송별하고, 필자는 사천 고성 양군으로 가서 유세 궐기케 하려 하였다. 진주 남강 다리를 건너는 외로운 몸은 바로 고성으로는 갈 수가 없었다.

먼저 우리 사천군의 사천읍으로 찾아들어 전직 면에 근무한 이 모 선생을 방문하여 이 말을 전하고, 미리 여러 동지들에게 통하여 사천 공립보통학교 전교생 동원으로 궐기시켜 일대시위운동을 전개하여 하였다. 그러나 교내가 매우 긴장미는 있어도 불가능이요, 또 읍내 다소 청년들을 설득코자 하였으나 역시 불가능이어서, 사오일에 아무런 성과도 보지 못하고, 그 후 수삼 차 왕복이 있었으나 종시무성과라 그 뒷날 어느 익살맞은 친구의 입으로 사천을 死川이란 조소를 던지는 걸 보았다. 내 인격과 열성이 부족함을 자책하고 분연히 돌아가서는 와룡산 아래로 찾아들지 않을 수 없었다.

직접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 남양대포동 양진서 집에서 학도들을 모아놓고 눈물의 일장 연설이 있은 후에, 단장을 짚고 삼천포로 내려가서 노산 위에 위치한 전 보흥의숙에서 승격된 보통학교를 심방하여 평양출신 청년 선생인 황병두 씨를 은근히 만나 이 뜻을 전달하고 독립선언서를 보인 뒤에 덮어놓고 따르라하고, 수삼차 내왕에 전교생 총동원을 책임지기로 했던 것이다.

생사를 돌보지 않는 험난한 운동에 어린 학생들을 선두에다 이용코저 하는 것은 대단히 무자비한 심정이라고 하겠지만 사실인즉 사상이 진보된 금일에 일평한다면 천만 미안한 심경이었던 것을 당시로 말하면 우리사회의 대단체를 움직이게 하고 일반민중의 심리를 자극시키는 데는 이 길을 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거족적인 운동이 일어나야 될 내외의 형세를 짚어 짊어지는 입장에서 부득이한 일이었다. 경내 청년지사인 김우열, 장지제, 고광세 동지들을 방문하여 큰 뜻을 전하고 선언서를 보인즉, 모두 찬성이요, 김우열 동지는 우리도 이미 소식을 듣고 모두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중인데 유력한 동지를 얻으니 더욱 반갑소. 조국을 찾겠다는 이런 기회에 분기치 않는다면 그놈의 곳은 썩을 놈의 고장이지 산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할 수 없고. 산송장이 사는 곳이라고나 할까. 우리청년층은 염려 마오. 우리 동지들은 서로서로 상조하여 운동에 매진하겠다고 쾌담을 거듭하였다.

과연 용기가 용솟음쳤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날의 제1차에 학생소년 독립대, 제2차에 청년 독립대, 제3차에 면민독립대가 차례로 출동하기로 정하고 각기 책임을 다하기로 하되 서로가 극비리에 활동하여 성사 전에 비밀이 발각되지 않도록 호상 쥐의 하였다.

음력 2월 27일이 왔다. 양력 3월 29일 이 날은 삼천포 장날로 자연히 모여드는 대중을 이용코자 함이었다. 때는 마침 보통학교 졸업식 날, 오전10시경이었다. 소년들의 심사는 달아올랐다. 이날 용감한 학생들로서 조직된 소년 독립대는 가장 영광스럽다는 졸업식도 박차버리고 박상윤, 박종대, 김태석, 박상도, 강기숙, 김태근 제군을 선두로 노산위의 학교로부터 줄곧 뛰어 내려와서 면중앙에 도달하자 오늘을 위하여 비밀히 간직하였던 태극기를

휘날리며 대한독립만세를 높이 불렀다. 이 소년들이 평소에는 감히 입밖에도 내지 못하였던 대한독립만세를 슬기 있는 구호로 부르짖는 모습은 사랑스럽기도 하고 비장하기도 했다. 이를 보고 있는 눈으로서는 너무나 고맙고 감명되어 눈물이 핑 돌았다.

청널이 등을 타고 올라와 당산나무 밑에 이르자 불의에 침투를 당한 왜경은 떼를 지어 달려와서 함부로 치고 묶어 끌고 갔던 것이다. 이 운동에 있어서 제3서두에서 지휘하고 가장 많이 두들겨 맞기로는 박상윤, 박종대였는데, 이 두 소년 용사들은 왜경에게 붙들려 연행되고 구류되었다. 이들 아니라도 많은 애국민들을 궐기하게 하였음을 행으로 여겼다. 학생들은 학생소년이란 이유로 소위 훈계 방면이 되었던 바이다. 이 소년 독립단의 부르짖음이 터지자 시중의 공기는 총 궐기를 앞두고 몹시 긴장되는 동시에 왜경의 경계도 더욱 엄중해졌던 것이다.

제2차로는 삼천포 호텔(현 부두 주차장 앞) 일대의 해안 백사장의 한가운데서 태극기를 높이 휘날리고 외치는 대한독립만세의 고함소리가 우렁찼다. 이에 지도의 책임을 지고 나선 의사는 김우령, 고광세, 강금태, 장지재, 장지린, 손우상, 박두숙 등 청년들이었다. 각반에 모자 끈을 졸라맨 왜경들은 총과 칼을 들고 달려들며 때리고 차고 묶었다. 그중에서도 선두기수인 고광세군은 왜경이 들어서자말자 맹타를 당해서 코와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붉은 피는 흰 모래사장을 물들었던 것이다.

제3차로 청년 용사들이 묶여간 뒤 남녀시민들은 이 골목 저 골목에 모여, 물의는 바야흐로 비등하였다. 태풍우가 궐기할 바로 직전이다. 자 일어납시다.k 이제는 우리차례요 글 배우는 어린학생들도 조국을 원하며 죽음을 아끼지 않고 분기하는 이때, 우리시민들이 주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대한독립은 이제 목전에 있습니다. wk 만세를 부르면서 맹진합시다. 대한독립만세!

원대로 감정을 띠고 나온 와룡산하의 삼천리 시민들이다. 일시에 일어나는 대한독립만세 소리는 우렁차게 충무공의 북소리가 스민 노량목에서 북받쳐오는 파도소리와 함께 천지를 진동하였다. 선두에서

4000여년 역사국으로
오늘날 이지경이 웬일인가
천부의 자유권은 사가 없거늘
우리민족 무슨 죄로 욕을 받는가?
철사줄로 결박된 줄을 우리 손으로 끊어버리고
독립만세 우리소리에 바다 이끌고
산이 동하겠네.
동서영웅이 별거 아니니, 강감찬고 충무공 선봉 모시고
아무러한 겁냄없이 앞으로 나가세!

용진가를 행진곡조로 부르는 모양은 용기백배였다.

앞으로 갓!! 장사진으로 용솟음치는 대중들은 개개의 의기충천의 영웅호걸이었다. 무려 수백명이다. 과연 각처로부터 모여든 대중과 합세되어 일시의 오합중이라 할지언정 피가

같은 단일민족이란 아무래도 피할 수 없는 의분의 폭발인 것이다. 시민독립군 일대대는 당장에라도 왜국을 무찌르고야 말 기세였다. '저 왜놈들을 모조리 때려죽여라 쫓아내어라. 우리도 독립국민이다' 하고 사방으로 아우성친다. '자 동포형제들이여 우리의 독립군은 누구를 때린다거나 폭력을 가하는 해동은 결코 피하고 질서정연하게 저 왜놈의 흉본부인 경찰서로 가서 대한독립만세로서 대항하자.'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독립군의 엄정한 행렬은 구 경찰서 앞 조금 못미처 문선교(文善橋)에 이르렀을 대 왜경 50명이 길을 막는다. 이 다리를 두고 적수공권으로 고립되어, 서릿발 같은 총검을 갖춘 왜경배와는 각기 행오(行伍)를 정하고 대진하였다. 실로 무서운 장면인 것이다. 잠깐 돌아서서 자, 여러분! 자유를 좋아하는 동포형제들이여. 이제 우리가 자유를 찾느냐 속박된 생활을 계속하느냐는 문제가 이 순간에 달려있습니다. 최후의 일인까지 투쟁을 계속합시다.

이 간단한 연설이 끝나자 말자 왜경 한사람이 달려와서 유도식 뒤재침을 하려는 찰나 돌아보니 동포중의 왜경 앞잡이 형사로 유명한 강일선이라는 자였다. 더욱 통분하여 이놈 너는 조선의 피를 타고난 놈이 아니냐? 우리 독립이 너에게 무엇이 해로우냐? 이 역적놈아. 엎치락뒤치락 상투(常套)중에 또 다른 몇 명의 왜경이 달려들어 꼼짝 못하게 포박을 했다. 놈들의 지휘관이 말하기를 '그놈은 자유를 좋아하는 놈이다. 메고 가기가 귀찮으니 두 다리만은 자유를 주어라' 명령하에 두놈 세놈 달려들 때 부득이 끌려갔다. 대중의 만세소리는 수백의 폭탄을 던져 터지듯 우렁차다.

경찰 구류간에 숙면생면(熟面生面)의 동지들과 마주치게 되고, 이로부터 대단체의 회중은 강압으로 해산을 당하고, 산발적으로 밤늦게까지 만세소리는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날 밤늦게 간수장에 들어온 강일선의 말을 들으면, 그날 밤중에 우리 강감역, 영기씨, 문남해, 영복씨, 박씨, 김문유씨 등 7~8인이 모여서 우리도 같은 국민인지라 이를 죄사할 수 없는 도의심에서 구금인을 위문하고 석방을 요청하자는 명목하에 경찰서로 가다가 왜경배가 길을 막고 어디를 갈까 봐서 공포를 쏘고 총을 겨누고 호통을 치는 바람에 돌아서고 말았다고 한다.

흥야라.

그야말로 와룡산하의 남녀노소 청년 농군 상인 은사 각계각층을 총망라한 투쟁이었다.

당년사를 회고할 때, 지금생각해도 어제 일처럼 새롭다.

감루(感淚)에 넘치는 마음 금할 수 없고, 삼천포 만년향토지에 대서특필하고 남음이 있는 투쟁에 참가한 씩씩하고 용감한 삼천리 시민 형제들이여! 구류간의 간수중 강일선이란 인간의 싸늘한 잔소리를 들으면서 역시 동포 박근수라는 사법주임 취조를 거쳐 진주검사국으로 이송케 되었는데, 이의 대표자로는 김우열, 장지인, 강금수, 장지재, 고광세, 손우상, 강상조, 강천수, 김기문, 박성동, 박두수, 이계철, 박종실 등 13명인데 3일 만에 모도 진주로 이송하고 박종실은 여죄가 있을 것이라 하여 구류기간 12일까지 삼천포 경찰서 구류간에 잔류케 되었다. 그러자 이계철 동지가 붙들려 들어와 덕택으로 그의 가정으로부터 사시기 들어와 나눠 먹으며, 명예를 같이하는 친지를 얻었던 것이다.

구류만기 12일째 날 3월 6일, 매일같이 언쟁하는 강일선이가 하루는 박, 당신의 금반송행은 선동과 반항자로서 틀림없이 사형선고를 받을 것이오, 하며 언쟁하는 것을 보고 박건

수에게 단단히 꾸지람을 듣는 것을 보았으며, 수감차를 타고 삼남도로를 달리는데 혁명에 뜻을 정한자로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건만은, 아, 와룡산아 다시 볼거나, 남양을 지날 때는 문천상의 감회가 생각난다. 촉석루 중 삼장사는 일수소지 남강수라는 선열을 사모하고 우상 편으로 의열 부인 논개를 유심히 바라보면서 남강 잔등의 걸쳐놓은 배다리를 건너서 삼천리서 떠난 지 한시간만에 진주검사 책상 앞이었다.

검사는 묻기 시작했다.

"주소는?"

"사천, 남양"

"나이는?"

"30세"

"성명은?"

"박 종실"

"학교는 무슨 학교를 다녔는가?"

"평양 대성학교 졸업이다."

"피고는 삼천포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는데, 사실인가?"

"불렀다"

"무슨 의미로 불렀는가?"

"우리도 일본과 같이 독립국이 되어야 하겠기에 불렀다"

"그것은 쓸데없는 위법의 망상이 아닌가?"

"금일 망상은 내일의 잔상도 된다"

이렇게 몇 마디 문답이 있은 뒤에 다시 끌려서 오행 대밭거리에 터잡고 있는 붉은벽돌담 별천지로 들어갔다. 간수 녀석들이 나와서 성명을 기록하고 옷을 벗기고 죄수복에 성명을 붙인 후, 소지품은 별기하여 지장을 찍게 한 후 알몸으로 저울에 앉혀 달아보고 푸른색 두루막 한 벌 불쌈디 한 장을 갖추어 주더니 사오촌 길이의 368호란 번호표를 주며 여기에 쓰인 368호는 세상에 쓰는 이름의 대용이올시다. '삼배꾸 로꾸주 하찌고!' 하거든 '하이' 하고 대답을 해야합니다. 하고 친절히 가르쳐주더니 귓속말로

'우리도 지사 여러분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국자들은 이런 곳에 왜 있을까 꾸지람 하실 분도 있겠으나 구복(口腹)이 어려워 붙어있습니다. 여기에 있으면서 애국지사의심부름을 해 드리다가 다른 곳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모쪼록 여러 선생님이 이점을 잘 양해해 주십시오' 한다. 이 말에 저으기 감심한 바 있었으며, 강일선과 같은 악질 순사에 비하여 다소 양심 있는 이런 김 간수가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좌우로 순찰해있는 감방 통로를 통하다가 제7호실 앞에 서게 하더니, 담당간수가 사오촌 되는 손가락부리 같은 열쇠를 가지고 철거덕 감방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발뒤꿈치가 다칠 뻔 철문이 닫히는 날카로운 소리에 머리끝이 아찔해졌다.

선입수 선배에게 인사를 드렸더니 친절히도 똥통옆으로 자리를 정해 안내했다. 여러 가지로 경과를 묻더니, 아, 그렇다면 그럴 수가 없다하며, 다시 문앞으로 자리를 바꿔주었다. 메주콩냄새, 거름 말죽 냄새에 정이 떨어져 꼬박 3일 만에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될즈음

에야 메주콩 먹기를 배웠다. 음식에, 천대, 악형, 학대, 비인도적인 행위, 하절 한방에 사람을 수금(囚禁)한다는 것보다도 콩나물동이 모양 화인육(火人肉) 저장소라고 할 만한 것을, 지면 또는 시기관계로 다 쓰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만 후일 별지로 미룬다.

아울러 선생의 3·1 독립만세사건 후, 일경에 맞선 옥중투쟁 일화를 덧붙인다.

이 만세운동을 선두에서 주도하다 체포된 박종실은 끝내 재판을 거부하여 검사의 논고와 판사의 판결도 없이 미결수로 몇 년여의 옥살이를 치르고 석방된 이례적인 일화를 남겨서 유명사다.

그는 "내가 무엇 때문에 일본인들의 재판을 받아야하는가? 나는 조선 사람이다. 그리고 죄지은 일도 없다. 다만 너희들에게 억지로 끌려와서 여기에 있을 뿐이다. 우리 조선이 일본의 법 치하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나는 부인하다. 재판할 생각 말고 즉시 석방하든지, 죽이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하고 호통을 치며 옥중투쟁을 전개하여 끝내 법정에 서기를 거부하였다.

-'옥중 투쟁기' 손상봉선생의 글 중에서-

5) 곤양면 3·1 의거

곤양면 의거를 보면 일제때 <고등경찰관계적록> 18면을 따라 김진곤 외 4명이 백지에 태극기를 그려서 한쪽에 '독립 만세'라고 쓰고 곤양주재소에 투입하고 주민들을 모아 독립 만세를 고창하였다는 것이다.

다시 4월 6일 4월 19일 양일에 걸쳐 곤양보통학교 학생들과 같이 곤양 장날을 기하여 만세시위를 전개하다가 사천헌병대가 출동하여 주동자들은 체포되고 군중은 동서로 흩어졌다.

김진곤 선생 등은 구속되고 혹독한 고문을 받고 검찰청에 송치되었고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징역 6개월 형을 언도 받고 옥고를 치렀다.

곤양면 대진리에서도 의거가 있었다.

6) 곤명면 3·1 의거

곤명면 3·1의거는 1919년 기미년 4월 5일 곤명면 금성리에서는 선비 출신 이영근의 주도로 시작되었는데 서당 훈장 정원주, 주민 문형근, 조개석, 조관석 형제, 강재빈, 이규현, 이규필 등이 금성리 일대 인근 주민들 300여 명을 규합하여 마을 앞 덕천강변에서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일제의 헌병들이 출동해 강제적으로 군중을 해산하고 주동자들을 피체하였고 이영근, 이규현 등은 상투와 말 채찍을 서로 매달아 끌고 가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영근 선생은 혹독한 고문으로 혼절했다가 태형 90도를 맞고 죽기 전에 석방되었으나 1922

년 29세 때 순사(殉死). 순국(殉國)했다.

이규현 선생도 1919년 5월 19일 태형 90도를 맞고 후유증으로 순사(殉死), 순국(殉國)했다.

기미년 4월 17일 곤명면 정곡리 김경찬 등이 완사 연평리 주민들을 모아 옥녀봉에 올라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사천헌병대의 긴급 출동으로 피체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고 혼절했다.

7) 서포면 3·1 의거

서포면 3·1의거는 서울에 유학중인 최원형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받아 최범술은 해인사 학림에 재학중인 학생들과 선언서 1만매를 인쇄하여 서부 경남에 배포하고 서포면 송지환. 신영범의 자택에서 태극기 수백 매를 만들어 서포. 곤양 일대에 배포하였다.

최범술은 송지환. 신영범. 임응주. 송찬홍. 이주효. 송용수. 박우미동 등과 함께 곤양 장날인 3월 중순에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 시위를 전개했고 4월 10일, 4월 16일 양일에 걸쳐 서포면 개진(開進)학교 학생과 주민들 100여 명을 모아 독립만세를 크게 외치고 시위를 전개하였다.

주동자 8명은 모두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고 혼절하였다.

최범술은 독립선언서를 가져온 주동자였으나 만 15세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훈계방면되었다.

서포면 서포초등학교 교정 오른 쪽 방향 꽃밭에는 1968년에 건립한 '독립운동 한 이들의 기념비'라는 제목의 비가 세워져 있다.

비문 내용을 그대로 옮겨 본다.

'이 서포 고장 땅에서 생을 받은 일곱 동지의 기미년 3월에 있었던 독립운동 사실을 적는다.

송지환(宋芝煥), 송수완(宋守完). 나이 17세, 박또살동은 그 보다 하나 위 고 송찬홍(宋贊洪)은 22세, 송용수(宋龍守)는 그 보다 한 살 더하고, 신영범(申永範)은 26세 최연장이며, 현존하는 임응주(林應柱)는 14세로서 당시 산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주인공이기도 하며 이 글을 적는 나는 16세 되던 해 그 해 3월 중순께 곤양 장날을 받아 우리 고향 일대의 모든 사람들이고 <독립선언서>를 읽고 독립만세를 높이 외치고 태극기를 흔들며 일제와 싸웠던 것이다.

또 그들의 팔목에 오라를 채웠으니 그 허리엔 포승줄이 사리었고 그리하여 일제 법관은 그들에 수년씩 형장이기 하였고 그 혹형에 못 이겨 그들 향년(享年)을 다 못하고 죽은 분이 여섯 분이나 된다.

나는 독립선언서를 가져온 두모자였으나 만 15세가 못되므로 그 때의 체형을 감면 하였던 것이다.

이제 그 때의 일을 회상(回想)하니 감개무량(感慨無量)하여 이 시(詩)를 읊는다.

"청춘의 애 끊는 조국에서
우렁찬 소리 그 의로움에

끝내 빛나 광복이 오고
우리들이 배우던 교정에
이 비가 서노니 이 강산 조국(祖國)이
기리 빛나리라”
1968년 무신 광복절 최범술 글을 짓고 오제봉 글을 쓴다.
광복의사기념비 건립추진위원회’

* 최범술 선생은 항일투사로 옥고를 치르고 해방 후 사천 삼천포지역 국회의원을 지냈고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 오제봉 선생은 해인사 스님. 여러 이름을 사용했다. 영남예술제 발기인, 의곡사 주지, 서예가로 유명하다.

8) 사남면 3·1 의거

사천시 사남면 우천리 바리안 마을 도농교류센타 바로 앞에 3·1운동 기념비기 2016년 12월에 건립되었는데 이는 1919년 4월 중순 어느 날 일본 헌병 3명이 능화마을 입구를 지나가자 터골산에서 마을 청소년들이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하자 다음날 일경이 나타나 주동자 17명을 잡아 헌병대로 연행한 뒤 엄중한 조사와 혹독한 고문을 가하여 초죽음이 된 채 석방되었다. 주동자 문명표는 45일동안 유치되어 갖은 고문에 시달리다가 사경에 이르러서야 석방되었다.

그 당시를 기념하기 위해 사천시의 지원을 받아 2016년 12월 9일에 제막식을 거행했다.

17명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관일, 김주봉. 김기범, 문종석, 문명표, 김수명, 김또정일, 김몽우, 김재상, 김덕우, 김장언. 곽성삼, 곽응삼, 곽의삼, 문득용, 문석표, 문장표이다.

3·1운동 기념비 건립추진단장은 김갑성(우천리 847번지)이며 근거는 사천면 여지승람 속간에서 발견된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글을 지은이는 단암 김도세 이며, 글쓴이는 호암 하태현이고 자연석 기증은 강용표(죽전리)라고 새겨져 있다.

제5장. 신간회 사천지회 활동

신간회 창립

신간회(新幹會)란 민족협동전선으로서 일제가 승인한 단체이지만 민족 대동단결과 투쟁을 위해 전 민족대표들이 결성한 전국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 단체였다.

본부는 1927년 1월 19일 27인의 명의로 발기하여 다음달인 2월 15일 서울 종로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역사적인 신간회가 창립되었다.

이날 창립대회는 250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는데 방청객까지 합하면 1천여 명이 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조선일보 부사장 신석우가 임시의장이 되어 서기, 사찰 등을 선출하고 회원 점명이 있는 후 조선민흥회와 협동한 경과보고가 있었다. 또 규칙안을 통과시킨 후 회장에 조선일보 사장 이상재(李商在), 부회장 홍명희(소설 임꺽정 저자)가 선출되고 나머지 임원은 전형위원 11명에게 위임했다.

민족 유일당이었던 신간회의 강령도 선포되었다.

①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② 우리는 단결을 견고히 한다.

③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본부 발기인과 중앙위원 및 간사 55명 중에는 유림대표 4명이 들어 있었다.
김명동(金明東), 이정(李淨), 오화영(吳華英) 등 9명, 천도교계는 권동진(權東鎭) 등 3명, 불교계는 한용운(韓龍雲), 조선일보계는 신석우(申錫雨), 이상재(李商在), 안재홍(安在鴻), 장지영(張志映) 등 9명, 학계에는 조병옥(趙炳玉), 유억겸(兪億兼), 이순탁(李順鐸), 김활란(金活蘭) 등 4명이었다.

위 발기인 겸 중앙위원 중에 진주출신 2명이 활약하게 되는데 유림계 대표로 상경한 하재화(1860~1947), 정태석(1870~1928) 선생들이다. (고등경찰요사, 동아일보 1927년 1월 20일자)

하·정선생 두 분은 생원, 진사시험에 각각 합격한 학자들로 항일정신이 뚜렷하여 교육봉사에 앞장섰던 이들이다.

정진사와 하생원은 향리에서 학생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계셨다. 이 무렵 두 분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 중에서 사천 출신 청년들이 있었다. 그 이름은 김의진(金義鎭), 박남준(朴南遵), 하용진(河龍鎭), 강휘생(姜彙生) 등이었다.

박남준(1892~1956)은 사천시 정의동에서 태어나 평화동 731번지로 옮겼고 다시 선인동 539번지로 옮겨 살면서 상업에 종사했다. 1927년 6월에 이르러 두 스승의 지도에 따라 신간회 사천지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다.

박남준 선생이 그의 자택에서 창립총회 준비 모임을 가질 때 진주에서 활동하는 김의진, 사천청년회 재무부장 강휘생 등 세 청년이 준비위원이었다는 사실이 조선일보 1927년 6월

20일 자에 보도되었다.

김의진(1894~1950)은 사천읍 출신이지만 도청소재지 진주로 들어가 진주청년회 부회장과 천도교 청년회 회장(1922년 8월)으로서 청년회원 남홍(南洪)과 함께 “조선아 살기를 도모하라”라는 제목으로 강연하고 진주여고 설립 발기인으로 5백원이라는 거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그후 경남 결사대를 조직하여 활동 중 일정에 체포되는 등 수차례 옥고를 치른 항일투사였다.

위의 청년들이 신간회 사천지회를 준비한 것이다. 그것도 경남도 21개 시 · 군 중에서 최초로 설립을 시도했다는데 의의가 크다.

사천지회 설립의 주역이었던 청년들의 공적을 살피고 어떤 과정을 거쳐 언제, 어디서 창립행사를 하고 어떠한 활동을 전개했었는지 등을 조사, 연구해 보고자 한다.

사천 신간회 설립 및 활동

경상남도 21개 지회 중에서 최초로 설립을 시도한 사천지회는 박남준, 김의진, 강휘생, 하용진 선생 등이 발기하여 준비 모임을 열었다는데 중요한 뜻이 있다.

무엇이든지 처음으로 시작하는 일은 그만큼 난관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이다.

네명은 서로 뜻이 동일하고 매사에 적극적인 이들이었기 때문에 일은 신속하게 진행되어 두 번째 준비 모임에서 창립대회 일자, 장소, 절차가 확정되었다.

창립총회 일자는 1927년 6월 19일 오전 10시로 하고 회원 회비는 30전, 회원 자격은 20세 이상 조선 청년으로 정했다.

창립 당일 6월 19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사천 보통학교 강당에서 개최키로 한 창립총회는 준비 관계로 오후 1시로 연기되어 개최되었다.

준비위원 박남준씨의 의미심장한 개회사가 있었고 그간의 준비과정과 설립의미를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임원선거에 들어가 전형위원을 뽑아 간접선거 방식으로 진행하던 중 회원들이 전형위원에 문제가 있다는 등 합당치 않다는 이유를 제시하자 다시 전형위원을 선출했다.

사천지회 내에는 출판부, 조직부, 선전부 등이 필요치 않다는 의견에 따라 세 부서에는 간사를 두지 않기로 했다. (조선일보 1927년 6월 24일자)

신간회 사천지회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지부장 하용수(河容守), 부회장 김준호(金準鎬), 서무부 총무 간사 박남준(朴南遵), 상무간사 이윤조(李允祚), 김학권(金學權), 재무부 총무간사 박명조(朴明祚), 재무부 상무간사 강종래(姜宗來), 정치·문화부 총무간사 최보련(崔保聯), 정치·문화부 상무간사 목홍수(睦興洙), 박남상(朴南橡), 조사부 총무간사 강휘생(姜彙生), 조사부 상무간사 박남섭(朴南燮).

지회장으로 추대된 하용수(1892~1963)는 선인동 출신으로 일찍이 유학을 배운 학자였다. 당시 회원 중에 최고령인 만 43세이지만 임원에 선출된 것은 그의 인품에 감동되었기 때문

이다.

상무 간사로 선출된 이윤조(1906~1959)는 사천읍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1919년 3월 사천 3·1 만세 운동을 지도했었다. (독립운동사 9권 267,268면) 그 후 사천 청년동맹 간부(1925년 12월)로 선출된 후 신간회 활동에 참가한 항일 투사였다.

상무 간사로 선출된 김학권(1906~1970)은 김또송치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으며 선인동 출신이다. 1930년대에는 진주시 나동면 갑부이며 고려대학교(보성전문) 설립 이사장 김기태(金琪部)의 가내 집사로 일했다. 자녀 김기찬, 김기준은 용현면 정수사 주지승이다.

상무간사로 선출된 목홍수(1906~1945)는 고성군 하이면장 목정구의 삼촌으로 사천 보통학교 9회 졸업 후 밀양 박씨와 혼인하여 딸 1명만 낳아 일본으로 건너가 살았다.

박남상(1900~1967)은 선인동 출신으로 3 · 1운동에 참가했다. 장남 박용규(朴容珪)가 있다. 박남섭은 박남준의 친족이었고 역시 선인동 출신이며 사천 청년회에 가입, 활동하다가 신간회 간사로 선출되었다.

그날 임원서거를 마치고 곧 토의에 들어가,

① 지회 규약을 어떻게 정하고 적용할 것인가

② 모임의 유지방침에 관한 내용은 간사회에 일임키로 한다.

③ 지회 회관에 관한 내용

④ 지회 확장에 관한 것

등을 의논하고 첫 총회를 마감했다.

총회가 끝난 지 약 한달 후인 1927년 7월 22일 오후에 총무간사 4명(박남준, 박명조, 최보련, 강휘생)이 모여 총무간사회 모임을 가졌다. (조선일보 1927년 7월 29일자) 이 모임에서 세 가지 결의 사항을 천명했다.

一. 통영 삼구회 폭압사건(친일단체로서 신문기자들을 폭행함)을 조사하여 악질분자 죄상을 경계하는 동시에 내용을 본회에 통고할 것.

二. 금번 순회연사들을 초빙하여 강연회를 개최할 것.

三. 지방에 사는 토지 없는 청년들을 위해 향교 토지를 교섭할 것.

경남의 다른 시·군에서는 지회 설립운동이 전개되기도 전에 사천 청년들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엿볼 수 있다.

박남준, 강휘생, 하용진 등의 희생적 노력에 의해 지회 회원들과 사천 군민들을 점차 계몽할 수 있었다. 회원수도 점차 많아지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창립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회장 하용수는 이름만 있고 활동이 없었다. 일제의 눈치만 살피며 서울에서 개최되는 중앙집행위원 모임에도 참석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이에 박남준, 강휘생, 서태권, 강종래 등이 들고일어나 정기총회를 개최키로 정해버렸다. 회칙에는 매년 12월마다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했으며 역원의 임기는 1개년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창립 6개월 만에 박남준 등이 임원 개선 등 대변혁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1927년 12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천읍내에는 비라 수천 장이 뿌려졌다. 선인동, 정의동 일원에는 만국기 수십장을 달았고 신간이라고 쓴 붉은색기 2개가 대회장에 걸렸다. 정회원 40여 명, 방청객 3백여 명이 모였다. 이날 회장 하용수는 불참한 채 박남준, 강휘생 등이 교대로 사회자가 되어 서기 서태권, 회계 대표 강종래의 중간보고가 있었다. 오후에는 투표를 실시한 결과, 회장에 박남준씨가 선출되었다.

사천 지방단체와 지주의 소작인 착취사건에 관한 토론이 있었고 만주 길림성에 사는 교포들의 피해 사건에 관해 조사한 총무간사 강휘생의 보고가 있었다.

곧 임원선거를 위한 정형위원 선거에 들어가 4명을 선출했다. 또 토의 및 결의사항이 있었으나 길림성 사건에 대해서는 일본 경찰의 방해로 더 이상 토론을 전개하지 못하고 다음 다섯 가지 사항만 토의, 토론할 수 있었다.

① 삼천포 박채규 소작 착취사건
② 사천 유치원 건축촉진에 관한 건
③ 사천 소년회 내부정리에 관한 건
④ 동아일보 인물 투표에 관한 건
⑤ 회원 모집에 관한 건

(조선일보 1927년 12월 21일자)

개선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박남준(朴南遵)
부회장 진갑생(陣甲生)
서무부 총무간사 이동우(李東友)
서무부 상무간사 김봉현(金奉顯)
재무부 총무간사 임순백(林順伯)
재무부 상무간사 최병민(崔昞敏)
정치·문화부 총무간사 강휘생(姜彙生)
정치·문화부 상무간사 김학권(金學權)
선전부 총무간사 박남섭(朴南燮)
선전부 상무간사 황성칠(黃性七)
간사 서태권(徐泰權), 김준호(金準鎬),
정규한(丁奎瀚), 홍윤권(洪潤權), 강계수(姜桂秀)

부회장으로 선출된 진갑생(1900~1975)은 선인동 출신으로 사천 보통학교 6회(1917년 3월) 졸업생이며, 고성농협, 사천농협 전무, 조합장을 역임했다. 자녀 병문은 재미의사, 차남 병국은 부산에서 일동주택 부사장으로 활동했다.

이동우는 사천청년회 회장(1928년)과 경남청년연맹 대의원이었고 신간회 대의원 후보와 간사로 활동했다.

김봉현(1907~1954)도 선인동 출신으로 사천보통학교 14회(1926년 3월) 졸업생이다.

임순백(1903~1969)은 정의동 출신으로 사천보통학교 12회 졸업생. 사천 3·1운동을 지도했고(독립운동사 267면) 자녀로 상경, 상래 등이 있다.

최병민(1908~1960)은 사천읍 용당동 출신으로 사천보통학교 13회(1924년 3월) 졸업, 일본 중앙 대학에 진학했다. 뒤에 신간회 대표로 선출된다. 자녀로 연태, 연경(초등학교 교장), 연철(동양시멘트 대표이사 진주 소재) 등이 있다.

하용진(1981~1966)은 사천읍 구암리 출신으로 부친 하성기(河聖基)께서 일찍이 동학란 때 진주시 수곡면 대표로 활약한 공로가 있다. 자녀 영주는 향리를 지킨다.

정규한(1889~1937)은 고성읍 출신이지만 사천 수석동으로 이주해 살면서 철진한약방을 경영했다. 자녀로 영진, 낙진(대방초등학교장) 등이 있다.

홍윤권(1894~1983)은 정의동 출신으로 자녀로 정순, 찬주 등이 있다.

지회 간부급으로 등재된 32명중 12명이 사천보통학교 출신이며 나머지는 서당, 향교에서 유학의 전통을 배운 학자들이다.

사천군민의 8할이 소작인들이었지만 지회 간부급은 중소 지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작인들을 위한 정책을 펴거나 소작인들의 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싸워 주지 않았다. 그 대신 사천 유치원, 소년회에 간여를 하거나 웅변대회에 참가하고 문예작품 전람회에 참가하는 일 등을 추진했다.

통영의 친일단체의 횡포와 만주 길림성 동포의 애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기도 했다.

1928년 2월 1일 오후 7시에 조선일보 사천 지국에서 사천지회 간사회를 개최했는데 사회자는 회장 박남준이었다.

이날 결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간회 본부 창립일 2월 15일과 지회 창립일 6월 19일 모두 기념하기로 한다. 재무부, 정치문화부, 선전부 등에 준비위원을 두기로 하고 준비한다.

② 웅변대회는 구정 1월 15일에 개최하되 각 단체가 연합체로 주최한다.
연사 5명을 선정함
서태권, 강휘생, 박남준, 윤치상, 강종래
윤치상(1904~1949)은 사천 3 · 1운동 지도자 윤수상(1905~1991)과 친 형제간이다.

③ 여성회원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면제해 준다.

④ 대표회원 1인을 두고 상경시 실비에 해당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⑤ 소년회 문예작품 전람회에 참가할 것에 관한 내용

⑥ 회원 입회에 관한 내용 등을 토론했다.

(조선일보 1928년 2월 7일자)

1928년 2월 20일 오후 8시에 사천 청년동맹과 신간회 사천지회의 연합 회의가 개최되었다. 결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북 김천 금릉학교 문제
천여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던 금릉학교(교장 석대형)를 일제 당국이 강제 폐쇄시킨 사건에 대하여 사천지회에서는 격문을 작성하여 김천 각 단체로 하여금 학원 개학 운동을 전개토록 촉진한다.

② 고성보통학교 학생사건에 대하여 조회문(照會文)을 발송케 한다.

③ 유치원 후원회를 각 단체 연합으로 조직한다.

④ 유급 상무를 둔다.

⑤ 구장 회의에서 유치원 후원에 관한 내용을 건의케 한다.

(조선일보 1928년 2월 28일자)

이 무렵 회의는 주로 사천 청년회관에서 열 수 있었는데, 사천시 정의동 337번지로 현재 사천 청년회의소 및 유치원 일원에 원래 단층 목조 기역자형 기와집이 있었다고 말한다. (황대옥, 이성호 증언) 이곳은 본래 황순주 부친의 토지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1928년 2월 25일 오후 8시에 경남 청년연맹 집행위원 회의가 고성군 고성읍 호남 여관에서 개최되었다.

이 모임에서는 집행위원장에 신간회 구성 지회장 천두상(해방 후 경남도 경찰국장)이 선출되었고 진주 신간회 간사 김진화, 마산 신간회 간사 최철용, 사천 신간회 간사 이동우 등이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집행위원 후보에 사천 신간회 간사 강휘생 등이 선출되어 청년회 단체와 신간회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한 몸과 다를 바 없었다. 그리고 활동 내용과 목적이 비슷했으며 계몽, 강연, 소수를 위한 권리청원 등에 있어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조선일보 1928년 4월 21일 자에 의하면 삼천포에서도 신간회를 조직하려던 움직임이 있었던 모양이다. 설립준비 위원들인 김덕수(金德洙), 강학수(姜鶴秀) 등이 삼천포 청년회관 내에서 설립 모임을 개최하려던 1928년 4월 18일 밤 갑자기 괴청년 수십 명이 나타나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설립 모임조차 하지 못했다. 그후 설립되었다는 기록이나 보도 자료가 없는 것을 봐서 삼천포 신간지회는 영원히 설립되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 같다.

1928년 12월중에 예정된 정기대회가 일제 당국의 방해로 계속 연기되고 있었다. 회장 박남준, 부회장 진갑생, 총무간사 강휘생 등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엄중 감시되었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면담이 거부되었다.

약 두달 간 집회를 금지 당하다가 드디어 임시 간사회만 개최할 수 있었다.

정기대회를 개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편법으로 서면대회로 형식을 바꾸어 개최함으로서 정기대회를 대신키로 했다. 우선 전형위원을 선정하여 전형위원 모임에서 임원 후보 12명을 선정한 것이다.

전형 위원 명단

강휘생, 이선동, 황성칠, 박남섭, 강종래, 하용구 박기진, 정규한, 전종옥, 강정애(여), 강달필, 박명조

서면대회란 회원들이 한 장소에 모이지 않고 서신으로 왕래하며 의견을 주고받는 형식이다.

서면대회로 선출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황성칠, 부회장 박남섭, 서무부 총무간사 강휘생, 서무부 상무간사 이선동, 재무부 상무간사 박기진, 정치문화부 총무간사 강종래, 정치문화부 상무간사 강종래, 조사부 총무간사 하용구, 조사부 상무간사 강달필, 간사 정규한, 간사 전종옥, 간사 박명조

대표 회원에 강휘생
대표후보회원에 강종래, 박남섭
(조선일보 1929년 2월 26일자)

동아일보 1929년 10월 30일자, 조선일보 1929년 9월 21자 등에 의하면 신간회 경남 연합회 발기인 모임이 개최된바 있으나 일제 당국의 탄압으로 결성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또한 각 지회별 활동상황도 알 수 없는데 사천지회 역시 1929년 한 해 동안 아무런 활동 내력이 보이지 않았다.

화장 황성칠(1904~1980)은 정의동 출신으로 사천보통학교 12회(1923년 3월) 졸업생, 서울 휘문고 중퇴, 자녀들 후기(해운회사), 세기(한전 부장), 춘기(전 사천초등학교 교장).

강휘생은 선인동 출신 유학자, 후손 없음.

이선동(1900~1977)은 선인동 출신. 사천보통학교 8회(1919년 3월) 졸업생으로 사천 3 · 1 운동대열에 참가했다. 손자 호준, 기춘 등이 있다.

하용구(1904~1958)는 정의동 출신. 일본 사진 전문대학 졸업. 자녀로 만조(진주기계공고 교사), 안자, 영자 등이 있다.

전종옥(1906~1957)은 선인동 출신으로 사천보통학교 14회(1926년 3월) 졸업생이다.

1929년 12월에 개최되어야 할 정기대회가 해가 바뀌어도 일제의 방해 공작으로 개최할 수 없었다. 대회 소집이 어렵게 되자 조선일보사 사천지국 내에서 임시로 간사회를 개최하게 된다.

회장 황성칠의 사회로 임시의장은 강휘생이 선출되었다.

회원 10인에 대표 1인을 선정하여 임시대회를 개최함으로서 정기대회를 대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장과 같은 성격의 집행위원장에 강휘생이 선출되었다.

집행위원에 박남섭, 황성칠, 이선동, 김봉제, 김학권, 검사위원장에 강종래, 검사위원에 최병민, 박명조, 이유성 등이 선정되기도 했다.(조선일보 1930년 1월 5일자)

위와 같은 간접 선거방식은 불법이라면서 이의를 제기한 회원이 있었으니 곧 최병민이었다. 전국 지회가 회장제를 위원장제로 바뀜에 따라 직명을 바꾼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10명 회원이 대표 한 명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김학권, 하용구 등이 동조하여 임시대회를 소집하니 1930년 3월 20일이었다.

임원선거에 돌입하여 선출된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최병민, 서기겸 서무부 김학권, 황성표, 재무부 강종래, 강휘생, 조사부 박남섭, 김봉현, 선전 조직부 박명조, 하용구, 문화 선전부 황순주, 추만오,

추만호(1906~1960)는 구암리 출신으로 직업은 농업. 함흥추씨. 황순주는 사천보통학교 8회 졸업생이다. 위 두명의 신간회 간사 활동여부는 구전으로 확인된다.

1930년 10월 이후에는 정기대회는 물론 간사회, 연합집회, 강연회 등 모든 집회의 소집이 불가능해졌다. 일제의 원천봉쇄 작전 때문이었다.

3년 4개월 동안 활동한 신간회 사천지회, 경남에서 최초로 설립되어 모든 면에서 앞장서

왔던 사천지회.

신간회의 사회적 활동은 계몽운동이었다.

웅변대회와 강연회였고 조선어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농민들의 소작문제에 개입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노동의 자유에 대한 요구를 꾸준히 전개하기도 했다.

미신타파, 금주, 단연, 조혼 금지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토론.토의했다. 청년회와 함께 의논하고 함께 활동한 흔적도 보인다.

경남에서 최초로 설립한 사천지회의 활동상과 간부 명단을 기록한다.

2017년은 신간회 창립 90주년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 있는 조사가 되었다.

지회 임원진 32명 중 12명이 사천보통학교 출신이었고 나머지는 서당이나 향교에서 유학을 배운 인사들이었다.

직업도 주로 농업이지만 상업, 대서업, 면서기, 농협서기, 교사 등 다양했다. 오로지 애국계몽에 앞장서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양보하고 격려하며 협력했음을 짐작케 한다.

이번에 발굴된 사천 애국지사들에 대해서도 박남준 후손 외에는 모든 후손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앞으로 더 많은 자료들이 확보되면 좀더 자세하게 기술하도록 하겠다.

제6장. 다솔사와 항일운동

사천시 봉명산에 위치한 다솔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인 범어사(梵魚寺)의 말사이다.

지증왕 12년 (511년) 연기조사(緣起祖師)가 창건하여 '영악사(靈嶽寺)'라 하였고, 선덕여왕 5년(636년) 건물 2동을 신축하고 다솔사로 개칭하였다.

문무왕 16년 (676년) 의상(義湘) 대사가 다시 '영봉사(靈鳳寺)'라고 칭하고, 이어 신라 말기 도선(道詵) 국사가 중건하고 다솔사라고 하였다.

충숙왕 13년 (1326년) 나옹(懶翁)이 중수하였고, 조선 초기에 영일·효익 등이 중수하였으며, 임진왜란의 병화로 소실되어 폐허가 되었던 것을 숙종 12년 (1686년) 복원하였다. 영조 24년 (1748년) 대부분이 소실되었다가, 1758년 중건하였다. 현재의 건물은 대양루를 제외하고 1914년의 화재로 소실된 것을 이듬해 재건한 것이다.

현존하는 건물은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83호로 지정된 대양루(大陽樓)를 비롯하여,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48호인 극락전과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49호인 응진전, 대웅전·나한전(羅漢殿)·천왕전(天王殿)·요사채 등 10여 동의 건물이 있다.

대양루는 1749년(영조 25) 건립된 건평 106평의 큰 건물이다. 1986년에 수리하였으며, 2000년 1월에 다시 보수를 마쳤다.

1978년 2월 8일에 있었던 대웅전 삼존불상 개금불사(改金佛事) 때 후불탱화 속에서 108개의 사리가 발견됨에 따라, 이 절에서는 익산 미륵사지의 석탑을 본뜬 높이 23m, 30평 정도의 성보법당(聖寶法堂)을 탑 안에 설치하여 적멸보궁사리탑(寂滅寶宮舍利塔)을 건립하였으며, 대웅전이라는 현판을 내리고 적멸보궁(寂滅寶宮)이라는 현판을 세우게 되었다.

이밖에도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9호인 보안암석굴(普安庵石窟), 부도군(浮屠群) 등이 있다.

보안암 석굴은 고려 말에 창건되었다고 전하여지며, 경주 석굴암의 형태와 비슷하다. 본존불을 중심으로 하여 1.3m 내외의 석불 좌상 16구가 안치되어 있는데, 조각수법으로 보아 조선시대 작품으로 추정된다. 부도군에는 도명(道明)·낙화(樂華)·성진(聖眞)·풍운(風雲)·세진(洗塵) 등 5인의 부도가 있다.

천년고찰 다솔사!

그곳에는 역사의 아픔을 함께한 흔적이 있었다.

암울한 일제 강점기 중 한 줄기 빛이 다솔사에 어려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만해 한용운이다.

1917년부터 1918년까지 만해 한용운선생는 다솔사 요사채 안심료(安心寮)에 머물렀다.

다솔사를 특히 주목해야 하는 데는 이곳에서 불교계 대표 항일비밀결사인 '만당'(卍黨)이 태동한 데 있다. 만당은 1930년 5월 한용운 선생의 민족의식에 큰 영향을 받은 불교 청년들이 식민지 불교 극복, 불교 자주화, 불교 대중화를 기하려는 의식에서 시작됐다. 일본 다이쇼(大正)대학 불교과를 졸업한 신지식인으로 당시 이곳 주지로 있던 최범술(효당스님), 부산 범어사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민족해방과 불교 혁신에 힘쓴 김법린, 동양철학을 연구해 대한민국 건국 철학과 국민윤리 기반을 닦은 김범부 선생 등이 주축을 이뤘다. 이들은 다솔사를 근거지로 삼아 전국 각 지역은 물론 일본 도쿄까지 조직을 확장해 일제 침략 세력과 끊임없이 투쟁했다.

1932년에는 당원 80명을 확보하는 등 활발한 운동을 이어갔다. 당시 당원들은 엄수해야 할 서약으로 비밀한사엄수(秘密限死嚴守)와 당에 대한 절대복종을 약속했다. 모든 것은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규제됐다. 이 때문에 지금도 이들 활동과 관련한 1차 자료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엄격한 내부 규율에도 일제 삼엄한 사찰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1938년 말 만당은 진주경찰서에 검거되기 시작했다. 사천은 물론 서울, 진주, 합천, 해남, 양산 등지에 불어닥친 경찰의 검거 열풍에 김법린, 장도환, 최범술, 박근섭, 박영희, 김범부 선생 등이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안심료는 훗날 김범부 동생 김동리가 소설 '등신불'을 쓴 곳으로도 유명하다. 현재 안심료 앞에는 한용운 선생과 만당 주요 당원들이 만해의 회갑을 맞아 심은 편백나무 15그루 중 3그루가 남아 올곧은 항일 기상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듯 다솔사는 임진왜란부터 일제강점기 말까지 피 끓는 항일 정신이 아로새겨진 사천지역 항일구국운동 성지라 할 만하다.

다솔사는 만해 스님을 중심으로 결성됐던 청년운동 조직인 만당(卍黨)의 은신처이자, 독립운동 자금 조달 기구였던 백산상회의 연락소였다. 다솔사와 독립운동과의 인연은 1933년 만해 한용운 스님이 제자였던 효당 스님이 주지로 있던 다솔사로 숨어들면서 시작됐다. 그 이후 남부지역 독립 운동의 본거지가 됐고 시대와 나라의 아픔을 해결하고자 하는 우국지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백산 안희제, 백산상회 대주주인 문영빈, 김동리의 친형이자 당시 동양사상의 1인자 김범부, 만해 스님의 제자로 불교혁신운동의 주역이었던 김법린 등 한국근대사를 가꾼 거목들이 그 속에 포함돼 있었다.

다솔사를 은거지 삼아 1930년 20여 명의 청년 불교도들이 조직한 비밀결사 모임이었던 만당도 힘을 얻어 나갔다. 만해 스님이 당수였던 만당은 다솔사를 근거지로 일본 도쿄에 지부를 설치할 만큼 활발한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일본의 식민지 정책을 배척과 정교 분리, 불교대중화를 주장한 만당은 소나무 우거진 숲 속에 위치한 다솔사에서 나라의 독립을 도모해 나갔던 것이다.

다솔사가 만당의 근거지가 되고, 만해 한용운선생이 기거하게 된 이유는 효당최범술이라는 사천출신 다솔사주지이자 독립운동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효당은 1904년 경상남도 사천군 서포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최종호[崔鍾浩], 어머니 광산 김씨 사이에서 4남 3녀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이름은 영환[英煥], 당호는 금봉[錦峰]이었고 효당은 그의 법호였다.

그는 1910년 고향의 사립학교인 개진학교를 입학하였지만, 재학중 일본인 교사 배척과 동맹휴학 사건으로 퇴학당하고 서당에서 한문을 수학하였다.

1915년 곤양공립보통학교에 편입하여 졸업하고, 당숙이 운영하는 서당에서 사서를 배우다

가 1917년 부모의 승낙을 받아 다솔사로 입산하였다.

입산하여 염불을 배우다 곧 해인사의 지방학림에 입학하여 환경[幻鏡] 스님을 은사로 수계하였다.

1919년 3 ·1운동이 일어나자 효당 최범술은 대구에 가서 3,000′여 매에 달하는 독립선언서를 등사하여 이를 대구 ·경주 ·양산 등지로 배포하는 일을 하였다.

뿐만아니라 합천읍내의 장날을 이용하여 일제의 우체국, 면사무소를 습격하고

전화선을 절단하는 적극적인 항일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이 일본경찰에 적발되어 곤양헌병분병대에 끌려가 야만스러운 폭행을 당하고, 진주검사국으로 끌려갔으나, 만 15세가 되지 않아 석방되었다.

석방된 효당은 해인사 지방학림을 졸업하고 다솔사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는 1922년 6월,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본에 건너간 그는 학비를 벌기 위해 신문배달원, 엿장수 등 갖은 고생을 하던 와중에도 무정부주의 독립운동가인 박렬[朴烈]과 박흥곤[朴興坤] ·육홍균[陸洪均] 등을 만나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과 함께 불령선인사[不逞鮮人社]′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불령선인지』를 간행하였고, 박렬의 일본천황 암살계획을 돕고자 상해로 잠입하여 폭탄을 운반해오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다시 일본에게 체포되어 8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다시 풀려난 효당은 1923년 4월 일련종 입정중학교에 편입학, 1926년 물리학교 입학, 1927년 대정대학 예과 입학, 1929년 봄 대정대학 불교과에 정식 입학하는 등의 학업에 전념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함양시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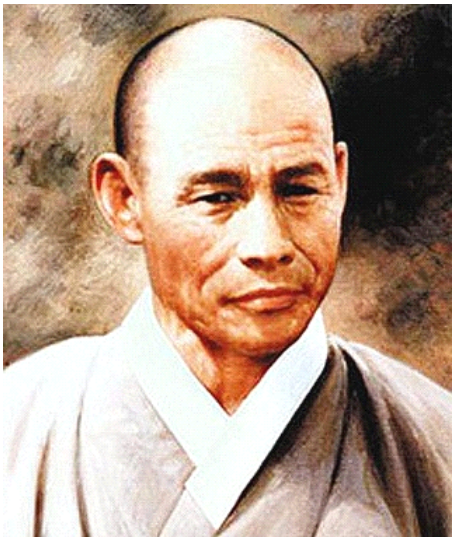
효당은 학업에 전념하면서도 재일불교청년운동에 가담하여 1927년 4월 재일조선불교청년회에 가담하여 간부로 활동하였으며, 동경 유학생들을 모아 불교와 일반 철학을 연구하는 삼장학회[三藏學會]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불교청년운동의 재조직의 일환으로 1931년 3월에 등장한 조선불교청년동맹 동경동

맹의 집행위원으로 활약하였다.

효당은 불교계 항일 비밀결사단체였던 만당[卍黨]의 조직과 활동에도 깊숙이 관여하였다.

만당은 일제 강점기 불교청년운동이나 유신회운동 등 공개적인 불교운동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었다. 이에 공개적인 운동의 한계를 절감한 백성욱 · 김법린 · 김상호 · 조학유 · 이용조 등이 1930년 비밀결사를 조직하기로 합의하여 여러 동지를 규합한 다음 비밀리에 창당선서를 하고 당명을 만당이라고 했다. 이후 조은택 · 박창두 · 강재호 · 최봉수 등이 합류하고, 이어 박영희 · 박유진 · 박근섭 · 한성훈 ·김해윤 등의 불교전문학교 학생들이 합류하여 결사를 조직하였다. 도쿄에도 김법린을 책임자로 하는 지부를 두었다.



만당은 정교분립 · 교정확립 · 불교대중화 등을 강령으로 채택하고 이들은 입당시 '비밀한사엄수 당의절대복종'의 서약을 했으며,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선언과 강령 모두 구송했다. 당수로는 한용운을 추대했으나, 만일의 경우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당사자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전체 당원이 80여명에 이르렀으나 신분을 알수 있는 사람이 24명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비밀조직으로 운영되었으나 1934년부터 내분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만당 당원은 교정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었으나 일부 당원들이 교원부의 요직으로 나아가면서 조직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1938년 김법린 · 최범술 · 장도환 · 박근섭 등이 체포되면서 만당이 알려지게 되어 해체되고 말았다.

단체의 성격상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파악할 수 없지만, 그가 만당의 당원으로 활동했던 사실은 여러 자료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1933년 2월 일본 대정대학 불교학과를 졸업한 효당은 졸업 직후에는 조선불교청년총동맹의 중앙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같은 해 명성여중을 설립하고 교장에 취임하기도 하였다.

1934년 사천에 광명학원(光明學院)을 설립하였고, 1936년 다솔사불교전수강원을 설립하였다. 이 무렵 김법린·김범부(金凡父) 등이 다솔사에 머무르며 은밀히 독립운동을 하였다. 1937

년 고려대장경을 인경(印經)하였다.

이 무렵의 효당은 다솔사 주지를 역임하면서 불교청년운동의 재정비라는 당면 과제와 항일운동가들 사이에 있었던 내분을 수습하는 일, 그리고 만해, 김법린 등의 주요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일 등이 그의 몫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다솔사는 불교계 지도자와 민족진영 인사들의 후원처, 즉 배일과 항일의 근거지가 되기에 이른다.

효당은 만당의 발각으로 인해 1938年 8月 또다시 진주서에 검거되어 옥고를 치르게 되었다.

다시 1943년 9월부터 13개월 동안 일본경찰에 의하여 경상남도경찰국에 구검되었다.

해방을 맞이한 효당은 1947년 미소공동위원회 대한불교단체대표에 피임되었고, 그 해에 해인사 주지가 되었으며, 국민대학(國民大學)을 창설하고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1948년의 5·10 선거 당시 사천·삼천포에서 출마하여 제헌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1951년 해인중고등학교를 창설, 이듬해에 해인대학(海印大學)을 설립하고 이사장 및 학장에 취임하였다.

교육에 대한 그의 열정은 계속되어 1947년 국민대학, 1951년 해인중고등학교, 1952년 해인대학 등의 교육기관을 설립하였다.

효당은 그의 공적이 인정되어 1969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으며, 1986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그리고 1960년 효당은 다솔사에 머물면서 원효학연구와 다도(茶道) 연구에 전념하였는데, 특히 *한국의 다도(茶道)*는 한국 최초의 다도(茶道) 관련 개론서라는 점에서 오늘날까지 크게 평가되고 있다.

또한 독특한 제다법으로 반야로라는 정제증차[精製蒸茶]'를 전수시킨 점이라든가, 한국 최초 차동호인들의 모임인 '한국차도회'

탄생한 다솔사.

를 전국적으로 망라 ·발족시켜 오늘날 여러 차회[茶會]'의 모태가 되게 하였다는 점 등에서 '한국 차문화'의 현대화에 끼친 공적을 잘 살필 수 있다.

효당만큼 이력이 다양한 사람도 드물 것이다.

승려이자, 3·1운동 때는 영남지방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했고, 훗날 비밀결사인 만당을 조직한 독립운동가, 제헌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정치가, 국민대학을 창설한 교육자, 다도인 등등이다.

다솔사와 항일운동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효당이라는 인물을 빼놓을 수 없고 그로 인하여 만해 한용운선생 등 많은 항일운동가들이 다솔사를 근거지로 활동하였던 것이다.

3·1 운동 선언서의 초안이 만들어지고, 불교 항일조직이

우리는 천년고찰이며, 차문화의 발생지라는 상징성과 더불어 항일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던 다솔사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제7장. 사천·삼천포 지역 천도교와 3·1 의거

1) 천도교와 3·1 의거

1904년 러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조선과 1905년 11월 17일 소위 을사보호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외교권을 탈취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사실상 우리나라의 지배권을 장악하였다. 1907년 7월 20일에는 헤이그 밀사사건을 구실로 고종황제를 강제 퇴위시키고 병약한 순종황제를 새로 즉위시킨 후 8월 24일에는 입법·사법권에 관리 임용권까지 모든 분야에서 통감의 승인을 받도록 한 7개 항목의 굴욕적인 '한일 신협약'을 체결하고 8월 1일에는 군대마저 해산하였다. 1909년 10월 26일 북만 하얼빈 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한일합방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하고, 12월 2일에는 애국청년 이재명이 매국노 이완용을 단도로 저격하여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하였다.

결국, 일제는 1910년 6월 먼저 경찰을 해산하고 대신 헌병을 치안경찰까지 겸직 토록 하고 동년 7월에 현역육군 대장인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가 제3대 주한 통감으로 부임하여 8월에 한일합방을 단행하고 초대 조선 총독으로 눌러앉았다. 주한 일본 헌병대는 소장 지휘하에 처음에는 782명으로 46개 분견대를 설치하였다가, 1908년 3월에는 헌병병력을 2,000명으로 증원하고 8월까지 헌병 보조병 6,300명을 추가로 증원하였다.

1910년 8월 22일 형식뿐인 합방조약의 조인을 끝내자 공식발표는 8월 29일까지 보류하였고, 이 동안에 일체의 신문 잡지를 폐간시켜 말을 들을 수도 할 수도 없게 만들었으며 집회결사를 철저히 단속하였다. 따라서 병합조약을 정식으로 발표한 8월 28일에 이르면 일간신문은 오직 총독부 기관지 일어판 경성일보와 한글판 매일신보만 남게 되었다.

그들은 언론기관과 출판물을 폐멸 시킴과 동시에 이 땅에서 집회 결사의 자유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데라우치가 제3대 통감으로 부임하는 그날부터 일반 공중집회를 일절 허용치 않았다. 병합조약이 조인된 이후에는 서울거리에서 왕래하는 시민 두세 명이 어쩌다가 길가에서 상봉하여 인사를 교환해도 헌병과 순사가 달려오는 형편이었다.

당시 천도교는 전국에 35개 대교구와 193개 교구 그리고 300만 명의 교인을 가진 우리나라 최대의 종단이었으며 매월 지방에서 올라오는 성금으로 중앙총부의 경상비는 물론 재정난에 시달리는 20여개 사립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고도 매월 수천 원씩 예금할 정도로 재정적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이 돈은 종로경찰서가 매월 천도교의 재무 회계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감시 속에 있어 장차 국권 회복 운동에 소요 될 막대한 운동자금의 조달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1918년 1월 윌슨 미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가 발표되자 손병희선생께서는 국권 회복 운동의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직감하시고 그해 4월 4일 부구총회에서 중앙대교당과 중앙총부 건

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교인 매호당 10원 이상씩의 건축헌금을 대신사 탄신기념일인 10월 28일까지 납부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모금이 시작되자 일제는 기부행위금지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천도교중앙총부가 보유한 한성은행의 3만원, 상업은행의 3만원, 한일은행의 6천6백원 등 총 6만6천6백원을 압수하고 이미 받은 성금은 전액 본인에게 반환하도록 강요하였다.
그러나 교인들은 왜경의 감시를 피하기위해 헌금을 돌려받은 양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성금액수를 10분의 1로 줄여 기장 하는 등 교당 건축 성금으로 약 500만원이라는 거금을 모금하였다.

건축은 1919년 봄에 공사에 착수하려 하였으나 3·1운동 관계로 중단되었다가 그해 7월에야 건축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대교당 건축에 22만원, 중앙총부 건물 건축에 5만원, 대지 구입에 3만원, 합계 30만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축 성금이 3·1독립운동과 독립운동 군자금에 사용되었다.

손병희선생은 한일합방 이후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대하여 끊임없이 구상과 준비를 은밀히 진행하던 중 1918년 8월 권동진·오세창·최린 세 사람을 조용히 봉황각에 불러, "세계의 동향을 주목하여 수시로 보고하라." 분부하셨다. 보고에 의하면 1918년 1월 미국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 원칙이 천명되고, 그해 11월에 4년간이나 계속되던 제1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이듬해인 1919년 1월 파리에서 대독강화조약 체결을 위한 세계의 정상회의가 열리기로 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때가 독립운동을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손병희선생은 1919년 1월 초순 권동진, 오세창, 최린을 불러 독립운동의 준비를 지시하시면서 독립운동의 3대 원칙을 제시하시니 이 세 원칙은 성사의 오래전부터 확고부동한 소신이었다.
- 독립운동은 대중화할 것
- 독립운동은 일원화할 것
- 독립운동의 방법은 비폭력으로 할 것

또한 독립운동의 추진은 권동진, 오세창, 최린 3인이 협의해서 진행하되 일본경찰의 감시가 심하니 최린이 거사계획을 주도하되 중요사항은 권동진, 오세창과 상의해서 실시하라고 지시하였다.

손병희선생의 지시를 받은 최린은 2월 초순 경 최남선, 송진우, 현상윤 등과 극비리에 수차 만나 독립운동에 대한 계획을 협의하였다. 독립운동은 대중화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무엇보다 먼저 민중의 신망을 가진 인물들을 간판으로 하지 않으면 대중 동원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이에 해당하는 인물들을 각 방면으로 물색해 보았으나 만족할만한 인물을 찾지 못하였다. 결국, 구한말의 대신 가운데 지조 있고 덕망 있는 인물 중에서 찾기로 하여 우선 윤용구, 한규설, 박영효, 윤치호 4인을 선정하고 교섭하기로 하였다.

윤용구는 구한국 대신으로 일본의 작위를 거절한 성품이 고결한 사람이었으며, 한규설은 을사보호조약 체결 시 참정대신으로 한사코 반대했고, 박영효는 소위 개화당 영수로 일본의 침략을 반대한 저명한 귀족 혁명가였다. 윤치호는 과거 독립협회장으로 특히 미국인 간에 신망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최린은 한규설, 송진우는 박영효, 최남선은 윤용구와 윤치호를 각각 맡아서 교섭해 보았으나 이들 모두가 승낙하기를 꺼리므로 결국 인물 중심의 독립운동 주도체제 구성은 실패하였다.

구한말의 지조 있는 대신들을 포섭 하려든 계획이 이처럼 수포로 돌아가자 최린은 민족대표를 다른 데서 구할 것이 아니라 의암선생을 독립운동의 영도자로 모시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다 같이 대표단에 참가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송진우나 최남선은 저명인사의 참여 없이 천도교만의 민족운동으로는 대중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하자, 최린은 흥분을 가누지 못하며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구한말의 대신을 중심으로 민족대표를 구성하려다 실패한 후 최남선이 최린을 찾아와 이르기를, “지금 기독교 측에서도 무슨 기미가 있는 듯한데, 내용은 잘 알 수 없으나 기독교 측에는 이승훈 목사가 무슨 일이든 더불어 의론할 만하니 연락을 하여보는 것이 어떤가?” 하였다. 최린은 즉시 현상윤과 의론하여 오산학교 출신인 김도태를 2월 8일 정주로 보냈으나 이승훈이 장로회 관계로 선천에 가 있어 직접 만나지 못하고, 오산학교 경영에 관하여 좋은 소식이 있으니 즉시 상경하라는 최남선의 말을 이승훈에게 전하게 하였다.

김도태의 전달을 받은 이승훈목사가 2월 11일 상경했으나 일제의 감시 때문에 최남선은 만나지 못했다. 대신 송진우가 현상윤과 함께 계동 김성수 댁에서 이승훈을 만나 천도교 측의 운동계획과 그간 저명인사들의 포섭을 위한 경위 및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광범위한 민족전선의 결성을 원하는 천도교 측 운동에 기독교 측에서 적극 참가함이 어떠한가 하고 물었더니 이승훈은 이에 적극 찬동하고 동지를 규합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날로 서울을 출발하여 2월 12일 선천에 도착한 이승훈은 사경회에 참석한 장로교 목사 양순백, 이명룡, 유여대, 김병조 등 동지를 만나 서울의 운동계획을 설명하였던바 일동은 한결같이 이에 찬성하였다. 이승훈은 14일 다시 평양에 나와 왜경의 감시를 피하기 위하여 기독병원에 입원하여 장로교 목사인 길선주와 신홍식을 만나 서울의 소식과 선천 동지들의 의향을 말하고 독립운동에 관하여 상의하여 동의를 얻었다.

2월 17일 이승훈은 재차 상경하여 최남선을 만나려 하였으나 연락할 방도가 없어 고민하던 차 기독교 청년회 간사인 박희도를 만나 기독교 측에서도 독립운동에 관한 논의가 분분하다는 말을 듣고 2월 20일 박희도의 집에서 남감리교 목사 오영화, 정춘수, 북감리교 감리사 오기선, 신홍식 등 여러 사람이 회합하여 독립운동에 관한 방략을 서로 협의한 결과 경성과 각 지방에서 동지를 규합할 것과 일본정부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할 것을 결의하였다. 당초 함태영 댁에서도 이와 별도로 이갑성, 안세환, 오상식, 현준 등이 회합하여 역시 독립운동에

관한 협의가 계속되었으나 의견이 구구하여 하등의 결정이 없이 산회하였던 터였다.

2월 21일 최남선은 소격동 이승훈 숙소로 찾아가 그동안 일경의 감시 때문에 상봉치 못했다 하면서 함께 재동 최린 댁으로 찾아갔다. 이승훈은 그간 자기가 행한 일을 말하고 어제 박희도의 집과 함태영 댁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면서, 기독교 측에서도 독자적으로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자 최린은 일국의 독립운동은 민족적 대사업이니만큼 절대로 통합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에 최남선도 이승훈도 동의하면서 내일 기독교 측과 다시 상의하여 대답하겠다고 하였다. 어제 회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운동자금 조달 문제였는데 천도교에서 한 5,000원만 융통해 주면 만사가 뜻대로 될 것 같다면서 변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최린은 일전에 천도교회에서도 은행에 예금하였던 돈을 왜경에게 전부 압수당하여 곤란 중에 있으나 될 수 있는 대로 주선해 보겠다고 말하였다.

그날 저녁 최린은 손병희선생을 찾아와 그 동안 경과사실을 일일이 보고하고 기독교 측에서 운동자금으로 5,000원을 지원해 달라고 하니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손병희 선생은 기독교 측에서 5,000원을 요구했으니 그 액수대로 융통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하시면서 돈은 곧 기독교 측에 보내고 아무쪼록 기밀이 새어 거사가 실패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라하였다.

다음날 2월 22일 천도교 금융관장 노헌용이 5,000원을 최린의 집으로 가져왔다. 최린은 즉시 이승훈 숙소로 찾아가 5,000원을 직접 전해주었다. 기독교 측에서는 22일 밤 이갑성 댁에서 이승훈, 박희도, 함태영 등 여러 사람이 모여 독립운동에 관한 구체적 방법을 협의한 끝에 천도교 측의 운동방법을 정확히 탐문 한 후 합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이 교섭을 함태영, 이승훈 양인에게 일임하였다.

다음 날 저녁 함태영과 이승훈이 재동 최린 댁을 방문하여 전날 기독교 측의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독립선언서'보다는 '독립청원서'를 제출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최린은 우리의 자주적 정신의 전통에 의한 독립운동이므로 독립선언이라야 옳다고 주장하자 양씨도 이에 찬의를 표하고 동지들과 상의 후에 회답하기로 하였다.

그날 밤 이승훈, 함태영 양씨는 함태영 댁에서 오기선, 박희도, 안세환 등 제씨와 숙의한 결과 천도교 측과 합동하여 독립선언서 선포를 결정하고 함태영, 이승훈 양씨를 기독교 측 대표로 선정하고 제반 교섭을 일임하였다.

2월 24일 이승훈, 함태영 양씨가 최린 댁을 방문하여 기독교 대표 자격으로 무조건 합동의사를 발표하였다. 이로써 천도교 측과 기독교 측의 합동이 공식으로 성립되었다. 기독교 측과의 정식 통합을 이룬 최린은 손병희선생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선생은 양대 종교단체의 합류는 이번 민족운동이 절대로 성공할 바탕을 이룬 것이라 하여 여간 기뻐하지 않았다.

당시의 사회상은 종교 분야 이외의 단체는 모조리 해산을 당하였으니 일반 사회를 포섭할 도리가 없었다. 그나마 종교단체만이라 하더라도 불교와 유교의 참가 없이는 완전한 민족의 통일 체제라고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2월 24일 밤 최린은 평소부터 친교가 있었던 신흥사 승려인 한용운을 계동 자택으로 찾아가 그간의 경과 사실을 밝혔더니 즉석에서 불교 측 동지들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참가할 것을 승낙하였다.

그 후 한용운은 불교 측 동지들과 규합하기에 노력하였으나 시기가 급박하고 일경의 감시가 심해 한용운, 백용성 두 분만 참가하기로 하였다. 다만 유교 측을 참여시키지 못한 것이 유감이었으나 유교 측은 원래 조직체계가 분명치 못하고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인물이 없지 아니하였으나 일경의 경계가 삼엄하고 더 이상 조직을 확대하다가 계획이 누설되면 대사를 그르칠 염려가 있어 운동의 주체는 3교단의 합동으로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독립선언서는 1919년 1월 하순 최린, 최남선, 현상윤이 합동하여 독립운동의 기본방향을 논의할 때 독립선언문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작성자의 물색이 논의되었다. 이때 최남선이 "나는 내 생애를 통하여 학자의 생활을 관철하려고 이미 결심한 바 있으므로 독립운동 표면에는 나서고 싶지 않으나 독립선언문만은 내가 지어볼까 하는데, 그 작성상의 책임은 최형이 져야 합니다." 하고 최린에게 물으며 자천하고 나섰다. 최린은 그의 문장력을 인정해 온 터라 그의 심정에 동정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다만 의암 선생의 뜻이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내세우니 이를 반드시 선언문에 반영하도록 부탁하고 속히 착수하라 하였다. 선언서의 골자는 최린이 말하는 취지와 최남선의 생각을 서로 논의해서 기초하였다.

그 후 최남선은 일본 정부, 중의원, 조선총독부에 보내는 통고서와 미국대통령 윌슨에게 보내는 청원서, 파리 강화회의 각국 위원에게 보내는 서한도 작성하기로 하고 우선 2월 15일 독립선언문을 작성 완료하여 최린에게 직접 건네주었다. 최린은 초고를 읽어 본 후 오세창, 권동진에게만 보여 주었는데 문안에 대해 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 후 한용운은 독립운동에 직접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최남선에게 선언문을 작성케 함은 불가한 일이니 선언문은 자기가 짓겠다고 주장한 일이 있었으나 최린은 선언서만은 최남선이 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용운을 설득시켰다.

독립선언서의 초고는 보성사 사장인 이종일에게 넘겨져 사원과 직공들이 퇴근한 후 신임할 수 있는 공장 감독 김홍규, 총무 장효근, 직공 신영구 그리고 기초자인 최남선 입회하에 2월 20일부터 인쇄에 들어가 25일까지 1차로 25,000매를 인쇄하여 신축 중인 천도교 대교당으로 운반하여 은닉하고 미리 정한 암호인 청색지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분배하였다. 천도교에서는 안상덕이 3,000매를 수령하여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방면으로 출발하였고, 이경섭은 1,000매를 가지고 황해도 방면으로 출발하였으며, 김상설은 3,000매를 인수하여 평양교구에 1,500매를 주어 평남지역에 배포한 후 나머지 1,500매를 평북지역에 배포하였다. 인종익은 3,000매를 인수하여 전라남북도를 거쳐 충청도 지역에 배포하였다. 기독교 측에서는 김창준이 3,000매를 수령하여 평양과 선천지방에 배포했고 이갑성도 2,000여 매를 인수하여 서울 시내와 경상도 지방에 배포했고, 불교 한용운도 3,000매를 인수하여 주로 경상도 지방과 서울 일원에 배포했다. 2월 27일 밤 이종일은 독립선언서의 부족분 10,000매를 추가로 인쇄하였다.

거사일은 3월 1일 오후 파고다 공원으로 결정하고 각 대표자 중 상호 간에 아직 인사가 없을 뿐 아니라 손병희선생을 아직 못 뵈었다는 인사가 많으므로 28일 밤 가회동 손병희선

생 댁에서 대표자 전원이 회동하여 거사를 위한 마지막 모임을 갖도록 약속하였다.

28일 오후 5시 가회동 손병희선생 댁에 23명이 모여 서로 인사를 나누고 손병희선생의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었다.

"이번에 우리의 의거는 조선(祖先)의 신성유업(神聖遺業)을 계승하고 아래로 자손만대의 복리를 작흥(作興)하는 민족적 위업입니다. 이 성스러운 과업은 제현(諸賢)의 충의(忠義)에 의지하여 반드시 성취될 줄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이어서 3월 1일의 거사에 대해 논의한 끝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대표들이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을 하기로 했던 원래의 계획을 바꾸어 태화관에서 오후 2시에 독립선언을 하기로 변경했다. 그것은 명일 파고다 공원에 많은 학생과 군중이 모이게 되면 군중심리로서 의외의 무슨 동요가 있을지 모르며 또 일본군·경이 무슨 간계로서 현장을 교란하여 폭동의 구실을 만들고 악독한 탄압수단으로 나올지 모르니 일경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둘째로 조선총독부에 독립선언서와 독립통고문을 보내는 것은 이갑성이 책임지기로 하였다. 셋째로 민족대표 전원이 모여 독립선언을 한 후 일제 경찰에 체포당하더라도 피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행동을 통일하기로 하였다.

3월 1일! 민족적 거사가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일경에게 발각되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된 것이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었다. 최린은 아침에 대문 안에 독립선언서가 두 장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서울 시내에 배포되었음을 확인하고 서둘러 손병희선생 댁으로 가서 시중의 동향을 보고하고, 권동진 오세창과 함께 12시경 인력거로 약속장소인 명월관 지점 태화관에 도착했다. 최린은 주인 안순환에게 30여 명분의 점심을 부탁하였고 일동은 산정 별실에 자리 잡았다.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민족대표는 1시가 넘자 대부분이 모였다. 탁자 위에는 나용환이 가져온 100여 매의 독립선언서가 놓여 있었다. 일동은 감격에 겨워 떨리는 손으로 각기 선언문을 들고 묵묵히 읽어 내려갔다. 1시 반이 넘어서자 민족대표 33인 중 길선주, 유여대, 김병조, 정춘수 4명만이 불참한 채 전원이 참집(參集)하게 되었다. 손병희선생은 이종일에게, "직접 독립선언서를 인쇄 배포했으니 크게 낭독하라"고 지시하여 이종일은 인쇄된 독립선언서의 오자를 고치고 낭독하였다.

낭독이 끝나고 당당히 경무총감부에 전화로 이 사실을 통보하자 일본경찰 수십명이 태화관을 포위하였다. 손병희선생은 일동에게 민족대표로서 당당히 행동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때 탑골공원에 모인 수만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독립선언 장소가 변경된 것을 뒤늦게 알고 학생대표 강기덕, 김원벽, 한위건 등 10여명이 태화관으로 달려와 민족대표에게 장소변경을 항의하고 탑골공원으로 가 학생 시민과 같이 식을 거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권동진과 최린이 장소변경의 사유를 말하고 간곡히 타일러 돌려보냈다.

한편 탑골공원에는 수만 명의 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학생들의 주도 아래 오후 2시경 중앙 단상에는 10년 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태극기가 나타났고 경신학교 졸업생 정재경이 단상에 올라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낭독이 끈나자마자 군중속에서 '대한독립만세' 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천지를 진동시켰다. 곧 이어 군중들은 공원을 나와 동서남북을 가릴 것 없이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가행진에 돌입했다. 성울역, 미국영사관, 광화문, 대한문, 소공동, 충무로, 창덕궁, 안국동, 서대문, 프랑스대사관, 동대문 등 서울 시내가 하루 종일 만세소리에 휩싸였다. 덕수궁 앞에서 고종 임긍의 국장을 보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온 군중들도 만세 대열에 합세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만세시위에 합류하는 시민들이 늘어나 수십만 군중이 서울 시내를 누비며 만세를 불렀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독립만세운동은 전국 방방곡곡으로 노도와 같이 퍼져나가 그 물결은 국경을 넘어 해외에까지 확산되었다.

이처럼 3·1운동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일원화·대중화·비폭력 원칙에 따른 3개 종단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더구나 당시 중앙집권제를 조직체계로 한 천도교의 지방조직이 희생적으로 참여한 데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2) 사천·삼천포 지역의 천도교의 활동

3·1 의거 당시 삼천포지역 천도교 책임자이던 후암(厚菴) 장태영(張台永)선생이 1919년 2월 상경(上京)하여 중앙총부(의암義菴 손병희孫秉熙)로부터 독립선언서 1매를 받아 버선목에 감추고 기차를 타고 귀향하게 되었다. 그런데 삼랑진역에서 하차해야 한다고 정신을 쓰고 있던중 홀연히 잠이 들어 깨어본즉 기차는 이미 원동역을 지나고 있어, 부득이 물금역에 하차한 후 국가대사(國家大事)를 앞두고 정성이 부족하였음에 막중한 자책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날은 어둡고 날씨는 혹한이라 어쩔 수 없이 역 주변 불빛이 있는 집을 찾아가니 마침 그 집이 제사를 모시고 난 뒤라 주인(主人)과 인사를 나누고 안방으로 안내되어 대접도 잘 받고 몸을 녹일 수 있었다. 부산(釜山)에서 마산(馬山:당시 종착역)으로 가는 첫차를 타고 삼랑진역에 도착하여 들어보니 간밤에 경성에서 내려와 하차한 승객들은 수화물과 전신(全身)을 수색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장태영선생은 그때서냐 천우신조(天佑神助)임을 알았다고 한다.

마산역에서 하차한 후 진주대교구까지 도보로 와 대교구 등사기(의암선생 지시로 진주대교구 미암 전희순이 매입해 둔 것)로 독립선언서를 인쇄하여 그중 300매를 가지고 교구 중신들과 협의하여 전 군민의 단합된 행사로 치르기 위하여 사천군민대표(泗川郡民代表)로 남양면(南陽面) 박종실(朴琮實), 청년학생대표(靑年學生代表)로 삼천포공립보통학교 2학년 담임교사 황병두(黃炳斗, 평양사람으로 박종실과 동문)씨를 추대하기로 하고 연락 책임 장태한(張台韓), 거사동원책임(擧事動員責任)은 전천도교인(全天道敎人)으로 정했다.

제 2 편

사천지역 항일독립투사

제2편 사천지역 항일독립투사

제1장. 정부 포상이 추서된 항일 투사

▣ 강금수(姜金秀) 선생

- 이명: 강금수 (姜金秀) 호: 태석
- 생몰년월일: 1899.11.7. ~ 1969.6.13
- 출신지: 경남 사천시 (삼천포) 동리
- 공적요점
  - 삼천포 지역 3·1 운동을 지도
  - 삼천포 장터에서 독립선언서 낭독
  - 제 3대 지역 주민들을 이끌고 시내 행진
  - 일경에 체포되어 징역 7월 집행유예 3년형 언도
  - 삼천포 청년회 총무로 활동 (1925년~)
  - 동아일보 삼천포 주재 기자 (1927년~)
-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 추서 (2000년)

강금수(姜金秀) 선생은 사천시(삼천포) 동동에서 1899년 9월 9일 출생했으나 일부 기록과 신분장지문기록에는 1900년 11월 7일 출생 기록도 있음.

선생은 대한민국 남단 삼천포 지역에서 3·1운동을 지도, 지휘한 분으로 상당한 지식을 소유한 분으로 인정된다.

당시 전 국민의 80%가 글을 읽거나 쓰는 두 가지를 모두 못한다는 시대에 옛 한자어가 많이 들어 있는 <독립선언서>를 대중 앞에서 읽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사천의 남양면에 사는 박종실은 진주로 달려가 진주 의거의 주동자로 강달영, 박진환 등을 만나고 삼천포 이금동에서 장지린을 만났다.

장지린과 박종실은 삼천포로 귀향해 노산(魯山)에 위치한 삼천포 보통학교 교원 황병두를 만나 수차례 설득해 동참케 하고 애국 청년들을 포섭할 때 김우열, 강금수, 고광세, 손우상, 장지제 등의 호응을 얻었다.

3월 23일 삼천포 장날을 기하여 시위 하기로 결정하고
제 1대는 삼천포 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노산공원에서 의거한다.
제 2대는 청년대를 중심으로 해변 백사장에 모여 의거한다.
제 3대는 남녀노소 다 모여 선구리 장터에서 의거한다.

위와 같이 결정한 애국 청년들은 각기 책임을 맡은 그대로 진행키로 했다.

제 1대 학생들과 졸업식이 끝나고 시위하기로 약속하고 태극기를 나누어 주었으나 뜻밖에

흥분한 학생들이 졸업식이 끝나기 전에 거리로 뛰어나오자 청년들도 급하게 선구리 장터로 집합하여 장터 중앙에 가설된 단상에 오른 강금수 선생이 <독립선언서>를 우렁차게 외쳤다.
강금수, 장지린, 손우상, 김우열, 고광세 등과 수백 명의 군중들이 사기가 충전하여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독립만세를 외치며 독립가를 부르며 시위를 진행할 때 맨 선두에서 지도, 지휘한 분은 강금수 선생이었다.
"천여 년 찬란한 역사국으로 오늘날 이 지경이 웬일이던가! 천부의 자유권은 사(私)가 없거늘 우리 민족 무슨 죄로 욕을 당하는가? 철사줄로 결박한 욕된 이 줄을 우리의 손으로 끊어 버리고 독립만세 우레소리 더 높은 곳에 바다가 끓는 듯 산이 동(動)하네"

강금수 선생은 큰 소리로 시위 군중을 이끌고 열광하니 남녀노소(男女老少)할 것 없이 각자 대문을 열고 동참하여 천지가 진동하였다.
시위 군중이 문선교를 지나 경찰서로 진격하자 50여명 경찰들이 나타나 야수처럼 군중을 난타하고 총검으로 찌르고 선두지휘자들을 체포하니 군중들은 흩어지고 말았다.
피체된 항일 애국지사들은 일경의 혹독한 고문으로 혼절하였다.
강금수 선생은 일경의 혹독한 고문으로 혼절하고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재판을 받고 보안법 위반으로 1919.5.5. 징역 7월 집행유예 3년형을 언도받고 석방되었다.
출옥한 강금수 선생은 3·1 애국동지 김우열, 손우상과 또 다른 동지들 최재문, 강봉수, 김종대 등과 함께 삼천포 청년회를 조직할 때 동참하였다.
삼천포 청년 연구회가 1922년 4월에 창립될 때도 동참하고 1925.5.10. 삼천포 청년들이 혁신 후 제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할 때 천병식(千炳植)은 회장, 박두석(朴斗石)은 부회장이 되고 강금수 선생은 총무로 활동, 봉사케 되었다.
사천, 삼천포 연합회 모임인 사천청년연맹이 1925년 12월 30일 창립될 때 강금수 선생은 대의원으로 참석했다.

강금수 선생은 동아일보 삼천포지국(지국장 정응주(鄭應柱))의 기자로 임용되었다. (동아일보 1927년 6월 30일자)
1927~1928년도 사이에 동아일보에 삼천포 기사가 많이 실린 것은 강금수 기자가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아일보 기사를 찾아보면 삼천포 항만공사, 삼천포 보통학교 증축과 학예회, 삼천포 예배당 건축, 삼천포 청년회 총회, 소년회 순회강연, 도청 이전 반대 시민대회 등이 있다.
강금수 선생은 삼천포지역 애국 계몽운동을 전개하고 문맹퇴치와 문자보급 운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기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추도록 앞장선 분으로 알려져 있다.
직계 강근 씨는 동금동에서 대보(大寶)라는 사업체를 운영했으나 지금은 알 수 없다. 후손으로 강원, 강근 등이 있다.

★ 참고문헌

신분장 지문조회서
동아일보 1927년 6월 30일
한국청년운동사 선우기성 1973년 391~392면
부산경남 3·1운동사 3·1동지회 1979년 828~831면
3·1운동실록 이용락 1969년 711~712면
경남지역 3·1독립운동사 문화원 경남도지회 2007년 61~63면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마산보훈지청 2001년 13면
독립운동사 제 3권 국가보훈처 271면
독립유공자 공훈록 2권 국가보훈처 1986년 69면
사천시사 편찬위원회 2003년 726, 728, 729면
일제하사회운동 인명집 1992년 역사문제연구소 7면
항일투사열전 1권 1995년 추경화 225면

▣ 강우석(姜佑錫) 선생

- 이명: 강우석(姜佑錫)
- 호 : 경허(耕虛)
- 생몰년월일: 1901.3.9 ~ 1965.7.9
- 출신지(본적) : 경남 사천시 서포면 신흥리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286
- 공적요점
  - 1919년 3월 연희전문학교 재학 중 서울 3·1운동에 참가로 정학처분
  - 진주 광림학교 교사 근무 중 혈성단에 가입 활동
  - 1919년 8월 일경에 체포되어 징역 6월형
    김정도, 홍수원, 여병섭, 한규상, 김주학, 정성도, 김주섭 등과 함께
    진주 YMCA 창립 (1920.7)
  - 동아일보 기자활동 1922.1~
  - 애국 계몽 활동 중 체포 1992년 징역 8월형 수형
  - 1927년 12월 마산호신학교 교사 재직 중 신간회 마산지회 활동
  - 광복 후 서울대 재산관리과장, 연세대 농장관리장 역임
- 정부포상: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1995년)

강우석(姜佑錫) (이명: 右錫) 선생은 일제 시대 세 번이나 옥고를 치르고 신문기자, 군자금 활동, 신간회 활동, 교사 등 다양한 활약상을 보인 특이한 인물이다.

강우석 선생은 하동읍에서 진주 강씨의 강태숙과 김외순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나 원적지는 사천시 서포면이다.

진주광림학교 재학 중 어학분야에 뛰어난 소질을 보여 선교사 교장을 감탄케 하였다. 이에 선교사의 지원과 후원에 힘입어 서울 YMCA 건물 내에 설립된 정신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었다.

1918년 선교사의 추천을 받아 연세대학교의 전신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1919년 3월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절반가량 16명이 목사, 장로였기 때문에 연희전문 학생들도 3·1운동에 가담하게 되는데 그날 파고다(탑골)공원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할 때 2학년 대표로서 1, 2학년 학생들을 이끌고 서울 종로 일원에서 수천 군중을 지도하였다.

일경에 체포되자 곧 학교에 명단이 통보되고 학교에서 정학처분을 받았다.

진주에 내려와 광림학교 선교사(거열휴 교장)을 만나 사실을 말하자 광림 학생들을 위해 교사로 근무해 줄 것을 제의받아 1919년 9월부터 교사로 근무하였다. 그러나 일찍이 조국의 독립과 국권회복을 위해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한 바 있는 그가 교사로만 안주할 수 없었을 것이다.

홍수원, 한규상, 박덕실, 여병섭, 김정도, 심두섭 등과 함께 비밀단체인 혈성단을 조직할 때 동참하였다.

광림학교와 자매학교인 시원여학교 여교사 박덕실의 집에서 군자금 모집을 의논하고 뒤에 상해 임시정부로 송금하는 일 등을 감당했다.

혈성단원들은 봉래동 교회 교인이거나 교사,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개인 또는 단체 활동을 종교, 교육 활동으로 보았으므로 항일운동으로 인지되지 않아 오랫동안 비밀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독립신문과 경고문을 여 병섭, 김정도 등과 함께 경남 일원에 배포하다가 일경에게 발각, 체포되었는데 강우석 선생은 혈성단 조직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조직을 살렸다.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 받아 옥중 고생하였다.

출옥 후 그는 1922년 1월 1일부터 동아일보 하동 주재 기자로 근무하면서 함께 언론계에 종사하는 박태홍, 정준교, 조 우제 등과 교제, 교류하며 민중계몽과 항일정신을 고취하였다. 동아일보 1922년 8월 30일 자에 의하면 하동 유학생 친목회를 조직하여 김두성, 문태규, 김태수 등과 강연회를 개최하여 '사유의 구극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라는 내용으로 강연하여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또 항일정신을 고취하는데 힘썼다.

진주청년회에서 주최한 강연에서 일제의 악랄함과 일제가 우리 조국을 강제로 합방하고 의병들을 토벌했다는 등의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하다가 일경의 제지를 받고 강단에서 강제로 내려와 곧바로 경찰서로 연행되어 구속되었다.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또다시 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일제를 알고 나를 알아야 상대를 제압할 수 있고 특히 일본인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쌓아야한다는 것을 느낀 그는 연희전문학교에 편입(복학)하여 1925년 2월에 졸업장을 받게 된다. 졸업하자 곧 교사로 초빙하는 곳이 있었으니 호주선교회에서 지원하는 마산 호신학교였다. 이곳에서 그는 안전된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낳고 살고 있었다.

1927년 2월 15일 서울 YMCA 회장인 이상재, 신석우, 홍명의 등 기타 기독교 지도자들이 서울 종로 YMCA회관에서 항일단체 신간회를 조직하였다.

경남 사천에 사는 김의진 선생이 사천지회를 처음으로 조직하였고(1927.6.19.) (1927.7.20.~24) 각 시, 군마다 지회가 조직되었다. 마산에서도 1927년 7월 20일 지회가 조직되었으니 활동적인 강우석 선생이 빠질 수 없었다. (동아일보 1928.1.2.) 곧 세칙 제정위원 겸 본부 건의문 작성위원으로 선임되어 약 2년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마산지회장은 기독교인 김용환이었고 진주에서 혈성단원으로 함께 활동하던 여병섭 집사를 만날 수 있었다.

신간회 진주지회가 조직된 시기는 1927년 10월 19일이다. 도청소재지요 항일의 고장인 진주에서 이렇게 늦은 것은 회원들의 경제력 때문이다.

마침 서울에서 홍명희, 안재홍 선생들이 내려오자 강우석 선생이 진주에 살 때 친분이 있었으므로 친구를 통해 진주지회와 하동지회 설립을 추진하게 된다.

진주기독교인 김사영, 김진황, 김인숙, 유기영, 홍수원 등과 조우제, 강상호, 강치열, 김찬성, 강대창, 박재표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홍명희, 안재홍 선생이 경남에 내려오는 날에 맞추어 10월 19일 진주청년회관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그리하여 진주지회장은 진주 내동면 삼계리 갑부 박재표(朴在杓), 부회장은 이풍구(李豊求) 변호사, 간사로는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박진황, 조우제, 강상호, 강대창 등이 선출되었다.

하동지회장은 조동호(趙東晧), 부회장은 김낙진(金洛眞), 간사에 문태규, 정환우, 김계영, 김진두, 하삼청, 김태수, 김대근, 이연찬, 김기완, 정환복, 손택인, 이원기, 심상현 등이 선출되었

다.

1930년에서부터 1914년까지 그의 행적이 불분명한데 향리 촌민에게 문의해보니 사업을 했었다고 할 뿐 정확한 내용을 아는 이가 없다. 그러나 사상 관계가 있거나 항일과 거리가 먼 활동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945년 광복이 가까운 어느날 서울대학교(경성제국대학)에 취업할 수 있었으며, 후에 재산관리과장으로 승진하였다.

1949년에는 연세대학교로 옮겼는데 6·25 당시와 그 이후에는 연세대학교 함안농장 관리책임자로 교직원들의 후생 복지사업에도 헌신하였다.

강우석 선생의 이력은 다음과 같다.

-1951년 진주광림학교 졸업
-1916년 서울경신학교 졸업
-1918년 연희전문학교 입학
-1919년 9월 광림학교 교사로 발령
-1919년 10월 혈성단 단원으로 활동함
-1919년 11월 일경에 체포, 부산지법에서 징역 6월형
-1920년 5월 출옥
-1921년 1월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징역 8월형
-1922년 1월 「동아일보」 하동 주재기자로 임명
-1925년 4월 마산 호신학교 교사로 발령
-1927년 7월 신간회 마산지회 간사 활동
-1927년 10월 신간회 진주지회와 하동지회 설립당시 후원자
-1927년 12월 신간회 마산지회 위원
-1930년 2월 세 번째 감옥에서 옥고
-1940년 사업가로 변신
-1944년 서울대 재산 관리장
-1949년 연세대 함안농장 관리장
-1955년 모든 활동 중단
-1965년 사천시 서포면 신흥에서 별세

강우석 선생의 사회학적 활동 중 중요한 공적은 진주 YMCA를 창립한 일이다. 서울 YMCA 건물 내의 경신고를 졸업하고 기독교 계통인 연세대학교 재학 중 서울 3·1운동에 앞장서서 학생들을 지휘하다 정학처분. 그는 망국의 한을 품고 진주로 내려왔다.

선교사를 찾아 사실을 고하니 선교사가 경영하는 진주 광림학교 교사로 발령받음.

이때부터 봉래동 진주교회 청년들은 한규상, 김정수, 박덕실, 심두섭, 여병섭, 김주학, 정석록, 김장환, 박영진, 변세희, 김인숙 등과 교제하며 진주 기독교 청년회 즉, 진주 YMCA를 창립하였다. 이때가 7월 20일경이다. 그러므로 진주지역의 기독교운동과 복음전파의 큰 획을 장식한 공적이 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기독교 계통으로 서울 YMCA건물 내에 소재한 경신고등학교 졸업생 한규상 선생도 진주 YMCA 창립의 주역이었고 서로 협력했음이 확실하다. 위와 같은 사실은 진주 YMCA 2대 회장 심두섭 선생의 자부 김영래씨와 여병섭 선생의 후손, 초대회장 홍수원 성생의 장남인 홍태일씨도 모두 인정하는 DLFELK. 경상대학교 송채호교수의 논문 '혈성단에 대한 연구-항일의사 홍수원의 생애'에 의하면 1920년 7월에 진주 YMCA를 조직했다고 함.

진주 대아고등학교 손상봉 선생의 논문 "진주 혈성단과 순국투사 홍수원의 생애"라는 논문에서도 진주 YMCA를 창립할 때 강우석 선생 등이 협력하여 조직했음을 밝히고 있다.

1922년 2월 14일 조선 YMCA 연합회장 겸 조선일보사장 이상재(李尙在) 선생께서 진주 봉래동 교회에서 강연을 실시하였음.

특별히 선생이 진주에 오신 목적이 진주 YMCA를 시찰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였다. 시찰이란 말은 서로 관련된 단체나 회원이 있는 조직에 대하여 동정을 살피고 점검한다는 뜻이 있다. 함께 내진하신 분으로 북경 YMCA 초대회장 이 대위 선생과 세계 기독교 청년회 간사 러쉬 선교사 등이 있었다. 강연 제목은 이대위의 '참청년'을 선교사들은 'YMCA란 무엇인가'와 '우리의 책임'이었다.

위 제목은 강연 대상자 대부분이 YMCA회원이거나 관련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될 뿐 일반 대중이나 다른 계통의 청중들에게 해당되는 제목이 아니다. 특히. 이대위 선생께서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강사와 청중이 YMCA맨임을 강하게 표현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강사와 강연제목 그리고 강연을 듣게 된 청중이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는 진주 YMCA만을 위한 강연이었음이 명백해진 셈이다.

1920년대 진주지역 청년들은 전국 규모의 단체가 아니면 가담 활동하지 않았다.
곧 국민회, 혈성단, 신간회, 기독교청년회 등에 가입하였는데 이들 단체들은 모두 진주지역만을 위한 지역단체가 아닌 전국 규모의 단체이거나 임시정부와 관련된 단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진주 YMCA 역시 지역단체 겸 서울을 중심으로 한 YMCA이었음이 확실하다.

강우석 선생은 동아일보 기자였으며 진주에서 조직된 전국규모의 단체인 진주 YMCA, 국민회, 혈성단, 신간회 등에 모두 가입하고 활동한 분이다.

「대구 YMCA 80년사」 112~115면에 합천 YMCA, 초계 YMCA 등이 있었고 대구에서 강연하기 위해 방문한 일이 있음을 밝혔으며 123면 등에 의하면 마산호신학교, 숭실학교, 계성학교 YMCA가 조직되었음을 밝혔다. 대구 Y창립년대에 대하여 세가지 주장 가운데 1915년과 1921년 설립설 등이 있었으나 1918년을 기점으로 정한 것은 서울 YMCA에 보존되었다는 Y조직에 대한 창립기록이 없거나 믿을 수 없다는 증거가 된다. 진주는 도청소재지로 여러 상황을 보아 1920년대 활동을 전주 YMCA로 인정하고 서술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봉래동 교회가 Y역사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했음이 밝혀진 것이다.

1930~1940년대에 진주 YMCA활동이 없었다고 해서 앞의 역사를 무시하고 1947년을 기점으로 삼아 창립연대를 잘못 서술하는 것은 역사의 죄인이요, 커다란 범죄를 일으키는 일과 같으므로 지금이라도 역사를 바로잡아야 마땅한 일이다.

강우석 성생은 말년에 사천시 서포면 신흥마을 바다가 보이는 마을에 살다가 별세하여 그곳에 묘지가 조성되었다. 강우석 선생은 죽산 박씨 박종순과 혼인하여 1남 4녀를 두었다. 장

남 강종수는 호주 시드니에 거주하면서 중국, 홍콩, 마카오 등지에 다니며 사업 중인데 대구에 사는 친구 최덕영에게 부친의 역사 찾기를 부탁하면서 수 개월간 고생하며 자료를 찾아 「경남일보」 '94년 8월 14일 자에 항일 내용을 발표하고 일제 강점기 자료 및 포상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한 결과 95년 8월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공훈록」에 등재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그는 1919년 9월 진주 광림학교 교사로 재직 중 홍수원과 함께 국권 회복운동을 위한 비밀결사 혈성단을 조직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혈성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주로 군자금 모집 활동과 임시정부의 선전 활동을 폈다.

그리하여 박만선 등과 함께 오재영, 김두현으로부터 임시정부의 기관지 「독립신문」과 경고문을 배부받아 각처에 배포함으로써 임시정부의 선전과 민족의식 고취에 앞장섰다.
한편 혈성단은 이 무렵 서울에서 전협, 최익환 등이 주도한 조선민족대동단(朝鮮民族大同團) 등과도 연결되어 3·1운동 때와 같은 만세운동 계획을 추진하였다.

당시 국내 독립운동계는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와 노령의(露령領)의 대한민국의회(大韓民國議會)가 하나로 합쳐 통합임시정부를 설립하게 됨에 따라 독립운동의 분위기가 크게 고조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의 독립운동 단체들은 3·1운동 때처럼 거족적인 만세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서로 연대하면서 만세운동을 추진해 갔다. 이에 강우석을 비롯한 혈성단에서도 이와 같은 '제 2회 만세시위운동'에 동참하여 계획을 추진하던 중 사전 발각됨으로써 1919년 11월 초 일경에 피체되었다.

그는 이 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 7호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도 그는 독립운동에 투신하여 활동하다가 1921년 1월 27일에 다시 징역 8월형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그는 1922년부터 「동아일보」 하동지국에서 일하면서 민족의식 고취에 앞장섰다. 1927년 2월 신간회가 결성되어 전국 각처에 지회가 조직될 때, 그는 마산지회 창립에 큰 힘을 쏟아 1927년 12월 29일 세칙제정위원으로 활약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아름다운 공훈을 기리어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아름다운 항일정신. 시집에 등재된 시(詩)>

강우석 투사

지리산 정기 받고
섬진강 물줄기 따라
큰 인물 태어났다.

광림학교 교사로
애국지사들 길러 내고
혈성단 조직하여

항일투쟁에 앞장서다.

연희전문 졸업
동아일보 주재 기자
문화운동 펼쳐

마산 호신학교 교사
신간회 위원으로 호라동

그 행적 아름답다 노래하리라
그러나 한마디 자랑없이
돌아섰으니.
아름다운 이름 강우석 투사

★ 참고문헌

명치백년사 총서(김정명 편저) 제 1권 171, 172면
명치백년사 총서(김정명 편저) 제 1권 부록 598, 599면
한국독립운동자료 총서(일본 육군성 편찬) 제 4권 11689~1174면
독립운동사(편찬위) 제 4권 468면
동아일보 1928년 1월 2일 신간회
동아일보 1922년 1월 16일 기자활동
동아일보 1922년 8월 20일 유학생 친목회
하동지역 항일지사 연구(논문 1995) 28, 40면
하동군사(편찬위 1996년) 248, 250면
경남일보(1994년 8월 14일자) (한중기 기자)
진주신문(1996년 1월 1일자) (윤성효 기자)
진주신문(1999년 6월 28일자)
경남도민일보(1999년 6월 19일자)
경남도민일보(19999년 6월 28일자)
경남도민일보(1999년 7월 9일자)
경남도민일보(1999년 7월 10일자)
서울신문(1995년 8월 9일자, 포상자 명단)
동아일보(1995년 8월 9일자)
한겨레신문(1995년 8월 9일자)
부산일보(1995년 8월 9일자)
부산일보(1995년 8월 14일자)

한국일보(1995년 8월 14일자)
경남일보(2000년 7월 8일자)
항일투사열전 2권 추경화 1997년 236, 237면
경남일보 1994.8.14.
경남일보 1994.8.16.
경남진주신문 2018.4.30., 5, 7, 5, 14

▣ 김낙현(金洛顯) 선생

- 異名: 없음
- 생몰년월일: 1917.8.10. ~1984.3.31.
- 출신지: 경남 사천시(삼천포) 동동 266
- 공적요점
  - 삼천포 적색농민조합 가입 농민운동
  - 농촌진흥을 위해 노력
  - 사회혁명을 위해 야학교 개설
  - 1939년 1월 일경에 피체되어 징역 8월형 확정, 1년 6개월간 옥고
  - 고문 후유증으로 수년간 고생
- 정부포상: 건국포장 추서 (2004년)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 16권> 89면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음.

삼천포 적색 농민조합에 가입하여 농민운동을 전개.

1935년말 일본 도쿄(東京)에서 귀국한 양호원(梁鎬元)으로부터 한국 노동자, 농민의 피폐한 원인이 일제의 압제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농민운동에 투신할 것을 결심하였다.

이후 1936년 1월부터 10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양호원과 교류하면서 그로부터 농민운동에 관한 지도를 받았음.

핵심적인 내용은 농촌에 진출하여 농촌진흥에 노력하고 농촌의 지도적 위치를 확보할 것, 농촌진흥회 간부를 동지로 확보할 것, 농촌 자녀를 대상으로 야학운동을 전개할 것 등이었음.

이러한 농민운동에 대한 교양을 토대로 1937.5 정성기(鄭聖基)와 함께 농촌계몽운동의 방향을 토의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논의함.

결과 무산농민의 단결을 유도하고 사회혁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야학을 열고 독서지도를 하기로 결의하였음.

이로 인해 1938년 1월 6일 일경에 체포되어 1939년 8월 30일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음.

적색노동조합운동이란 1930년대에 일어난 혁명적 비합법적 조합운동을 의미한다. 세계적 경제공황, 일제의 병참 기지화 정책에 따른 노동조건 악화 및 탄압의 강화로 노동운동이 상당히 약화되고 지도부가 미약하게 되자 프로핀테른과 범태평양 노동조합의 회전통신의 지배를 받아 노동조합운동이 발생하였고 점점 정치투쟁으로 발전해 개량주의 반대, 공장 중심의 노조활동이 생겼으며 교양교육의 다양화, 조직활동에 주력점을 두는 일, 8시간 노동의 관철, 남녀노소의 차별화 금지, 해고반대, 유급휴가의 관철을 요구하고 정치범 석방, 단체 활동권, 소년소녀의 야간노동금지, 1년 1개월 휴가를 위해 투쟁하고 공산당 재건 운동과 연결을 위하여 교섭하는 일이 있었음.

1928년 사남 농민조합, 1930년 삼천포 농민조합이 합법화되자 사회적 역할을 위하여 공동경작 투쟁 야학운동으로 향하고 소비조합운동과 조직 확대로 점점 힘이 생기자 일경과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었다. 이에, 일경은 1932년 4월, 41명을 검거해 감금함으로써 붕괴되었는데,

사회주의자들이 활동했다는 이유로 활동을 중단시킴.

박대갑은 대구에서 검거된 일이 있었고 삼천포 농민조합은 손영섭, 강대진, 장백윤 등이 중심이 되었다. 농산독서회 출신은 박인욱, 정중기, 장백윤, 문갑이 등인데 1933년 4월 박대갑의 노동조합운동에 관한 지도를 받았다.

사회운동이 농민과 노동자의 피부에 닿아야 한다는 박대갑의 의견에 따라 박이기, 박인욱, 손영섭 등은 노동·농민운동 그룹을 통해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뒤로 각마을마다 조직화를 이루고 농민야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공산사상을 교육시키려 하고 박이기는 나아가 두 그룹 모두 관여하였다.

1933년 중반부터 1938년 초반까지 야학운동, 교양교육, 소비조합 활동으로 혁명적인 진출을 하게 된다.

정종주, 박인욱의 교육을 받은 정성기는 1927년 4월 일본에서 귀국해 김낙현, 정종호와 별도로 대중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정성기의 활동은 일본사회운동과 관련되었고 노동운동단체와 비슷하게 활동하고자 했다. 농민조합운동과 함께 소비조합을 조직하려고 시도하였음.

그러나 혁명적 대중운동에서 1938년 1월 혁명적 농민조합과 노동조합을 활성하 하려 함은 일제의 감시, 감독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음.

위와 같은 혐의로 11명 모두 일경에 검거되어 재판에 회부 됨. 출옥 후 활동 재개하지 못함.

★ 참고문헌

- “신분장 지문조회서” 경찰청

「동아일보」 1939년 9월 3일

“가출옥 서류중 판결문“ 부산지법 진주지청, 1939년 8월 30일

「일제하 사회운동사 자료 총서 제 12권」 한국역사연구회, 238~275면, 1999년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 16권」 국가보훈처, 2006년, 89면

「일제농민조합운동 연구」 지수걸, 430면, 1993년

「경남항일독립운동 참여자록」 마산보훈지청, 29면, 2001년

「사천시사」 사천시사 편찬위원장 김수영, 738면, 2003년

▣ 김명봉(金明鳳) 선생

- 이명: 김명봉(金鳴鳳)
- 생몰년월일: 1893 ~ 1924.7.2
- 출신지: 경남 사천군 사천읍
- 공적요지
  - 1907년 노희태와 의병활동
  - 대한독립단 단원 활동
  - 대한통의부 제 5중대장 활동
  - 중립을 지키다 통의부 습격으로 피살, 순국
- 정부포상: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1995년)

김명봉(金明鳳) 선생은 산보훈지청에서 2001년에 발행한 <경남 항일독립운동 참여자록>에 경남출신으로 기재, 사천읍 인근에서 황해도와 만주로 건너가 항일독립운동을 하다 온 가족이 피살되었다는 원로의 증언에 의하여 사천 항일운동사에 기록함.

선생은 1907년 노희태와 함께 강원도 지역에서 의병을 일으켜 활동하였고 노희태가 패한 후에도 의병을 모집하여 활동하니, 소년장군이란 별명이 붙었는데, 그 당시 15~17세 소년이었다.

한 말 의병장 박장호의 부하가 되어 남만주 서간도 지역까지 진출하였음. 대한독립단이 창립될 때 단원으로 활동하고, 도 총재 박장호, 부총재 백삼규를 모시고 무장투쟁을 전개해 큰 공을 세운 훌륭한 분이다.

1920년에는 대한독립단원으로 일제의 주구 기관인 보민회(保民會)를 숙청하여 독립단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었고 위상을 높였음.

통의부 의용군이 중대 소대를 조직하자 함께 협력해 활동하였다.

1923년 대한통의부와 서로 경쟁하다 통의부의 제5중대장이 되어 활약했다. (무장독립운동비사 126, 131면) 이 때 무장군인 120여명이 동참했고 김명봉 선생은 참의부 창립을 위해 동참하고 보민회 회장대리 최정규를 처단토록 지시했다.

1924년 7월 2일 통의부의 습격을 받아 개국 동지와 함께 피살 순국함.

독립단체와 서로 의견충돌로 희생되었다는 설이 있음.

정부에서는 1995년 8월 15일 광복절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참고문헌

「한국독립운동사 제 4권」 국사편찬위, 778, 180면

「무장독립운동비사」 공보처, 채근식, 126, 131면

「조선민족운동연감」 상해 일본영사관 경찰부, 201면

「한국독립운동사」 문일문, 262~288, 429, 479면

「한국독립사 下」 김승학, 86, 96면

「독립운동사 제 5권」 국가보훈처, 458, 561면

「독립운동사 제 7권」 국가보훈처, 466, 551면
「독립운동자 공훈록 제 12권」 국가보훈처, 214~216면, 1996년
「명치백년사총소 제 2권」 김정명, 879, 989, 1087면
「경남항일독립 참여자록」 마산보훈지청, 33면, 2001년
'일본현대사 자료색인' 121면

▣ 김진곤(金鎭坤) 선생

- 이명: 없음
- 생몰년월일: 1890.7.13. ~1963.10.5
- 출신지: 경남 사천시 곤양면 송전리(松田里) 315
- 공적요점
  - 태극기 제작, 독립만세의 깃발 등 준비
  - 사천 곤양면에서 1919년 3월 13일 주민, 학생들과 시위 지도
  - 일경에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 받고 혼절
  - 1919.5.29. 대구 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형 확정, 10개월간 옥고
  - 고문 후유증으로 수년간 고생
-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 추서(1995년)

김진곤(金鎭坤) 선생은 서부경남에서 최초로 3·1만세 시위를 전개하고 청년, 학생들을 동원하고 곤양, 서포지역 일반 면민들을 이끌고 사천시 곤양면 시위를 지도함.

<고등경찰관계적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음.

"곤양면 송전리 김진곤 외 4명은 3월 13일 백지에 구한국기를 그려 측면에 독립만세라고 대서(大書)하여 곤양주재소에 투입하고, 부락민들을 규합하여 만세를 부르고 또다시 4월 6일, 4월 19일 양일은 보통학교 생도와 곤양시장의 장꾼들과 군중을 선동하면서 대한 독립만세를 높이 불렀음, 사천 헌병대에서 주모자를 검거하고 진압하였다."라고 기록됨.

일제 고등경찰의 기록이기 때문에 과장된 기록이 아니라, 반대로 사실보다 축소해서 기록되었음이 확실하다.

<부산경남 3·1운동사> 817, 818면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음.

본적 사천군 곤양면 곤양리 진주에서 3·1독립만세 의거를 봉기할 때 진주로 올라가서 의거에 참여하고, 민족의 절규인 독립만세를 외치고 향리로 돌아와서 동지 4명을 규합하여, 백지에 태극기를 그리고 독립만세를 외치고 시위를 하고, 다시 4월 6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곤양 보통학교 학생들과 곤양장터에 운집한 군중들을 주도하여 독립만세를 외치고 군중을 이끌고 장터를 누비면서 시위를 하던 중 급거 출동한 사천헌병대의 일헌들에 의해 진압당한 후 주도자로 체포되어 대구형무소에서 8월의 형을 받고 복역 후 출옥하였다."

<독립유공자공훈록> 제 12권 429면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경남 사천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13일 경남 사천군 곤양면에서 동지들과 함께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평소 항일의식이 투철하던 김진곤은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곤양장터의 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그는 송전리의 청년 4명과 함께 거사일을 곤양 장날인 3월 13일로 정하고 곤양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을 포섭하는 한편 태극기를 제작하였다. 또한, 커다란 천에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깃발을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거사 당일에 주민, 학생들과 함께 태극기 깃발을 흔들면서 만세시위를 전개하던 중 일본군에 의해 현장에서 피체되었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5월 29일 대구 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였다.“

<경남항일독립운동 참여자록> 188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음.

3월 13일 곤양면 송전리의 김진곤 외 4명이 백지에 태극기를 그리고 한 쪽에 독립 만세라고 크게 쓴 기를 곤양 주재소에 투입한 후 부락민들을 규합하여 독립만세를 크게 외쳤다. 또 다시 4월 6일, 19일 양일 보통학교 학생들과 같이 곤양시장에 모인 군중을 규합하여 독립만세를 외치며 만세운동을 벌이다가 출동한 사천 헌병대에 의해 주모자는 피체되고 군중은 강제 해산되었다.”

김진곤 선생

태극기 제작해 대한독립만세
최초의 시위대로 앞장서오니
수백명 시민들 동참하였네

혹독한 고문 받고 혼절하니
10개월 옥고 치르고
아름다운 희생은 고귀하도다

애국 애족심 높이고 높이세
마음에 기리고 기리세
그 이름 김진곤 영원하리라

★ 참고문헌

「고등경찰관계적록」18면, 1936년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 3권 272면
「독립유공자공훈록」국가보훈처, 제 2권 125면, 1986년
「독립유공자공훈록」국가보훈처, 제 12권 429면, 1996년
「부산경남 3·1운동사」3·1동지회, 816면, 1979년
「경남항일독립운동 참여자록」마산보훈지청, 52면, 2001년
「독립운동 사적지(부산, 경남, 울산)」독립기념관, 402, 403면
“대구 복심법원 판결문“ 1919년 5월 29일
「항일운동과 기억의 현장」홍순권, 장선화 선인 96, 60~66면, 2011년
사천시사 편찬위원회 729면, 2003년
「일제하 사회운동 인명색인집 上」역사문제연구소, 560면, 1992년

▣ 김형권(金亨權) 선생

- 이명: 없음
- 생몰년월일: 1894.12.10. ~1943.1.20.
- 출신지: 경남 사천시 사천읍 중선리(中宣里) 168
- 공적요점
  - 경남지역 유림들을 모아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기로 결정
  - 독립책선문, 독립선언서 등 5종의 격문을 작성하였다.
  - 각기 230부씩 인쇄하여 유생들에게 배포하다 일경에 피체됨
  - 지방법원에서 징역형 언도 후, 대구 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 확정
  - 출옥후에도 일경의 감시, 감독을 받았고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
-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 추서 (1986년),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1990년)

김형권(金亨權) 선생은 경남 사천시 사천읍 중선리 168번지 출신이다.
(현재 사천읍 수석리 북쪽에 중선리가 있으나 실제로는 사천공항이 확장되자 이주하게 되어 마을 이름도 함께 옮겨졌음)

옛적 중선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사천공항의 중앙지역으로 변화되었다.

국가보훈처에서 발간한 <독립유공자공훈록> 제 8권 369면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1919년 4월부터 동년 6월 27일까지 경남 사천시 축동면 길평리(吉坪里) 일대에서 권도용(權道溶), 강대익(姜大翼), 박재룡(朴在龍) 등과 함께 독립선언문 등 5종을 작성하였고, 이를 각기 230여부씩 인쇄하여 인근 유생들에게 배포하고 활동하다가 피체되었다.

그리하여 동년 9월 17일 대구 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애국동지 강대창(姜大昌) 선생은 異名 강대익이며, 사천시 사천읍 길평리 출신, 권도용 선생은 함양군 병곡면 도천리 출신, 박재룡 선생은 진주시 나동면 삼계리 출신이다.

강대창 선생 출생일은 1896년 5월 25일 출생으로, 1919년 3월 18~23일 진주 3·1운동을 주도하였고 그 해 4월 권도용, 박재룡, 김형권 등과 함께 조선독립선언서, 독립충고문, 책선문 등을 수백장 등사하여 경남유림대회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각처에 배포하다 일경에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고 혼절했다.

1919년 9월 17일, 대구 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언도받고 옥고.

1921년 진주청년회 위원으로 금주금연운동 등 절약운동에 앞장서기도 함.

시대일보 진주지국을 경영하면서 보천교 소년회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일신(진주)여고 재단법인 평의원(1923.4)에 선임되어 봉사했다.

1924년 진주유치원 원감이 되고, 진주기근구제회 집행위원으로 활약함.

1927년 9월 동아일보 진주지국장겸 진주기자회 회장으로 추대된 후 신간회 진주지회 간사와 대표후보로 활약하며 약 3년간 민중계몽을 위해 동분서주함.

진주노동연맹회 간부로서 농민교양 교육을 실시하고, 장두관, 고경린 등과 함께 고려구국

동맹을 결성하여 투쟁하다 검거되어 옥고를 치렀다.

진주성 내 임진 공신들을 모신 창렬사를 중건할 때 앞장서기도 했다.

지역 언론지 <남성공론>의 기자, <중앙공중보>의 주임 등을 역임함.

광복 후 친일파와 미군을 축출하기 위해 1946년 10월 폭동을 주도한 후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고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형인도를 받아 형이 집해 되기 전에 폐결핵으로 서대문 감옥에서 숨졌다.

장조카 강구중은 부산지역에서 시인으로 활약하였고, 금정여고 교사 등을 역임했다.

경남 유림대회 취지문

아! 대지 위에는 만국이 숲처럼 늘어서서 각각 그 영토를 보유하고 각각 그 백성을 다스림은 실로 천연(天演)의 일대 공례이다. 그러나 나라는 본래 토지와 백성의 실권이요. 군주 한 사람의 조성으로 나라를 위한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임금은 백성으로서 하늘처럼 위함이요. 백성은 오직 나라의 근본이다. 사람이 토지가 있고 실권이 없다면 비록 중주의 천하에 공주마마의 신성을 주장해도 법왕은 효연히 세운 헛된 이름에 불과하다. 육복의 위에 하물며 그 이름을 아우르고 망하면 기리 성적을 찾을 곳도 없으니 또한 비참하지 않겠는가 슬프다. 우리 조선은 반만년을 문명의 나라로 기성이 다스리는 바이오. 백이숙제의 숨은 바이며 공자의 뜻에 살고자 하는 바이다. 오백년래에 중국이 칭찬하는 명예를 얻었으나 이제 죽음의 지경에 이르니 이는 실로 세계가 같이하는 분함이로다.

우리 동포가 통곡하는 바이니 피가 말라죽을 지경이다. 비록 패함은 성함의 모태이니 영웅이 시세에 나아가면 그 나라는 비록 망하여도 그 백성의 애국충분은 타고나서 하늘에서 나오기에 진실한 사람이 있음이다. 진실로 그 사람이 있음인즉 토지의 잠실을 어찌 근심하겠는가.

아! 황제 폐하께서 돌아가신 후에 전국 백성이 일시에 독립만세를 제창하였다. 비록 전후에 잡혀서 형을 받아도 죽음을 보는 것이 돌아가는 것 같이 쏠리니 이 누구의 부림인가. 인심은 천심이며 백성들은 지극히 어리석은 신인 까닭에 백성의 하고자 하는 바를 하늘이 반드시 그를 쫓고자 하는 것이다. 예나 이제나 이를 얻으면 흥하고 잃으면 망함은 가히 위세의 공갈이 아니라 무기로써 탄압을 못하고, 압력이 지나치면 격력이 지나치게 일어나고, 격력이 지나치면 세상일이 일변하는 기회가 될 것이니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

만약 모두를 속이고 스스로 사람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늘과 사람이 서로 같은 뜻의 이치가 아니다. 그러므로 승천하여 작사하는 원부가 되나니 그렇다면 조선의 독립은 돌아보건대 우리 동포의 수중에 있지 않겠는가.

중동왕사를 우리 동포가 본래 모두 아는 바이다. 이제 차례에 미치지 아니하고 구미제국으로써 말한다면 옛날 북미합중국이 독립할 때에 남미의 스페인 점령지에 있어 파리와 실라 두 나라가 먼저 독립하였다. 그리고 9개국이 계속하여 중미 서령제국에 있어 또 홀로 중미합중국을 위하여 한 나라가 선창하면 여러 나라가 호응하였다.

일의 기틀이 이미 바람에 구름이 날아가는 것 같은 세력에 이르니 이는 참으로 어찌함이겠는가. 10여년을 거치면서 졸지에 일본제국의 굴레를 벗고 자치의 공화를 이루려 한다. 차

례로 동맹민족으로 항상 단결의 세력이 부족함을 연유하여 오직 서로 구해야 하는데 도리어 서로 전투하다 필경에는 쇠망의 불운을 자초하였다. 서구 열강들 가운데 있어 독립이 가장 늦음은 이 연고로 이름이다.

이제 우리나라와 비례하여 논하건대 폴란드는 이미 독립하였고 겸하여 필리핀, 인도 등의 제국은 비록 완전 독립의 실권은 없어도 오히려 모두 자치의 나라로 되었다.

이제 진양 일구는 전국 거진이여 강회의 보장이다. 또한 300년 전에 영웅장사의 열혈이 어리고 모여서 흩어지지 아니하였다. 수만 생령의 충분한 뇌수에 산재하니 근일에 합동으로 단결을 조직하니 이름하되 경남유림대이다. 그 규정과 목적은 이에 전주하고 반드시 유림으로 표하는 자이니 대개 유림은 사농공상 사민의 얼이 된 연고이다.

그 실은 전국 동포와 같이 단체의 종사자니 어찌 일방의 위치와 일부의 명칭이겠는가. 아! 재외동포 수백만이 천간만험을 열역하고 한고하고 황막한 물가에서 한 몸을 희생하여 조국에 바칠 자 이제 몇 개년의 소이니, 같은 국민이 되어 어찌 가히사린의 내거에 전뢰하고 진췌탄력하는 바를 생각지 아니하고 표리상응하는 것을 들어 올리겠는가. 이와 같은즉 국민이 어디 있으며 어찌 실권을 바탕하겠는가. 이는 바로 오늘날 동포가 번역히 식식함을 깨우쳐서 잊지 아니하고 직책 밑에서 죽을지니, 그 각각 천민각염하여 하늘의 이치를 위반하는데 이르지 말지니라. 스스로 용력하게 숨고 의지함에 인해서 모두 빠지는데 미치면 어찌 돌아가겠는가.

이렇게 사회 계몽에서부터 조국과 민족의 독립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나 싫다하지 않았다. 서부경남에 있어 자주독립의 중책이 동분서주 뛰면서 활동하던 그의 몫으로 돌아가곤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밀어 보더라도 독립투사가 이끌고 가는 당시의 경남일보가 국민 앞에 서서 얼마나 당당했는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당시의 사회가 추범을 경남일보의 주필로만 있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보다 많은 일과 더 중요한 일이 추범 앞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제의 탄압이 점점 심화되고 감시가 심해지면서 추범에게도 탄압이 심해져서 수차례나 왜경 주재소나 헌병대에 끌려가 곤욕을 당하였다.

일제는 추범에게 온갖 회유와 유혹의 손길이 뻗쳐 자기네 쪽으로 마음을 돌리려 하였다. 그러나 갖은 협박과 고문에도 끝끝내 애국지사의 절개를 꺾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의 재임을 등지고 정들었던 주필직을 물러나야만 했던 것이다. 각종 모임에 강사로 불려 다니면서 조국 광복을 위해 민족항쟁의식을 심어주었다. 독립선언문과 책선가를 지어서 배포하며 활동하다가, 1919년 6월에 왜경에 탄로가 되어 체포되었다. 경북 달성 감옥에 끌려가서 갖은 고문과 형벌로 일 년여의 옥고를 치러야 했던 것이다. 나라 잃은 설움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었으랴. 형벌에서 풀려나도 항상 감시를 받아야 하고 사건만 생기면 불려가야 했다.

조선독립선언서

슬프다. 우리 이천만 동포여! 황제폐하께서 돌아가시어 천수를 마치지 못했는데 통탄함이 만 배라. 오직 널리 거느린 바 이 어떤 시대이며 어떤 기회인가. 지난날 나라가 멸망하고 사

람은 노예가 되는 액운과 역경이 차츰 지나서 장차 쾌활한 세계 독립 무대의 위에서 우유함이니 어찌 큰 소리로 나무라지 않겠는가. 진실로 굴레를 벗어 메고 권리지책을 회복함이니 오직 우리 조선반도는 오래도록 강한 이웃의 압전으로 스스로 면월의 부끄러운 발자취를 밟아 온지 이제 몇 해인가. 행시 주육하면서 부질없이 함생(含生)의 무리에 더하니 참으로 슬프구나. 동포 중에 유림일파가 나아가 참으로 나라의 원기를 점유하고 사민의 우두머리에 처하면서 어떤 사업가인가를 논하지 말라. 선비의 그 범주를 그만두고 지금 전국에 민심이 일변하고 있으니 학교와 사회가 그리고 종들과 하인들이 담력을 펴지 아니함이 없다. 기노를 토하면서 스스로 혀를 깨물고 마침내 독립만세를 외치느니라. 오직 두렵건대 혹 뒤에라도 우리 유림 중에서 이제까지 고요하게 소문이 없다면 어찌 선비가 타고난 천성을 지키는 마음이 없이 그리하겠는가.

평일에 허다하게 성현의 글을 읽어 의리를 다소 강구하고 그 스스로 허락함이 과연 어떠하여 이 시대를 당하고 이 기회를 당하여 돌아보건대 다른 사람에게 양여하고 나라가 스스로 회복됨을 기다리겠는가. 아! 세상에는 가치 있는 영웅이 없을 것 같으면 그리고 뿌리가 옅으면 쉽게 뽑히고 바탕이 얕으면 쉽게 무너짐은 이치와 형세의 필연함이다.

그러므로 대양의 열국들이 독립의 기초로 나아감이니 혹은 열혈로 혹은 칼로 혹은 필설로 그 모습은 한결같지 않다. 하물며 요사이 비율빈 파란 제국이 모두 독립을 선고하니 스스로 세계의 공인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일은 실제가 귀하니 가히 허명에 힘쓰지 아니하고 국가게 도움이 없는 치분사는 패모하는 폐단이다.

지금을 위하여 계책은 먼저 시역의 흉단을 토역하여 백일하에 용납할 바 없다. 총독부 소속 관리와 보병 고원으로부터 하나같이 아울러 해임하였고 물러나 한 사람도 그 사이에 측적함이 없다. 비로소 우리 새 정부 건설에 종사하여 마침내 그 충군하고 애국하는 직분으로 돌아감이 옳을 것이다. 각자가 깊이 반성하고 방탕한 생각을 하여 천재일시의 기회이니 천만 법 소홀함이 없을 것이다.

조선독립책선문

옛말에 이르기를 사람의 성품은 심히 서로 멀지 않음이라 하였다. 대개 타고난 정성은 세상에 남으로부터 있으니 처음에는 기연히 어질고 지혜롭지 못하나 남음이 있고 어리석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다. 지금 같은 때를 당하여 무릇 조선민족이 되어 독립주의를 위반하는 자는 진실로 난적의 무리다. 그 독립을 필요치 않다고 여기는 자는 또한 적(敵)이 되는 변방 사람이다.

이미 적변인이 된즉 크게는 위율이 맞추어 행하는 설이 되고 다음에는 관하를 감히 낮추어 덜지 못하게 되니, 안문의 위사가 실심하고 상성함은 원래부터 선천의 병이 아니라. 이에 눈앞의 사욕에 빠져 문뜩 스스로 구덩이에 빠지고 참호에 떨어지니 천하의 어긋남이 큼이다.

이들 민족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한갓 이익됨이 없이 또 해치니 일차 깨우쳐서 듣지 아니하고, 재차 삼차 깨우쳐도 따르지 아니하면 부득불 최후의 수단을 써야한다. 상당한 징벌을 베푼 연후에 거의 천만공 중에 자유롭게 못하게 함이 없다면 큰 일의 막중한 지경이니라. 이에

감히 피력하고 실진하여 각각 마땅히 잘 스스로 꾀하여 후회를 끼침이 없게할 것이다.

일제의 탄압 아래서 독립운동가들이 겪은 고초는 일일이 말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혹독했는가를 우리는 많은 예로써 잘 알 t 있으리라. 그러나 죽구에 대한 일념으로 일하는 투사들에게는 굳은 절개가 목숨과 바꾸더라도 굽힐 수 없는 일이기에 그 고통을 참아야 했던 것이다.

어디 그뿐이랴. 추범은 두 번째 영어의 몸이 되어야 했다. 1921년 신유에 안의유림에서 향교에다 한문강습소를 창설했는데 강장으로 재직하게 되었다. 이때에도 그는 굽히지 않고 독립창가를 지어 가르친 사건으로 이듬해 정월에 다시 체포되어 옥고를 치러야했다.

조선독립충고서

원래부터 대개 사람이 일을 시작하고 도화가 공작을 하는데에는 반드시 일종의 기가 통하는 줄기가 서로 통하게 된다. 한 가지 명성과 위세가 서로 의자하여 지식을 교환한 연후에 저변에서 이룸이 오래감을 하늘이 서로 통하는 것이 자명한 이치이다. 또한 종교가도 그렇듯이 불가가 유로써 세상에 유지함과 유가가 선(仙)으로ㅆ 양성하고 묵가의 공자 노자와 아울러 갖추게 됨은 이 기연의 확실한 효과가 아닐까?

지금의 각종교가 그 원류는 비록 다르나 요지는 하늘을 섬기고 인류를 사랑하고 내 몸을 닦는 세 가지 덕의 뜻에 벗어나지 아니한다. 그리고 압사도 공인즉 반드시 그것은 서로 도운 까닭이다. 아! 지금 월나라는 과연 어뜬 지경에 떨어질 것인가. 사람에 있어 굽히고 펴는 부자유함을 장굴(掌掘)하지 못하고 교세로 인해서 살지 못할 자 수십년에 진실로 이미 한초와 진병으로 전에 없던 화변을 일으키니 어찌 신화와 백성으로 차마 듣고만 있을 것인가.

하늘의 이치를 잘 보는 자는 반드시 사람에 징조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제 민심을 단결하여 사회 상태를 변화시키면 천심이 쏠리는 단면을 볼 것이다. 구역 안에 들면 각 학교의 생도는 하늘과 도와 부처 같음이니 기타 여러 종교는 착착 연락되어 각자 한팔의 도움으로 뭉치고 증진하여 전체를 같이 이룬다면 나라 세움이 어찌 어렵다 하겠는가.

우리들은 피를 머금고 이 땅의 곡식을 먹는 자는 참으로 모두 적개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각 관청의 관리, 보병, 고원에 이르도록 수십년이나 집을 빌려 살아오다 하루아침에 각자 가주가 되어 집을 쓰면서 늘이고 줄이니 오직 나의 편함인즉 그 유쾌하고 즐거움이 어떻겠는가.

민신처럼 강한 것이 없고 백성들의 지혜같이 화합하는 것이 없다. 겸하여 때를 얻어 시세를 타면 이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만 한번 옮기는 사이에 이와 같은 것인즉 농기구가 영문도 모르게 뽑혀 가히 정병리갑으로 변해서 저들이 비록 배를 타고 온 꾀가 있을지라도 땅을 터뜨리는 기틀을 어찌 교묘하게 베풀겠는가. 말로써 다시 깨우치니 마땅히 모두 알기 바란다.

조선독립 창가

조선 독립 만만세는 부질없는 말의 한갓 부름이 아니료

장가의 통곡소리 슬픔은 만국에 부르짖어 갈피를 잡고 작정함이다
삼천리 강토에 하늘이 풍화를 잡아매어
속됨을 좋은 길로 인도하여 부드럽고 어질게 하고
오백년 종묘사직의 나라가 길이 차서
잡아맨 기이 술로 마침내 떨어질 미래를 준비하여서
신령하신 단군과 성스러운 기자의 구민족이
애국하는 특성이 있어 기려에 배고 공수에 사무치네
충성과 의분심은 홍종의 히어질밍 아니라
동품에 태극기 높이 걸어서 나라와 중화(中華)의 먼 하늘에 나부껴
만인의 입에서 독립을 일제히 부르고
그 소리에 천기가 자동하여 이름하기를
진실로 천연함이 없이 이치는 예로부터 이런 것이니
형식의 기예를 마침내 어찌 믿으리오
교육의 정신은 한 나라의 날린 개에 있고
지형은 인걸을 낳게 함이니 타국에 끝까지 불복하고
조선 독립 만만세를 부르며 영원한 평화를 기다릴지니라.

조선독립경포서

슬프다! 우리 조선은 기자 단국 삼국 이래로 우월한 자강력을 보유하고 상하 수천 년의 영웅결사와 어진 재상과 훌륭한 보좌들이 작은 일에 구애되지 않았다. 서로 바라보며 국체를 정돈하고 비록 때로는 혹 지나의 보호를 입었으나 끝내 거연히 다른 나라에 신복함이 있지 아니하는지 오늘 같은 상황에 어찌 신복뿐이겠는가.

참으로 짐승 같은 대우와 다름이 없고 지금의 독립기회는 천재일시라 이를지니라. 그러나 소위기회는 어찌 한갓 하늘과 사람이 모아 합한 뜻에만 이르겠는가. 아! 수십년 재외동포의 천신만고를 다 맛보아서 희생을 다하고자 한다. 전체를 국가에 바쳐 엎어지고 자빠지는 앞뒤를 돌보지 아니하고, 오직 목적하는 데에 투과하고 뛰어오르는 그 피 끓는 정성과 열렬한 힘이 어떠한가.

그러나 나라 안 동포는 다망 의뢰하는 열성만 있다. 심하면 도리어 저희 세력에 의지하여 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다행으로 여기는 것이다. 슬프다 천하에 어찌 이 같은 일이 있으리오. 대저 나라가 있은 연후에 재산이 있음이니 만약 나라는 없어졌는데 재산만 있다면 어찌 가히 홀로 보전 하겠는가?

오직 바라건대 동포들은 놀랍게 방탕함을 물리쳐 돌아보고 깊이 생각해야 한다. 수 천만거액을 공익상에 이용하여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한다. 겉과 속이 상응한바 국민 다결의 힘으로 하여금 더웅 공고히 함은 천리와 인정의 적확한 의무이다. 옛사람이 어질다 일컫는 자 마땅히 변방에서 사절하고 재물이 있는 자는 마땅히 보낼지니 지금 또한 이같이 한 연후에 독립은 기약되는 것이다.

또한 반드시 나라를 위하는데 용감하고 결단코 사투는 말아야 한다. 시험컨대 가시 생각하는 오늘에 어찌 사투할 때인가. 혹 사투가 있어 저희 법원에 고소하면서 가장 오늘의 실성하고 상심하는 일이 됨이다. 각각 각골하고 생각하여 십분 주의할 것이니 각 관청 관리 앞에 글로써 이미 충고하였다.

스스로 유림 중에서 점점 밀절히 단결의 경지에 이르고 관리측에는 끝까지 동작이 없으면 이는 어찌 토하겠는가. 옛날 배주(裵洲)의 다마라 민족은 그 암열한 성품이 극도에 달하여 하루 아침에 독일에 부속되어 첨첨히 스스로 즐거워하며 다행스럽게 문명국민이 되었다.

이제 조선은 신성 민족으로서 당치도 않는 것들과 후인호흡하며 방종스레 목전의 이익에 홀로 몸의 명에를 돌보지 아니하고 있다. 하늘이 다시 밝힐 때에 그러한 일이 숨겨지겠는가. 성인께서 말하기를 하늘에 죄를 얻으면 빌 곳이 없다 하였다. 이는 더욱 세 가지 걱정을 분리하여 다른 갈림길에 실족함이 없고 곧바로 정로에 나아갈지니 성히 경계할 것이다.

<아름다운 항일정신> 3면에 실린 시(詩)를 등재해 본다.

김형권 선생, 권도용 선생

한 분은 사천에서
또 한 분은 함양에서
동지모아 경남 유림대회
개최하려다
독립선언서 배포하고
체포되셨네

면사무소 등사기
애족용이요
바른 글 일필 휘거
애족용이다
대한의 남아들이여
한 곳 모여라

그대 이름은
아름다운 김형권이요
그대 이름도
아름다 권도용이다
시와 글씨도
한 가지 충절을
지켜 세웠네

공적요점은 진주 3·1운동 참가

권도용, 김형권, 강대창 등과 경남 유림대회를 준비, 조선독립창가, 조선독립 경돈거 등을 사방에 배포해 일경에 검거되어 혹독한 고문으로 혼절하였다.

부산지법 대구 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형 언도받았다. 1919.3.18. 진주 장날에 일어난 3·1운동을 직접 목격하고 감화, 감동을 받아 애국·애족심이 발현되었다.

경남유림대회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진주시 유일여관에서 격물 230장 5종 200장씩 1천여 장을 등사하여 사방에 배포하려다 일경에 모두 체포되었다.

8월 12일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9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재령 7호 소위 보관법위반으로 징역 2년형이 언도되어 1919년 11월 5일 고등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강대창을 제외한 권도용, 김형권, 박재룡 등은 건국훈장이 각각 추서되었다.

★ 참고문헌

대구 복심법원 판결문

「독립운동사 제 3권(3·1운동사)」 국가보훈처, 293면

「독립유공자공훈록 제 2권」 국가보훈처, 134면, 1986년

「독립유공자공훈록 제 8권」 국가보훈처, 282면, 369면

「경남항일독립운동 참여자록」 마산보훈지청, 556면, 2001년

「함양항일투사록」 김성진, 추경화 공저, 162~193면, 2007년

「항일투사열전 1권」 추경화, 226면, 1995년

「사천시사」 편찬위원회, 729면, 2003년

「사천군지」 편찬위원회, 1990년

▣ 김홍권(金弘權) 선생

- 자: 도경(道卿)
- 호: 하우(何尤)
- 생몰년월일: 1892.1.25. ~ 1937.1.8.
- 출신지: 경남 하동군 양보면 운암리 115
- 공적요점
  - 진주공립농업학교 2회 졸업(1913년)
  - 1909년 안희제, 이원식과 함께 대동청년단 가입, 활동
  - 1919년 4월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에 선출
  - 상해 인정 의정원 의원 2대에 선출
  - 상해 임시정부 재무위원으로 활약
  - 안희제 선생의 중도일보 기자와 국장으로 활약
  - 부산 동래에서 산해관을 경영하며 군자금을 수합해 임시정부에 송금
-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 추서(1963년),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1990년)

김홍권 선생은 애국 애족심이 투철한 분으로 알려졌는데 남한의 최고봉인 지리산의 정기를 받아 출생하였기에 남한 최고의 인물이요, 활약가로 꼽을 수 있을 분이다. 선생은 용궁(龍宮) 김씨로, 시조는 고려 인종때 문과에 올라 좌승선, 태자 소보를 지낸 김유중(金有中)의 후손이다. 양보면 운암리에서 부친 김제응(金濟應)과 광산 김씨 김내동(金內東)의 장남으로 합천 이씨 이찬식(李贊植)의 셋째 딸 이도정(李道正)과 혼인하였다.

1908년 4월 하동읍 향교 내에 설립된 하동보통학교에 입학하여 신학문을 배웠는데 어려서부터 영리하여 하나를 보면 백을 깨닫는 분이었기에 3년 재학기간 계속해서 모범 학생이었다. 이는 그 당시 유일한 지방지인 「경남일보」 1911년 4월 9일자에 보도되었음..

보통학교 재학중이던 1909년에 안희제(安熙濟), 이원식(李元植), 남형우(南亨祐), 김사용(金思容), 김기수(金基洙), 윤병호(尹炳浩), 서상일(徐相日), 김동삼(金東三) 등과 함께 대동청년당(大東靑年黨)이라는 비밀결사 조직 단체를 만들어 국내외에서 지하공작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때 마침 서부 경남 유일한 중고등 과정이었던 진주공립실업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곧 응시, 10대 1이라는 높은 경쟁을 뚫고 당당히 합격하였다.진주산업대(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전신인 진주공립실업학교 2회 졸업생 명단과 학적부에 의하면 1913년 3월 졸업생 중 4등으로 졸업하였음.

1994년 11월 4일자 진주산업대 학보 기사와 1996년 10월 발행한 하동군지(河東郡誌) 245~247면에 의하면(필자 자료제공)

1909년 안희제 등과 대동청년당에 가입. 지하공작활동을 전개하였고 1919년 4월 상해 임시정부 재무위원으로 선임되어 항일운동에 참여하였다. 또한 임시정부를 위해 경상도 구급 의연금 모집위원으로 활약하였음이 기재됨.

1911년부터 전국 유일의 지방지 진주의 「경남일보」를 구독하며, 세 아들 병성(炳成), 병홍(炳洪), 병인(炳仁)을 두고 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 (「경남일보」 1912년 2월 5일자)

1917년경 일본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열심히 학문을 배우던 중, 일본 명치대학에

재학중인 유경환(柳璟煥) 선생을 만나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게 된다. 유경환 선생과 서로 뜻이 통하였고 항일 투쟁을 위한 목적으로 중국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1919년 4월 중국 상해(上海)에서 여운형 선생, 김철 선생, 윤현진(경남 양산), 조완구(국무위원) 선생 등을 만나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현 시국 문제를 논하였다.

「조선민족운동연감」 이 책자는 1932년 4월 임시정부의 문서를 압수한 일본 경찰부에서 발행했다. 위 책 9면에 임시정부 재무위원 가운데 김철, 최완, 김홍권 선생의 이름이 나란히 기재되었으니 시기는 1919년 4월 13일이다.

10면에도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국회의원) 70명 가운데 한 분으로 김홍권 선생의 성명이 등재되었다. 또 17면에 의하면 1919년 5월 7일 의정원 회의에서 구급의연금 모집위원에 경상도 지역은 윤현진, 김홍권, 조동진 선생이 선임되어 포함되었음을 밝혔다.

그와 동시에 임시정부 산하 단체로 대동청년당이 조직될 때 임원으로 재선출 되어 지하활동을 하시며 구국활동을 계속 전개하신 적도 있다.

1920년부터 군자금 모금에 나서 만주와 국내외로 다니며 지하공작 활동을 전개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오직 조국과 민족을 위해 피로를 잊은 채 밤낮으로 노심초사 애쓴 분이었기에 그의 훌륭한 업적을 잊을 수 없다.

1971년 5월에 발행된 용궁 김씨 족보와 1991년 12월에 발행된 용궁 김씨 세보 그리고 1926년 발행된 용궁 김씨 세보에 의하면 김홍권 선생은 자(字) 도경, 호는 하우로 고종 임진년 정월 25일에 태어나 영오과인(嶺悟過人)하고 문예가 뛰어난 영남 인물이라고 등재되었다. 병자년(1937) 사망하여 양보면 진암 뒷산에 묘가 설치되었음.

1939년 1월 그의 묘 건너편 언덕에 기념비가 세워졌는데 그분의 둘도 없는 친우 김범부(해방후 부산 동래에서 2대 국회의원 당선)께서 쓴 글이 김홍권 선생의 비에 새겨져 있다.

문일문 선생이 쓴 <「한국 독립운동사」 91면, 1956년>, <「독립운동사 자료집」 제 9집 49면, 1975년 8월> 등에 의하면 상해 임시정부 재무위원 중에 경남의 김홍권 선생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후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독립운동사 제 4권」 162면에도 임시의정원 의원 70명 중에 김홍권 선생의 성명이 등재되었으니 그분의 활약상을 짐작케 한다.

김홍권 선생의 세 아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고 유일한 손자인 김성웅은 해방 후 지금까지 소식이 없고 장남 김병성의 세 손녀인 김성실, 김성애, 김성숙이 그 훌륭한 업적을 계승하고자 힘쓴다.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 5권」은 국가보훈처와 근·현대사 관련 전문가들이 기록한 책으로 그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홍권(金弘權) 미상, 경상남도 출신이다.

1909년 안희제 이원식, 남형우, 김사용, 김기수, 윤병호, 서상일, 김동삼 등과 함께 대동청년당이라는 비밀결사 조직 단체를 만들어 국내외에서 지하공작 활동을 전개하였다.

1919년 4월 13일 상해 임시정부 재무위원으로 피임되었으며 4월 23일, 24일에 개최된 임시의정원 제 2차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차장제의 폐지와 위원제 사용의 결의, 각부 위원의 선정, 임시의정원 성립 반포 등이 결의되었다. 또한 같은 해 5월 6일에는 제 4차 임시의정원 의결에 따라 윤현진, 조동진 등과 함께 경상도 지방의 구급의연금 모집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제 4차 의정원 회의에서는 구급의연금의 모집, 인두세의 징수, 내외에 공채모집 등의 안건이 결의되었던 것이다

의연금 모집방법은 각 의원이 먼저 낸 뒤 국내 모집위원을 파견하고 상해에 오는 동포에게 받아서 임시정부의 재원으로 삼아 항일 독립활동을 전개하자는 것이었다.

위의 책 내용에서 본 것처럼 김홍권 선생은 생몰 연대가 모두 미상이라고 기재되었고 경남출신이라는 것만 밝혀져 있음. 1963년 대통령 표창이 추서되었음

상훈법이 개정되자 1990년 12월 정부에서는 김홍권 선생에 대하여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한다고 발표했다. 그때까지도 출신과 후손의 존재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훈장만 추서하고 훈장과 훈장증은 정부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그 후 역사 바로 찾기 운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1994년 11월 4일자 진주산업대학보에 기고한 글에서 김홍권 선생은 하동군 양보면 운암리 출신이며 진주산업대학교 전신인 진주농업학교 제 2회 졸업생임을 처음으로 밝히기 시작했다.

1997년 3월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애국지사들의 사진을 전시하는 충효자로 전시회를 개최할 때 김홍권 선생의 손녀 김성숙(진주상업고등학교 교사)씨가 관람하는 과정에서 친손녀임을 밝혀 말함으로써 새 국면을 맞이하였음.

곧 친손녀 3명이 나타났으니 훈장과 훈장증을 돌려달라는 제목으로 언론사 (한국일보, 경남일보, 국제신문)를 찾아 호소하였다.

하동군 양보면의 65세이상 주민들의 항일투사 호가인서, 공증인(김두석)을 통한 공증 확인서, 용궁 김씨의 해방 전후 세보 등을 포함한 26종의 문헌을 찾아서 국가보훈처에 제출하였다. 정부에서 사실확인 작업을 거쳐 같은 해 8월 광복 52주년을 맞아 건국훈장과 훈장증을 손녀 성숙씨에게 전달하였다.(「한국일보」 1997년 8월 15일자, 「경남일보」 1997년 8월 15일자)

향리에서 하우 선생의 기념비를 돌보고 있는 김현수(金炫洙)씨의 증언에 의하면 장암리와 우복리 일원 수만 평의 땅이 하우 선생 부친의 소유였으나 상해 임시정부 재무위원으로 피임된 후 모두 소작인들에게 매도하여 항일투쟁에 바쳤다고 말함.

소작인들에게 싼 값으로 매도함으로써 소작인과 조국, 민족을 동시에 만족케 한 셈이라고 한다. 1990년대 특별조치법으로 주인 모르게 넘어간 땅도 있다

「하동군사」 여재규(余宰奎) 편저, 277, 425면에 의하면 1919년 3월 1일 이후 청암면 상이리 답곡 함양 박씨 박종원(朴宗源), 북천면 직전리 문영빈(文永彬), 정창국(鄭昌國), 양보면의 용궁 김씨 김홍권, 양보면 최용환(崔鎔煥) 5명은 부산의 백산상회(白山商會) 사장 안희제(安熙濟)와 밀약한 후 하동군내에서 독립운동을 지하 공작하던 중 왜경에게 탐지되어 체포되었다라고 하였다.

하동경찰서에서 수십 일간 고문하였으나 증거가 잡히지 않아서 형 집행이 정지되고 석방되었다. 이들 5인은 애국운동자로서 군민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위대한 영도자 이승만」 책에서 인용했음을 밝힘.

* 안희제 선생

안희제는 지사적(志士的) 근대 상인으로 의령군에서 출생(1895~1943)하여 1905년 상경하

여 처음 보성전문에 입학했다가 중퇴하고 양정의숙에 들어가 졸업하여 고향에 돌아와 계몽을 하다가 의령에 의신병남교를 설립하여 교편을 잡았다.

* 뒤에 윤상은과 구포에 구명학교를 세웠다.
* 대구 서상일, 박중화 등 80여명의 동지와 대동청년당이란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구국운동을 전개했다. 만주로 망명하여 유랑생활을 하며 독립운동을 했고 부산 동광동에 백산무역상회를 경영하면서 1919년 이후 상해 임시정부와 연락하여 독립운동을 계획하였다.

이미 보통학교 재학 때부터 안희제 선생과 함께 항일투쟁 대열에 서있던 김홍권 선생은 일본 유학을 갈 때와 귀국할 때 비밀관계를 유지하며 구국의 방향을 모색해왔었다. 동시에 유학생 유경환을 데리고 상해로 건너갈 때도 일본의 정세를 주고 받을 뿐만 아니라 군자금 지원 문제도 의논했었다. 하우 선생이 상해로 건너가자 곧 임시정부가 탄생하게 되는데 3·1운동이 일어난 그해 4월 13일 재무위원으로 임명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온 정성, 재물과 뜻을 모두 바친 김홍권 선생에 대한 예의였던 것이다. 임시의정원 의원(임시국회)에 유경환과 함께 참석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게 된다. 말하자면 임시정부의 재무담당 장관이면서 임시국회의 국회의원이었다는 사실이다.

지금과 같은 세비를 받거나 커다란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조국을 위한 등불 역할을 다했다는 사실과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기 위한 봉사 희생을 한다는 자긍심이 있었을 것이다.

임시의정원 회의에 참석하여 각 부서에 있던 차장제를 폐지하고 위원제를 사용한다는 문제, 각부 위원의 선정, 임시의정원을 성립했다는 내용을 대내외에 반포하기로 결의했다는 것이다. 초창기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의 발전과 기초작업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희제 선생과의 오랜 친분을 이용해 군자금도 받을 수 있었고 안희제 선생이 임시정부와 관계를 가지게 한 분도 김홍권 선생임이 확실하다. 1945년까지 임시정부가 존속할 수 있었던 것도 기초를 든든하게 해준 김홍권 선생의 역할 덕분이라고 확신한다.

임시정부 활동내용과 인명이 노출된 것은 1932년 상해 홍구공원에서 일어난 윤봉길 의사의 의거 때문이다.

윤봉길 의거가 일어나자 일제는 곧 바로 임시정부의 조종 때문임을 눈치채고 임시정부 관사를 포위하여 모든 문서와 종이 한 장까지도 압수해 갔다. 그 문서에는 1919년 4월부터 1932년 당시까지 애국지사들의 활동내용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김홍권 선생께서 활약하신 내용도 노출되었던 것이다.

* 1926년 3월과 1952년에 발행된 「용궁 김씨 세보」에 의하면 김홍권 선생의 시조 김유중은 고려 인종때 문과에 급제하여 좌승선을 거쳐 태자소보(왕자를 가르치는 최고의 스승)를 지낸 분이다. 조부는 자(字)가 사명(仕明)인 김용순(金 鏞淳), 부친은 자(字)가 인숙(仁淑), 호가 가암(稼菴)인 김제응(金濟應)이고 모친은 광산 김씨 김내동(金內東)이다. 김홍권 선생은 이들의 3대 장손이다. 그 외 후손에 대해서는 다음 도표에 따른다.
* 1996년 7월 20일 발행된 「하동정론신문」에 의하면 "하동군 양보면 진암 출신으로 임진공신 김태백 의병장 후예로 1909년 안희제, 서상일 선생과 더불어 대동청년당을 조직하여 지

하공작 활동을 하고 1919년 임시정부 구급의연금 모집위원으로 같은해 임시정부 재무의원 겸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하셨다"라고 했다.

* 또 산해관(山海館)을 운영하며 전 재산을 민족의 독립운동에 바친 분으로 소개했다. 김범부 선생이 쓴 세상이 뜻대로 되지 않아 항상 근심하던 우국지사라고 새겨진 비문이 마을을 바라보고 서 있다고 보도했다.

* 김홍권 선생은 삼남을 두셨는데 김병성, 김병홍, 김병인이다.

훈장증서나 훈장은 그의 장남인 김병성의 셋째딸 김성숙(金星淑)이 대신 받아 보관중이다.

김병성 선생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서대문 형무소 기록에서 그의 사진과 죄명, 본적 등이 등재되어 있다. 그 기록에 따르면 본적 하동군 양보면 운암리 115번지로 되어 있음

체포 당시 주소는 서울 관철동 511번지, 연령은 1910년(융회 4년) 1월 14일생,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서대문 감옥에 입소한 날짜는 1929년(소화 14년) 7월 16일, 죄수번호는 1509번이라고 했다.

그가 그 당시 사상가로 활동하며 제5차 공산주의에 동참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으나 사실은 항일투쟁의 일환으로 일제를 밀쳐내고 조국의 독립을 위한 목적으로 활약하다 일경에 체포되어 수년간 옥중 고생했던 것이다. 항일운동가에 대하여 일제는 무조건 사상가로 몰아붙인 인상이 짙다.

김병성 선생은 전주 이씨 이두야(李斗也)의 딸 이귀인(李貴仁)과 혼인하여 세 명의 딸을 두었는데 성실(강변약국 약사), 성애(경수중학교 교사), 성숙(진주상고 교사) 등이며 성실은 한인교와 성애는 김영태, 성숙은 김창남과 각각 혼인하였다.

위 세 자매가 모두 영리하고 현달하여 서울소재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4년간의 수업을 마친 수재들인데 장손녀 성실은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서 '강변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며, 성애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경수중학교에서 국어교사로 20여년간 근속하였다. 최근에 사천시 사천읍 평화동에서 전통찻집 '다랑'을 운영했다.

이 책을 발간할 때 하동군에서 1천 수백만 원을 제공함으로써 「하동 독립유공자 공훈록」을 발간하게 되는데 그 뒤에 숨은 공로자는 김성숙 선생이다. 가을에 꽃다발을 가득 안고 정구용 하동군수를 찾는 등 수개월 동안 동서로 뛰어다닌 김성숙 선생이야말로 1등 공신이라고 할 것이다.

김홍권 선생은 1919년 5월에는 국내 각 지역별로 구급 의연금을 모으기 위하여 책임위원을 뽑을 때 경상도 지방을 맡았다.

국내에 거주할 때 임시정부의 국내연락 비밀장소였던 '산해관'을 운영하는 등 민족의 독립운동에 천석지기 전 재산을 모두 바쳤다. 그러나 그토록 열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고 바라던 광복을 보지 못하고 한 많은 삶을 마감하게 되었다.

세보에는 1936년 11월 26일 별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양보면에 보존된 호적에는 1937년 1월 8일 진주 도립의원에서 사망하여 장남 김병성이 사망신고를 했다고 등재되었음.

★ 참고문헌

「조선민족운동연감(朝鮮民族運動蓮鑑)」 上海 日本영사관 경찰부 발행, 9, 10, 17면

‘대한민국임시정부 의정원 문서’ 42, 43, 44, 48면
「朝鮮民族運動史料(中國篇)」 27, 37, 40면
「독립운동사 자료집 제 9집 임시정부사 자료집」 49면, 1975년 8월 23일 발행
「3·1운동 자료집」 국학자료원, 167면, 1991년 5월 10일 발행
「독립운동사(임시정부사) 제 4권」 162, 199, 420면
「民族獨立鬪爭史 사료(해외편)」 여론사, 17면
「韓國獨立運動史」 1956년 2월 5일 발행, 문일문 91면
‘진주산업대 학보’ 1994년 11월 4일 발행, 추경화 자료제공
‘하동정론신문’ 1996년 7월 20일 발행
「용궁 김씨 족보」 1926년 발행
「용궁 김씨 족보」 1991년 12월 발행
「용궁 김씨 족보」 1971년 5월 발행
「河東君誌」 230~250, 2070, 2071면, 1996년 10월 30일 발행
‘경남일보’ 1911년 4월 9일 발행
‘경남일보‘ 1912년 2월 5일 발행
‘진주실업학교 제2회 김홍권 성적증명서‘
‘하동군 양보면 김홍권의 비석사진‘ 1939년 1월 건립
‘한국일보’ 1997년 3월 21일 발행
‘국제신문’ 1997년 3월 24일 발행
‘신경남일보’ 1997년 3월 28일 발행
「용궁 김씨 세보」 1926년 3월 15일 발행
「용궁 김씨 세보」 1952년 7월 30일 발행
‘하동군 양보주민 11명의 항일투사 확인서’
‘인증서’ 공증인 김두석, 199년 3월 26일 확인
‘취재 경남 17호’ 36, 37면, 1997년 4월 22일 발행
‘취재 경남 25호’ 37, 38면, 1997년 8월 22일 발행
‘한국일보’ 이동렬 기자, 1997년 8월 15일 발행
‘경남일보’ 김종현 기자, 1997년 8월 15일 발행
「항일투사열전 2권」 청학사, 저자 추경화, 262면
「하동군사」 여재규 편저, 277, 425면, 1978년
「독립유공자공훈록 제 5권」 국가보훈처, 538면, 1988년
「하동군지」 편찬위, 246, 247, 250, 2070, 2071면, 1996년

▣ 문갑이(文甲伊) 선생

- 이명: 문두봉, 문병영
- 생몰년월일: 1909.6.3. ~ 1983.3.13.
- 출신지(본적): 경남 사천시(삼천포) 이물리
- 공적요점
  - 1929년 9월 정종주와 용산독서회 조직, 활동
  - 일경에 피체되어 집행유예 3년 언도
  - 삼천포 적색농민조합 노동운동
  - 1934년 농민야학 운영
  - 1938년 2월 일경에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으로 혼절
  -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 언도
- 정부포상: 건국훈장 애족장(2004년) 추서

<신분장 지문 조회서>에서 1009년 3월 26일생으로 기재되어 생년월일일 다르게 표기되었다.

국가보훈처에서 2006년에 발행한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6권 225-226면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경남 사천에서 노동운동을 통해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1929년 9월경 경남 사천군 삼천포읍에서 정종주(鄭從柱) 등과 함께 비밀 사회주의 단체인 용산(龍山) 독서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이 일로 일경에 체포된 그는 옥고를 치르고 1932년 2월 15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이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받게 되었다.

석방 후 다시 삼천포 적색농민조합에 가입하여 농민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1934년 12월 장백윤(張伯允)이 운영하고 이홀리의 농민 야학을 인수하여 1935년 5월까지 농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동독본., <조선어독본>, <산술> 등을 만들어 가르치면서 사회주의 사상과 반일의식의 함양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1938년 2월 14일 일경에 체포되어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1939년 8월 30일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언도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20년대 1930년대에는 청소년들의 자각에 의해 스스로 배워야 산다는 바람이 불어 농·어촌, 산중에도 기본적인 소양인 한글익히기, 산술 등을 배우게 된다.

앞서 배운 청년들은 향리에 사는 후배들을 모아 놓고 가르치게 되는데 주간에는 농사를 짓거나 산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고 야간에 참여하게 된다.

서울, 동경 유학생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대 향리에 돌아오면 즉시 초청해 강연을 실시하게 되는데 진주, 고성까지 가서 들었고 밤 12시경에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다. 일제와 대항하기 위하여 지식개발과 기술습득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는 시기임이 확실하다. 또 재외동포들을 위문하는 음악회와 무대공연을 실시하고 위문금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정종주, 문갑이, 장백윤 선생 등은 이기주의가 아닌 공동주의, 협동주의, 지식분배주의로

살았다.

공동주의란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아닌 아웃과 후배, 민족, 조국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한다는 뜻이다.

협동주의란

서로 도우고 도와주는 관계로 형성한다는 뜻이니 요즘 세대의 철저한 개인주의, 이기주의와 정반대되는 개념이고 사고방식이다.

지식분배주의란

내가 아는 지식, 기술을 청소년, 후배, 이웃에게 나누어 준다는 형평성 사고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문갑이 선생 등은 공동주의, 협동주의, 지식분배주의라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존중할만한 분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 참고문헌

가출옥 서류중 부산지법 지주지청 재판기록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마사보훈지청 2001년 61면
한국근현대지역운동사 영남편 역사문제연구소 1993년 197면
신분장지문조회서(경찰청)
사천시사 시사 편찬위 2003년 740면
일제하 사회운동 인명색인집 상권 1992년 역사문제 연구소 738면
이기하의 공산주의 운동사 1409면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6권 국가보훈서 2006년 225-226면
동아일보 1939. 5. 9. / 8.26. / 9. 3

▣ 문공학(文孔學) 선생

- 이명: 은파(隱坡)
- 생몰년월일: 1987.9.27. ~ 1946.8.27.
- 출신지(본적): 경남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1212
  사천시 곤명면 금성리
- 공적요점
  - 1919년 3월 21일 하동군 횡천면 3·1운동 지도
  - 1919년 4월 3일 하동군 북천면 3·1운동 지도
  - 1919년 5월 29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보안법 위반 징역 6월형 수형
  - 청년학생들에게 항일정신 고취
  - 직계후손이 사천시에 거주하면서 애국애족심 계승
-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1992년) 수상

문공학(文孔學) 선생의 조부 문영국(文永國), 강성(江城) 文氏이며 조모는 정안계(鄭安桂)이다.

조부 문영국(文永國)선생도 지역에서 존경받는 학자(學者)로 유명한 분이다.

부모는 문욱동(文勗東) 진양강씨 강청등(姜淸登) 문공학 선생은 그분들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문공학 항일 애국지사께서는 호를 은파(隱坡)라고 하는데 하동군 북쪽에 위치한 북천면 농가에서 강성(江城) 문씨인 유학자 문영국(文永國)의 손자요 문욱동(文勗東)과 강청등(姜淸登)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현달하여 향리 직하정 한문서당에서 「천자문」, 「명심보감」, 「논어」, 「맹자」 등을 배울 때 항상 우들을 차지하였다. 은파 선생은 성품이 총명하고 강직 담대하여 한문과 충효사상(忠孝思想)을 배우고 실천하는 데 모범을 보였다.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불쌍히 여겨 돕는 수범을 보여 이웃의 칭송을 받고 있었다.

은파 선생이 14세 되던 해에 민족적인 수치인 한일합방이 있었다. 이때 그는 유교적인 사색에 잠겨 있을 수 없어 망국의 비극을 절감하고 절명시를 벽에 써두고 자결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가족들의 만류로 자결을 중단하고 새로운 항일투쟁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춘추가 연로한 부모님을 두고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불효(不孝)가 되고 불효는 곧 불충(不忠)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단한 것이다.

조국의 주권을 빼앗는 상대가 섬나라 도적이라고 생각하니 끝없는 분노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깊이 생각할 때마다 증오심일 불같이 일어났다. 1916년 약관 20세가 되자 하동군 내 애국 청년들과 교제하고 교우 관계를 가지면서 조국 광복운동에 동참할 우정을 다져 나가고 있었다.

1918년에는 사천 곤양보통학교 교사 조우제와 경성보고 재학생 최원형 등과 교제하면서 국내·외 정세와 항일 애국지사에 관한 움직임 등을 들을 수 있었음은 천만다행이었다. 이들은 말 없는 우정으로 무언가 투쟁의 길로 나서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었다.

1919년 3월 1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만세 시위가 시작되고 민족대표 33명이 태화관에

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자 수많은 군중과 인파가 만세시위를 전개하였고 전국으로 만세 물결은 퍼져나가고 있었다. 서부 경남에도 3월 중순부터 만세시위가 전개되고 있었다. 은파 선생도 주먹을 힘차게 쥐고 이제 내가 나설 때가 되었다고 외치면서 평소 뜻을 같이하던 동지들과 은밀한 연락망을 구축하였다. 3월 23일 정성기는 하동읍 장터에서 대시위를 전개하였고 3월 29일 이홀식은 진교면 장터에서 대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보다 앞서 3월 21일 횡천면 여의리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될 때 사전에 계획한 그대로 수많은 동지들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니 장터에 운집한 군중들도 동참하여 천지를 진동하였다.

북천면에 살면서 횡천면 장터 3·1운동을 주도나 일은 그가 얼마나 애국 애족심이 투철하였는지 짐작되는 일이다.

일제는 횡천면에 사는 주민 가운데 주동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찾아다닐 때 은파 선생은 제2의 3·1만세 운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1919년 4월 3일 북천면 직전리에서 제2의 3·1만세 시위를 준비할 때 인근에 사는 애국동지 이재기(李載基) 선생과 협력했다.

두 명의 애국동지들은 친족 문증학, 이영기 등과 함께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제작하고 각 마을에 연락하여 4월 3일 의거일에 맞춰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갔다.

드디어 의거 당일 1천 명 이상의 군중을 모아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태극기를 높이 흔들기 시작하자 북천 장터와 북천면 전체가 진동하였다.

1천 명이 넘는 군중이 외치는 "대한독립만세" 소리를 생각해보라. 조용한 시골장터에 1천 명의 만세 소리, 그 얼마나 자랑스런 일인가. 맨주먹 맨손의 시위현장, 그 얼마나 놀랍고 고마운 소리였던가. 운집한 군중 앞에 등단한 두 명의 애국동지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선창하였다. 이때 1천 군중이 함께 호응하여 일제히 대한독립만세를 높이 외치니 군중의 사기를 충천하고 만세 함성은 각 마을까지 퍼져나갔고 계속해서 이어졌다. 애국동지들은 그 여세를 몰아 경찰주재소를 습격하였다. 이때 일경은 인정사정없이 총을 난사하였다.

문공학의 친동생 문증학은 그 당시 15세였는데 과거를 회상하면서 말하기를 일경에 체포된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매를 맞았는지 입고 있던 흰옷에 피가 범벅이었고 머리와 얼굴 전신이 피투성이가 된 처참한 모습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셀 수 없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하동경찰서로 끌려간 애국청년들에게 일본 경찰의 지시를 받아 혹독한 고문을 자행하는 조선인 순사보는 차라리 더 미운 대상이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더니 조선인에게 노골적으로 더 심한 매질을 가하는 등 악랄한 고문을 자행했다. 차라리 일본 경찰이 가하는 고문이라면 욕이라도 하고 발악이라도 했을 것이다. 조선인 순사와 순사보 조원이 가하는 고문을 받고 보니 가슴속의 응어리는 더 깊어만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전해 온다.

두 애국지사들의 말만 믿고 따르다가 잡혀 온 청년들은 태장을 맞고 풀려나고 은파 선생은 부산지검 진주지청으로 이송되어 정식재판에 회부 되었고 그해 5월 소위 그들이 말하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형을 언도 받았다.

또다시 대구 감옥으로 이감되어 6개월간 복역하였다. 대구 감옥에서 만난 애국동지들에게 말하기를 “남아로 세상에 태어나 조국의 광복을 위해 싸우다 죽는 것은 자랑스럽고 떳떳한 일이 아니냐”라고 했다.

6개월 만에 출옥할 때 애국동지와 가족들이 대구 감옥으로 찾아갔다. 감옥에 다시 안 들어가는 방법으로 두부를 먹게 하자 은파 선생께서 말하기를 “성의는 고마우나 나에게 항일투쟁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하며 두부를 멀리 던져 버렸다고 한다.

북천면 집에 당도한 그는 약 1년간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였다. 1922년부터 1925년까지 사이에 횡천주재소, 곤양수비대 등을 야반에 습격하는 투쟁을 계속했다. 이와 같이 항일투쟁만 생각하고 생계를 돌보지 않으니 그의 자녀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오로지 집에서 가르쳤다. 또한, 일제의 식민지 교육도 반대하여 문씨 일가족에게 신식교육을 받지 말 것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1929년 광주학생사건이 있어 전국에서 학생시위가 전개되자 청년 학생들에게 항일투쟁을 전개하도록 배일사상을 고취하는 활동을 계속하다 일경에 끌려가 고문당한 일도 있었다.

1945년 8월 광복을 맞이하였다. 일본군과 일본인은 조용히 떠나고 그 밑에 친일했던 친일파들은 고개를 숙이고 마을을 떠나 어디론가 사라져갔다. 그러기에 기쁜 마음에 북천면 도로가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또 외치다 마침내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다. 너무 기쁜 소식을 듣고 보니 가슴속의 응어리가 갑자기 풀어지면서 쓰러지더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다음해 8월 세상을 떠난 것이다.

은파 선생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평생 소원이던 조국 광복을 맞이했으니 더 이상의 소원이 없다”였다.

은파 선생이 세상을 떠난 지 31년만인 1977년도에 향리 주민들이 뜻을 모아 문공학 선생 항일 공적비를 세웠으니 지금 고향마을 입구를 지키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0권 122면에 의하면 다음 내용이 등재되었다.

“1919년 3월 21일 하동군 횡천면 여의리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주도하였고 같은 해 4월 3일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에서 주민 1천여 명을 규합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벌이고 주재소를 습격하는 등 활동을 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

“이해 5월 29일 부산지방법원 지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였다.

벽진 이씨와 혼인한 선생의 자녀는 5남 1년이며 장남 석규, 차남 택규, 상남 창규, 사남 종규, 오남 형규, 장녀 등이 있고 손자녀는 모두 24명이다.

★ 참고문헌

범죄인 명부(犯罪人 名簿)

부산 경남 3·1운동사(3·1동지회, 1979년) 27, 629면

독립유공자 공훈록(1993년) 10권 122, 123면
하동군사(여재규 편저, 1978년) 239, 248, 250, 1654면
내고장의 맥(하동군, 1990년) 107면
대한민국 건국훈장 수훈자 공훈록(김영근, 1994년) 430면
경남독립운동 소사(변지섭, 1966년) 85면
3·1운동 실록(이용락, 1969년)699면
집행원부(대구복심법원)
하동 지역 항일 애국지사 연구(논문 1995년) 37면
독립유공자 공훈록(국가보훈처, 1989년) 제2권 144면
동아일보 1992년 8월 14일자
서울신문 1992년 8월 14일자
경남일보 1992년 8월 14일자
경남신문 1992년 8월 16일자
경남일보 2000년 7월 8일자
하동독립유공자 공훈록(추경화, 2000년)76-81면

▣ 문수열(文洙烈) 선생

- 이명: 문웅명(文雄明)
- 생몰년월일: 1923.7.15. ~ 2008.12.23
- 출신지(본적): 경남 사천시 곤명면 금성리 768
- 공적요점
  - 광복군 제3지대 입대
  - 장호강, 조동린 주선으로 10여 명과 함께 광복군 입대
  - 중국 부양(阜陽)에서 기관지 빛의 편집위원으로 활약
  - 한미합작 훈련요원으로 선발되어 훈련대장으로 활약
  - 광복 후 곤명면의원 당선
-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 수상(1963년), 건국훈장 애족상 수상(1991년)

문수열(文洙烈) 선생은 소년 시부터 애국애족심이 강렬하였다. 특히 사천지역에서 일제의 수탈과 압박이 강해지고 있음을 목격하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국내에 거주하면서 투쟁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만주를 거쳐 중국 부양(阜陽)으로 건너갔다.

이때 평북 철산군 출신 장호강씨가 조동린 선생을 통해 8명을 전방 공작요원으로 입대를 주선할 때 문수열 선생도 앞장서서 동참하게 된다.

문수열 선생은 1944년 3월경부터 광복군 제3지대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기관지 “빛”의 편집위원이 되었다. 기관지 빛은 항일투쟁사와 왜적 왜전사 그리고 독립은 곧 조국의 광복으로 이어진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편집위원은 박채곤, 박상기, 한이율, 김영일, 김문택 등과 함께 했고 목판인쇄로 이루어졌다.

장호강(張虎崗) 항일투사는 평북 철산군 출신으로 투쟁적인 인물이었고 부모님 장관선(張寬善) 목사(평양 신학교 2회 졸업생), 홍성산(洪聖山) 권사의 2남 1년의 차남이었고,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 분이다.

조동린(趙東麟) 선생은 평북 정주군 출신으로 역시 광복군으로 크게 활약한 부능로 1990년에 훈장 애국장이 추서된 분이다.

1977년에 건국포창이 추서되었고 문수열(文洙烈) 선생이 활약한 광복군이란 무엇인가

1940년 중국 충칭에서 창설된 항일군대, 1937년 중일전쟁 후 각지에 흩어져 독립운동을 하던 애구단체들을 충칭의 대한민국 임정을 중심으로 단합하고 광복군을 조직하였다.

총사령관에 지청천 참모장에 이범석이 선출되었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광복군은 대일선전포고를 하였다.

이후 1943년 영국군과 연합작전을 실시하고 1945년 국내 수복작전을 세워놓고 훈련 중 8·15해방되었다.

초기 인원은 30여명이었고 장교급 인사만 참여했고 김원봉과 함께 잔류한 300여명이 흡수되었고 총 1000명 이하로 본다.

전면전에는 투입되지 않았고 중일전쟁이나 미얀마 전선에서 첩보와 통신, 한국인 회유 등

을 했다. 중화민국 육군의 지휘를 받다가 1944년 말에 풀렸다. 1945년 8월 미국 OSS와 접촉해 훈련을 받고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다. 김구의 비서인 선우진, 고려대 전 총장 김준엽, 초대 국무총리 이범석, 장준하 선생 등이 광복군 출신이다.

문수열 선생은 2008. 12. 23 강원도 춘천시에서 별세하였고, 2008. 12.29 대전국립(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제2-1128에 안장되었다.

장준하 선생은 7대 의원, 문교부 서기관, 정신계몽 담당관, 사상계 창간, 국토건설단장을 역임하였다.

문수열 선생은 1945년 귀국해 초대 곤명면의원에 당선되었고 수리조합이사를 역임했다. 아우 문성렬, 문종렬이 있다.

부인은 정점돌이고 자녀들은 문재욱(동신방한의원장), 문재철(한국농촌공사 과장), 문연숙(재미), 사위 김상진(재미 목사), 사위 조명래(엠코 전무), 직계손 문진주, 문현서가 있다.

★ 참고문헌

한국 독립사 하권 김승학 130면 (독립전투사)
독립운동사 6권 228, 412, 423, 424, 504, 551, 617면 편찬위원회
독립유공자 공훈록 5권 1988년 국가보훈처 334, 939면
경남 항일독립운동 참여자록 마산보훈지청 이대수 2001년 62면
곤명면지 1987년 편찬위원회 371면
독립유공자 증언자료집 2권
장호강 편에 문수열 활동상, 장호강은 철산군 출신
장관선 목사 홍성산 권사의 2남 1녀 차남
1944. 3 전방공작원으로 조동린 등 8명이 후송
사천시사 편찬위원회 2003년 729-730면
일제하 사회운동 인명색인집 상권 1992년 역사문제연구소 745면

▣ 손계묵(孫系默) 선생

- 이명: 孫桂默
- 생몰년월일: 1893. 8 ~ 1919. 4. 3(음력)
- 출신지(본적):경남 사천시 사천읍 두량리(斗良里) 1373
- 공적요점
  - 1919년 3월 사천읍 중선포 도로 보수에 강제동원 되었음
  - 4월 13일 14일에도 도로 보수에 동원되자 의협심이 발동하여 청소년들과 만세시위를 지도
  - 사천읍내로 진출하자 수백명의 군중이 동참
  - 피체되어 혹독한 고문으로 수차례 혼정하고 계속 또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극심한 고문으로 별세해 순국
- 정부포상: 건국훈장 애국장(2014년)

<부산경남 3·1운동사> 815면에 보면 사천읍 중선포(中宣浦) 의거에 대하여 기록되었다. 중요 내용을 요약해 본다.

1919년 3월 거일 학생의거가 있은지 약 1개월 후에도 일제는 조선인들의 노력 착취의 방법으로 부역(賦役)을 시키는 제도를 강행하고 있었다.

금전을 안 내는 대신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노동 날짜를 정해 출력을 해야 하는 제도로 간단하게 말하자면 강제노역 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다.

4월 14일 사천읍 중선리에서 도로 보수를 위한 부역이 있었다.

당시 4월에는 농촌에는 농사일에 바쁘게 돌아가는데 전국 어디서나 비슷하게 보릿고개가 시작된 시기였다.

가을 농사로 쌓아둔 쌀, 보리는 떨어지고 밀, 보리가 생산되기 전이기 때문에 농촌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굶어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고 일제의 폭압정치로 만주, 중국으로 떠나는 시대였다.

종일 도로를 정비하는 일에 동원되었다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정도로 도로 부역을 하고 해가 넘어갈 무렵에 귀가하고 출석부에 기록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

사천읍 두량리(斗良里) 유승갑, 손계묵은 26세, 27세 청년으로서 일제에 대한 반감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삽, 괭이, 망치, 호미를 버리고 군중은 함께 큰 소리를 외쳤다.

오늘도 왜놈들을 위해 도로 부역이 왠 일입니까. 왜놈에게 국가 주권까지 도적맞고 손이 검게 강제적으로 도로 보수에 동원되니 억울하고 분하여 참을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시위를 전개합시다.

이때 이웃 친구들도 동참하자고 외치기 시작했다.

당시 부역에 동원되었던 손계묵, 하말금, 하점수, 유진현, 유상형, 유치현, 유치순, 유대형, 유승무, 유승철, 박성도, 정병세, 손계훈, 자곱조, 김진조, 유승현 등 20여 명이 삽, 괭이, 망치, 호미를 높이 쳐들고 외칩니다. '다 같이 시위합시다'라고 외치게 되었다.

맨 앞장선 분은 손계묵, 유승갑이었고 20대 청년들이 선두에 서서 부역의 삽과 호미, 괭이가 시위대 만세시위를 위한 도구로 변하였다.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소리가 진동하자 도로 부역에 동원된 백 여명과 이웃의 주민들도 동참하기 시작했다.

순간적으로 시위군중은 수백명에서 수천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시위 대열들의 삽과 괭이, 호미가 마치 무기처럼 보였고, 사천읍 내로 진출하니 시위군중은 점점 많아졌다.

당당한 시민들의 모습은 의병들의 투쟁과 비슷한 양상을 이루었다.

시위군중이 사천읍내로 도달하자 이 정보를 연락받고 달려온 일본 헌병들과 정면으로 만나게 된다.

시위 군중들 손에는 삽, 괭이, 호미가 있었기 때문에 일 헌병도 함부로 달려들 처지가 되지 못했다. 시위대와 헌병들은 서로 대치하고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다.

이때 헌병들은 총 끝에 칼을 꽂고 돌격 대열을 취하고 군중을 위압하고 있었다. 마침내 쌍방은 난투극이 벌어져 유혈이 낭자하고 아수라장으로 변화되었다.

헌병들의 예리한 칼끝에 찔리고 총검에 맞아 붉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부상자가 부지기수이었다.

시위 군중의 선두에서 지도, 지휘하다 손계묵, 유승갑, 하말금 (앞의 명단 등의 청년들이) 체포되자 군중은 흩어지기 시작했다.

체포된 주동자 18명은 사천헌병대에서 혹독한 고문과 엄중한 조사를 받았다. 혼절하는 청년들도 있었다. 시위 지도자들은 지주로 압송되어 재판을 받았다. 보안법 위반이라면서 징역 1년부터 태형90도, 60도씩 언도하게 된다.

손계묵 선생은 맨 선두에서 시위대를 이끌었다는 이유로 혹독하고 무지한 고문을 가하여 혼절했다. 감옥에서 죽으면 여론이 악화되고 불리하다고 여긴 일제는 죽기 직전 석방하게 된다. 손계묵 선생은 고문 후유증이 심하여 자택에서 치료를 계속했으나 마침내 생명을 잃고 별세하니 순국이다.

정부에서는 손계묵 선생의 훌륭하고 아름다운 투쟁을 기리어 2014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혹은 옥중에서 순국하자 가족에 연락해 시신을 받아 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고 하지만 낮은 등급이 추서됨은 어찌된 일인가.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바쳤으니 그 당시 만 26세 청년이었다.

<아름다운 항일정신> 책에 실린 내용을 그대로 옮겨 본다.

손계묵 지사

아 민족위해 싸웠다
아 아가위해 싸웠다
아름다운 고향위해 싸웠다

강제동원 도로 보수
힘없이 끌려다닐 때
우리 도울 자 없었네

사천읍 내 행진하며 독립만세, 독립만세
수백명 너도나도 대한독립만세
남자도 외치고 여자도 외치고 어린이도 외쳤다
조국이여 한목숨 바친이 아름다운 이름
손계묵 선생
기리고 기억하자 손계묵, 손계묵

★ 참고문헌

독립운동사(3·1운동사 하권) 제 3권 286면 편찬위원회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 2권 176면 1986, 국가보훈처
부산 경남 3·1운동사 3·1동지회 1979년, 815면
경남 항일독립운동 참여자록 마산보훈지청 2001년 85면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22권 2016년 국가보훈처 217면
고등경찰관계적록 1936년 경찰청 19면
사천시사 편찬위원회 2003년 742면
삼일운동 실록 이용락 1969년 710면
경남지역 3·1독립운동사 문화원 경남도지회 2007년 64면
사천군지 편찬위 1990년

▣ 송지환(宋芝煥) 선생

- 이명: 송지환(宋之煥)
- 생몰년월일: 1903. 6. 18 ~ 1929. 4. 1
- 출신지(본적): 경남 사천시 정동면 (출생)
- 공적요점
  - 해인사에서 독립선언서 1만매 인쇄시 협력
  - 서부경남일원에 배포
  - 서포면 3·1운동을 지도, 지휘
  - 서포 청년회에서 항일관련 연설로 일경에 피체
  -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징역 1년형
  - 고문 후유증으로 만 26세 대 별세해 순국
- 정부포상: 건국훈장 애족장(1992년) 추서

경남 사천시 서포면 서포초등학교 교정 꽃밭에 독립운동한 이들의 기념비가 1968년에 건립되었다.

비문 내용을 읽어보면

이 서포 고장 땅에서 생을 받은 일곱 동지의 기미년 3월에 있었다. 독립운동 사실을 적는다.

송지환(宋芝煥), 송수완(宋守完) 나이 17세 박또살동은 그보다 하나 위고 송찬홍(宋贊洪)은 22세 송용수(宋龍守)는 그보다 한 살 더하고 신영범(申永範)은 26세 최연장이고, 현존하는 임응주(林應柱)는 14세로서 당시 산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주인공이기도 하며 이 글을 적는 나는 16세 되던 해 그해 3월 중순에 곤양 장날을 받아 우리 고향 일대의 모든 사람들이 독립선언서를 읽고 독립만세를 높이 외치고 태극기를 흔들며 일제와 싸웠던 것이다.

우리들 8인은 드디어 왜적에게 잡히어 왜헌의 총검은 이들 몸에서 굽어지고 수많은 대막이며 주릿대는 이들 몸에서 부서졌던 것이다.

또 그들의 팔목에 올라가 채웠으니 그 허리엔 포승줄이 사리었고 그리하여 일제 법관은 그들에 수년씩 형장이기 하였고 그 혹형에 못이겨 그들 향년을 다 못하고 죽은 분이 6분이나 된다.

나는 독립선언서를 가져온 수모자였으나 만 15세가 못되므로 그 때의 체형을 감면하였던 것이다.

이제 그 때의 일을 회상하니 감개무량하여 이 시를 읊는다.

“청춘의 애 끓는 조국에서
우렁찬 소리 그의 외로움에
끝내 빛나 광복이 오고
우리들이 배우던 교정에 이 비가
서노니 이 강산이 조국(祖國)이
기리 빛나리라”

무신 광복절 1968년
최범술(崔凡述) 글을 짓고, 오제봉(吳濟峰) 글을 쓰다
광복의사기념비 건립추진위원회

이용락 선생이 전국으로 답사하며 조사하여 <3·1운동 실록>을 1969년에 발간했는데 경남 지역 사천의 항일운동사를 쓰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710-711면)

"사천군 정동면의 송지환은 열혈적인 애국청년으로 이미 만세운동 후 상해 임시정부에 연락하여 기밀을 통하다가 사건이 탄로되어 대구형무소에서 1년간 복역하였다.

그 후 비밀 본사를 조직하여 항일의 선봉을 섰다가 다시 발각되어 그는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어느 날 그의 본가에 승려 한 사람이 찾아 왔다. 송지환의 동지가 일컫는 승려는 그의 일본에 거론하고 있는 주소를 물었다. 집안사람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편지 피 봉을 보여 주었다.

그 일이 있은 미기에 송지환은 일본으로부터 체포 압송되어 혹독한 고문에 쓰러져 죽었다. 그러나 현재 그 가족과 동지가 이산하고 없어 당시의 운동 진상을 자세히 가고할 길이 없으니 애석하다."

송지환 선생은 17세 소년시에 서포지역 청소년 애국동지들을 모아 곤양장터로 진출하여 독립만세 시위를 총지도하고 상해 임시정부와 관련된 이들을 만나 비밀활동을 전개하다 일병에 피체되어 약 1년간 옥고를 치르고 일본을 잡기 위해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심정으로 일본으로 망명하여 항일운동을 계속하다가 일경이 사천 본가에서 입수한 주소를 보고 일본에 피신한 장소가 발각되었고 고등계 일경이 출동해 피체되어 국내로 압송 전후에 혹독한 고문으로 혼절하고 냉수를 얼굴에 부어 깨어나면 또다시 고문을 더하여 마침내 별세하니 순국이라.

조국과 민족을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바치니 만 26세에 불과했다.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0권 182면에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서술했다.

"1919년 3월 미상일 경남 사천군 서포군에 거주할 당시 해인사에 해인보통학교 및 지방학림 학생들과 독립만세운동을 계획, 해인사 등사기로 독립선언서 1만여매를 인쇄하여 합천, 삼가, 사천, 곤양, 하동 등지에서 독립선언서를 배부하고 시위에 앞장서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활동하였다.

1921년 사천군 서포면 소재 서포청년회의 총회 개최시 독립운동을 표방하는 연설을 했다가 피체되어 징역 1년형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1936년에 경남경찰국에서 발간한 <고등경찰관계적록> 32면에 다음과 같은 놀라운 기록이 있다.

"1912년 1월 15일 사천군 서포면 소재 서포청년회 총회를 개최할 때 사립 개진(開進)학교 학생 송지환이 단상에 올라 불온 연설을 하고 회중은 선동하다가 검거되었고 검사국에 송치되어 징역 1년형에 처하여졌다."

송지환 선생

아름답고 소중한 이름 송지환
오리지 나라위해 싸웠다
오리지 민족위해 싸웠다

독립선언서 경남에 인쇄하고
사방에 배포하여
독립만세 외치고 외쳤다

서포청년회 강연장은 눈물바다
나라 없는 설음이 크고 슬프다
27세 순국하신 이 송지환 선생이다
영원히 기리고 기억하자

고문 후유증이 혹독하여 송지환 선생은 1929년 4월 1일 옥중에서 별세하고 후손들이 사천시에 묘소를 조성했다가 1994년 10월 21일에 대전국립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제2-270에 안장되었다.

★ 참고문헌

고등경찰관계적록 1936년 경남경찰국 32면
항일투사열전 제1권 추경화 1997년 228면
일제침략하 한국 36년사 제6권 국사편찬위원회 13면
독립운동사 (3·1운동사) 3권 336-337면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9권 편찬위원회 265면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2권 181면 국가보훈처 1986년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0권 국가보훈처 1993년 182면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6권 국가보훈처
부산경남 3·1운동사 1979년 3·1동지회 499, 817면
부산, 울산 경남독립운동 사적지, 독립기념관 2010년 421면 109면
3·1운동실록 이용락 1969년 710면
사천시사 하권 2003년 편찬위원회 730면
일제하 사회운동 색인집 상 1992년 1081면

경남지역 3·1독립운동사, 문화원 경남도지회 2007년 64-68면
대한민국 국호 제정자

▣ 신석우(申錫雨) 선생

- 이명: 없음
- 생몰년월일: 1895. 9. 2 ~ 1953. 3. 5
- 출신지(본적): 서울 중구 수표동(서교동)
- 공적요점
  - 조선산직(産織)장려계 계원으로 가입
  - 상해에서고려교민친목회 회장
  - 상해임정 교통총장으로 대한민국 국호 결정에 중요역할을 했음
  - 임시정부 기본법의 기초세우다
  - 1924년 조선일보 상무이사, 부사장, 사장
  - 1927년 신간회 총무간사, 경성지회 대표
  - 광복 후 초대 중국대사
- 정부포상: 건국훈장 독립장(1995년) 추서

신석우(申錫雨) 선생은 사천 김우진의 친구로서 경남에서 사천에 최초로 신간회가 창립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상해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 국호를 제정하는데에도 중요역할을 한 큰 공적이 있다.

신석우 선생은 서울 중구 수표동의 부호 신태휴의 아들이다.

초대 국무총리로 만주에서 활동한 연성대장 이범석 장군이 매부가 된다. 누님되는 이범호와 혼인한 그는 먼저 상해로 건너가 이범석을 불러 무과학교에 입학시켰다.

1915년 3월 경성고보 교원양성소 출신 이용우(李容雨) 등이 민족정신의 고취와 일제에 의해 빼앗긴 사업 등을 조선인 스스로 회복시킬 계획으로 조선산 직장려계를 창립할 때 일반회원으로 들어가 민족자본의 육성을 위한 주식을 모집하기 위해 서울, 경기도 일원에서 활동중 일경에 발각되어 1917년 3월 보안법 위반으로 법원으로 송치되었으나 계원이기 때문에 정식 재판에 이르지 못했다.

부친의 권에 따라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 유학생의 대표기관 유학생 평의의회 평의원이 되었고 와세와대학을 졸업(전공과 1915년)하였고 중국으로 건너가 1919년 3월 상해에서 고려교민 친목회를 조직하여 회장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여 <아등의 소식>을 발간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기초 기반을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제사에 가입 활동하기도 했다.

1919년 4월 상해에서 개최된 임시의정원 제1차 회의에 참석하여 임시정부 내각의 교통총장으로 선임되어 이시영선생 등이 임정에 참여토록 협력했다.

이 대 국호재정의 안건이 논의될 때 운형 선생은 대한은 망한나라 이름이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다고 말했으나 신석우 선생이 대한에서 망했으니 대한에서 흥해보자고 설득시킴으로써 대한민국 국호가 제정되었으니 엄청난 큰 공적을 세운 것이다.

대한민국 국호제정 관계는 임시의정원문서(국회도서관) 19-43면과 회의록 등에 기재되어 확실하다.

입법기관의 이름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으로 결정하는 등 국무원 구성과 임시헌장을 제정

하여 임시정부 기본법의 기초를 세웠다.

또 임시의정원 3차 회의에서 경기도의원 의원자격 심사위원으로 선임되어 항일운동과 민족운동을 위한 큰 토대를 세웠다.

신한청년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기도 했다.

1923년 말경 귀국한 신석우 선생은 1924년 1월 서울에서 김성수(金性洙), 최린(崔麟), 송진우(宋鎭禹), 안재홍(安在鴻), 조만식(曺晩植) 등과 함께 연정회(硏政會)를 조직할 것을 계획을 세웠으나 발전하지 못했다.

1924년 9월 경영난을 겪는 조선일보를 구제해 이상재 선생을 사장으로 추대하고 전 재산을 투자하여 조선일보를 인수하여 처음에는 조선일보를 인수하기 위해 상무이사가 되었고 부사장, 곧 사장이 되어(1928-1932) 6년제를 확립해 민족언론의 창달을 위해 봉사했다.

1936년 이후 만주로 피신, 1940년부터 장개식 정부의 자문위원이 되었다.

1925년 하반기에 사회주의에 대응하는 민족주의자들의 단체가 설립되었다.

조선사정조사 연구회와 태평양문제연구회를 지정한 것이다.

조선사정조사 연구회는 진주여고 교장을 지낸 백남훈(白南薰) 선생과 언론사 기자, 교사 등이 동참 되었고, 태평양 문제연구회는 1924년 하반기에 사회주의와 대응하는 민족주의자들의 단체로 이승만 박사와 기독교 청년회가 가입 활동하였다.

이때 1925년 7월 1일부터 개최된 제1차 태평양회의에서 일본이 조선에 자치를 허용할 것이라는 암시를 하기 시작했다.

이때 동아일보 기자들이 모여 자치운동으로의 방향전환을 협의하였다.

★ 참고문헌

경사대학교 1995년 9월 4일
한국일보 1995년 8월 15일
경남도민신문 2013년 4월 11일, 2016년 11월 30일
동아일보 1949년 8월 20일
조선일보 1949년 8월 20일
항일투사열전 제2권 추경화 1997년 259면
조선민족운동연감 4, 8, 14, 16, 22면
고등경찰요사(경북경찰부) 46, 87, 153-167, 263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2권 3, 34, 435면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국사편찬위) 제8권 391, 402-748면
기려수필(국사편찬위)ㅓ243면
임시정부의정원문서(국회도서관) 39-51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국회도서관) 19-65면
무장독립운동비사 24-26
민족독립투쟁사 사료(해외편) 13, 20면
한국독립운동사(문일문) 339면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318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676, 734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4권 157-200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7권 644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143, 464, 468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10권 751-754, 759, 935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9집 38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2집 88, 1218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49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4집 291-293, 301-309면
동아일보 1927년 1월 20일, 2월 17일, 1928년 2월 22일
조선일보 1928년 4월 1일, 1927년 2월 16일
신간회 연구 이균영 1993년 45-102, 155-160, 258면

▣ 신영안(申英安) 선생

- 이명: 신영안(申英安)
- 생몰년월일: 1899. 1. 4 ~ 1944. 7. 15
- 출신지(본적): 경남 사천시 읍남면(용현면) 온정리(溫井里) 462
- 공적요점
  - 진주공립농업학교 재학중 시위를 주도
  - 독립문서 300장 인쇄하여 배포
  - 1920. 8월 일경에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으로 혼절
  - 부산집버 진주지청에서 징역 1년형
  - 고문 후유증으로 3년간 고생
  - 사천과 삼천포의 합동을 위한 사천청년연맹을 조직할 때 읍남(용현면)면 대표겸 대의원으로 활동
- 정부포상: 건국훈장 애족장(1995년) 추서

신영안 선생은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19. 4 진주공립농업학교에 입학하여 1920년 8월 2학년 재학 중인 동급생 문위동(文渭東), 김익상(金益祥) 등과 같이 의로운 뜻을 모아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고 시위를 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으나 일경에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문위동(김해 봉림출신), 김익상(양산 동면출신) 등 3명이 지도자로 활약하게 되는데 진주농업학교 내 기숙사에 모여 교내 등사기를 이용하여 독립에 관한 문서 300장을 등사하여 진주제1보통학교, 제2보통학교, 광림학교, 기독교청년회, 청년친목회와 연계한 합동시위를 준비하게 된다.

이때 마침 8월 30일은 대정(大正)왕의 천장절(天長節)을 맞이할 때 진주 시내 세 장소(진주공원, 농업학교 앞, 재판소 앞)에서 동시에 독립만세 시위를 전개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였다.

그러나 의거를 사전에 탐지한 일제가 경찰서장 히라노(平野)가 친히 출동하여 주동학생 관계자 27명을 검거하게 된다.

학생들이 은밀히 보관하고 있었던 태극기와 소형 태극기 47매, 격문 100매, 기타 문서 일제가 압수되고 말았다.

농업학교 학생 50여명 보통학교 학생들 7명, 광림학교 학생들 15명이 체포되어 엄중한 조사를 받았다.

혹독한 고문에 의해 15명이 주도자로 송치되고 나머지 단순 가담자라 하여 57명은 석방되었다.

15명 중에도 신영관, 김익상, 문위동 등을 가장 앞장선 지도지휘자라 하여 1920년 10월 15일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소위 저들이 말하는 치안유지법 위반, 보안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1년형이 언도되었다.

1921년 10월 16일 진주감옥에서 출옥하였다.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독립유공자 공훈록>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진주농업학교 재학 중 1920년 8월 31일 일본왕의 생일인 소위 천장절을 기해 만세운동을 일으키려다 사전 발각되어 피체되었다.

평소 항일의식이 투철했던 그는 3·1운동 이후 재차 만세운동을 일으키고자 뜻을 같이하는 문위동(文渭東), 김익상(金益祥) 등과 함께 회의를 거듭하면서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8월 31일 오후 7시경에 진주 시내의 각 학교 학생들을 동원하여 진주공원과 농업학교 앞, 재판소 앞 등 세 곳에서 일제히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하였다.

이에 신영안 등은 진주 내의 제1, 제2 보통학교, 광림학교, 기독교청년회, 청년친목회 등 청년 학생들과 긴밀한 연락을 가지면서 거사를 준비하는 한편 학교 등사판을 이용하여 선언서 3백매를 학교 기숙사에서 몰래 인쇄하였다.

그리하여 거사 전날인 8월 30일에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거사의 결행만을 남기고 있었는데 이를 탐지한 일경의 추격을 받아 8월 30일 오후 11시에 발각되고 말았다.

이로써 피체된 그는 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당하였으며 1920년 10월 15일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소위 제령 7호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의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문위동은 90년에 건국훈장이 추서되었으나 김익상(金益祥)선생의 미포상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에 문의해보니 행적불명이 나타났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대답했다.

매일신보 1920년 10월 23일자에 보면 다음과 같이 보도되었다.

1920년 10월 23일 경남 진주에서 항일 봉기를 계획중이던 진주농업학교 학생 10명에 대하여 진주지청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 언도가 행해지다.

징역 1년에 문이동(文渭東), 김익상(金益祥), 신영안(申英安) 징역 8개월 집행유예, 박학두(朴學斗), 정순남(鄭順南), 함상기(咸相氣), 김영극(金永極), 박학봉(朴學鳳), 김이생(金二生), 김정계(金正桂)

1925년 12월 30일 사천과 삼천포 합동을 위한 사천청년연맹을 조직할 때 읍남(용현)면 대표 겸 대의원에 선출되어 애국계몽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게 되었다. 연극회, 애국강연회, 야학교 운영, 금주 금연운동, 문자 보급운동을 전개했다.

★ 참고문헌

동아일보 1920. 9. 9, 1925. 12. 14
매일신보 1920. 10. 23
신분장 지문조회서(경찰청)
독립운동사 제3권 편찬위원회 296, 297면
독립운동사 제9권 편찬위원회 286면
독립운동사 자료집 13권 1977년 편찬위원회 740, 741면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2권 국가보훈서 1926년 184면
독립유공자 공훈록 12권 국가보훈처 1996년 777-778면
부산울산경남 독립운동사적지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2010년 421면
경남 항일독립운동 참여자록 마산보훈지청 2001년 91면

사천시사 2003년 편찬위원회 730, 731면
3·1운동실록 이용락 1969년 652-653면
한국청년운동사 신우기성 1973년 391면
경남지역 3·1독립운동사 문화원 경남도지회 2007년 68-69
일제하 사회운동 색인집 역사문제연구소 1992년 1107면

▣ 유승갑(柳承甲) 선생

- 이명: 유승갑(柳承甲)
- 생몰년월일: 1892. 10. 23 ~ 1960. 3. 2
- 출신지(본적): 경남 사천시 사천읍 두량리(斗良里) 503
- 공적요점
  - 1919년 3월 사천읍 중선포 일원에 실시된 도로 보수 인부의 감독이었다.
  - 4월 13일에도 도로 보수에 동원되자 의협심이 일어나 오후 5시 경 수석리(洙石里) 일원에서 군중을 이끌고 만세시위를 전개함
  - 사천읍 내로 진출하여 시위하자 수백명의 군중이 참여함
  - 피체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고 태형 90도를 맞고 석방되었음
-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1998년) 추서

유승갑(柳承甲) 선생에 대하여 (사천시사) 상권 730면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국가보훈처>에서 발간한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4권 900면에 기재된 내용과 대동소이 하지만 다음과 같다.

읍내면 두량리(斗良里)에서 출생. 1919년 4월 14일 읍내면 중선리의 도로 보수 인부 100여 명이 일으킨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이날 춘계 도로 보수를 마치고 귀가하던 그는 손계묵과 함께 부역 인부 100여 명의 선두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따르던 인부들이 시위에 가담하자 군중은 수백명으로 갑자기 불어났다.

이들 군중 시위대는 사천읍 내로 행진하였다.

이에 급거 출동한 일헌병대 10여 명은 군중의 대열로 뛰어들어 장검을 휘두르며 군중을 난타하였다.

이로 인하여 많은 시위군중이 부상을 입었고 류승갑은 검거되어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태형 90도의 형벌을 받았다.

1998년에 대통령 표창이 추서되었다.

유승갑 선생은 사천읍 중선리(中宣里) 일원에 강제적으로 동원된 도로보수를 위해 수주째 무보수로 일을 하게 되었다.

일제는 장차 사천 중선리 일대를 남선 일대에서 매우 중대한 군사 기지로 생각하고 기반 작업을 위하여 주민들을 강제 동원한 것이다.

중선리는 현재 사천공항 중간 한복판으로 난선 일대에서 공군 2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최적지로 여기고 주민들을 강압적으로 동원한 것이다.

중선리 주민들과 두량리, 수석리 주민들 수백명을 무료 봉사로 강압적 동원하여 도로 보수를 시키게 된다.

공군기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로 보수가 첫 번째 작업이기 때문에 수주일재 하루종일 일을 시키게 되니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다.

마침 전국적으로 3·1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애국애족심이 발동하여

시위를 유승갑, 손계묵 등이 시위의 취지를 주민들과 인부들에게 설명하자 수백 명이 일시에 동의하고 동참하게 된다.

사천읍 시내로 진출하자 너도나도 동참해 수백 명의 군중이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했다.

이에 일본 헌병대가 출동하여 군중을 향해 총검을 휘두르고 곤봉으로 난타하여 수십 명의 부상자가 속출하였다.

맨 선두에서 지휘하던 유승갑, 손계묵 등도 부상을 입고 피체되었다.

당시 두량리 구장(이장)인 그의 당숙에게 내일 중선포의 도로 부역 인부는 당숙 대신 제가 인솔해 나가겠다고 마하고 다음날인 4월 14일 마을 주민 100여 명을 인솔하여 중선리 일대에서 도로 보수를 행하였다.

부역을 마치고 귀가하던 류승갑은 같은 마을 손계묵, 하말금 등과 함께 주민들 앞에 나와 "오늘날 우리가 왜놈들에게 나라와 주권까지 모두 도적맞고 우리는 또 이 땅에 강제부역으로 혹사까지 당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원통하냐. 우리도 독립만세를 불러 시위를 벌이자"하고 주민들을 선동하여 독립만세를 주도하였다.

이에 주민들은 삽과 괭이, 망치를 높이 들고 쳐들어 독립만세를 외치며 사천 읍내로 행진해 들어가자 따르던 시위군중은 수백 명으로 불어났다.

그러나 불법으로 출동한 사천헌병대의 무자비한 진압에 부상자가 속출하고 시위운동은 결국 차단되고 말았다.

주동자 류승가, 손계묵, 하말금 등과 그 6명의 주민들이 검속되어 고초를 겪었다. 류승갑 선생은 결국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태형 90도가 언도되어 고생하게 되는데 수년간 태형 후유증으로 고생하였다. 폐혈증으로 수년간 고생했다고 말하는 자도 있다.

<부산경남 3·1운동사> 821면 등에 의하면 하점수, 손계묵, 유진형, 유상형, 유세형, 유치현, 유치순, 유대형, 유승무, 유승철, 박성도, 정명세, 손계훈, 조갑조, 김진조, 유승현 등은 유승갑과 공적이 동문(同文)이라고 기록되었다.

추정하기로 산성공원에서 세워진 비문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승갑 선생은 1960년 3월 2일 사천에서 별세하고 2007년 10월 18일에 대전국립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제3-622에 안장되었고 배우자 강영동님도 함께 안장되었다.

★ 참고문헌

독립운동사 (3·1운동사0 267-269 면 편찬위원회

고등경찰관계적록 1936년 19면

신분장지문조회 회보서

독립유공자공훈록 제12권 국가보훈서 1986년 204면

독립유공자공훈록 제14권 국가보훈서 500면

부산경남 3·1운동사 3·1동지회 1979년 815면

경남항일독립운동 참여자록 마산보훈시청 2001년 102면

독립운동에 관한건 (제55보) 경찰이 상부에 보고한 문서

사천시사 편찬위원회 2003년 730면

3·1운동실록 이용락 1969년 710면
경남지역 3·1독립운동사 문화원 경남도지회 2007년 64-67면

▣ 이경호(李璟鎬) 선생

- 이명: 이경호(李敬鎬, 景鎬) **호**: 농은(農隱), 성재(城齋) **자**: 기옥(基玉)
- 생몰년월일: 1890. 6. 17 ~ 1920. 6. 10 (5. 14)
- 출신지(본적): 경남 사천시 곤명면 금성리(金城里)
- 공적요점
  - 1919년 3월 22일 태극기 제작
  - 1919년 3월 23일 하동군 하동읍 3·1운동 지도
  - 1919년 3월 일경에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음
  - 1920년 6월 진주법원과 대구복심법원에서 법정투쟁을 전개하였고 일본 형리를 구타함, 만 30세 때 옥중에서 순국
- 정부포상: 건국훈장 애족장(1990년) 추서

사천시 곤명면 금성리에서 출생한 이경호 항일투사께서는 호(號)가 성재(城齋) 또는 농은(農隱)이며 합천 이씨인 규선(圭煽)과 경주 정씨 슬하에서 2대 독자로 태어났으니 천성이 활동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분이었다. 소년 시절에 고향에 설립된 성천서당에서 「천자문」, 「명심보감」을 배울 때 학문의 진도가 빨라 곧 「논어」, 「맹자」를 배우게 되었는데 월반을 거듭하여 우등을 차지할 정도였다. 1903년 14세가 되자 학동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소질이 되었고 그 후 7, 8년간 학동들을 모아 놓고 학문과 예의범절을 가르치니 사람들이 칭찬하며 말하기를 가르치는 모습도 의젓하여 기품이 있지만,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것을 보니 장차 큰 인물이 되겠다고 했다.

1910년 8월 한일합방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땅을 치며 통곡하더니 삼일 간 먹지도 않고 방안 벽에 붉은 글씨로 “항일 투쟁”, “일본 타도”라고 써 두고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학동들에게 일본은 우리에게 학문과 기술은 배운, 섬나라 오랑캐라고 말하며 가르치다 일제의 압제가 심해지자 중국 북경으로 망명 생활을 하였다. 6년간의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하자 향리 부모님들의 생활상은 극도로 어려워져 있었다. 충성만 생각하다 보니 효(孝)가 이 모양이 되었구나 싶어 끝없는 후회로 집안일을 돌보기 시작했다.

1919년 3월 1일 민족 항쟁의 불길은 서울 거리를 메웠고 수십만 군중이 대한독립만세를 목이 터져라 외치는 소리가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이와 같은 만세의 불길은 서부 경남 일원에도 전파되었고 3월 18일에는 하동읍 장날에 1천여 5백 명의 구중들이 모여 시위가 진행되었다. 3월 23일 하동읍 장날 시위 출동식을 가지기로 결정하고 애국 청년 정섬기(鄭暹基), 정선기(鄭宣基), 정이백(鄭伊伯) 등과 협의하고 태극기 수십 본을 제작하였다. 인근 동리에도 비밀 연락을 취하고 일진학교 제자들과 성천서당 제자들도 동참토록 지도하였다. 「고등경찰관계적록」에 의하면 양보면 장암리 일진(日進)학교 교원 정섬기는 3월 13일 같은 동네 정성기와 공모하여 구 한국 태극기 10여 본을 제작하여 고전면 성천리 이경호와 양보면 우복리 정이백 등을 동참시켜 하동읍 장날을 이용하여 군중 5백여 명과 한국독립만세를 크게 외치다 경계 중이던 경찰서원에 의해 해산되었다라고 기재되었다. 「조선소요사건상황」에 의하면 3월 21일 하동군 횡천면 여의리에서 80여 명이 앞장서서 시위 운동을 일으켜 군중을 선동하

였으나 곧 바로 해산시켰으니 이 사건이 첫 번째 소요였다 하고 같은 달 3월 23일 하동 읍내에서 시위 운동이 있었다고 기재되었다. 위의 기록은 일본 고등경찰이 급하게 작성하여 상부에 보고할 때 작성된 내용으로 기재했다기보다 그 당시 급박한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일제의 무단 정치는 가혹하였고 수탈은 더욱 철저하니 이 나라 많은 농민들이 문전옥답(門前沃沓)을 다 빼앗기고 만주땅으로 쫓겨가든지 사할린 등지로 새로운 생활의 터전을 찾아 조상의 뼈가 묻힌 정든 고향을 등지고 떠나고 있었다. 그 대신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일본인의 이주자는 늘어만 가고 소읍의 상권(商權)마저 그들의 수중에 농락되었다. 숨 막힐 듯한 강압과 착취 속에 세월은 흘러갔다. 1919년 2월 고종황제(高宗皇帝)가 붕어하였다는 소식과 함께 그것이 일인에 의한 시해라는 풍문마저 있어서 또 한 번 이 나라의 많은 유림(儒林) 지사들은 비분을 삼키고 망곡(望哭)하는 광경을 도처에서 볼 수 있었다. 기미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시위운동은 3월 18일 마침내 하동읍 장날 시위로 이어졌다. 이경호 지사는 정섬기, 정선기, 이범호, 정낙영, 정희근, 정이백 등 애국 청년들과 같이 3월 23일 하동읍 장날을 기하여 의거할 것을 다짐하고 그 준비를 시작했다. 이들은 태극기를 만들고 인근 동리에 비밀 연락을 취하여 의거에 참가토록 하였다. 지난 장날에 독립만세시위가 있어 긴장을 풀지 못한 경찰의 경계는 이날도 삼엄하였다. 그러나 주동자들은 태극기를 숨겨가지고 시장으로 잠입하였다. 당일 정오가 좀 지나 장이 제대로 설 무렵 이들은 경비중인 경찰의 눈을 피하여 태극기를 장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일제히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만세를 소리 높이 외쳤다. 이에 따라 800여 명의 군중들이 만세를 고창하니 시장은 나부끼는 태극 깃발 아래 감격과 흥분에 차 있었고 군중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았다. 이들은 일곱 명의 항일 투자들의 지도에 따라 시위를 전개코자 사방에서 모여들었다. 일곱 애국 지사들의 활동과 지도는 산림 속의 호랑이요, 사자처럼 재범하고 늠름하였다. 이때 경비중이던 경찰은 깜짝 놀라며 급히 출동하였다.

그들은 주동자를 체포하고 군중의 해산을 명하였으나 군중은 좀처럼 이에 응하지 않았다. 군중의 만세 소리는 더 높아지고 군중 수는 점점 많아져 갔다. 사태의 진전을 심상치 않다고 느낀 일제는 난폭한 방법으로 군중을 향해 돌진했다. 총을 휘두르고 닥치는 대로 때리고 짓밟고 총검(銃劍)으로 찔렀다. 이들의 야만적인 탄압에 분노를 느꼈으나 맨주먹으로 싸우는 시위 군중은 어쩔 수 없이 해산하고 애국 지사들은 검거되고 말았다. 이경호, 정섬기, 정선기, 이범호, 정낙영, 정희근, 정이백 등은 현장에서 그들 경찰에게 곤봉 세례를 받았다.

하동경찰서에서 각종 고문에 시달렸으니 하루종일 굶기고 벽만 쳐다보는 고문부터 몽둥이 세례, 거꾸로 매달기 등을 당하는 등 죽음보다도 더한 형고를 치렀다.

"앞으로는 충실한 일본국의 백성이 되겠는가"라고 했다. 이때 이경호 지사는 고문과 옥고(獄苦)에 지쳐 죽음에 이르렀으면서도 갑자기 일어나 큰소리로 말하였다. "나는 한국의 개가 될지라도 오랑캐 일본의 신민은 되지 않는다."하고 외쳐 대한 남아의 기개를 펼쳐 보였다.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이란 굴레를 씌워 징역형을 언도하였다. 법적 투쟁을 위하여 대구복심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대구복심법원에서도 징역 8월형이 확정되어 대구감옥에 갇혔다. 대구감옥에서 일본인 간수를 향해 나를 가두는 이유가 뭐냐고 외치며 구타하니 간수가 모래 섞인 밥을 주는 등 가혹한 형벌을 가하였다. 더이상 대항할 힘조차 없었

던 그는 1920년 6월 10일 혹독한 고문 후유증으로 만 30세 되던 해 세상을 떠나셨다.

아! 조국과 민족을 위해 순국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그 누군가. 아! 내 몸 하나 희생하더라도 자손들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가겠다고 말하실 분 그 누군가. 오로지 이경호 선생께서 그 고귀한 뜻을 위해 굳게 서 계신 분이다.

그 아름다운 항일 투쟁을 전개하다 하나뿐인 목숨을 조국에 바치셨다고 자신 있게 소개하실 분 당연히 이경호 선생일 것이다. 1990년 8월 15일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1990년 10월 하동군(군수 정구영)에서 발행한 「하동군지(河東郡誌)」 절의편에 다음 내용이 등재되었다. 이경호(李暻鎬). 합천인이라 자(子) 기옥(琦玉), 호(號)는 농은(農隱)이니 고종 경인생(庚寅生)이라 천성(天性)이 강직하고 의분심이 강하여 경술국치로 평생 한을 삼다가 기미 3·1운동을 당하여 결사분투하다가 이로 인하여 대구감옥에서 복역하다가 의분심이 복받쳐 그로 인하여 병이 되어 감방에서 별세하여 비풍처우(悲風凄雨) 통곡리(痛哭裡)에 장례식을 맞았으나 향인사한(鄕人士恨)되어 절의비(絶義碑)를 세우려고 비석까지 마련하였다가 왜놈이 탄압으로 중지하였다.

한 많은 생을 사신 애국지사 부인 정장암께서는 이원구(아들)를 두고 세상을 떠나셨고 자부는 강기년이다. 손자: 이보영, 손부: 김기선. 손녀: 은주, 임순, 갑순, 경선, 말순, 정순. 증손: 이정일, 이유빈 등이 있다.

하동군 양보면에 사는 이원구씨가 그분의 훌륭하고 아름다운 공적을 널리 알리고 후손들에게 계승케 하여 수범 삼고자 한다.

★ 참고문헌

3·1운동실록 (이용락 편저 1969년) 695면
부산경남 3·1운동사 (동지회 1979년)631면
하동군지 (편찬위원회 1972년) 238면
하동군사 (여재규 편저 1978년) 272면
하동군지 (편찬위 1996년) 239, 250, 2064면
고등경찰관계적록 (경남경찰부) 20면
조선 소요사건 상황 (총독부) 109면
독립운동사 (편찬위) 제 3권 276, 277면
독립유공자공훈록 (국가보훈처 1991년) 제 9권 304-305면
하동지역 항일 애국지사 연구 (논물 199년) 36면
하동독립유공자공훈록 추경화 2000년 138-142면
내고장의 맥 (하동군 1990년) 107면
합천이씨 종보 강양(江陽) 1995년 제3집 58-60면
부산일보 1990년 8월 15일
서울신문 1990년 8월 15일

▣ 이규현(宋圭玄) 선생

- 이명: 없음　　자(字) : 공서(孔瑞)
- 생몰년월일: 1887. 9. 6 ~ 1972. 9. 1
- 출신지(본적): 경남 사천시 곤명면 금성리(金城里)
- 공적요점
  - 1919. 4. 5 사천시 곤명면 3·1운동을 지도
  - 최범술로부터 독립선언서 받아 덕천강변에서 시위를 전개
  - 옥녀봉에 올라 만세시위를 지도
  - 일경에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음
  - 보안법 위반으로 태형 90도 맞고 수년간 고생
-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2002년) 추서

합천 이씨와 연계한 시위를 주도한 이규현(李圭玄) 선생은 곤양보통학교 재학 중에 알게 된 최범술 선생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받았다.

같은 면의 이영근(李永根)이 앞장서고 이규현, 정원주, 문형근 등이 합세하여 금성리 마을 앞 덕천강변에서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마을 주민 250여 명이 시위에 동참하여 조국을 위난에서 구하고자 외치기 시작했다.

구해 온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이영근, 이규현 선생 등이 전국에서 시위가 전개 되었고 우리도 대한을 독립시키자는 의도로 일장 연설을 실시했다.

김경찬(金敬贊)을 동참하고 완사주민들로 하여금 옥녀봉에 올라서서 만세운동을 전개토록 하였다.

낮에는 옥녀봉에서 시위하고 밤에는 옥녀봉에서 봉화의 불이 올랐다. 이때 사천 헌병대에서 바로 출동하여 선두에서 지도한 이영근이 피체되고 이규현 선생도 피체되었다.

사천 헌병대에 잡혀간 주동자들은 엄중한 조사를 받고 혹독한 고문으로 혼절하였다.

1919년 5월 19일 부산지방법원 지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장 90도를 받아 맞았고 수년간 고생했다.

사천읍에서 수십리 떨어진 곤양면 금성리 주미들도 시위를 전개했으니 서울에서 천리나 떨어져 있는 시골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조국과 겨레를 구하기 위해 개인 또는 주민들이 다같이 시위를 전개한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천의 작은 농촌에서도 목숨을 걸고 투쟁한 애국애족심이 발현되었으니 매우 아름답고 거룩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들 창석(昌錫)은 일제의 감시 감독을 피해 산청군으로 이주했다가 부산으로 이주해 살았다. 손자는 이한조(李漢祚), 이한영(李漢永), 이한윤(李漢潤) 등이 있다.

★ 참고문헌

신분장 지문조회서
곤명면지 편찬위원회 1987년 364면
사천군지 편찬위원회 1990년 1099면

경남 항일독립운동 참여자록 마산보훈지청 2001년 110면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5권 2003년 국가보훈처 305-306면
사천시사 상권 2003년 편찬위원회 744면
경남 각 시군 3·1독립운동 108면
경남지역 3·1독립운동사 문화원 경남도지회 2007년 63, 69면

▣ 이금복(李今福) 선생

- 이명: 복산(福山)
- 생몰년월일: 1914. 11. 8 ~ 2010. 4. 25
- 출신지(본적): 경남 고성군 하일면 오방리(梧芳里) 643
- 공적요점
  - 1934년 조선법랑철기(주) 근무중 적색노동조합 활동을 전개
  -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하다 일경에 피체되어 기소유예 처분
  - 삼천포 노동야학교에서 활동 중 삼천포 적색농민 조합활동으로 일경에 피체
  -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형 언도
-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2008년) 수상

이금복(李今福) 선생에 대하여 <독립유공자공훈록> 제18권 2010년 536-537면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금복 선생은 1925. 9 삼천포 인근 고성군 하일면 공립보통학교 3학년을 중퇴하고 17세 때 박대영(박대영)과 결혼하였다.

그러나 남편 박대영은 삼천포 선구동 출신으로 1932. 6 삼천포 독서회사건으로 도피 중이었다. 이때 남편의 동생 박대홍(朴大鴻)의 권유로 「별의 나라」, 「집단」 등 사상 서적을 읽고 신사상을 접하게 되었다.

1934녀 8월경 부산에 와서 이때 정충조(鄭忠朝)의 권유로 동지 박보홍, 이춘근과 함께 정호영의 검거 이후 분산된 적색노동조합을 재조직하기 위해 부산지역의 동지를 규합하는 등 실천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금복은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되었으나 1935. 3. 26 부산지방법원 검사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다.

그 후 이금복은 1938년에 삼천포를 중심으로 적색농민조합에 가담하여 활동하나 또다시 체포되었다. 1939. 8. 30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받고 당일 출옥하였다.

2008년에 발행된 <진주항일운동사> 456-457면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금복(李今福)선생은 이석제의 딸로 1912년 11월 8일에 태어났다. 노동항일 운동을 전개한 보기 드문 여성 운동가이다.

부모님이 농민으로 농사에 종사하고 가족이 많아 가정경제가 매우 어려운 관계로 장녀인 그도 집안을 돌보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므로 1930년경 부산에 가서 초장동에 셋방을 얻어 공장에 취업했다. 제사공장, 방직공장에 취업하여 열심히 일하여 조장으로 조원들을 지도하였으나 일한 만큼 월급을 주지 않고 일제와 그 주구들에 의해 임금착취, 노동착취가 심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서로 공감대가 형성된 형성들을 모아 초장동 자택에서 20여 차례 비밀회합을 개최하고 공장연구회를 조직하고 회원확보와 회비를 거두어 여공들과 함께 <여공과 더불어>라는 제목의 격문(檄文)을 인쇄하여 각 공장에 배포하였다.

부산에서 노동항일운동을 전개하는 이춘근(李春根), 정충조(鄭忠朝) 등과 함께 1934년 2월에 적색노동조합을 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일경에 발각되어 모두 체포되었고 혹독한 고문을 받아 혼절하기도 했다. 수개월 만에 석방되었다.

애국동지들인 정성기(鄭成基), 김낙현(金洛顯), 손영섭(孫泳燮), 박이기(朴二基), 문갑이(文甲伊) 등과 만나 부산지역에서 일어나는 노동운동의 실상을 알려 주고 일제의 노동착취를 비판하며 계속적인 투쟁을 전개하기로 서약하였다.

다시 부산으로 달려간 여사는 대구지역에서 일어난 공장파업에 동조하는 격문을 인쇄하여 돌리는 등 노동운동을 전개하다가 일경의 수사망이 좁혀 오자 고향으로 피신하였다.

친정집에 숨어 지내며 야학교 경영에 협조하여 새로운 투쟁방법을 찾던 중 야학교 내에서 일경에 체포되었다.

이때 150여 명이 피체되었는데 여성은 이금복 선생 한 명뿐이었고 결국 11명이 송치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도 여성은 이금복 선생 한 명이었다.

1939년 8월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받아 그해 9월 2일 진주감옥에서 석방되었다. 1932년부터 1939년까지 7년간 노동운동을 전개하였다.

최만용(崔萬龍)과 혼인하여 5년(순이, 맹순, 영재, 양자, 둘이)를 두었다.

후손들이 진주, 고성, 사천 등지에 거주한다.

★ 참고문헌

신분장 지문조회서

고등경찰관계적록 1937년 경남경찰국 118면

동아일보 1939. 8. 26, 9. 3

조선중앙일보 1936. 2. 8

여수사회과학연구회, 여수청년전위동맹, 독서회 등 조직사건 제8호 총독부 1936년

일제하 사회운동 자료총서 한국역사연구회 1999년 12집 248-359면

한국근현대지역운동사 역사문제연구소 1993년 1권 158-160면

일제하 농민조합운동연구 1993년 지수걸 433-435면

경남신문 2008. 2. 28

진주항일운동사 2008년 추경화 456-457면

경남항일독립운동 참여자록 마산보훈지청 2001년 111면

고성군 하이면 해변가에 세워진 항일공적비 (비문 추경화 지음)

부산일보 2010. 6. 29, 4. 27

오마이뉴스 윤성효기자 2010. 4. 26

한겨레신문 2010. 4. 26

뉴시스 2010. 4. 26

▣ 이범호(李範鎬) 선생

- 이명: 별호 : 大虎
- 생몰년월일: 1883. 2. 10 ~ 1956. 1. 10
- 출신지(본적): 경남 사천시 곤명면 정곡리(正谷里)
- 공적요점
  - 1919년 3월 하동독립선언서에 서명(근대사 문화재로 지정)
  - 1919. 3. 18 하동군 하동읍 3·1운동 지도
  - 1919. 3. 20 남해군 남해읍 3·1운동 지도
  - 남해 3·1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 1919. 4. 28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태형 90도
  - 1919. 5. 27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형 확정
-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1992년) 추서

이범호 선생은 합천 이씨로 이규응(李奎應)과 함양 박씨 박교동의 장남으로 사천시 곤명면에서 출생하여 하동군 금남면으로 이주하였다.

어려서부터 서당에 출입하여 천자문, 명신보감을 배웠고 하나를 들으면 백을 깨닫는 자라곧 논어, 대학, 맹자를 통달하기에 이르렀다. 선생의 재당숙되는 통정대부 한성판윤 규홍(규홍)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차 큰 인물이 되겠다고 칭찬하였다. 천성이 영민하고 활동하며 풍모가 그린듯할 뿐만 아니라 용맹이 뛰어나므로 세상 사람들이 호랑이 상이라고 하였다.

대구복심법원 판결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범호, 정약영 등은 각지에서 조선독립시위가 행하여지자 남해군 남해읍 장날을 이용하여 개정 8년 1919년 3월 20일 오후 2시경 군중 수백 명을 모아 조선독립만세를 외쳤고 경성(서울) 기타 지역에서 조선독립을 희망하는 소요가 일어남을 알고 3월 20일 남해읍 장날 다수인을 집합하여 독립만세를 5-6회 소리 높여 외쳤다고 각기 진술하였다.”

또 “내 고장 전통 가꾸기” 하동군 발행 1983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남면(금양면)에서 3월 30일 정낙영, 정재운, 정희근, 이범호 등이 남면(현 금남면) 사무소의 등사판을 이용하여 독립선언서를 인쇄하여 각 마을에 배부하고 독립만세에 군중 동원을 마친 후 금남면사무소(금남면 대치리)앞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오전 11시부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행진을 시작하여 진교면에 도착하여 다시 만세를 부르고 해산 했던것이다. 뒷날 이들은 금양면과 (남면:금남면)의 군중을 이끌고 노량진을 건너 남해로 들어가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시위를 계속했다. 밀어닥친 일경에 이범호, 정낙영, 정재운 등은 6개월의 징역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남해군에서는 시위할 계획조차 없을 때 남해의 심장부 남해읍까지 진출해 시위함은 참으로 놀랍고 신기하고 훌륭한 일이다.“

“정낙영, 이범호는 보안법 위반으로 1919. 4. 29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징역 5월, 이범호, 정희근은 가각 태장 90도형이 언도 되었으나 검사의 불복공소로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정낙영, 이범호 두 사람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정희근은 무죄 석방되었다.”

하동독립선언서가 박치화(적량면장 역임)의 거주지 처마에서 발각되어 지금까지 전해오는

데 <독립선언서>에는 정낙영, 이범호 등의 이름이 등재되었는데 독자적, 창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곤명면 출신 이범호 선생이 귀한 독립선언서에 들었으니 훌륭한 일이다.

전국적으로 현존하는 독립선언서는 많지 않은데 근대사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음은 자랑스런 일이다.

<독립유종자공훈록> 제16권 322면에 보면 정낙영 선생의 항일활동을 소개했다.

몇 구절 인용하면, 1919년 3월 30일 남해군 남해읍 장날, 사전에 만든 태극기를 배부하며 시위를 지도했다. 1심에서 재판을 받고 형을 받았으나 대구복심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이 확정되고 고생했다.

이용락 항일투사가 직접 조사해 만들었다는 「3·1운동실록」에는 다른 내용이 실렸다. 정낙영, 이범호, 정재운, 정희근 등 4명은 면사무소 등사판으로 <독립선언서>를 은밀히 등사하고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의거를 공작에 바빴다.

오전 11시경 그들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행렬을 이루어 진교까지 우회하며 시위하고 산회하였다.

다음 날 군중은 다시 어제와 같이 집회하였다. 그들은 노량을 건너 멀리 남해읍까지 원정하여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위 두 가지 자료를 보니 남해읍까지 진출해 시위한 날짜와 서로 다른데 이용락 선생은 구전으로 전해오는 것과 면사무소에 보관된 범죄인 명부를 대조하여 서술하였고 <독립유공자공훈록>의 기록은 재판기록을 근거로 했기 때문이다.

3월 20일 이라면 남해의 청년들은 만세계획도 세우지 못했던 시기였다.

남해군은 4월 3일, 4일에 시위했기 때문에 남해군 시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이 확실하다. 이들은 일경에 체포되어 삼천포 경찰서로 끌려가던 도중에 남해읍 선소와 삼천포 바닷가 등등에서 "대한독립만세"를 크게 외쳐 치안을 방해한 사실도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삼천포에서 시위한 것에 대하여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범호, 정낙영, 박치화, 김응탁, 박종원, 김두순, 이성우, 이병홍, 정희근, 이보순, 황학성 선생 등이 직접 작성한 <대한독립선언서>가 오늘날까지 전해지며 그 내용은 하동군지(1996년) 241면에도 등재되었고 하동군청 민원실 입구에 2002년대까지 게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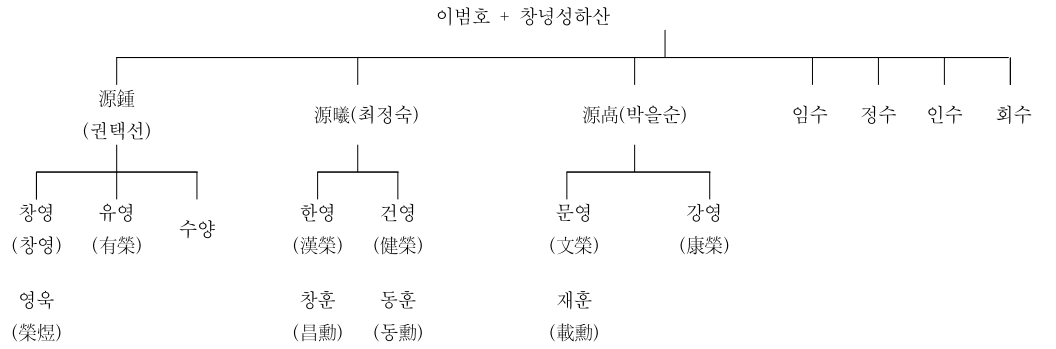
하동의 <대한독립선언서>는 행정자치부의 국가지정 기록물로 지정되었고 천안의 독립기념관에 보관 중이다.

'황천이 주시고 神明이 도우사 세계평화 회의가 창해됨을 반하여 민족자결의 여론이 병가하는 차오시운이 왔도다. 오호라 십개성상을 타의기반하에서 인통呻吟하던 우리 대한 동포여 확고한 정을 려하여 신속히 수를 착하라 時가 來하고 운이 復 하였네 주저치 말며 관망치 말고 우리 사업을 우리의 실력으로 자결단행 합시다 아외 심기설봉은 他의 장리포보다 우승하니 일심단체로 광복지로 병향 합시다. 최후의 1인과 최후의 일각까지 폭동과 난리는 행치 말고 인도와 정의로 독립문으로 전진합시다. 어희하 대한광복과 동양친목과 세계 평화가 금일로부터 실현되었소. 분기하고 맹진하라 우리 반만년 신성한 역사와 삼천리 금수의 강토를 유한 우리 동포여. 단기 4252년 2월 17일(음력)'

이범호 선생의 자녀들은 이원종(권태선), 이원의(최정숙), 이원실(박을순), 임수, 정수, 인수, 희수가 있고 손자들은 창영, 유영, 수양, 한영, 건영, 문영, 강영 등이며 증손자는 영욱, 창훈, 동훈, 재훈 등이 있다.

이범호 선생의 후손은 하동군 횡천면에 거주하였고 부산에 거주하는 직계손도 있다.

이범호 선생은 2004년 10월 29일 대전국립현충원에 애국지사 묘역 3-100에 안장되었고 부인 창녕 성씨 성하산도 함께 안장되었다.



이범호(1883-1956) 선생

배합화와 같은 깨끗한 마음으로
석류꽃처럼 뜨거운 가슴으로
장미꽃과 같은 정열의 뜻으로

아~ 한평생 한가지 뜻을 세우고
오로지
조국의 광복을 위해
초지일관 큰 공을 세우셨다.

독창적인 독립선언서 작성에
동참하시어
아름다운 투쟁을 잊을 수 없다

2천만 민중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일제에 양보할 수 없다고
눈물로 하신 말씀
지금도 귓전을 울려 줍니다.

★ 참고문헌

대구복심법원 판결문(1919. 5. 27)
신분장지문조회서(경찰청)
3·1운동실록 이용락 1969년 696면
부산경남 3·1운동사, 3·1동지회 1979년 614면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마산보훈지청 2001년 114면
독립유공자공훈록 제10권 국가보훈처 1993년 252면, 293면
곤명면지 편찬위원회 1987년 367-369면
하동군지(구) 편찬위원회 1972년 258면
내고장 전통가꾸기 하동군 80면
경남지역 3·1독립운동사 문화원 경남도지회 2007년 196-208면
하동독립유공자공훈록 추경화 2000년 143-149면
사천시사 편찬위원회 2003년 731면
하동군지(신) 편찬위원회 1996년 239, 248, 250면
판결문(1919. 5. 27 대구복심법원)
하동군지 (편찬위원회 1972년) 238면, 367-369면
곤명면지 (편찬위원회 1987년) 367-369면
하동군사 (여재규 편저 1978년) 273면
하동군지 (편찬위원회 1996년) 239, 250, 2063-2064면
독립유공자공훈록 (국가보훈처 1993년) 252-253면
경남 독립운동사 (변지섭 편저 1966년) 82면
부산 경남 3·1운동사 (3·1운동지회 1979년) 614면
하동지역 항일 애국지사 연구(논문 1995년) 36면
집행원부 (대구복심법원)
동아일보 1988년 2월 28일자(하동)독립선언서
합천 이씨 종보 강양(江陽) 1995년 제3집 54-58면
동아일보 1992년 8월 14일자
서울신문 1992년 8월 14일자
한국민족화 대백과 사전 제6권 547-548면(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년)
한국독립선언서 소고 한국학 28 (金根洙 1983년)

▣ 이상수(李상수) 선생

- 이명: 이만용(李萬龍), 이만용(李萬用)
- 생몰년월일: 1873. 7. 1 ~ 1923. 4. 6
- 출신지(본적): 경남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古邑里)
- 공적요점
  - 유명국(柳明國) 의병장의 중군장으로 활약하며 전공(戰功)
  -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일원에서 일제수비대외 수십차례 전투하고 군자금을 수합
  - 단독 의병장으로 추대된 후 산청군 일대에서 맹활약
  - 1910년 이후 화전민으로 숨어 살다가 7년 만에 일 현병대에 피체
  - 진주지법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 언도, 확정
  - 고문 후유증으로 옥중에서 순국
- 정부포상: 건국훈장 애국장(2001년) 추서

이상수(李尙銖) 장군

사천 출신 유일한 의병장 이상수 장군
성　명 : 이상수(李尙銖) 장군
이　명 : 이만용(李萬龍)
호적명 : 이상수(李尙銖)
활동명 : 이만용(李萬用)
원　적 : 경남 사천군 읍면동 고읍리
본　적 : 경남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80
출　생 : 1873年(계음) 7월 1일생
순　국 : 1923年 4월 6일 옥중순국

■ 출생배경과 가계

이상수(李尙銖) 장군은 전주 이씨인 이규식과 김순남의 차남이다. 산청군 단성면과 옥종면의 경계 지역에서 소년 시대를 보내고 침술업 기술을 배웠다.

천자문과 명심보감을 배웠고 일시적으로 사서삼경을 배웠으나 더 이상의 학문연마는 없었다. 그 당시 조선말기 피 끓는 젊은이로서 한곳에 정착하여 학문을 배울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산청군 단성면이 고향인 권경중의 차녀인 권묘연과 혼인하여 장녀 명수, 차녀 복순, 장남 홍업을 두었고 조카 홍관, 홍구 등이 있었다.

■ 의병활약상

이상수(李尙銖) 장군은 지리산 일원에서 일군 수비대와 직접 전투하며 수십 명을 사살한 의병장이다.

이상수 장군은 원래 침술업 의원으로 활동했는데 그 당시 시국이 시끄럽고 조국이 풍전등화와 같은 것을 보고 피 끓는 젊은이로서 어는 한 곳에 안주할 수 없었다.

그는 소년시부터 지혜 있고 총명하여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천자문, 명심보감을 배우고 이어 논어, 맹자, 대학을 배우며 충효정신을 배웠다.

애국 애족심이 강한 그는 지리산으로 올라가 큰소리치며 심신을 연마하여 호연지기를 기르고 조국을 구할 방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이때 유명국 의병장이 사방에 격문을 보냈다.

“의로운 젊은이들이여 조국을 구하려면 지리산 덕산으로 모이라.”라는 격문이었다. 이것을 보고 곧 덕산으로 달려갔다.

유명국 의병장은 이상수의 의기로운 행동을 보고 의병진의 가장 중요한 중군장(中軍將)에 임명하였다.

유명국의 부하였다는 근거는 1908년 10월 15일자로 경남 경찰국 부장이 경무국장(松田成殿)에게 보고한 문서에 기재되었다.

1907년 7월 정미 7조약에 의해 군대가 해산되자, 전국에서 벌떼처럼 일어난 의병들이 많았다.

이상수 장군은 지리산 지역에서 전투하는 것이 지형적으로 치고 도주하기 쉬운 곳이며 작전 수행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약 1년간 의병활동을 전개했는데 주로 옥종면, 수곡면, 시천면, 심장면, 단성면, 신안면 일대에서 일군과 전투하고 군자금을 수합하였고 주민들을 살피는 역할을 감당했다.

명치 41년(서기 1908년) 6월 어느 날 밤, 의병부대원 김용이(金龍伊) 외 50여 명과 함께 총과 칼을 휴대하고, 하동군 가종면(옥종면) 월횡리 정태진(정공중) 집으로 들어가 “우리는 조국을 구하기 위해 일어난 의병이다. 군자금을 수합하니 협조하라.”고 말하니 정태진은 훌륭한 일을 한다면서 일금 8원을 기부했다.

6월 같은 날 김용이 외에 수십 명은 군자금을 수합하기 위해, 하동군 옥종면 월횡리 이진원 집으로 들어가 우리는 조국을 구하기 위해 일어난 의병이라 말하고 군자금을 수합 한다고 하니, 이진원은 말하기를 “조선인으로는 조국을 구하는 의병을 안 도우고 싶은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며 엽전 20원과 명세포 3필을 기부하였다. 또 이상수 장군 등은 김용이 외 수십 명과 함께 곤봉을 들고 산청군 단성면 당산리 이세영 집으로 들어가, “우리는 의병이다. 군사(軍事)에 필요하니 의연금을 내라”고 하니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최인환의 소유 쌀(나락) 20석을 기부하였다. 이와 같이 의병들이 수십명, 수백명씩 단체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대항하는 자 없고, 오히려 부자(富者)들을 향하여 욕하고 좀 더 많은 기부금품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이 고조되었다.

1908년 8월 30일 산청군 시천면 덕산골에서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었다. 이날 전투에서 16명이 현장에서 순국하고 의병대장 유명국 장군은 생포되고 말았다. 이때 중군장 이상수(이만용)는 빈약한 화승총(일명 화포대)과 칼로서 신식 일본 총과 맞서 싸웠으나 전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깊은 골짜기로 후퇴하였다. 흩어진 부대원을 수습한 이상수 장군은 90여 명(일본기록은 30명)을 이끌고 지휘하면서 의병장이 되었다. 게릴라식 전투로 일본

수비대와 교전하면서 민족정기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1910년 8월 한일합방이 성립되자 그 해 10월말부터 의병활동이 크게 줄어들고 자현자(자수자)가 점점 늘어났다. 이상수 장군도 의병활동을 자제하고 조용히 살고 싶었다. 하동군 옥종면에 사는 여성과 결혼하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일경에 체포되는 것이 두려웠다. 그러므로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 화전민으로 변신하여 젊은 시절에 배운 침술업을 겸하여 생활했다. 6,7년 세월이 흐른 1915년 봄이 되자 식량을 구하기 위해 단성 시장으로 가던 중 단성면 당산리 이세영을 만나게 된다. 7년 전 기억을 되살린 이세영(李世榮)이 이상수의 얼굴을 보자마자 곧 일경에 신고함으로서 도주할 틈도 없이 체포되고 말았다.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게 되는데, 의병활동 당시에는 이만용으로 변성명했다가 체포 당시에는 이상수로 밝혀지게 되자 혹독한 고문이 극에 달하였다. 그동안 일경을 속이고 7년간 숨어 살았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혹독한 고문을 가하여 수십 차례 혼절하였다.

1915년 5월 5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강도죄를 뒤집어씌워 징역 10년형이 언도되었다. 함께 활동한 손기혁 선생에 대해서는 징역 12년형이 언도되었다.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5권> 326면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의병으로 경남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이상수는 대한제국이 1905년 11월 '을사조약'의 강제 체결로 국권을 피탈당하고, 이어 1907년 7월 '정미 7조약'으로 군대까지 해산 당하는등 일제의 식민지나 다름없는 상황에 직면하자 1908년 4월 거의한 유명국(柳明國) 의진에 참여하여 경남 지리산(智異山) 일대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동년 6월에는 경남 산청군(産淸郡) 단성면(丹城面) 당산리(堂山里) 소재 이세영(李世榮)의 집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동년 8월 30일 덕산(德山)수비대에 의해 유명국 의병장 이하 주요 지휘부가 체포되어 의진이 일시 해산되었다. 이상수는 다시 군사를 모집하여 경남 일대에서 계속 활동하였으나 1915년 피체되어 징역 10년을 받고, 수감 중 옥중에서 순국(殉國)하였다.

2000년 11월 18일자 경남일보에 다음과 같이 보도되었다.

-이상수 의병장 항일운동 햇빛-

향토사학자 추경화씨는 <하동독립유공자 공훈록> 집필과정에서 손기혁 의병장의 형사 판결원부와 유명국 의병장에 관해 기재된 <폭도에 관한 편 책> 등을 검토하던 중 의병장이었던 이상수 장군의 항일행적과 신분까지 밝혀냈다.

기록에 의하면 이상수 장군은 전주 이씨인 이규식과 김순남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이상수 장군은 처가가 있는 산청군 단성으로 옮겨 살며 침술집을 하던 1907년 가을 유명국 의병장이 서부경남 일원에 격문을 발송하여 구국의 일념을 지닌 의로운 젊은이들을 구할 때 동참, 호적명을 사용하지 않고 이만용(李萬龍)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중군장(中軍將)을 맡아 활약하게 된다.

또 기록에서 이상수 장군은 이듬해 8월 산청군 덕산 전투에서 유명국 의병장이 생포된 후에도 흩어진 의병 30명을 규합, 지리산 남쪽에서 전투를 계속하며 손기혁 장군과도 군자금 수합 투쟁을 전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 후 경술국치와 함께 의병활동은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이상수, 손기혁 등의 활동도 수년간 약화 될 즈음 두 의병장의 얼굴을 기억하는 단성면 피해자들의 신고로 의병활동 7년 만

에 체포돼 1915년 5월 5일 부산지법 진주지원과 6월 12일 대구 복심법원에서 손기혁은 징영 12년, 이상수는 징역 10년의 형에 확정됐다.

진주신문 2001년 8월 20일자에 다음과 같이 보도되었다.

<이상수 장군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이상수 장군은 누구인가>

1905년 의병장 유명국 장군이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을 구하기 위해 산청 덕산골에서 의병을 모았다<진주신물 2000년 11월 20일자 참조>.

당시 "지리산 아래 덕산골에서 우리 조국을 사수할 방책을 실행하자"는 내용의 격문을 보거나 소문을 듣고 모여든 젊은이는 500여명.

기록에 의하면 유명국 장군은 크게 외쳤다고 한다. "부모가 70세를 넘었거나 죽음으로써 전투에 참가할 자신이 없는 자는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그래서 400여명의 의군을 조직했다. 후군장 장석현, 중군장 이만용(이상수), 전국장 조덕삼 황의중, 참모장 추교문, 장우만 등이었다.

유명국 의병장이 이끄는 의병부대는 1907년부터 이듬해 8월까지 지리산을 근거로 활동했다. 30여 차례 전투를 벌여 왜군을 사살하기도 했다.

이 의병부대는 1908년 8월 30일 덕산골에서 일본군과 치열한 접전을 벌이다 16명을 잃고 유장군이 생포되고 만다. 이때 이상수 장군도 칼로 총을 맞섰으나 전투를 계속할 수 없어 깊은 골짜기로 후퇴하고 만다.

흩어진 부대를 다시 정비한 이상수 중군은 90여 명을 이끌고 전투를 계속했다. 게릴라식 전투로 일본 수비대와 교전을 벌이면서, 민족정기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해 6월 이상수 장군은 손기혁 김용이 등과 함께 하동 옥종 정태진의 집에 가서 군자금을 내놓으라고 하자, 정태진이 '훌륭한 일을 한다'면서 8월을 내놓았다는 일화동 있다. 이밖에 하동과 산청 일대에서 의병 군자금을 상다수 모았다. 유명국 의병장의 부하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왜군과 싸웠다. 이상수 장군 부하 박동의 등은 친일행위를 한 인사들을 주살하기도 했다.

1910년까지 의병 활동을 계속한 이상수 장군은 지리산에서 화전민으로 생활하기도 했다. 1915년 그의 얼굴을 기억하는 정공중, 이세영 등이 일경에 고발하여 이상수 장군이 일본 수비대에 붙들리고 말았다.

1915년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진주감옥에 있을 때 일본인 간수장은 지리산 의병과 전투를 벌이다 부상을 입었다면서, 의병장들을 악랄한 방법으로 고문을 자행했다는 기록도 있다.

그해 6월 대구복심법원에서도 이상수 장군은 징역 10년형이 선고되었다. 그는 대구 감옥에서 죽기 직전까지 갇혀있었다. 감옥에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자 친인척에게 연락했고, 석방 절차를 진행하던 1923년 4월 6일 숨을 거두었다. 현지 그의 무덤은 사천 정동면 공동묘지에 있다.

■ 정부 포상과 선양

의병장으로 활약하고 7년 수개월 만에 체포되어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아 7년 만에 옥중에

서 순국한 이상수 장군. 그에게 추서된 훈장이 건국훈장 애국장이다. 그러나 그의 희생과 공적에 비해 등급이 낮은 훈장이 아닐 수 없다.

같은 활동을 하고 같이 체포되어 12년 징역형의 손기혁 장군은 건국훈장 독립장이라는 상당히 높은 등급이 주어지고 비슷한 형벌 10년 징역형을 받고 결국 옥중에서 순국한 이상수 장군은 한 등급 낮은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된 것이다. 이들의 대장으로 5백명의 부하를 거느린 유명국 의병장은 그보다 더 낮은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으므로 위로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3명의 의병 활동자를 살펴보면 훈장 등급상 형평성이 없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의병대장은 훈장 중에 가장 낮은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고, 의병장의 중군장으로 활동하고 독자적으로 의병장 활동을 하고 10년 징역형이 언도되어 옥중에서 순국한 분이 의병대장보다 한 등급 높은 훈장이 추서되었으니 모순이 아닐 수 없다. 12년 징역형이 언도되어 8년 6개월 만에 석방된 분과 10년 징역형이 언도되어 7년 수개월 만에 옥중에서 순국한 분의 훈장 등급이 서로 다른데 전자는 상당히 높은 훈장이 추서되고, 후자는 한 등급 낮은 훈장이 추서되었기 때문에 형평성을 문제 삼는 것이다.

이상수 선생의 묘소는 사천시 정동면 공동묘지에 안치되었는데 그 당시 밤중에 누군가 알까봐 몰래 땅을 파고 묻었기 때문에 어느 지점까지는 알 수 있으나 정확한 위치를 기억하는 후손이 없다. 장손 이수영(부산 거주) 손자 이수완(사천, 삼천포 벌리동 거주) 등이 공적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처 : 안동 권묘연(權卯連)
아 들 : 이홍업(李弘業)
자 부 : 허진순(許振順), 이명수(李明守), 이복순(李福順)
손 자 : 이동연(李東連), 이동선(李東善), 이선자(李善子), 이둘선(李乭善) 이수영(李守榮)
손 부 : 추미연(秋美連)
증손자 : 이효진, 이남경, 이창민

사천 고성에는 의병과 맥을 같이 하는 활빈당이 있었고 대장은 이찬구(이진태)이었다. <진주항일운동사> 60면에 밝힌 바와 같이 1911년 2월경 진주에는 정한필(진주 중안3동), 정인선(삼천포 죽전동), 그리고 사천에는 이기선(李基善), 정이양(鄭爾陽)(산청군) 등이 동서로 다니며 적도가 활동한다고 기록했었다. 이재선, 안몽생, 이화선 등이 부하 수십 명씩 거느리고 부호들에게 금전을 받아 빈민에게 나누어 준다는 소문이 퍼졌다. (1910-1911년) 그러나 지난 1910년 3월경 부산 헌병대에 의해 포박되었다가 경찰서에 압송중이다.
(일제는 의병을 적도라 했음)

★ 참고문헌

폭도에 관한 편책. 1908년. 경무국
대구 복심법원 판결문. 1915년 6월 12일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5권. 2003년. 326면.

경남 항일 독립운동 참여자록. 이대수. 2001년. 116면
사천시사 상권. 2003년. 편찬위. 517면
하동 독립유공자 공훈록. 2000년. 추경화. 108-109면
산청지역 항일 애국지사 연구. 진청문. 추경화. 1995년. 20면.
신경남일보. 2000년 11월 18일
진주신문. 2000년 11월 20일. 2001년 8월 20일
부산일보. 2000년 11월 16일. 2001년 8월 14일
경남도민일보. 2000년 11월 18일
경남신문. 2000년 11월 18일. 2001년 8월 13일. 2001년 8월 15일
조선일보. 2001년 8월 15일
동아일보. 2001년 8월 15일
사천광장(사천시) 2001년 8월 29일

▣ 손기혁(孫琪赫) 선생

- 이명: 손태옥(孫泰玉, 孫太玉), 손기혁(孫琪赫)
- 생몰년월일: 1878. 4. 22 ~ 1946. 4. 27
- 출신지(본적): 경남 산청, 하동지역
  이상수(정동면)장군과 동일 활동, 동일 공로자
- 공적요점
  - 경남 하동군 옥종면 면장 재직 시 의병조직
  - 1907년 정미의병에 참가, 이상수 장군과 함께 활동
  - 군자금을 수합하고 일경과 일군 수비대와 수십차례 전투함
  - 일경에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으로 혼절.
    1915년 5월 5일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징역 12년 수형
  - 대구 복심법원에서 징역 12년 확정
  - 9년만에 감형 처분되어 출옥
- 정부포상: 건국훈장 독립장(1992년) 추서

■성장 배경과 호적

손기혁(孫琪赫) 장군은 밀양손씨(密陽孫氏)로 경상도의 명문대가의 후손이다. 부친은 손경인이며 모치은 남원 양씨(南原梁氏)이다. 손기혁 장군의 본적지가 경남 하동군 옥종면인지 산청군 시천면 또는 삼장면인지 알 수 없다. 오늘날 우리가 본적지라는 개념은 일제가 조선인들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만들게 했던 호적제도에 기인한다. 조선말에 호적을 처음 만들 때 전국 유림들이 반대하고 거부했던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면사무소에 보존된 호적을 가지고 출신지를 가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손기혁 선생의 호적은 재판받아 옥고를 치른 당시에는 작성되지 않았으며, 그 후 작성된 호적부가 있었다 하더라도 1945년 이후 한국전쟁을 지나면서 소실되어 그 흔적을 찾기 어렵다. 손기혁 선생의 재판기록에는 하동군 옥종면 원례로 기재되었으나, 그 당시에는 일제식 호적이 정비되기 전이기 때문에 본적지라고 말하기 어렵고 현주소 또는 일시적 거주지로 볼 수 있다. 이부 기록에는 산청군으로 기재되었고, 생활 근거지와 의병 활약지도 산청군 일원이기 때문에 산청의 인물로 등재한다.

고종 갑오년(189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날 때 손기혁 선생은 17세였다.

동학군과 일본군의 격전이 일어난 곳은 하동과 진주의 경계지역이었다.

그중에 하동군 옥종면 대곡리와 북방리에 소재한 고성산성(高城山城) 전투는 유명한데 손선생과 연고가 있는 곳과 인접한 곳이었다. 고성산성은 하동군이었으나 진주목 관하로 변경되었다가 1905년 9월부터 하동군 옥종면으로 된 곳이다. 동학은 서학(西學)에 대칭되는 말로 제폭구민(除暴救民), 보국안민(輔國安民), 척양척왜(斥洋斥倭)가 동방에 근거를 둔 유·불·선 세가지 종교를 합일하에 창도한 것이다. 1894년 11월 10일 고성산성과 진주 수곡면에는 4천여 명의 동학당이 모여 일본군에 대항했다. 그러나 일본군 1개 중대의 신예무기 앞에 패배하여 사망 186명. 총 136정. 화약 30관을 남기고 퇴각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 고장에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수천 명이 전사했다고 한다.

하동군 북천면의 문유흠(文儒欽)은 하동 접주로 고성산의 대 일본전투에 참전하였고, 하동

군 청암면의 김종련(金鍾鍊)은 청암 접주로 진주 평리동 광탄진 대회에 참가하고 고성산전투에도 교도 50여 명을 이끌고 참전하였다. 곤양 접주 이규정(李奎井)도 보은과 고성산전투에 참전하고 관헌에 의해 피체되어 3년 만에 사망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고장에서 소년기를 보낸 손기혁 선생은 조선족이 힘없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한없는 통한을 금할 길이 없었다.

동학혁명에 참가했던 중요인사들 전봉준, 김개남이 체포되고, 손병희 휘하의 북접주력부대가 청주에서 해산함으로써 척외척양을 부르짖으며 재기했던 가을의 봉기는 완전히 진압되고 말았다. 그러나 저들의 왜적 토벌이나 항일 구국이라는 애국충정의 사상은 곧 이어질 의병전쟁과 연결됨으로써 그 역사적 의미를 중요시한다. 1895년에 전국에서 의병들이 일어나니 이를 제 1차 의병전쟁 또는 초기 의병전쟁이라고 한다. 이 때 구국의 일념뿐이던 의병이 활동이 가장 치열한 곳 역시 옥종면과 수곡면 일원 이었던 것이다. 의병들은 주로 게릴라 전법으로 치고 뺀지는 방식을 택하였는데 옥종·청암 일대가 게릴라 전법을 사용하다 지리산 깊은 곳으로 도망치기 쉬웠고 또 물과 곡식을 구하러 내려오기 쉬운 지리적 특석을 지녔기 때문이다.

애국청년 손기혁도 의로운 투쟁에 앞장서서 일본군과 친일파를 응징했다고 전해오는데 노응규 의병진에 합류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1910년 한일합방이 되자 일반 주민들은 이제 일본세상이 되어버렸다고 자포자기 상태가 되었다. 부산에 3만여 병, 마산에 2만 수천명, 진주에도 9천 명의 일본인들이 거주할 정도로 큰 길은 물론 작은 골목에도 일본인들로 가득차 있었다. 이때 옥종면 정수리 옥산재에 옥진(玉振)학교를 세우고 각 유지들에게 성금을 거두니 정문영(鄭文永), 정기영(鄭祈永), 정수영(鄭鐵永), 신상수(愼詳秀), 배용락 등이 협력했다. 이때 손기혁 선생도 교육사업이야 말로 새로운 애국 애족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당시 약간의 성금을 내셨다.

1910년대에 기부한 2원은 일제시대 2원보다 더 귀한 때였기 때문에 지금의 가치로 계산하면 수백만원 이상 일 것으로 짐작된다. 옥종면의 옥진학교 설립 당시 성금을 내셨다는 근거는 「경남일보」 1910년 6월 20일 자에 등재되어 오늘날까지 전해 온다.

열심히 배우고 지식을 쌓아 일제에 대항하고 또 알아야 산다는 의지로서 사립학교 설립에 동참한 일도 역시 참으로 고귀한 일이다.

■ 항일 의병 투쟁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일본의 행패는 날로 심해 갔다. 일본이 그를 면장으로 임명함에 그는 구국의 일념으로 면장을 수락하여 의병들을 도우면서 수년간 면장직을 수행했다고 전한다. 그 후 의병을 조직하여 총지휘하고 1908년 6월 김용이(金龍伊) 외 수십 명의 동지를 거느리고 총검으로 무장하여 산청 하동 일대에서 의병진(義兵陳)을 창설하였다. 이들 무장의병들은 하동군 옥종면 월횡동에 사는 정태진(鄭泰鎭)으로부터 8원의 군자금을 지원받고, 옥종면 동월동에 사는 이진원(李辰元) 주민한테서 엽전 20냥과 명주세필 등을 군자금으로 수합하였다. 그로부터 7~8년간 화전민으로 숨어 살다가 7년이 지난 후 일경에 체포된 그는 혹독한 고문을 받고 혼절하였다. 1915년 5월 소위 강도로 몰려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손기혁

을 징역 12년에, 이상수(이만용)를 징역 10년에 처한다는 판결이 있었다. 곧 대구고등법원으로 항고되었고, 915년 6월 12일 일본인 판사 아카이 사다요시는 원심 판결대로 손기혁 의병장에게 징역 12년 형을 언도함으로써 형이 확정되어 대구감옥에서 복역하게 된다. 진주지청의 판결문은 1940년대 중도에 소실되었고, 대구고등법원(복심법원) 판결문이 현존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피고 손기혁은

1. 재물 절취의 목적으로 김용이 외 수십 명과 같이 서기 1908년(명치 41년)6월 모일 밤, 총칼을 지니고 경남 하동군 가종면 월횡동 정태진(정공중) 집으로 돌입하여 가족을 결박하고 금품을 내놓으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는 총칼로 살해하겠다고 그를 협박하여 금 8원을 강탈함.
2. 위와 동일한 목적으로 김용이 외 수명과 같이 동월에 총칼을 지니고 옥종면 월횡동 이진원 집에 침입하여 총칼을 들이대며 그를 협박 끝에 엽전 20원과 명주 3필을 가져감. 위 사실은 동행한 김용이가 증언하고 금 8원을 빼앗긴 정공중, 정태진이 증언하고 벼 20석을 빼앗긴 최인환, 이세영 등이 증언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발견되었는데 사천군 사천읍 고읍리에서 침술업을 하던 이상수(李尙銖)도 손기혁과 동일한 목적으로 수십 명의 의병과 함께 각기 몽둥이를 지니고 산청군 단성면 당산리 이세영 집에 침입하여 새끼줄로 그를 결박하여 "우리는 의병(義兵)이다. 군사에 필요하니 벼를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곤봉으로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집에 그가 보관중인 최인환(崔仁煥) 소유의 벼 20석을 가져갔다. 위 사전 이후 재판과정에서 이세영과 최인환 등이 증인으로 나와 말하기를 의병(폭도)중에 이만용을 보았고 그가 틀림없다고 했다.

의병장으로 활동하면서 이만용(李萬用)으로 행세하였으나 손기혁 의병장의 재판 기록에 의하면 이상수가 곧 이만용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세영은 의병장 이만용의 얼굴을 잘 알고 있을 정도로 서로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폭도(의병) 대열에 함께 있었던 이만용이 바로 이상수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상수의 처가댁(협박으로 결혼)과 이세영 댁은 서로 1㎞ 이내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하여 잘 아는 사이였다.

1908년에 경남 경찰부에서 경무국으로 보고한 문서 가운데 『폭도의 관란 편책』에 의하면 유명국은 지리산과 덕산 일원에서 4백여 명의 동지와 부하를 거느리고 활동하고 있다고 했으며 유명국이 패한 후 일군 수비대에 체포된 후에도 유명국의 부하 이만용이 흩어진 의병 30여 명을 모아 출몰하고 있다고 기록했다. 손기혁 장군의 재판기록에 함께 등재된 이만용은 원래 사천군 정동면 고읍리 80번지 출신으로 전주 이씨인 이규식(李珪植)과 김순남의 차남으로 태어났다(1873년 7월 1일생). 부인은 권경중의 차녀인 권묘연이다.

이만용(이상수)은 유명국(柳明國) 의병장의 부하로 산청과 지리산 일대에서 활동하면서 30여 명의 의병을 거느린 게릴라전의 명수로 유명했는데 지금 산청군 단성면에 세운 <산청군 항일유공자 추모비>에 그 이름을 새겨두었다. 유진환이란 증인이 나오는데 유진환(柳震煥)은 곧 유명국(柳明國) 의병장이며 활동할 때 활동명은 유명국이었다. 유명국은 역시 산청·하동 일원에서 4백여 명의 부하를 거느린 의병장으로 활약하다 산청군 덕산(德山) 전투에서 부하

17명을 잃고 생포되어 옥고를 치른 분이었는데 손기혁 의병장 재판기록에서 증인으로 나온다. 유진환이 말하기를 손기혁 자기는 하동군 옥종면 이진원 집에서 돈을 탈취했다고 말했고, 또 이만용(이상수)와 함께 단성 이세영 집에 가서 벼를 훔쳤다고 말하더라고 했다.

유명국(유진환) 의병장은 제1차 의병전쟁이 일어나자 가솔을 이끌고 노응규의 기관(記官)으로 활동하였다. 1906년 산청군 덕산에서 의병을 모으니 하동, 함양, 산청, 진주 일원에서 5백여 군사가 모였다. 1906년~1908년 사이에 50여 차례 교전으로 전공을 세웠다. 1908년 8월 30일 일본군 덕산 수비대장과 교전 중 수비대에 생포되었다.(「신경남일보」95년 8우러 10일자, 「한국일보」95년 8월 15일자) 감옥에서 2년 만에 석방된 유명국 의병장이 고문 후유증으로 자택에서 요양한 시기는 1910년 10월 부터였다. 아마도 일제의 강압에 의한 것으로 짐작된다. 유명국 의병장이 옛 부하인 이만용(이상수)의 옛 투쟁 시절에 있었던 과거사에 증인으로 나온다는 사실이 깜짝 놀랄 일이지만 일제의 악랄한 수법에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다. 유명국 의병장의 공적을 인정한 정부에서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손기혁 의병장에 대한 법률 적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등재되었다. 손기혁의 소행은 모두 조선 형사령 제45조에 의하여 동령 41조 제2항 형법대전, 제593조 제1항 기득 재산법률 동령 제42조에 해당되므로 형법 제46조 제10조로 볼 때, 그 무거운 그의 죄형에 따라 모두 정상 참작하여 동법 66조 제 71조. 제 68조 제 1호에 의해 그 형을 경감하고 피고 손기혁을 징역 12년에 처하기로 한다. 손기혁 의병장은 대구 고등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언도받은 후 광주 교도소에서 4년간 복역 중일 때 조사수 부인은 하동군 가종면 원계리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굶어서 세상을 떠났다.

손 의병장의 큰 딸이 광주교도소에 면회를 가보니 부친의 손톱 · 발톱이 다 빠져 있는 것을 직접 보고 땅을 치며 한없이 울었다고 전한다. 광주교도소 복역 중 감형되어 8년 6개월간의 옥고를 마치고 출감할 때는 1923년 1월 23일이었다. 출옥 후 주위를 둘러보니 반역자의 재산이라 전답 등 재산을 모두 일본인 소유로 강제 편입시켜 버렸다. 먹고 살길이 막막해진 그는 동생 집으로 갔다가 중국으로 가 보았으나 뾰족한 호구지책이 생기지 않자, 일본으로 건너가 여러 난간을 극복하고 한약방을 개설하셨다고 한다. 이때 약간의 돈을 벌어 그동안 헤어졌던 자식들을 만날 수 있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자 일본 땅에서 내 뼈를 묻을 수 없다는 각오로, 산청군 삼장면 덕교리로 옮겨 동생이 사는 작은방에서 1946년 4월 27일 오후 4시경 한 많은 생을 마감했다.

손자인 애국선열유족회 회장 손수광(孫守光)께서 산청과 하동, 광주, 서울, 부산 등지로 뛰어다니며, 조부의 명예회복을 위해 수년간 희생적으로 힘쓴 결과 1992년 8월 광복절에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수개월 간 감옥에서 보내는 세월도 지옥 같을 것인데, 12년 징역형을 받아 8년 6개월간이란 긴 세월 동안 그 추운 겨울을 아홉 번이나 옥에서 보낸 것을 생각할 때, 가슴이 미어지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날의 우리는 옛날처럼 살 수는 없지만, 현재에 맞는 새로운 애국애족의 길을 궁구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산청군 단성면 단성초등학교 건너편 언덕에 세워진 「산청지역 항일유공자 추모비」에 그 아름다운 성명(姓名)도 깊이 새겨 두었다. 손자 손문소(孫文昭)는 부산시 북구 화명동에 거주하고 손자 손수광(孫守光)은 경기도 성남시 야탑동에

거주한다.

<이달의 독립운동가 열전> 47~48면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경상남도 하동에서도 의병이 일어나 조국의 구국을 위한 정기가 용솟음쳤으니 1906년 11월 7일 진주에서 의병 200명이 일어나 하동읍을 거쳐 광양으로 진격하였고 이때 군청을 점거한 후 군수를 결박하였던 것이다.

1907년 10월 14일 칠불사(七佛寺) 의병 김동진, 고광순 부대가 병력 300명으로 하동 경무서(警務署)를 습격하였으나 일본군이 곧 반격을 시작하여 연곡사에서 의병 고광순 등 많은 분이 전사했다.

이들은 칠불사(七佛寺), 연곡사(連谷寺), 문주암(文珠庵)을 거점으로 의병활동을 전개하여 크게 공을 세운 분들이기도 하다.

1907년 10월 17일 의병 김동진은 산청군 삼장면(三壯面)과 하동군 청암면(靑岩面)에서 일본과 치열한 싸움을 벌려 일본군 수십 명을 살해하는 전과를 올렸으며, 의병장 유명국이 의병 400여 명을 이끌고 기지산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악양의 의병 박매지는 악양면 신흥(新興) 계곡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체포되어 총살형을 받았다.

1907년 9월, 의병대장 고광순은 참모 윤영기, 도총 고제량, 선봉 신덕균, 박성덕, 기삼연 등과 구례(求禮) 화엄사에서 진을 치고 일본군을 기다리다가 화개장에 온 광주 진위대 군사와 전투를 시작, 10여 명의 일본군을 사살하였으며 중군 방봉래, 군기감 김연, 박주일(구례군 토지), 김대수 등의 후군은 연곡사에 있다가 칠불사로 옮겨 일본군을 습격, 수명의 일본군을 사살하고 다시 연곡촌에서 일본군을 맞아 치열한 격전을 벌인 끝에 10여 명을 사살하였다. 10월에 접어들어 의병 고광순은 근거지인 연곡사에 들어와 다음 작전을 구상하던 중 쌍계사에서 최신 무기와 장비로 무장된 일본군의 습격을 받아 전사하고 말았다. 그 충의의 피는 연곡사의 뜰을 적시며 홀로 숨진 의로운 길이 알려져 의병들의 마음은 더욱 불탔으며 1907년 손재식, 최교로 등이 금남의 금오산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했다. 청암면과 화개면에서 교전한 의병들은 일본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으며 일본 헌병 분견대(分遣隊)는 하동읍에 주둔하고 진주 수비대 분견대는 화개에 주둔하여 의병을 토벌하고 있었다. 횡천(橫川)의 정한용 의병장은 진주성에서 일본군과 격전을 갖기도 했다. 적량 태생인 이응환은 21세의 나이로 순절했으며, 이재수는 의병으로 활약하다 체포되어(왜병 살해) 10년의 옥고를 치루기도 했다.

청암 태생의 강봉근도 의병으로 분투하다 체포되어 10년형을 받았으며, 하동읍 출신인 여성오는 광야 태생으로 인도에서 일본군 3명을 사살하고 체포되었고, 양보의 이백응은 의병을 모집하다 체포되었으며 옥종의 이겸로는 의병의 뒤로 돌보아 주었다. 악양의 손몽생은 의병조직에, 악양의 임봉구는 의병의 연락책으로 활동했으며 양문칠(양치환)은 의병장으로 크게 활약할 때 서로 먼 친척이라는 이유로 긴밀히 연계한 것으로 판단된다.

손선생은 1908년 6월 김용이(金龍伊) 외 수십 명과 함께 총검으로 무장하여 향리인 산청군 일대에서 의병을 일으켜 하동군 가종면(加宗面) 월횡동(月橫洞) 정태진(鄭泰鎭)으로부터 8원(原), 동면 동월동(東月洞) 이진원(李鎭元)으로부터 엽전 20냥, 명주 세필 등을 군자금으로 기부 받은 후 피체되었다. 1915년 소위 강도로 몰려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언도받고 1924년 징역 8년 5월 27일로 감형되어 옥고를 치렀다. 비록 그 때, 구국의 뜻은 이루지 못하

였더라도 그 맥락은 흘러 이 땅의 청년들은 조국광복을 위해 해방이 되던 1945년까지 독립운동을 위해 몸을 바쳤으며 순절의 넋은 길이 우리의 가슴에 남아 있다.

■ 정부포상과 선양

1995년 3월 1일 항일독립 유공자 추모비가 산청군 단성면 성내리에 건립되어 제막식을 거행했다. 손기혁 장군의 성명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 이 추모비에 깊이 새겨두었다. 추모비 건립 추진 위원장은 정태수(전 문화원장) 총무는 권민호(전 군의원)이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훌륭하고 아름다운 공적을 기리어 1992년 8월 광복절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선생의 묘소는 1995년 11월 16일에 대전국립현충원 애국지사 제 2묘역에 안장되었고 부인 조사수씨도 함께 합장되었다.

★ 참고문헌

판결문(1915년 6월 12일 대구복심법원)
범죄인 명부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0권. 국가보훈처. 1993년. 175면
건국훈장애훈자 공훈록 제1권. 603면
경남일보 1910년 6월 20일자
항일투사열전. 제1권 추경화. 1995년. 223면
이 달의 독립운동가 열전.(진주보훈지청) 1999년 40~51면
금석문 총람 (편찬위 1998년)374면
산청지역 항일 애국지사 연구(논문 1995년) 청년문학 19-20면
경남의 항일투사에 관한 연구(논문 1995년) 개척자 32호
독립유공자 묘소편람. 국가보훈처. 1995년 494면
하동 독립유공자 공훈록. 2000년. 추경화. 105~111면
경남 항일독립운동 참여자록. 이대수. 2001년 85면
함양항일투사록. 김성진. 추경화. 2007년. 350. 356. 367면
하동군지 상권. 편찬위. 1996년. 250면
한국일보. 1992년 8월 14일 (포상자 명단)
서울신문. 1992년 8월 14일
조선일보. 1992년 8월 14일
동아일보. 1992년 8월 14일
부산일보. 1992년 8월 14일
경남신문. 1992년 8월 14일
경남일보. 2000년 7월 8일자

▣ 이영근(李永根) 선생

- 이명: 이영근(李永根)　　호 : 송헌(松軒)
- 생몰년월일:1894. 5. 11 ~ 1922. 8. 8
- 출신지(본적): 경남 사천시 곤명면 금성리(金城里) 332
- 공적요점
  - 1919. 4. 5 곤명면 3·1운동을 전개
  - 금성서당 훈장과 학생들을 시위대로 인도
  - 격문, 태극기를 제작해 배호하고 시위
  - 일경에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으로 혼절
  -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태형 90도 받고 수년간 고생
  - 태형 후유증과 고문 후유증으로 만 28세 때 순국
- 정부포상: 건국포창(1995년)추서

합천 이씨 이영근(李永根) 선생은 사천시 곤명면 금성리에서 출생하여 서당에서 배우실 때도 하나를 보면 열을 깨달아 영리하고 영민하여 가르치는 선생이 더이상 가르칠 내용이 없다고 말하였다.

유림출신인 이영근 선생은 항상 항일정신이 투철하였고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대한 원수감정이 투철하였기 때문에 전국에서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이때야말로 독립을 실현할 때가 된 것으로 확신하였다.

금성서당의 후장 정원주, 문형근, 조재석, 강재빈, 이규현, 조관석 등에게 만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강조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영근 선생은 격문을 짓고 태극기를 만들고 인쇄 제작하여 사방에 배포하였다.

4월 4일 마을 입구의 덕천(德川)강변에서 주민들 200여 명을 모아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고 시위를 전개하였다. 일제는 헌병대를 출동시켜 무자비한 탄압을 하고 총검으로 난타하였고 공포탄을 발사하여 주민들을 동서로 흩어지게 만들었다.

이영근 선생 등은 강을 건너 도주했다가 일초병의 끈질긴 추적을 받고 결국 체포 되고 말았다. 일경의 엄중하고 혹독한 고문을 받고 혼절하였고 정신을 차리자 찬물을 부어 깨어나게 하고 다시 고문을 가하는 악형, 혹형은 계속되었다. 1919년 5월 19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태형 90도를 맞고 석방되었다. 그러나 패혈증이 심하고 장독으로 수년간 고초를 겪다가 1922년 8월 8일 만 28세에 일찍 별세하니 순국이다.

만 28세에 민족과 나라 위해 한목숨 바쳤는데 훈장대열에 들지 못했다

<아름다운 항일정신>에 등재된 시(時)를 기록해본다.

사천위해 아니다
민족위해 나라위해 투쟁했네
금성서당 학생들 동참케하고
태극기 수십매 제작해

너도 나도 들고 외쳤네

우리주권, 우리국권 찾아보자
대한독립만세
덕천강변 따라 남강까지 퍼져라

하나뿐인 목숨 바쳐도
훈장하나 없으니
비문조차 없으니
억울하고 통탄스럽다.
오로지 조국위해 봉사했다
생각하시라!

합천 이씨 족보를 보니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기절강직(氣節强直), 가담(加擔), 기미운동(己未運動), 피금일경(被禁日警), 인득병(因得病), 종불기(終不起) 친 아우 전 곤명면장 이명진(李明眞)이 그 장남 창수(昌秀)를 입양시켜 후사를 이었다.

이영근 선생의 묘소는 곤명면 금성리에서 완사 가는 길에 현충시설물 안내판 위에 안장되었다. 사후 양자인 후손인 이형재(월남전 참전용사)가 관리중이다.

★ 참고문헌

신분장 지문조회서
부산지법 진주지청 판결문 (1919. 5. 19)
합천이씨 변사공파보 1972년 284면
곤명면지 편차누이 1987년 361면
사천군지 편찬위 1990년 1083-1103면
사천시사 편찬위 2003년 731, 744면
독립유공자공훈록 4권 국가보훈처 406면 1987년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 1996년 298면
경남독립운동 참여자록 2001년 마산보훈지청 120면
경남지역 3·1독립운동사 문화원 경사도지회 2007년 63, 69-70면

▣ 이주현(李周賢) 선생

- 이명: 죽천(竹天)
- 생몰년월일: 1892. 1. 3 ~ 1949. 7. 19
- 출신지(본적): 경남 진주시 중안동
- 공적요점
  - 사천 개진학교 교사로 근무중 항일교육으로 면직처분
  - 고성 3·1운동을 지도하고 독립선언서, 격문을 전달
  - 고성군과 서모면의 3·1운동에 영향을 끼침
  - 의열 단원으로 가입하여 활동
  - 밀양폭탄의거 관련되어 징역1년형 언도
  - 광복후, 신탁통치를 반대하고 임시정부를 지지함
-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1963년) 추서, 건국훈장 애족장(1990년) 추서

■ 학업과정과 교직생활

죽천(竹天)선생은 의열단원(義烈團員)이 되어 중국을 왕래하였고 밀양폭탄사건에 관련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執行猶豫) 2년형을 언도받았으나 실질적(實質的)으로 300일 이상 옥고를 치렀다.

진주시 본성동에서 태어났으며 진주공립보통(중안)학교에서 4년간 수업을 받은 후 제1히 졸업생(卒業生)이 되었다. 한일합방(韓日合邦)되던 해 1910년 3월 31일 졸업하였다. 그는 만 17세 때부터 그의 이름이 신문(新聞)에 등재되기 시작했는데 경남일보 1909년 11월 6일자 하단에 경남학생 친목회(회장 강경호) 총무이름으로 경남일보(慶南日報)의 창간(創刊)을 축하(祝賀)하는 축시(祝時)가 등재되었다.

축시(祝時)를 지은 분이 회장인지 총무인지 모르지만, 이때부터 그는 항일운동(抗日運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담대(膽大)하고 강직(剛直)하여 이를 위해서라면 절대 굽힘이 없었다.

경술년(1910년) 한일합방(韓日合邦)이 되어 국권(國權)이 상실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만18세 소년이지만 울분을 참지 못하여 벽을 치고 일주일간 통곡하더니 드디어 혼절(昏絶)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나라와 민족이 죽은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때 동기생 강상호 선생이 찾아와 살아서 할 일이 많으니 우리도 민영환(閔泳煥) 선생처럼 죽는다고 뚜렷한 수가 생기는 것도 아니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항일(抗日)의 기치(旗幟)를 높이자고 설득하였고 달려주며 서로 격려했다고 전한다.

1910년 가을부터 사천시 서포면에 소재한 사립 개진학교(改進學校)에 초빙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이때 그는 부지런하고 솔선수범(率先垂範)하며 열심히 가르치기 때문에 날로 학교(學校)가 발전하고 칭송이 자자하였다. 농촌 청소년들에게 국어, 산술을 가르치고 문맹퇴치(文盲退治)에 앞장선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선생이 학교를 그만둔 것은 학생(學生)들에게 항일정신을 일깨우고 항일시위(抗日示威)를 준비(準備)했다는 의심을 받아 3년 만에 권고사직(勸告辭職)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천 선생의 교육 영향은 학생들에게 큰 감동을 주어 뒷날 3·1운동 때 곤양(昆陽),

서포(西浦)에서 시위가 전개(展開)되는 양상을 이루었다.

■ 3·1운동

그가 망국의 슬픔을 설욕할 방도(方途)를 강구하던 중 1919년 3월 1일 전국(全國)에서 일어난 3·1운동 소식을 듣고 진주 읍내 3·1운동에 동참(同參)하고 용기(勇氣)를 얻게 되었다. 전국 각처에서 의로운 투쟁으로 싸워 이길 방법을 주도하기로 뜻을 정하고 의로운 투쟁에 앞장설 동지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 선생은 3월 중순 고성의 애국동지 배만두(裵滿斗)를 찾아가서 이상은, 김상욱 등과 고성읍 선동에 있는 박진완(朴璡宛) 집에서 만나 비밀회합(秘密會合)을 가지고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와 격문을 전달하고 고성(고성(固城)에서도 3·1만세 시위를 전개하도록 설득(說得), 지도(指導)하는데 성공(成功)하였다.

이 선생의 지도를 받은 고성시위(固城示威)가 3월 23일 크게 일어나 고성읍 시위와 구만, 개천 회화면 시위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고성군(固城郡) 3·1의거가 진주 출신 이주현 선생의 지도로 이루어졌다는 근거는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고성군지>, <부산경남 3·1운동사>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確認)할 수 있다.

고성 3·1운동을 사실상 지도하신 분이지만 그 당시에는 일경에 발각되지 않았고 함안 등지로 핏니하여 일경에 체포되지 않았다.

■ 중국으로 망명

죽천 선생은 해외(海外)로 망명(亡命)하여 재기를 노리는 것도 좋은 일로 생각하고 여러 애국동지(愛國同志)들을 만나게 된다. 그들 중에는 중국 만주(滿洲)방면의 길림성(吉林省) 통화현(通化懸) 파라문에서 결성된 의열단(義烈團)은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성공적 效果的인 항일투쟁(抗日鬪爭)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좀 더 적극적(積極的)인 방법으로 무력투쟁(武力鬪爭)해야 함을 강조하여 피는 피로 이는 이로 갚아야 한다는 신조(信條)를 실천하는 방법을 선택(選擇)하는 단체(團體)가 결성되었다.

국 내외 많은 의로운 청년, 학생(靑年, 學生)들을 포섭해 나가며 동지들을 모았다. 이때 죽천 선생도 의열단에 가입하여 조국광복(祖國光復)을 위해 일생을 바치기로 결의할 때 동참하였다.

■ 의열단 활동

의열단의 곽재기(郭再冀), 이성우(李成宇), 황상규(黃商奎), 윤소룡(尹小龍), 김병환(金餠煥), 신철휴(申哲休), 배중세(裵重世) 등 주로 20대 피 끓는 애국청년들이 뜻을 정하여 중국 상해와 비밀연계를 가지고 폭탄, 권총 등을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작전을 시도하였다.

1920년 6월 압록강변(鴨綠江邊) 안동현에서 경남 창원 운송점 김명국 사장 앞으로 쌀 20석을 보낼 때 그 안에 각종 무기를 몰래 넣고 운송(運送)하는 일이 일단 성공(成功)하였다. 그러나 미곡상(米穀商) 강원석이 받아 운송하는 과정에 이주현 선생이 협력하였다.

조선을 독립시킬 목적(目的)을 달성(達成)하기 위하여 1920년 6월 길림성 통화현에서 무과

학교 출신 김원봉, 양건호, 서상호와 함께 곽재기, 신철휴, 윤소룡 등의 주장에 따라 폭발물 총기류를 조선 땅에 반입시켜 친일파(親日派)와 중요관서(重要官署)등을 폭파(爆破) 파괴하기 위한 계획(計劃)을 진행했다. 이 사건이 세상을 크게 놀라게 한 '밀양 폭탄사건'이라 하기도 하고 '의열단 진영사건'이라고 보도되었던 대사건(大事件)이었다.

죽천 이주현 선생도 의열단원이었고 무기운반(武器運搬)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 일경에 체포(逮捕)되어 밀양경찰서에 감금되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된 혹독(酷毒)한 고문(拷問)을 받았으나 사실대로 실토(實吐)하지 않았다. 그러나 약 1년간의 예심기간(豫審期間)이 지난 후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執行猶豫) 2년형이 언도(言渡)되었다. 이때가 1921년 6월 21일이다.

경성지방법원의 판결문(判決文)에 의하면 이주현 선생에 대한 혐의점이 자술서(自述書)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었다. 스스로 인정한 자술서 외에는 다른 증빙도 없이 재판(裁判)이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는 소위 저들이 말하는 문화통치(文化統治) 기간이었기 때문인지 여러 해 동안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8권 227면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경남 진주 사람이다. 그는 1920년 11월 밀양경찰서 폭탄투척 사건에 관련하였으며 1921년 6월 21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執行猶豫) 2년을 언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3년에 대통령 표창이 추서되었다.」

위 내용을 보면 죽천 선생의 3·1운동 공적도 삭제되고 의열단원(義烈團員)의 공적도 등재되지 않았다. 한목숨 바쳐 조국과 민족을 투쟁한 분에 대한 공적서가 너무 간단하다. 이주현 선생의 희생적(犧牲的)인 활동(活動)을 생각해 볼 때 너무 빈약한 공적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죽천 선생은 출옥 후에도 민족을 위해 반드시 목숨을 바쳐 투쟁하겠다는 각오를 가진 분이다. 그러므로 1922년에도 지하 독립운동으로 진주경찰서에 구금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證據不充分)으로 석방되었다. 그 후에도 진주경찰서에 잡혀가서 일상생활(日常生活)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陳述), 조사(調査)당하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

진주에서 발생하여 전국(全國)으로 확산(擴散)된 형평운동(衡平運動)에 가입한 이주현 선생은 조선의 신분제도(身分制度) 철폐에 앞장서기도 했다. 일제 때 이중으로 억압받던 백정(白丁)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오늘날 인권운동가(人權運動家)와 비슷한 역할(役割)을 감당하였다.

1930년에는 중국으로 망명하여 옛 동지들을 모아 항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지만 이때는 일제가 중국침략(中國侵略)을 위해 만주사변(滿洲事變)을 일으킨 시점으로 일제의 감시와 통제(統制)가 극심하여 뜻을 펼칠 수 없음을 깨닫고 귀국(歸國)해 버렸다. 환국(還國)한 이 선생은 언제쯤 조국(祖國)이 광복(光復)될까 염려할 뿐이었다.

1930년대에는 조국의 광복(光復)은 요원하고 매우 어려워 보였다. 그러나 1944년 일제가 소위 태평양전쟁(太平洋戰爭)을 일으켜 마지막 발악(發惡)을 하는 것을 보고 지각(知覺)있는 자들은 일제의 패망(敗亡)이 눈앞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때 구여순(九汝淳), 변상태(卞相泰), 이주현(李周賢), 이지태(李之兌) 등 수십 명이 진주시

옥봉동 양옥진 여사 댁에 모여 조국이 곧 광복될 것이니 이를 준비(準備)하기 위한 방안(方案)으로 1차로 구국동지회(救國同志會)를 조직하게 되었다.

비밀경사 구국동지회를 통해 조국광복(祖國光復)이 다가왔음을 백성들에게 일깨우고 전후처리와 조국(祖國)이 광복(光復)된 후 어떻게 대처할 것을 토론, 토의(討論, 討議)도 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는 무조건 항복하고 조국이 광복되어 새나라가 열리게 되었다. 이 선생은 건국준비위원회(建國準備委員會)에 가입했다가 탈퇴하고 한국 민주당에 입당하여 구여순, 변상태 등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동분서주(東奔西走) 열심히 뛰어 다녔다. 그러나 죽천 선생이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 반신불수(半身不遂)가 되고 말았다. 지난날의 고문후유증 (拷問後遺症)과 빈대 수천 마리와 함께 잠자던 옥에서 생긴 병(病)으로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것이다.

1949년 여름 어느 날 진주에서 세상을 떠났다.

■ 정부포상과 선양

정부에서는 이 선생의 아름다운 항일투쟁을 기리기 위해 3월 1일 대통령 표창(大統領 表彰)을 추서하였다.

1990년 8월 15일에는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이주현 선생의 고귀한 항일애국정신(抗日愛國精神)을 추모하여 큰 돌을 다듬어 진주 항일투사추모비라는 비제(碑題)로 다음과 같이 깊이 새겨 두었다.

「義烈團員 李周賢은 密陽警察署 爆彈投擲事件 懲役 1年 執行猶豫2年刑」

비석건립추진위원장 겸 비문 지은 이는 추경화(秋慶和)이며 비석글씨는 강용순(姜瑢淳)이 쓴 것이다.

★ 참고문헌

高等警察要史, 경북경찰국, 1937년 197면, 236면
한국독립운동사, 문일문, 1970년, 165면, 215면
한국독립사 하권, 김승학, 1971년, 236면, 364면
독립운동사 제 3권, 편찬위, 1971년, 260면, 261면
독립운동사 제 7권, 편찬위, 1976년, 536면
독립운동사 자료집 11권, 편찬위, 1976년, 163면, 168면, 170면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 8권. 국가보훈처, 1990면, 227면
부산경남 3·1운동사, 3·1동지회, 1979년 465면, 466면, 642면
경남항일독립운동 참여자록, 이대수, 2001년, 126면
항일투사열전 제 2권, 추경화, 1997년 129면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 판결문(判決文)
경남독립운동사, 변지섭, 1966년 181~184면
독립운동 총서 인명록 10, 윤택둥, 1995년 352면
동아일보(東亞日報) 1920년 7월 30일, 8월 1일

1921년 3월 5일, 4월 28일, 5월 14일, 5월 29일, 6월 8일,
6월 22일, 1927년 1월 23일
매일신보 1920년 10월 15일
경남일보 1909년 11월 6일, 1910년 1월 9일, 1911년 1월 18일
동아일보 1963년 3월 1일
조선일보(朝鮮日報) 1920년 7월 14일, 8월 1일, 6월 8일
고성미래신문 2008년 2월 28일

▣ 장 경(張駉) 선생

- 이명: 장일(張日)
- 생몰년월일: 1920. 6. 27 ~ 1979. 9. 21
- 출신지(본적): 사천시 (삼천포) 동금동
- 공적요점
  - 부산중학교 조선인회에 가입, 활동
  - 일본중앙대학 재학중 고문(高文) 그룹을 조직
  - 비폭력주의로 독립투쟁을 전개키로 함
  - 독립쟁취 방법을 11회 논의하다 피체
  - 대국지법에 징역 4년형 언도
- 정부포상: 건국훈장 애족장(2003년) 추서

경남 사천시 삼천포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부산중학교에 입학하였다.(1993년)

장경 선생은 소년시부터 영리하고 똑똑하여 가르치는 선생이 더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고 말하고 부산중학교에 진학할 것을 권유하고 추천하였다.

중학교 재학중 부산중학교 조선인회(P.M.K.C) (Pusan Middle School Korea Combination)에 가입하여 민족애국사상을 고취하였다.

1938년 3월 부산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일본으로 유학하여 같은 해 4월 중앙대학(中央大學) 제1예과 제2학년에 편입하였다.

1939년 7월 하순경 조선이 비참한 상태를 벗어나는 길은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독립국가를 만들어 주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여기고 고담용(高湛龍)을 재수생 (건국훈장 애족장(1990)), 김운봉(金雲鳳)(강원도 고성生 건국훈장 애족장(1990)) 등과 함께 무명의 비밀결사를 결성하였다.

1940. 6 하순경, 고담용, 김운봉 등과 회합하여 조선독립운동의 방법으로 한민족의 단결심 양성, 자력함양, 미국을 통한 독립운동 도보 등을 전개하기 위해 고문(高文) 그룹을 조직하였다.

고문 그룹은 표면적으로 학술연구와 상호 친목 단계로 위장하여 일본의 감시를 피하면서 동지의 결속을 공고히 하기 위한 방법으로 결사를 유지하였다.

이들은 조선독립의 방법으로 간디(인도 정치지도자)의 유명지도자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기본적으로 채택하였다.

점차적으로 독립국가를 위한 투쟁을 협의하였다.

1940년 10월경 말경 구호림 등은 일본정책에 편승하여 실력을 양성하며 자력으로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이며 조국의 번영과 영광을 위하여 매진해야 된다는 목표를 세웠다.

독립 후 통치체제는 히틀러의 나치주의를 모본할 것을 협의하였다.

또 1940년 11월 이들은 모임을 갖고 기념 촬영을 졸업 후 관계(官界) 혹은 재계(財界)로 진출하여 평생 독립을 목표 헌신할 것을 협의하는 등 1940년 6월부터 1942년 5월까지 약 11회에 걸쳐 독립쟁취 방법을 논의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

1944년 6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4년 형을 언도받고 2년 8개

월간 옥고를 치렀다.

우리나라 통치체제는 히틀러의 나치주의를 모방하고 본받아야 할 것을 계획하였다.

대구 감옥에서 수년간 출옥할 때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자 조선인 간수가 작은 소리로 독립만세를 불렀다고 전해 온다.

★ 참고문헌

예심 종결 결정서 대구지방법원 예심계 1944. 2. 29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1944. 6. 5

대구 형무소 명적표

독립유공자공훈록 제15권 2003년 국가보훈처 376-377면

▣ 장덕익(張德翼) 선생

- 이명: 덕산(德山)
- 생몰년월일: 1889. 12. 27 ~ 1942. 11. 8
- 출신지(본적): 경남 사천시 (삼천포) 이금리(梨琴里)
- 공적요점
  - 동학란을 피해 삼천포에서 진주로 이주
  - 광림학교 졸업후 진주 3·1운동을 지도
  - 독립선언서, 태극기, 교유문을 배포하고 시위군중을 지도
  - 일경에 검거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함
  - 대국복심법원, 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형 확정
  - 고문 후유증으로 조국광복을 못보고 별세하여 순국
- 정부포상: 건국훈장 애족장(1993년) 추서

■출생과 족보

장덕익(張德翼)선생은 진주 3·1운동 지도자(指導者)로 활동하고 일경에 검거되어 징역 1년형을 언도 받아 옥고(獄苦)를 치렀다.

장 선생의 출생 시기에 대하여 몇 가지 맑혀 두고자 한다. 그의 출생 일자에 대하여 기록된 족보(族譜), 호적, 지문기록 등이 서로 달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생의 호적은 1945년 이후 한국전쟁(韓國戰爭) 전후 혼란기에 불타고 없어졌고 그 후 되살리지 못했다. 1950년대 호적을 되살리는 신고를 받을 때는 생존자(生存者)가 아니어서 접수조차 불가능했다. 그러므로 그의 호적(除籍)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인동장씨 족보는 사천시 벌리동 와룡산 남쪽에 사는 인동장씨 먼 친족 관계자의 집에서 겨우 찾을 수 있었다. 이들과 족보를 만들 때 왕래가 있었던 기억을 되살려 방문한 결과 복사를 하게 되었다. 장덕익 선생이 10세 전후에 만든 족보를 입수한 것이다.

신분장 지문기록이 일제 때 기록이니 믿을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으나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1979년도에 발행한 <釜産慶南 3·1運動史>에는 1891년 7월 6일생으로 기록되었고 지문조회기록에서는 1889년 8월 19일생으로 기록되었다. 또 다른 기록에서는 1889년 12월 27일생으로 기록되어 서로 다르다.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독립유공자공훈록>에는 1889년이라고만 기록되었고 생년월일을 밝히지 않았다.

장덕익 선생은 부친을 따라 삼천포에서 진주시 비봉동으로 이사 왔거나 이사 온지 얼마되지 않았을 때 태어났을 가능성도 있다.

진주에 살면서 호주선교사가 경영하는 광림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하였다. 한편 봉양학교(鳳陽學校)를 졸업했다는 기록이 있으니 필자가 포상신청을 위해 공적서, 이력서 등을 작성할 때 장덕익 선생의 장남 장문석씨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광림학교(光林學校) 졸업생(卒業生)으로 판단되었다.

장 선생의 부친께서 삼천포 이금리를 떠나 진주로 온 것은 동학(東學)에 대하여 반대(反對)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친인척들이 모두 동학교도로 참여하여 접수, 포교사, 전

교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그의 부친은 동학을 싫어하여 그곳을 떠나 진주로 옮긴 것으로 판단된다.

■3·1운동

1919년 3월 10일 진주의 거리에는 삼남지역에는 <왜 일어나지 않는가> 라는 격문(檄文)이 나붙기 시작하였다.

이때 김재화, 강달영, 심두섭, 정준교, 박진환 등의 항일투사(抗日鬪士)들이 비밀을 유지하며 의거를 준비하고 있었다. 각계각층이 동원될 때 장덕익 선생도 광림학교(光林學校) 관계자와 졸업생들의 연락을 받았다. 장덕익 선생은 광림학교 선·후배들이 서로 이끌고 단결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고종황제(高宗皇帝) 인산에 다녀오면서 독립선언서, 격문 등을 휴대하고 내려온 김재화 선생의 지도에 따라 집현면 하촌리 자택에서 비밀회합(秘密會合)을 개최하였다. 사전에 약속한 대로 3월 18일 진주 장날 낮 1시경에 울리는 교회 종소리에 맞추어 진주 시내 다섯 장소에서 동시에 장대에 단 태극기를 앞세우고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와 격문(檄文), 교유문(敎諭文)을 배포하기 시작하였다. 장덕익 선생도 교유문(敎諭文)을 배포하면서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시위군중을 지도하였다.

다섯 곳의 시위장소는 법원지청 앞, 매립지, 공원, 시장, 대안동 또는 남강변이다(판결문). 한규상 선생이 말하는 다섯 장소는 법원 앞, 공원, 시장, 군청 앞, 남문내 등이다.

3월 13일 진주 장날에 시위하지 못한 이유가 그 당시 매일신보(每日申報)에 보도되었다. 3월 10일 새벽에 사방에 붙은 격문(檄文) 때문에 일경(日警)들은 초비상사태(超非常事態)가 되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검문검색(檢問檢索)을 강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3월 18일 화요일(火曜日)을 택한 것이다.

<독립유공자공훈록> 제11권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1919년 3월 초순 서울 탑골 공원에서의 독립만세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독립을 욕하는 함성이 끊임없이 확산되자 3월 18일 진주군 장날에 진주읍에서도 만세시위운동을 벌리기로 계획하고 강달영(姜達永), 심두섭(沈斗燮), 이강우(李康雨), 박진환(朴進煥) 등과 함께 거사를 준비하였다.

그는 동료들과 조선독립선언서(朝鮮獨立宣言書) 교유문(敎諭文) 등 2천여 장을 인쇄하고 격문 1천장을 등사하였고 태극기(太極旗)를 만든 후 거사일 장터에 모인 군중들에게 배부하면서 조선독립만세(祖先獨立萬歲)라고 쓴 기(旗)와 태극기(太極旗)를 앞세우고 독립만세(獨立萬歲)를 고창(高唱)하며 장터를 누비다가 시위행진(示威行進)을 벌이다가 일경의 무력탄압(武力彈壓)으로 시위는 중단되고 피체되었다.

악기(樂器)가 동원(動員)된 것에 대하여 대구교도소 집행지휘서(大邱矯導所 執行指揮書)에 이하면 3월 19일 오전 11시 대안동과 평안동 사이 노상(路上)이라 했기 때문에 나팔로 3월 18일 12시경에 신호(信號)했다는 일부 기록은 잘못된 것이다.

그해 4월 22일 부산지법원 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6월 17일 대구복심원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 형이 확정(確定)되어 옥고

를 치렀다.』

장덕익 선생이 16세 때 있었던 일이다. 진주를 중심으로 서부경남 일대에 의병들의활동이 활발하였다. 장덕익 소년(少年)도 의분을 참지 못해 의병대열(義兵隊列)에 합류(合流)하기 위해 지리산으로 향하였다. 의병과 함께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본 군병들이 쳐들어와 장덕익 소년도 잡히고 말았다. 일본 군병이 너는 몇 살이냐 물었다. 나는 15세라고 대답하였다. 일본군은 고민에 빠졌다. 죽일 수도 없고 재판에 넘겨도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생각한 것이다. 장덕익 선생이 큰 소리로 말했다. 자현자로 처리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하니 그의 말대로 자현자 즉 자수자(自首者)로 처리되어 석방되었다.

20대 어느 날에 있었던 일이다. 동네 씨름대회에 출전하여 계속해서 이기고 우승(優勝)하였다. 그때 마침 까치가 울었는데 마침 옆에 있던 일본 순사(巡査)가 말하기를 "저 까치가 아침까지 울더니 장군이 이겼다."고 말했다. 장덕익 선생이 큰 소리 치며 "너 같은 일본 놈의 칭찬(稱讚)은 듣기 싫다."며 순사(巡査)가 차고 있던 칼을 빼앗아 멀리 던져버렸다. 사람들이 '큰일이 생기겠지.' 걱정하면서 일본 순사와 맞서 싸우는 장군을 주시하고 있었다. 일본순사(日本巡査)는 칼을 찾아 들고 장선생의 위압에 아무말도 못하고 조용히 물러갔다. 사람들이 용기(勇氣)가 대단하다고 말했다.

1942년 11월경 50세 전후가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날 것 같은 병세를 보였다. 후손들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라고 여러 번 물었으나, 그러나 그는 손을 가로저었다. "나는 하고 싶은 말이 없다." 라고 말하곤 곧 세상을 떠났다고 전한다. 그 후 생각해 보면 잘못 말을 했다가 후손들에게 피해가 될 것을 염려하여 아무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으니 독립운동(獨立運動)으로 옥고를 겪고 고문후유증(拷問後遺症)이 없었다면 한창 일할 나이에 조국(祖國)과 민족(民族)을 위해 한목숨이 또다시 희생된 것이다.

■ 정부포상과선양

정부는 장덕익 선생의 훌륭한 항일공훈(抗日功勳)을 인정하여 1993년 건국훈장(建國勳章) 애족장(愛族章)을 추서하였다.

장 선생의 공적을 수천 년간 전하기 위해 큰 바위를 다듬어 〈晋州抗日鬪士追慕碑〉를 세워 다음과 같이 깊이 새겨 두었다.

「晋州 3·1運動 指導하고 逮捕되어 1年形 獄苦한 張德翼」

진주시 이현동 공동묘지(共同墓地)에 그의 묘가 있는데 그의 묘지석에 별세날짜가 1942년 11월 8일로 새겨져 있다. 그의 사망일에 대하여 1947년 사망설은 잘못된 것이다. 1997년 발행된 인동장씨 대동보(大邱 大宗會 發行)에도 1942년 11월 8일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이를 뒷받침한다.

그의 아들은 장문석(場文錫)인데 생존 시 아버지의 훈장을 대신 받고 한 달 만에 세상(世上)을 떠났다.

자부 안덕이와 손자녀 1남 3녀는 부산에 거주한다.

★ 참고문헌

진고 60년지, 진주고, 1985년, 103면
진농 80년사, 편찬위(안원섭), 1990년, 105~106면
경남지역 3·1독립운동사, 문화원 경남도지회, 2007년, 31면 37면
항일투사열전 제1권, 추경화, 1995년, 212면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2권, 국가보훈처, 1986년 258면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1권, 국가보훈처, 1994년 247면
3·1운동실록, 이용락, 1969년, 651면
부산경남3·1운동사, 3·1동지회 1979년, 426면, 455면
경남 항일독립운동 참여자록, 이대수, 2001년 133면
하동 독립유공자 공훈록, 추경화 2000년 198면, 318면
항일독립지사열전, 인사보감편찬위, 1996년, 771면
내 고장의 전통, 진주시, 1983년, 171면, 264면
인동장씨 세보, 장씨대종회 1998년
인동장씨 종보, 종친회, 1994년 9월
진양군사 상권, 징양군, 1991년 873면
매일신보 1919년 4월 23일, 4월 25일
대구복심법원 판결문 1919년 6월 17일
고등법원 판결문 1919년 9월 6일
경남일보 1993년 2월 27일
중앙일보 1993년 2월 28일
진주신문 1997년 9월 15일
조선일보 1993년 2월 28일

1997년에 발행된 <아름다운 항일정신> 25면에 실린 찬양시를 그대로 옮긴다.

장덕익 · 장영수 선생

만세, 만세 또 만세
온 천하 진동했도다
골목마다 태극물결
너와 나 구분없이 노인도 학생들도
만세소리 외쳤도다.

한 분은 진주시 장통에서
한 분은 의령 산꼭대기에서
시민, 학생 지도하여

대한독립만세
아 아름다운 만세함성

진주, 부산 재판소에서 1년 징역
옥고 치르고 사계절 12달
감옥에서 지내셨다네

내 땅 내 산에서 만세도 못하는가
만세소리 드높을때
광복의 날 가까웠네

▣ 정성기(鄭聖基) 선생

- 이명: 정성기(鄭成基)
- 생몰년월일: 1918. 4. 27 ~ 1980. 8. 10
- 출신지(본적): 경남 사천시 문선면(삼천포) 동외리 266(265)
- 공적요점
  - 삼천포 공립보통학교 재학중 용산독서회 활동
  - 일본에서 귀향해 다시 용산독서회 활동
  - 정종주, 박인욱, 이금복 선생 등과 농민운동을 전개
  - 삼천포 적색노동조합 사건으로 일경에 피체
  -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언도
- 정부포상: 건국포장(2005년)추서

가난한 농촌가정에서 태어나 한 많은 젊은 날을 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부모님은 낫 놓고 기역 자도 모르는 자식이 되는 것을 염려해 삼천포 공립보통학교에 입학시키게 된다.

1920년대에는 일제가 소위 문화통치를 실시하면서 글과 글씨를 모르는 조신인 보다 기본적인 소양이 있어야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독려하여 청소년 교육을 위해 자발적으로 학교로 나오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서 배우는 일이 보편적인 일이 되고 있었다.

정성기 선생도 1922년 3월 삼천포 공립보통학교를 입학하여 수업을 받게 되는데 이때 용산독서회를 만들어 배우면서 가르치는 토론 · 토의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보통학교 졸업 후 1923년 10월 일본에 가면 많은 돈을 번다는 소문을 듣고 일본 고베(神戶)시로 건너갔다.

신호시 지역 공장에서 종사원으로 열심히 일하게 되었다.

약 15년간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을했으나 돈을 모으지 못하고 도리어 조센징, 한도징이라고 멸시, 천대를 받게 되자 분노를 느끼고 싸우기도 했다.

1937년 4월경 일본에서 벗어나 삼천포로 귀향하게 된다.

향리에서 동기생들을 만나 보니 옛날 용산독서회를 부활하자는 의견이 많아 되살리기로 하고 장소를 물색, 준비하게 된다.

이때 정종주, 박인욱 등으로 부터 듣기로 자본주의란 부익부 빈익빈으로 잘사는 사람은 잘살게 되고 못사는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는 것이며 다 같이 노력해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제도가 필요함을 듣고 공감하고, 적극적인 투쟁을 결의할 때 앞장서게 된다.

삼천포 지역 청소년들에게 항일독립정신을 고취하고 농민들에게는 다 같이 잘사는 사회가 성숙해진 사회임을 가르치게 되었다.

삼천포 적색노동조합은 창설할 때 힘을 모으고 야간에는 청소년들을 모아 일제의 도적근성을 말하고 일제의 악랄한 수법과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들을 멸시, 천대하고 있음을 비참한 생활상을 절심한 심정으로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청소년 학생들이 점점 항일의식이 팽배해지고 일제에 대한 반감이 깊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친일파 성격이 가진 이들에 의해 일경에 고발되었고 곧 피체되었다. 그 당시

일제 순사보다 더 나쁜 조선 순사에게 혹독한 고문을 받고 혼절하게 된다.

정성기 선생 등은 삼천포 적색노동조합사건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1939년 8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이 언도되었다.

출옥했으나 일제 순찰의 감시 감독을 벗어날 수 없었고 집 밖으로 출타하면 보고하고 출타 목적과 경위와 경로를 보고해야되는 감옥 같은 생활이 계속되었다.

일제 경찰들 즉 고등경찰의 감시 감독을 피하기위해 하동, 진주와 부산 등지로 옮겨 살다가 귀향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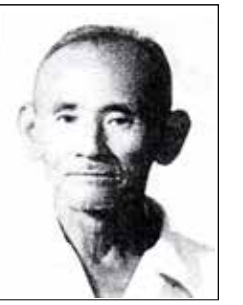
광복 후 1945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전국농민조합 총연맹 결성대회에 사천대표로 참석하고 농민들의 권리신장을 위해 활동했다.

일제가 그동안 얼마나 수탈해 갔는지 조선 전국이 피폐하여 극심한 가난 속에 살고 있음을 보고 통탄하고 슬픔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전해 온다.

★ 참고문헌

동아일보1939. 3. 9. 8. 26
부산지법 지준지청 판결문 1939. 8. 30 (가출옥문서)
독립유공자공훈록 제16권 2006년 584면
경남항일독립운동 참여자록 마산보훈지청 2001년 139면
사천시사 상권 편찬위원회 2003년 745면
고등경찰관계적록 경찰청 89면 참조 1936년
한국 근현대지역 운동사 역사문제연구소 1993년
일제하 농민조합운동 지수걸 1993년 435면
사천군지 편찬위원회 1990년

▣ 정종주(鄭蹤柱) 선생



- 이명: 정종주(鄭蹤柱)
- 생몰년월일: 1908. 11. 19 ~ 1992. 7. 21
- 출신지(본적): 경남 사천시 이금리(梨禁里) 384
- 공적요점
  - 서울의 중앙고보 재작중 동맹휴고에 참가
  - 삼천포 용산독서회를 조직하고 야학회 활동
  - 1934년 농민운동그룹을 조직
  - 1934년 농민운동그룹을 조직
  - 1938년 1월 일경에 검거되어 혹독한 고문 받음
  -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징역 2년 6월형 언도
  - 전국농민조합 총연맹 결성대회에 남해군 대표로 참가
- 정부포상: 건국훈장 애족장 (2006년) 추서

정종주(鄭蹤柱) 선생은 사천시 삼천포 이금동 384번지 출신으로 1927년 3월 삼천포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했다.

성적이 뛰어나고 현실을 보고 깨닫는 바가 빠르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서울소재 중앙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서울에서 삼천포로 귀향하여 농업에 종사하면서 사회과학 도시를 구하여 애촉하며, 지역민들의 애국애족심을 고취하는데 노력했다.

1929년 9월 삼천포에서 애국동지들과 함께 사회제도를 개혁할 목적으로 용산(龍山) 독서회를 조직하고 사회과학을 연구하며 야학교를 개설하여 남녀학생 수십명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1931년 11일 삼천포 공립보통학교에서 발생한 동맹휴교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을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종주 선생 등이 배후세력으로 지목되어 일경에 피체되었다. 12월 13일 용산독서회 관계자 교사, 학생 등 10여 명이 피체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고 혼절하기도 했다.

정종주 선생은 부산지법 지주지청에서 징역형을 언도 받고, 대구복심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1932년 5월 7일 치안유지법 위반이란 제목을 붙여 징역 1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아 약 5개월간 옥고를 치르고 출옥하였다.

삼천포로 귀향한 정종주 선생은 농민운동 그룹을 조직할 때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활동하게 된다.

정종주 선생은 말로는 안되고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는 각오로 실천투쟁을 위하여 앞장서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농촌자제 20여 명을 모아 1934년 10월부터 매일 1시간씩 야학에 모이게 하여 훈육하고 가르쳤다.

일제는 처음에는 순수한 학문연구로 보고 간여하지 않았으나 일제의 정치를 비판하고 차별받는 조선 민족의 불만과 조선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자 용산야학교 교사들을 붙잡아 조사하다 점차 학생들까지 포함해 150여 명을 검거하게 된다. 삼천포지역 청년들은 모두 잡아갔다는 소문이 퍼지고 일경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1938년 9월 6일 주동자 정종주 등 12명을 제외한 학생들은 도로 석방하고 애국동지 12명

은 부산지법 진주지청으로 송치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1939년 5월 4일 약 8개월 만에 배심이 종결되어 정식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때 혹독한 고문으로 혼절하기도 했다.

1939년 8월 30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형이 언도되었다.

정종주 선생은 남해 일원에서도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고 남해 야학교 교사로 화동하였기 때문에 1946년 2월 서울에서 개최된 전국농민조합 총연맹 결성대회에 남해군 대표로 2명이 참가할 때 정세권(鄭洗權), 정종주(鄭蹤柱)선생이 동참해 농민들의 권리결성을 위해 투쟁했다.

사천 출신이지만 농토가 남해군, 집현면, 설천면에 있었기 때문에 남해 대표로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건국에 공이 있고 공훈을 기리기 위해 2006년 8월 15일 광복절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정종주 선생의 묘소가 부산시에 있었으나 2009년 2월 24일 대전국립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2-1137에 옮겨 안장되었다.

부인 김순악도 함께 안장되었다.

★ 참고문헌

조선일보 1932. 3. 23
동아일보 1939. 3. 9, 8. 26
신분장지문회보서, 경찰청
고등경찰관계적록 경남경찰부 1936년 84-85
부산지법 진주지청 판결문 (1939. 8. 30)
독립유공자공훈록 제17권 국가보훈처 2009년 734-735면
한국 근현대지역 운동사 영남편 역사문제연구소 1993년 241면
한국 현대사자료 총서 12, 559-560면
사천시사 상권 편찬위원회 2003년 746면
일제하 사회운동 색인집 하권 역사문제연구소 1992년 1941면
조선공산주의 운동사 5권 186면 김준엽, 김창순 지음

▣ 정종호(鄭蹤浩) 선생

- 이명: 정종호(鄭鍾浩)
- 생몰년월일: 1913. 4. 12 ~ 1967. 4. 14
- 출신지(본적): 경남 사천시 이금리(梨琴里) 147
- 공적요점
  - 삼천포에서 야학교 교사로 활동
  - 농촌계몽운동을 실시함
  - 농민의 실상과 사회주의 이론을 교육함
  - 1938년 일경에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으로 혼절
  -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이 언도됨
- 정부포상: 건국포장(2002년) 추서

정종호(鄭鍾浩) 선생은 서당에서 한학을 배울 때 한 가지를 배우면 백을 깨닫는 똑똑하고 영리한 학생이었다.

1937년 11월부터 경남 사천군 삼천포에 야학교를 개설하여 후배 정성기와 함께 야학교사로 봉사하였다.

정성기 선생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체제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새로운 제도개선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농촌지도자를 양성을 강조하고 농민들의 각성과 대오각오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정성기, 정종주 등과 함께 뜻을 합하여 일제의 차별적 정책과 사회제도의 불공평화를 시정하기 위한 목적 달성하려면 야학교를 개설하여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뿐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1934년부터 1938년 1월까지 강연회, 연극회, 문맹퇴치, 문자보급운동, 체육활동, 애국계몽운동을 실시하고 일제의 교육정책은 피폐정책이며 사회주의적으로 변경, 발전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수년간 야학 학생들에게 현 사회제도 하에서 농민 민중의 실상 및 원인을 사회주의이론에 기초하여 선별하고 훈육하는 등의 활동을 계속하였다.

일제는 단순히 교육만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 간여하지 않았다가 일제의 정치를 비판하고 차별받는 조선민족의 불만과 조선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회주의 훈련을 실시한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자 즉시 교사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점차 학생들까지 포함해 150여 명을 검거하게 된다.

1938년 9월 16일 주동 교사 정종호, 정종주, 정성기 등 12명을 제외한 학생들은 모두 석방하고 애국동지 12명은 부산지법 진주지청으로 송치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1959년 5월 4일 약 8개월 만에 예심이 종결되어 정식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때 혹독한 고문으로 혼절하기도 했다.

1939년 8월 30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형이 언도되었다.

정종호 선생은 밀양 박씨 박명선의 차녀 박달막과 혼인하였고 슬하에 정동주, 정정주, 정

문주, 정일록이 있고, 딸 동순, 윤순, 갑순 등이 있다.

★ 참고문헌

신분장지문조회서
판결문 (부산지법 진주지청) 1939년 8월 30일
동아일보 1939. 5.9, 8. 26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이기하 1409면
일제하농민조합운동연구 지수걸 역사비평사 435면
독립유공자공훈록 제15권 국가보훈처 2003년 395면
사천시사 상권 2003년 편찬위원회 746면
일제하사회운동색인집 하권 역사문제연구소 1992년 1942면
경남항일독립운동 참여자록 마산보훈지청 이대수 2001년 143면
사천군지 편찬위 1990년

▣ 정태술(鄭泰述) 선생

- 이명: 정종현　　별명 : 태수(泰秀)
- 생몰년월일: 1896. 12. 27 ~ 1935. 2. 24
- 출신지(본적): 경남 사천시 사천읍 정의동(貞義洞)
- 공적요점
  - 일본노조활동을 전개
  - 부산토목노조의 북륙지부준비회를 개최
  - 친일단체의 처단을 계획함
  - 1933. 8 일경에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으로 혼절
  - 1934년 2월 나고야 형무소에서 옥사해 순국
- 정부포상: 건국훈장 애족장(2006년) 추서

정태술(鄭泰述) 선생은 경남 사천군 사천읍 정의리 출신으로 사천향교에서 천자문, 명심보감, 논어, 명자 등을 배우게 되는데 이때 가르치는 선생이 일제에 대하여 경계하고 일본을 이기기 위해 배워야 하며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일본으로 쳐들어가 투쟁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말씀에 감화 감동을 받았다.

정태순 선생은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복정시(福井市) 대양 대영(大榮) 대야(大野) 4에 거주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일본 내의 조선인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다.

정태술 선생은 1931년 11월 일본 부산현(富山縣)에 거주하는 한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조직된 일본노동조합 전국협의회 부산(富山) 토목건축노동조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런데 수개월 만에 부산토목건축노동조합이 이름만 남기고 활동력이 없어짐을 통탄하고 일본 전협 산별노조에서도 활동했다.

1932년 한인노동운동 지도자들과 협의하여 같은 해 8월 북륙지부 준비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같은 해 9월에는 부산시(富山市)에 소재한 친일단체 내선보국회(內鮮報國會) 간부들을 처단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울 때 적극 동참하였다.

입산촌(立山村) 현영(縣營) 발전소 공사장의 체불임금을 청산하고 체불임금의 획득운동에도 동참하였다.

정태술 선생은 노동운동을 전개하고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을 때 일제경찰을 재일한인 노동조합원에 대한 대외적인 검거를 시작하게 된다.

1931년 11월 5일 노동운동가 43명의 조합원이 체포되었고 엄중한 조사를 받았다. 다행히 처음에는 정태술 선생이 체포되지 않았다.

정태술 선생은 활동지에서 벗어나 석천현으로 숨어 들어가 특히 복정시(福井市)에서 석천과 복정지구의 조직의 재건운동을 펼쳤다.

그러나 정태술 선생은 1933년 8월 일본경찰에 피체되었고 1934년 2월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체되어 일본 경찰의 고문을 받게 되는데 일경의 눈을 피해 도주한 것에 대하여 괴씸죄가

겹쳐서 극심한 고문을 받고 혼절하고 깨어나면 또다시 고문으로 혼절하는 악독함이 계속되었다.

죽기 전에 일본 나고야(名古屋)형무소에 이송되었고 혼절한 그대로 깨어나지 못하고 옥사 순국하였다.

★ 참고문헌

신분장지문조회서 (경찰청)
사회운도으이 상황 1932년 470-471면
재일조선인운동사 1979년 374면 8 · 15 해방전(朴慶植)
한국사회주의운동인면사전 1996년 강만길, 성대경 442-443면
근대일본사회운동사 인문대사전 3권 편찬위원회 1997년 494면
독립유공자공훈록 제17권 국가보훈처 2009년 738-739면
한국공산주의운동사 5권 230면 김준엽, 김창순
일제하 사회운동색인집 하권 역사문제연구소 1992년 1951면

▣ 정한영(鄭漢永) 선생

- 이명: 정한영(鄭漢永)
- 생몰년월일: 1912. 11. 1 ~ 1975. 5. 13
- 출신지(본적): 경남 사천시(삼천포) 동동(東洞) 295
- 공적요점
  - 진주고 재학 중 시위지도
  - 일경에 체포되어 금고 4월 집행유예 5년형 언도
  - 삼천포청년동맹에 가입. 활동
  - 1931년 3월 독서회 조직에 동참
  - 삼천포 보통학교의 동맹휴학을 지도하다 일경에 체포되어 엄중한 조사를 받음
  - 1933년 3월 대구복심법원, 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언도되었다
- 정부포상: 건국훈장 애족장(1992년) 추서

정한영(鄭漢永) 선생은 광주학생사건이 발생하여 조선 각지의 학교에서 맹휴(盟休)가 돌발하므로 1930년 1월 17일 오전 9시 30분경 진주고 교정에서 학생 조방제(趙邦濟)가 교장 조회 훈시가 끝난 후 갑자기 연단에서 맹휴선동연설을 하고 학생들에게 뛰쳐나가자는 호령을 하자 250여명 학생과 함께 이것에 응하여 교문 밖으로 뛰어나가 진주 시내 각 학교로 돌아다니고 일신여자고등학교 문전에 으르자 학교 교사들은 정문을 폐쇄하여 여학생들은 동참할 수 없도록 하고 경찰들은 안녕질서를 위해 교대 침입을 금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명의 남학생들이 흙담을 넘어 진주여고 사방에서 대문을 열어 여고생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하고 정치적으로 불온한 문서들 (노예적 교육폐지), (경찰 침입금지), (광주학생석방)을 3, 40장을 배포하여 호응토록 했다.

1930년 1월 16일 오후 9시 반경 진주고 3학년생 정인수(鄭仁守) 집에서 3학년생 20여명이 집합하여 1월 17일 아침에 맹휴를 단행키로 결의하였다.

운동장 단상에 올라선 조방제가 “광주학생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조선 전반의 학생과 행동을 같이 하자”라고 외치면서 “대한독립만세”를 세 번 외치고 “나가자”라고 구호를 외치자 일반 학생들이 일제히 교문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 시위에 적극적으로 선두 주자는 이진하(李鎭河), 김병호(金炳琥), 정한영(鄭漢永), 권태익(權泰翊), 정갑생(鄭甲生) 등이다.

이들은 보안법 위반, 주거 침입위반 등으로 1930년 3월 18일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재판을 받고 1930년 5월 1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5년이 언도되었다.

출옥 후 삼천포 청년동맹에 참가하여 임원으로 화동하고 1931년 3월 독서회를 조직하여 문명퇴치를 위해 힘쓰고 청소년들을 모아 애국애족심의 배양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삼천포보통학교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단행할 때 앞장서서 지도하고 선동하고 격문 “혁명적 학생제도에게 격함”이란 글을 살포하다가 일경에 발각, 체포되었다.

일경에 혹독한 고문을 받아 혼절하였다.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1933년 3월 2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형을 언도받고 1933년 월 22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 참고문헌

고등경찰관계적록 69면, 89면, 101면
사상월보 1-6, 539-569면
독립운동사 자료집 제13권 324, 1501, 1502면
독립운동사 9권 607-608면
진주고 60년지 진주고등학교 1985년 125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 189
독립유공자공훈록 10구너 337 국가보훈처 1993년
경남항일독립운동 참여자록 마산보훈지청 2001년 144면
사천시사 편찬위 2003년 732면
광주학생독립운동사 독립운동 동지회 1974년 174-175면 496-499면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강만길, 성대경 1996년 445면
일제하사외운동 인명색인집 역사문제연구소 1992년 1959면
판결문 1930년 5월 15일 대국복심법원
판결문 1933년 3월 23일 대국복심법원
판결문 1933년 5월 22일 대구복심법원
동아일보 1930년 2월 20일, 5월 16일
항일투사열전 2권 1997년 추경화 223면
1930년대 경남지역 학생운동의 전개 박성식 논문
경상대 경남문화연구보고서
진주시사 1994년 906면
동아일보 1928년, 7월 7일, 1931년 12월 3일, 1931년 12월 6일, 1935년, 2월 14일, 3월 20일
조선일보 1930년 1월 19일, 1월 23일
남선일보 1931년 12월 2일

▣ 조우제(趙佑濟) 선생

- 이명: 조우제(趙佑濟)
- 생몰년월일: 1885. 3. 17 ~ 1946. 8. 6
- 출신지(본적): 경남 사천시 곤양면 성내리
- 공적요점
  - 곤양보통학교 교사(1911년)로 항일교육
  - 3·1운동 때 독립선언서 배포
  - 조선노동공제회 임시의장, 천주교 진주청년회장
  - 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1925년) 참가
  - 전북노조사건으로 6개월간 옥고
  - 남선공론사 주필, 경남일보 창간 고문, 국장
- 정부포상: 건국훈장 애족장(1997년) 추서

■ 초년활동

조우제(趙佑濟)선생은 학문(學問)이 깊고 넓어 사람들의 존경(尊敬)을 받았다. 그러므로 곤양보통학교 교원으로 추천(推薦)되어 근무하였는데 이때 마침 서울에서 3·1운동이 일어났고 제자 최범술(崔凡述)이 가져온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와 격문(格文)을 받아 사천과 진주 일원에 배포(配布)하여 서부 경남 3·1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선생은 진주청년운동, 노동운동, 신간회 활동, 천주교 활동, 동우사 활동, 농민조합 활동 등의 활동을 펼친 다양한 활동가(活動家)였다.

대구 조선은행 폭탄투척(爆彈投擲) 사건에 관련해 1년 4개월간 옥고를 치르고 전북 교원노조(敎員勞組) 사건으로 또다시 8개월간 옥고를 치른 분이다.

경남일보 1911년 6월 14일 자에 곤양보통하교(昆陽普通學校) 교원(敎員)으로 발령된 내용이 발굴되었다. 그의 행적이 기록된 첫 번째 문헌(文獻)이요, 증거(證據)이다. 곤양보통학교가 정식으로 인가되기 직전에 교사로 근무하면서 학교의 기초를 다지신 분이다. 사천 사람들이 존경한다는 최범술 선생도 그의 가르침을 배웠고 뒤에 3·1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사천과 진주지역에서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를 배포(配布)할 때 강달영 선생을 처음으로 만났고 이때부터 서로 감동을 주고 영향을 주는 사이가 되었다. 사천 축동면 출신 강대창(처음이름 姜大翼) 선생이 진주 중앙시장 소재 진양상회 지배인 겸 전무이사로 기거하여 살면서 진주청년회 회원이 되었다. 1921년 2월 진주청년회 의사(議事)로 선출되고 1922년 10월 총회에서 의원(議員)으로 선출되었다.

동아일보 1921년 7월 6일 자에 진주청년회 임원회에서 연극에 대한 설비위원이 되었는데 장소는 진양상회 2층이었다.

1922년 2월 조선노동공제회(朝鮮勞動共濟會) 진주지회가 발족했는데 순회 강연단을 조직하여 6월부터 서부 경남 일원에서 개최될 때 임시의장(臨時議長)이 되어 활동하였고 11월 15일에는 “시대적 각성과 소작운동”이란 제목으로 김종법 선생은 ‘재일본 조선 노동자의 참상을 보고“란 제목으로 각각 강연을 실시하여 2백여 명에게 뜨거운 감동을 주었다.

■ 동아일보의 조우제

동아일보 1922년 3월 30일자에 의하면 진주노동공제회가 서울에 대표를 파견할 때 장영정, 박태홍, 조우제, 오덕근, 송혜숙 등을 파견하였다.

1922년 8월 20일 창립된 천주교 청년회에서 제2대 회장으로 당선되었는데 그의 아들 조승래(趙升來 해방 후 사천군수)가 체육부장이 되었다(동아일보 1923년 3월 28일자). 같은 해 진주 각 단체 연합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1922년 9월 11일에는 소작노동자 대회(小作勞動者 大會)가 진주청년회관(晋州靑年會館)에서 개최되었는데 <소작인은 단결하라>는 제목으로 강연할 때 1천여 명이 운집(雲集)하여 뜨거운 감동을 심어주기도 했다.

동아일보 1922년 9월 22일 자에 보면 진주노동공제회에서 소작운동(小作運動)을 하고 소작문제에 대한 연설을 하려는데 경찰당국(警察當局)의 단속이 엄중하여 마음대로 말할 수 없었다.

같은 1923년 6월 19일자에 양화직공조합(洋靴織工組合)과 동아일보 진주지국 주최로 남선축구대회(南鮮蹴球大會)가 일신여고 운동장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때 천주교 회장으로서 참가하였다.

동아일보 1923년 6월 20일 진주 각 단체(單體)연합회(聯合會)를 개최하였다. 이때 보천교(普天敎)의 비행과 조선일보의 잘못된 보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윤병은 기자를 면직하라고 결정하였다. 이때 조우제 선생은 위원(委員)으로 선출되었다.

동아일보 1923년 5월 8일 노동공제회 진주지회 제2회 정기대회에서 조우제 선생은 사회자(司會者)가 되어 청년회관(靑年會館)에서 소작문제에 대하여 집중적(集中的)인 토론이 진행되었다. 같은 날 진주공존회에서 사회자 강상호, 강연자, 심두섭은 장래의 주인공을 위하여 조우제 선생은 <우리는 무엇을 하랴> 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조우제 선생은 북성회(北星會) 강연단이 진주에 도착하자 후원회 설비위원으로 봉사했다.

신분제 혁파(革罷)에도 동참하여 1924년 2월경 형평사(衡平社)간부로 활동하면서 임시총회(臨時總會)를 개최할 때 형평사 본사를 진주에서 서울로 옮길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동아일보 1924년 3월 20일자에 의하면 동경대지진 때 조우제 선생은 소감피력(所感披瀝)이 있었는데 많은 이들이 슬퍼했었다.

노동공제회 서포(西浦), 북천(北川), 하대(下大), 금산(禁山), 대곡(大谷), 집현(集賢) 등에도 각기 지회가 설치되고 지회 대표로 위원장(委員長)을 선출하였다.

동아일보 1924년 10월 31일자에는 18일 오후 7시 평안동에 사는 신현수 선생댁에서 신사상연구(新思想硏究)와 잡지 발간(雜誌發刊)을 위해 동우사(同友社)를 발족했을 때 조우제, 박진환, 정준교, 신현수, 강대창, 김종명, 강상호 등이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23일 창립총회를 위한 책임사원(責任社員)을 뽑을 때 조우제, 정준교, 박진화, 신현수, 강대창 등이 선출(選出)되었다.

동아일보 1925년 2월 25일자에 의하면 2월 19일 진주농민조합 노동의 양 연맹이 정기총회(定期總會)를 개최하였는데 조우제 선생이 농민연맹의 중아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기존 농민조홉을 부흥한다는 조선노동총동맹(朝鮮勞動總同盟)의 성명서에 따라 신정강(新政綱)을

수립키로 한다는 등 각 사항을 결정하였다.

1925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일신여고 운동장에서 남선축구대회(南鮮蹴球大會)를 추성사진관 주최로 개최했는데 조우제 선생은 찬성원으로 기록되었다. 체력은 국력이고 일본을 이기려면 몸이 튼튼해야 한다는 신제로 각종 체육행사를 많이 개최하였다.

1927년 4월에 진주 12개 사회단체협의회를 개최할 때 앞장서고 준비위원과 취지를 설명하는 일을 했는데 준비위원은 다음과 같다. 김찬서, 김영식, 조우제, 신현수, 김연호, 강상호 등이다.

조우제 선생은 중외일보(中外日報) 진주지국을 경영하면서 암살단에 가입해 활동하게 되었다. 암살단은 1925년 9월 장진홍(張鎭弘), 이원록(李源祿 : 李陸史), 이원기(李源祺), 이원영(李源永) 등에 의해 조직되어 일제의 중시설을 파괴(破壞)할 목적을 가진 비밀단체(秘密團體)였다.

1927년 10월 18일 오전 9시경 장진홍 의사(義士)는 폭탄 4개를 조선은행(朝鮮銀行)에 배달시킨 후 그 날 오후 11시 5분경 폭탄을 폭발케 하여 은행과 일경 등 5명이 중경상(重輕傷)을 입고 유리창 70여장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진주경찰서에도 비상이 걸려 수상한 자에 대한 검거가 시작되었다. 나동면 충신 김형갑(金炯甲) 선생이 체포되고 조우제 선생도 검거되어 대구(大邱)로 압송(押送)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독립유공자공훈록> 764면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조우제는 암살단에 가입하여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는데 암살단은 1925년경 장진홍(張鎭弘), 이원록(李源祿), 이원기(李源祺), 이원유(李源裕) 등에 의해서 조직되었으며 일제 중요시설 파괴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던 1927년 10월경 그는 장진홍이 경북도청 경북 경찰부, 조선은행 대구지점, 식산은행 대구지점 등을 폭발(爆發)하려는 계획(計劃)에 가담하였다.

1927년 10월 18일 오전 9시경 장진홍은 미리 준비한 폭탄 4개를 목표지점에 1개씩 배달시켰으며 이날 오전 11시 50분경 폭탄이 폭발하여 은행원(銀行員)과 일경(日警)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유리창 70여 장이 완전히 파괴(破壞)되었다.

일경은 이 사건에 대한 신문게재를 금지하는 한편 조사를 비밀리에 진행시켰는데 이때 수사과정에서 중외일보 진주지국 도장이 찍힌 신문(新聞)이 은행(銀行)에서 발견되자 진주지국장 겸 기자인 조우제 선생이 폭탄을 투척한 활동(活動)의 연루자(連累者)로 인정되어 피체되었고 결국 1년 4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조우제 선생은 대구(大邱)로 압송(押送)되기 3일 전 신간회 진주지회 간사(幹事)로 선출되었는데 그는 신간회가 창립될 때 발기인의 한 명이었고 창립총회(創立總會)에서 간사로 선출된 것이다.

신간회 진주지회가 창립될 때 산파역할(産婆役割)을 했으나 감옥(監獄)에 갔다 온 후에는 가담하지 않고 후원자(後援者)와 같은 역할만 한 것 같다.

■ 농민조합 활동

출옥 후 1931년 4월 진주농민조합 조직선전부 위원이 되어 활동하고 진주소비조합(晋州消費組合)을 만들어 취지 및 정관기초위원(定款基礎委員) 등으로 활동하였다.

<일제하 농민조합운동> 역사비평사 간행 438면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진주군의 농민운동은 1920년대 초반부터 조선노동공제회 진주지회를 매개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합법 공조운동은 1928년대 2월 진주농민연맹이 창립되면서부터였다. 진주노농연맹회(이후 여기서 진주농연이 분립되어 나옴) 1927년 2월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조선노농 총동맹 중앙집행위원의 성명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신강령을 수립하였다고 한다.

① 기성농민조합을 부흥함.

② 미성 농민조합을 촉함과 이상에서 실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③ 경제기관을 조직하여 단체의 이익을 기함.

④ 소작쟁의는 농민의 이익을 주지로 하고 그 해결의 알선에 노력함..

⑤ 농민의 정치적 각성을 위하여 순회강좌를 열 것(동아일보 1927년 2월 25일)

강대창(人民)등 진주연농의 활동가들은 소작관계 개선, 농민교양 등을 조직의 중요사업으로 간주하고 있었던 것 같다.

진주농조는 1930년에 들어 조우제가 집행위원장을 맡으면서 다시 활성화가 되었다. 조우제, 강두석, 김호종 등 진주지역 활동가들은 1930년 6월 임시대회에서

①미조직 농민에 관한 것

②지부 및 반조직에 관한 것

③농민교양에 관한 건 ④재정에 관한 건 등을 결의하였으며(동아 1930년 6월 16일) 또 같은 해 9월에 열린 농조 집행위원회는 청년부 특설에 관한 건 농촌상황 조사에 관한 건 등을 논의하였다고 한다. (동아일보 1930년 9월 8일)

진주농조는 1931년 7월 진주소비조합을 발기하고 소비조합운동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동아 1931년 7월 7일) 1931년 4월 정기대회에서는 조직부서를 집행위원장 (한영준) 서부재무, 조직선전, 쟁의, 청년부로 개편하고 소작관계의 개선 청년부 편성, 신간, 청총, 근우해소비판, 소비조합운동, 반동농민 단체 박멸 등을 논의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회에 100여명 안팎의 회원이 참석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진주농조는 대중적(大衆的) 기반이 상당히 취약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진주농조는 1932년 초반에 있었던 강두석 등 간부의 검속(동아 1932년 2월 19일) 1932년 7월 5일과 집회금지 조치(동아 1932년 5월 22일) 등에 굴복하여 맥없이 해산지경에 이르렀으며 1932년 8월경에는 급기야 농민조합회관(農民組合會館)까지 처분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진주농조 해체 이후 진주지역에는 별다른 농민운동이 존재하지 않았다.」

■ 전북교원노조 사건

조우제 선생이 또다시 일경에 체포(逮捕)되는 수난(受難)을 경험(經驗)하게 되는 데 1933년 9월경 뜻밖에 전라북도(全羅北道)로 잡혀가는데 전북교원노조(全北敎員勞組)의 비밀결사사건과 연관되었다는 혐의를 받고 피체되어 끌려갔다. 일경의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자술서(自述書)를 부르는 대로 쓴 후에 감옥에 갇혔다. 약 8개월간 구금(拘禁)되어 수시로 조사(調査)받

았으나 특별한 의심이 없었던지 193년 4월 20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저들이 말하는 치안유지법 위반이라면서 기소유예 처분(起訴猶豫 處分)이 내려졌다.

한번은 대구감옥(大邱監獄)에서 1년 4개월간 옥고를 치르고 이번에는 전주감옥(全州監獄)에서 8개월간 옥고(獄苦)를 치르고 나니 온몸에 성한 곳이 없었다.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온전히 살아 나온 것이 다행이었다."라고 회상(回想)했다.

■ 육영사업

그의 봉사는 쉬지 않았다.

1937년 12월 진주직업학교를 건립하기 위해 하영진(河永珍)부호가 진주직업학교(晋州職業學校)를 세우는데 기부하도록 주선하였고 드디어 십만 원을 기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심만 원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기성회(期成會)를 조직하게 되었는데 조우제 선생이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이때 회장은 조우제, 부회장은 신경제(愼鏡碲), 총무에는 박진환(朴進煥), 회계 서기에 정창화(鄭唱和), 상무위원은 강대창 회 4명을 뽑고 평의원은 최재림(崔載林) 외 19명을 뽑았다.

■ 해방 후 언론 활동

광복(光復)을 기다리던 그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자 장대동 저택에서 강변으로 뛰어나와 마음껏 만세를 외치고 또 외쳤다고 전해 온다.

설창수(薛昌洙) 선생을 만나 여러 가지 의논을 거듭한 조우제 선생은 드디어 경남일보에 들어가 주필(主筆)이 되었으나 고문후유증(拷問後遺症)으로 업무를 감당할 수 없어 고문(顧問)으로 만족하고 일선(一線)에서 물러났다.

조우제 선생은 1922년 1월 16일부터 동아일보 진주지국 기자로 일하였고 1927년도에는 중외일보(中外日報)의 기자(記者)로 근무한바 있고 1936년도에는 남선공론사(본사가 晋州) 주필(主筆)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해방된 조국에서 언론계(言論界)에 큰 공을 세울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고문후유증(拷問後遺症)과 옥에서 생긴 병(病)이 악화(惡化)되어 1946년 8월 5일 만 62세 때 세상을 떠났다. 장남 조승래, 손자 현태, 현표, 현택 등이다.

선생의 훌륭하고 고귀한 항일공적(抗日功績)을 인정하여 정부에서는 1997년에 건국훈장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장남 조승래(사천군수) 세상을 떠났고, 손자 조현태(중학교 교장), 조현표(예비역 대령), 조현택(중학교 교장) 등이 부산에 거주한다.

★ 참고문헌

형사사건부(대구지법)
경남일보 1911. 6. 14
일제하 한국 36년사 9권 292면
기려수필 송상도 329면
3·1우동실록 이용락 1969년 682면

부산경남 3·1운동사, 3·1동지회 1979년 499면
형평운동연구(김중섭, 1994년) 122면
한국청년운동사 선우기성 1973년 394면
독립운동사 3권 1986년 337면
독립운동사 제9권 1986년 265면
동아일보 1921. 4. 15, 1922. 3. 1, 1922. 9, 11, 10. 25, 11. 2, 11. 5,
1923. 3. 28, 5. 10, 6. 10, 6. 20, 6. 29, 1926. 6. 14
1927. 10 23, 12. 8, 1929. 12. 28, 12. 29, 12. 30
1930. 11. 13-16, 1931. 4. 10, 7. 7, 1933. 9. 16
조선일보 1924. 10. 26, 1929. 12. 28, 12. 29, 12. 30
항일투사열전 2권 추경화 1997년 187면, 305면
중외일보 1927. 12. 8
독립유공자공훈록 14권 2000년 764면-765면
매일신보 1929. 12. 29, 12. 30
신분장지문조회서 (경찰청)
경남항일독립운동 참여자록 이대수 2001년 149면
경남진주신문 2918년 3월 7일, 3월 12일, 17일
향토의 정기 진주신문사 1995년 248면
진주신문 1997년 8월 11일, 9월 1일
경남일보 1996년 8월 17일, 1997년 8월 15일
부산일보 1997년 8월 11일
촉석루 진주시청, 반상회보 39호
신간회연구 이균영 1993년 594면

▣ 최명석(崔命錫) 선생

- 이명:
- 생몰년월일: 1913. 4. 15 ~ 1968. 5. 23
- 출신지(본적): 경남 사천시(삼천포) 서동(西河) 144
- 공적요점
  - 진주사범학교 졸업 후 교사로 근무
  - 경남교육노동자협의회 결성
  -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외치며 항일투쟁
  - 결사의 행동강령 등을 결정
  - 일경에 회원 22명이 피체되었다.
  - 1934. 7. 5 부산지법에서 치안유지법,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 언도
  - 출옥 후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
  - 광복 후 민전위원회 활동
- 정부포상: 건국훈장 애족장(1996) 추서

최명석(崔命錫) 선생은 삼천포공립보통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진주사범학교에 입학하였다고 (1931년) 3월 졸업하였다. 곧 훈도로 임용되어 부산진공립보통학교에 교사로 근무 중이었다.

1933년 3월 부산, 마산, 진주 등지에서 비밀결사인 경남교육노동자 협의회를 결성하고 학생들에게 민족교육, 항일 교육을 실시하는 등 반일감정을 주입 시키게 된다.

1931년부터 보통학교 교원으로 발령을 받아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1933년 1월에는 부산진공립보통학교 교원이 되어 가르치면서 조선은 반만년 역사를 가진 전통있는 민족으로 일본보다 우수한 미족임을 가르치고 일제치하를 벗어나 독립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가르치고 훈육하였다.

동료 교원 김두영 등과 마산, 부산에서 회합하고 비밀결사조직을 제의하여 그들로부터 찬동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조직명을 교육노동자협의회라 정하고 일제에 대하여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를 달라고 요구하고 제국주의식 교육을 타도하기로 하고 일본식이 아닌 조선인 본위의 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행동강령으로 조선인과 일본인의 월급차별을 철폐하는 일에 앞장서기로 하고 의무교육을 확실히 실시해 줄 것을 요구키로 하고 학생들에게 반일사상을 고취 및 훈육을 정해 학기말 휴가철을 이용해 마산에서 회합하여 결사를 조직키로 결의하였다.

재판기록에 의하면 이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공명하여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한 권대형, 김계영의 사회주의사상에 간파되었다고 기록된 것은 일종의 덮어씌우기 작전으로 보인다.

김두영의 친형 김계영, 향리 출신 권대형과 교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한꺼번에 몰아가는 작태로 보이는 것이다.

1933년 3월 28일 마산 앞바다 해안에서 회합을 가지고 초안을 검토한 후 결사의 강경 및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점차 투쟁의 강도를 높이게 되었다.

휴가를 이용하여 공산주의 선전의 동지를 모아 조합을 확대 강화하는데 노력하고 각자 계급적 수양에 노력한다는 것과 일본인과 월급의 차별을 두는 것을 폐하고 국가가 의무교육제를 실시하고, 미신적인 것은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타파하며 반전사상을 고취하고 일본어를 국어화하는 일을 반대하는 등 구체적 투쟁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때 김경출 (울상 동면 출신), 신영갑 (창녕 칠곡면)은 1933년 4월 초순에 최명석의 집에서 협의회에 가입하자는 권유에 응하고 결사의 목적을 알면서 가입했다.

이와 같이 원대한 포부를 지닌 단체가 결성되었으나 그 당시에는 실현되지 못했고 일제 당국에 의해 접수되어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 사전에 발각 체포되었기 때문이다.

진주 사범학교가 일제를 위한 지식인 일제 당국의 기조를 그대로 따르는 자들을 키우기 위하여 만들었지만 교사로 나가 일제를 위한 주구가 될 인물이기를 원하였으나 반항적, 반일제 인사가 발생하리라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제당국은 엄청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경은 혹독한 고문을 가하여 대일본 천황이 사범학교를 세울 뜻을 아느냐라고 외친 것은 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사천시사(2003) 733면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문선면 서리(西里: 현 동서동)에서 출생

1933년 3월 경남 부산에서 비밀결사인 경남교육노동자협의회를 결성하고 학생들에게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등 항일운동을 전재하였다.

1933. 1. 2 부산에서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 동료교원 김두영(金斗榮) 등과 남산동에서 회합하고 비밀결사조직을 제의하여 그들로부터 찬동을 얻어냈다.

그들은 조직명을 교육노동자협의회라 정하고 언론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획득, 제국주의 교육타도, 조서인 본위의 교육실시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이에 구체적인 임금차별 철폐, 의무교육제도 실시, 반전사상 고취, 교내 일본어화 반대 등 35항안을 정하고 학기말 휴가를 이용하여 마산에서 회합하여 결사를 조직할 것을 결의하였다.

같은 해 3월 28일 그들은 마산 앞바다의 해안에서 회합하여 초안을 검토한 후 결사의 강령 및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김두영을 중앙부 책임 및 재정부원으로 선출하고 조직부원에 이화준을 선출하는 한편 운동지역인 경상남도를 중부, 동부, 서부로 나누어 책임자를 두어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다음날인 3. 29 교육노동자협의회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활동이 일경에 발각되어 1933. 10. 4 관련자 22명이 피체되면서 해체되고 말았다. 그는 이 일로 1934.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한국사회주의 운동인명사전>에 (1996년 발간) 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경남적색교원노조 부산지역 책임자 있다.

경남 사천 출신으로 부산진공립보통학교 교사를 지냈다. 1932년 3월 경남적색교원 노종조합결성에 참가하여 부산지역 책임자고 되었고, 1933년 10월 일본 경찰에 검거되었다.

1940년대 일제발 부산 마루보시(대한통운의 전신)에서 노동자 생활을 했고 해방 후 사회노동당에 입당했다.

<한국근현대지역운동사> 역사문제연구소 편찬의 기록을 보면

1946. 1. 31 민전 부산시 위원회의 결성을 시발로 경남에서도 각 지역의 비상국민 정치회의의 배격, 3·1운동 기념식, 협동조합의 결성을 당변 과제로 투쟁을 개시하기 위한 각 시·군의 민전결성 준비회 지부를 2. 15까지 결성하기 위하여 경남도민전 결성 준비위원회를 도내 각 시군 인민위원회 대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월 7일 오전 10시 도인민위원회에서 개최하고 동 준비위원 27명을 선거로 결정하였다.

사천에는 최명석, 진주에는 고경인, 진양에는 김주학, 하동에 박치화, 남해에 조상식, 산청에 민영길 등이 선출되었다.(민중중보 1946. 2. 8)

위 경남교원노조 사건에 관련된 22명 가운데 정부포상이 추서된 이들은 절반도 안된다. 어떤 이유로 미포상인지 모르지만 정부는 신속히 포상을 실시해주기 바란다.

최명석 선생은 건국훈장이 추서되었고 같은 삼천포의 이화준 선생은 미포상이고 정주영(합천), 강용운(함안), 정두명(고성), 신영갑(창녕), 이명상, 강용운, 장영수 선생 등 에게 정부포상이 실시되었다.

최명석 선생이 별세하자 후손들이 1980년 7월 21일 부산 주례동 153번지 옮겼으니 해방 이후부터 실제 살고 있었다. 부산으로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인은 서덕부(徐德富)이며 아들들은 정균(正均), 정훈(正薰), 정헌(正憲) 등이고 장손 영배(暎培) 등으로 부산 등지에 거주한다.

★ 참고문헌

동아일보 1933. 12. 12 호외 1933. 12. 13

동아일보 1934. 4. 22, 5. 31, 1934. 6. 28

가출옥 문서 중 재판기록 1935. 6. 25

경남항일독립운동 참여자록 마산보훈지청 2001년 155면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4권 국가보훈처 2000년 789면

한국근현대지역운동사, 역사문제연구소 1993년 151, 267면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강만길, 성대경 1996년 491면

사천시사 편찬위원회 2003년 733면

경남지역 3·1독립운동사 문화원 경남도지회 2007년 72면

동아일보 1995년 8월 9일

조선일보 1995년 8월 9일

산청항일운동사 추경화 2010년 314면

▣ 최범술(崔凡述) 선생

- 초명: 최영환(崔英煥) 법호: 효당(曉堂) 호: 금봉(錦峯)
- 생몰년월일: 1904. 5. 26 ~ 1979. 7. 10
- 출신지(본적): 경남 사천시 서포면 금진리(金津里)
- 공적요점
  - 독립선언서 일만매를 서부경남에 배포
  - 한용운 선생의 비밀결사에 동참
  - 일겨엥 피체되어 징역 6월형 언도
  - 일경에 수차례 검거되어 엄중조사
  - 다솔사와 광명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침
  -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중고생
  - 국민대학 이사장, 해인고 설립, 해인대학 설립
  - 사천, 삼천포 지역 제헌의원 당선(1948)
-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1986) 추서, 건국훈장 애족장(1990) 추서

최범술(崔凡述) 선생은 스님이며 법호가 효당(曉堂)이다.

초명이 최영환(崔英煥)인 최선생은 1915년에 곤양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다음해 1916년에 사천시 곤명면에 소재한 다솔사(多率事)로 출가했다.

환경선사에게 수계를 받았고 1917년 해인사 지방학림에 입학하여 열심히 배웠다.

1919년 3월 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자 경기고보(서울)에 유학 중인 최원형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받아 애국동지들과 함께 일만 부에 달하는 독립선언서를 등사(인쇄)하여 해인사 인근 합천, 하동의 경계 고향인 사천과 진주 일원에 배포하였고 해인사를 중심으로 애국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일경에 검거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고 혼절하고 진주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해인사 만세사건으로 징역1월 형을 언도 받고 옥고를 치렀다고 전해 온다. (부산경남 3·1운동사 498-500면)

출옥 후 1922년 6월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 물리학교에 진학하고 대정왕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대정대학 학부 예과를 수료했으나 확실한 졸업장을 받을 필요에 의해 대정대학 불교학과에 편입해 열심히 배우고 졸업장을 받았다.

유학생 출신이라 하여 명성학교 교장이 되고 조선불교 총무부장으로 활약하였다. 총본산제실시전 종법기초위원이 되어 불교계의 중심체 역할을 수행했다.

1922년 8월 항일투사 박열(朴熱), 박흥곤, 육홍균(陸洪均)(제헌의원) 등과 함께 불경 선인사를 결사하였고 같은 해 9월 일제 당국에 의해 대역사건으로 체포되어 8개월 간 예심에서 구속하였고 엄중한 조사와 혹독한 고문을 받고 혼절하였고 석방되었다.

사천 다솔사와 인근에 광명학교를 개설하여 1회에 20여 명씩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 당시 문맹률이 높아 마음대로 글을 읽고 쓰는 청소년이 별로 없었던(20%이하) 시기에 문자보급운동과 지식전달을 펼쳐 더 할 수 없는 공적을 쌓았다.

다솔사 내에는 불교전수강원을 개설하고 애국계몽운동을 실시했다. 다솔사 내외에서 실시된 광명학교와 불교 전수강원으로 강연이 일반과목 뿐만 아니라 애국·애족심을 고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경에 감시·감독을 받으며 수시로 보고해야 되는 실정이다.

광명학원은 곤명 봉계리에 소재했고 신학문을 가르치며 최범술이 1930년 민족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세운 학당으로 4칸 목조건물로 7년간 유지되었으나 1937년 일제에 의해 폐교되었다. 김동리, 언론계 신아통신 이상권 사장이 교편을 잡았다.

또 만해 한용운 선생과 김법린(金法麟) 김범부 등과 함께 만당(卍黨)을 결성하여 비밀활동을 전개했다.

겉으로는 일제에 협조하는 것처럼 하고 속으로는 독립군과 접촉해 차비를 손에 쥐어주고 군자금을 제공하기도 했다.

중국과 만주로 건너가 일본군으로 들어가 고생하는 조선인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조선인 군인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조국의 광복이 멀지 않았음을 은밀하게 알려주기도 했다.

귀국 후 조선불교청년 동맹중앙 집행위원장으로 활약하기도 했으며 기관지를 등사해 배포하기도 했다.

1942년 7월 김범부(金凡父) 김법인(金法麟) 등과 해인사, 다솔사 등에서 만당 활동을 하며 군자보급운동을 통해 불교사상과 애국계몽운동을 통해 문맹률을 높이는데 공을 쌓았다.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홍원 경찰서에 구금되는 등 수차례 구금 석방이 계속되었다.

1945년 8월 광복절을 맞이하자 해인사 경내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이제야 조국의 광명이 찾아왔다고 기뻐하며 춤을 추었다고 전해온다.

해방 후 해인사 주지승, 재단법인 불교중앙재단이사, 재단법인 가야총림이사, 국민대학 이사장을 역임했다.

1948년 5월 10일 전국적으로 제헌의원을 뽑을 때 사천 삼천포 지역구에 출마하여 당당히 당선되었다.

이때 최범술 선생은 16,685표를 득표하여 당선되었다.

그러나 2년 뒤에 실시된 2대 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1950년 5월) 사천시사

합천군지에 실린 내용 일부를 인용해 본다.

송복만(宋福晩), 송복용(宋福龍), 최범술(崔凡述) 등은 합천, 남가, 초계, 의령, 진주, 사천, 곤양, 하동지역을 책임맡아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지방의 동지 박운포, 이석순, 이승기, 조우제, 강달영, 손지환, 임응주 등과 합세하여 크게 활약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1931년 2월 불교 비밀결사 만당이 조직되자 해인사 학생출신 강재호, 이용조, 장도환, 박근섭, 최범술 등은 당원이 되어 김법린, 허영호, 박윤진, 박영희 등 18인과 같이 한용운 아래에서 계속 활약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해인사 주지 변설호의 밀고로 임환경, 최범술, 오제봉, 박인봉, 최동운, 김주성, 민동선 등 30명이 검거되어 옥고를 치르고 이고경(李古鏡)은 감방에서 옥사하였다.

그 뒤 최범술, 김범부, 김법린은 해인사와 다솔사 등에서 학생들에게 한들을 가르쳤고 그러다가 조선어학회사건으로 홍원, 함흥 등 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 참고문헌

독립운동사 제3권 336면
독립운동사 제8권 878, 881면
독립운동사 제9권 264-295면
독립유공자공훈록 제2권 1986년 290면
독립유공자공훈록 제8권 285, 534-535면
부산경남 3·1운동사, 3·1동지회 1979년 498-500면
경남항일독립운동 참여자록 마산보훈지청, 이대수, 2001년 156면
사천시사 상권 편찬위원회 2003년 734면, 896면
항일투사열전 2권 1997년 추경화 156-157면
사천군지 1990년 편찬위원회
대한매일신보 1907년 9월 4일
일제하 사회운동 색인집 상권 1992년 2146면 열사문제연구소
일제강점기인명록, 김경현 2005년 556-559
곤명면지 편찬위원회 1987년, 354-355면
독립운동사적지 2010년,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421면, 427면

▣ 최봉조(崔奉祚) 선생

- 이명: 최봉조(崔奉祚)
- 생몰년월일: 1888. 8. 22 ~ 미상
- 출신지(본적): 경남 사천시 읍동면(정동면)
- 공적요점
  - 1928년 4월 봉천에서 군자금, 모금을 계획
  - 권총 1정을 국내로 가져오다 피체
  - 1931년 7월 신의주거법에서 징역 10월형 언도
  - 고문후유증으로 수년간 고생
- 정부포상: 건국포장(2011년) 추서

최봉조(崔奉祚) 선생은 경남 사천시 정동면에서 태어나 사천 일원에서 전개된 3·1운동을 목도하고 시위에 동참하면서 애국애족심이 발현되었다.(그 당시 22세)

국내에서는 항일투쟁이 어렵다고 보고 1928년경 무작정 만주로 건너갔다. 만주 요녕성 봉천(奉天)에서 애국동지 김여련(金汝璉)을 만나 현 시국에 대하여 토론 토의를 해보니 뜻이 통하였다.

무기를 구입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함에 필요함을 자각하고 권총 1정을 구하였다. 이어 탄환 14발을 준비하여 압록강 신의주를 거쳐 국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한·만 국경지대에서 바로 검거 피체되고 말았다.

동아일보 1930년 11월 27일, 11월 28일 자에 상세하게 보도되었다.

김여련은 먼저 체포되어 평양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7호 위반으로 징역 15년형이 언도되어 옥고를 치르고 있었다.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 하여 심한 고문을 받고 혼절했다. 최봉조 선생은 1931년 7월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이 언도되어 신의주형무소에서 약 1년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최봉조 선생의 공적을 기리어 2011년에 건국포창을 추서하였다.

★ 참고문헌

신분장지문조회서
동아일보 1930년 11월 27일, 11월 28일, 1931년 7월 26일, 10월 12일, 10월 15일
독립유공자공훈록 제 20권 국가보훈처 1012년 524면
조선일보 1930년 11월 25일, 1931년 7월 1일, 12월 17일

▣ 최연종(崔演鍾) 선생

- 이명:
- 생몰년월일: 1925. 6. 4 ~ 1999. 11. 24
- 출신지(본적): 경남 사천시 사천읍 용당리(龍塘리) 193
- 공적요점
  - 도면을 보고 연삭(硏削)하는 최긴기술로 진해 항공창에 취업
  - 진해 해군 항공창 근무중 일심회를 항공결사대로 발전시킴
  - 사전에 발각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음
  - 군법회의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5년 확정
  - 1947년 11월 부산감옥에서 석방
  - 1960년 이후 초등학교 교장 역임
-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 (1982) 수상, 건국훈장 애족장(1990) 수상

최연종(崔演鍾) 선생은 사천에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 당시로는 첨단기술인 도면을 보고 연삭(硏削) 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배워 진해 항공창에 취업할 수 있었다.

1943년 경남 진해시 일본군 제 1 해군항공창에서 군속으로 근무하였던 그는 독립운동을 펼 것을 결심하고 동년 박준기(朴準基), 김차형(金此炯), 김병길(金秉吉) 등 11명의 동지와 함께 친목을 가장한 항일결사 일심회(一心會)를 조직하였다.

동회는 연합군이 진해에 상륙할 따ㅐ 무장봉기하여 항공창을 점령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한 준비활동으로

첫째, 일제의 항공기 생산을 방해 또는 지연시키고

둘째, 한국인 기술자의 처우개선을 주장하며

셋째, 일본인 노동자를 배척하고

넷째, 한국인 노동자의 항일투쟁 의식을 고취하기로 하였다. 또한 항공창의 항공기와 변전소를 폭파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던 중 동회의 조직이 노출되어 1944년 1월 11일 일경에 피체되었다.

그는 4개월간에 걸친 가혹한 고문을 당한 후 1944년 7월 12일 군법회의에서 소위 치안유지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언도 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출옥하였다.

박준기 진주출신 1917 ~ 2004 징역 3년

김차형 창원출신 1924 ~ 1994 징역 3년

김병길 창원출신 1924 ~ 2010 징역 1년 6월

위 4명은 모두 건국훈장 애족장 (1990년 추서되었다.)

<부산경남 3·1운동사> 1979년도에 3·1동지회 발행, 내용을 그대로 옮겨 본다.

최연종(崔演鍾)은 진해(鎭海)에 있는 日本의 제51해군항공창(海軍航空廠)의 군속으로 일하고 있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엄연한 차별대우가 있었다. 동일한 직종에 종사하여도 보수의 차는 엄청났고 일은 갑절로 해야 하는 불공평한 일들이 비일비재였다. 한국인(韓國人) 군속들의 불만은 이 차별대우에서 싹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일인(日人) 군속과의 차별대우 등의 개선을 요구하고 한국인(韓國人) 군속끼리의 친목을 도모한다는 취지아래 마침내 「일심회(一心會)」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회원이 11명이며 회장은 김차형(金此炯)이었다.

전쟁이 가열의 도를 더하니 日人들의 인간차별도 더욱 혹심해졌다. 따라서 일심회(一心會) 원들의 불만 또한 더욱 고조되어 갔다. 이때에 회장 김차형(金此炯)과 간부인 최연종(崔演鍾), 김상태(金尙泰) 등은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되었다. 군속이라는 그들의 위치는 결과적으로 한민족이 원수인 日本軍의 전쟁수행을 돕는 길이다.

최연종 선생은 서부경남지역에서 초등학교 교감, 교장을 역임하며 애국애족심을 고취하고 항일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 교육하였다.

1999년 11월 24일 최연종 선생은 경남 사천군 사천읍 용당리에서 별세하여(사천공항 남쪽 마을) 1999년 11월 26일 대전국립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제2-825에 안장되었고 부인 이성녀는 그 뒤에 안장되었다.

후손은 진주시 명석면 소재 동양콘크리트 대표가 있었다.

★ 참고문헌

부산형무소 종결신분장 보유부 (1944년 7월 12일)
부산경남 3·1운동사 3·1동지회 1979년 823-824면
경남항일독립운동 참여자록 마산보훈지청 2001년 157면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7권 국가보훈처 1990년 290, 694면
일제하 사회운동색인집 역사문제연구소 1992년 2174면
사천시사 편찬위원회 2003년 734-735면
항일투사열전 2권 1997년 100면 참조 추경화
독립유공자 증언자료집 2권 2002년 8월 28일
한국독립사 김승학 1971년 371면
독립운동총서 인명록 윤택중 1995년 204면
한국독립사 독립동지회 1983년 908면
서울신문 2004년 9월 14일
조선일보 1968년 2월 20일. 2004년 8월 13일
한국일보 2004년 9월 13일
경향신문 2005년 3월 2일
문화일보 2004년 9월 14일
진주신문 1997년 9월 1일

▣ 최원형(崔垣亨) 선생

- 이명: 의사(義士)
- 생몰년월일: 1901. 3. 13 ~ 1945. 2. 9
- 출신지(본적):경남 사천시 서포면 맥사리(현 곤양면)
- 공적요점
  - 부친의 국채보상운동을 보고 성장
  - 경기고보 재학 중 3·1운동 참가하고 퇴학처분
  - 일본상지대학 특법과 재학 중 항일운동
  - 임시정부를 위해 자금조달
  - 밀서를 보내고 발각되어 일경에 피체
  - 정치범으로 징역 5년형 확정
  - 혹독한 고문으로 혼절하고 옥중 순국
- 정부포상: 건국포장 (1977) 추서, 건국훈장 애족장(1990) 추서

경주최씨인 최원형(崔垣亨)선생은 경기고보 재학 중 3·1운동 참가하고 퇴학처분 되었다.

일본에서 대학 재학 중 밀서를 국내로 보내다가 피체되어 정치범으로 징역 5년형을 언도받고 혹독한 고문으로 옥중 순국했다.

최원형 선생의 부친 최채술(崔采述) 선생은 국채보상운동에 동참한 하였다.

1907년 전국적으로 전개된 국채보상운동 즉 일제에 진 빚을 갚아 국권을 회복하자는 운동으로 남녀노소, 신분고하, 종교불문 불구하고 27만 명이 십시일반으로 연보한 사건으로 최원형 선생의 부친도 보상운동에 앞장서서 활동한 근거가 발견된 것이다.

곤양 남산기슭 맥사리에서 정기를 받아서 애국지사 최원형 의사가 고고히 세상에 태어났다. 경주 최씨로 어릴 때를 맥사리에서 살았다. 父의 이름은 최채술(崔采述) 모는 이천서씨(李川徐氏)의 슬하에서 태어났다.

1901년 3월 13일 5세에 천자문 사략을 읽혔으며 매우 총명하고 슬기로웠다. 11세에 곤양보통학교에 입학하니 곤양출신 조우제 선생이 교사로 근무 중이었다.

조우제 선생은 항일교육을 실시하여 애국애족을 훈육하시니 뒤에 항일투사란 이유로 방출된 분이다.

최원형 선생은 11세(1912년)에 곤양보통학교에 입학하여 4년의 수업을 마치고 1916년 경기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여 졸업을 앞두고 3·1독립운동에 참가하고 피체되었고 동대문경찰서에서 6개월간 엄중한 조사를 받고 감금되었고 학교 당국으로부터 퇴학처분을 받았다.

곤양으로 돌아와 숙부 최범술에게 독립선언서를 전달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널리 보급했다. 일경에 체포되어 갖가지 악형에도 주치하지 않았다. 출옥 후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했다.

일본으로 건너가 청산학원 중학부에 편입하니 최범술도 함께 유학을 하게 되었고 상지대학(上智) 독법과에 입학 1935년에 졸업했다. 이때 임시정부 주일 외교 관계 담당으로, 미·영,·불 사절로 활약, 요 시찰 인물로 왜경에 피검됨이 수십차례 였다.

임정 자금조달을 위해 밀서가 귀향하는 소녀편에 의탁하였으나 일경에 발각되어 동경에서 피체되었다.

부산에서 재판 중 부산형무소 정치범으로 5년 징역형이 언도되자 조선인이 조선독립을 위함이 무슨 죄가 되느냐고 항의하였다.

최원형 선생은 거물 정치범으로 취급되어 단독범이라고 악형을 더하고 부산에서 대전형무소로 옮겨 복역, 고문후유증으로 고생 중 1945년 2월 8이라 혹한으로 옥중에서 돌아가시니 순절, 순국이다.

이상은 1968년 광복절에 곤양군 면사무소 동편 입구에 세워진 의사 최원형 기적비(紀績碑)의 내용을 인용해 기록했다.

최원형 기적비는 수당(收堂) 김종하(金種河) 지음(作)

광산 후인 김영건(金永乾) (쓰다) (書) 의사 기적비 개수건립 추진위원회에서 건립했다.

<사천시사>의 기록을 옮겨 본다.

서포면 맥사리(脈社里: 현 곤양면)에서 출생.

1919년 경기고보 4학년에 재학 중이던 그는 3·1운동이 일어나자 이에 참가하여 만세시위를 벌였으며, 그 길로 독립선언서를 간직한채 고향으로 내려가 당시 해인사 지방학림의 학생이던 최범술(숙부) 등에게 전달하고 독립운동을 벌이다가 피체되어 고초를 겪었고 1921년 일본으로 유학한 후에도 유학생들과 서로 연락하여 독립운동을 계속하였다.

1941년 일제가 진주만을 기습공경하고 태평양전쟁을 도발하자 이를 조국독립의 호기로 생각한 그는 독립운동자금을 마련하고자 일본에서 귀국하는 한 소녀를 통하여 고향 친구이며 자산가인 정재홍(鄭在洪)에게 독립운동자금 5천원을 송금해 달라는 밀서를 보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이 일경에 밀고됨으로 인해 1942년 2월 일본에서 피체되어 경상남도 경찰부로 압송되었다. 그는 무수한 악형과 고문에 시달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1942년 6월 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5년형을 언도 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1945년 2월 8일 대전형무소에서 옥중 순국하였다.

1977년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1990년에는 훈격내용의 변경에 따라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1945년 2월 8일 순국, 순절한 최원형 선생은 향리에 묘소를 조성했다가 1994년 10월 21일 대전국립현충원 애국지사 2묘역 2-269에 안장되었다.

최원형 선생의 부인은 삭녕최씨(崔貴太)
장남 최영용(崔英鎔) 자부 김양식(金良植)
차남 최삼용(崔三鎔) 자부 강현숙(姜賢淑)
장녀 환자(丸子) 서(사위) 조패롤트
차녀 옥자(玉子) 사위 김복기(金福起)
장손 태웅(泰熊) 손부 이혜결(李惠京)
차손 최태상(崔泰象), 최태진(崔泰珍)
손녀 은정 손서 정연철(鄭然哲)
종손 최우영(崔佑榮), 최미성(崔娓晟)

★ 참고문헌

제적등본
한국독립사 1983년 편찬위원회 938면
독립유공자공훈록 제7권 국가보훈처 1990년 694-695면
부산경남 3·1운동사, 3·1동지회 1979년 498, 822면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마산보훈지청 이대수 2001년 158면
범죄인명부(서포면사무소)
사천시사 편찬위원회 2003년 735면
일제하 사회운동색인집 하권 역사문제연구소 1992년 2189면
사천군지 1990년
(부산 울산 경남) 독립운동 사적지 국가보훈처독립기념과 2010년 421면

▣ 하익봉(河益鳳) 선생

- 이명: 하상일봉(河上益鳳)
- 생몰년월일: 1926. 8. 7 ~ 1945. 5. 21
- 출신지(본적): 경남 사천군(삼천포) 선구리(동) 43-5
- 공적요점
  - 진주고 재학 중 광명회 조직
  - 울산, 진해 비행장 축소공사에 동원되자 불만고조
  - 11명의 진고 학생들이 일군(日軍)에 피체
  - 부산교도소에서 약 6개월간 옥고중 고문후유증으로 19세때 순국
- 정부포상: 건국훈장 애족장 (2010년 3월) 추서

하익봉(河益鳳) 선생은 경남 사천군(시) 삼천포 선구리(동) 43-5번지 출신으로 진주시로 이주해 살면서 진주사범학교 부속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부친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어머니, 할아버지, 형과 함께 살면서 삼천포 선구동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하상진(河上進) 숙부의 추천을 받아 진주고등학교에 입학했다.

하익봉 선생은 진주고등보통학교 광명회 사건의 주동 인물이다.

1944년도에도 진주고등학교 4,5학년 3백여 명이 울산 비행장 축소 공사에 투입되어 한 달간 노예처럼 일하고 여름방학을 잊은 채 진해 제조창 건설공사에 투입된 학생 수가 1천여 명이었다.

이때 항일애국정신이 투철했던 학생들이 모여 1944년도에 영어, 역사 공부를 한다는 명목으로 광명회(光名會)를 만들었으니 11명이다. 강필진, 김상훈, 김용실, 유한성, 박노근, 장선택, 전용순, 정규섭, 정원혁, 조용, 하익봉이다.

어느 날 갑자기 군용트럭이 나타나 광명회원 11명을 검거해 끌고 갔다. 진해 육군 헌병대 취조실에서 혹독한 고문을 시작했다. 유치장과 취조실을 오간 지 40일 만인 1944년 11월 2일 8명이 부산지검으로 송치되었다.

하익봉(河益鳳) 선생은 가장 앞장서서 광명회를 이끌었다는 이유로 혹독한 고문을 가하기 시작했다.

기록보존소에 있는 입소자명부 원본에 의하면 박노근, 정규섭, 강필진, 전용순, 장선택, 김용실, 김상훈, 유한성 8명이 1944년 11월 2일 부산형무소에 입소 했다는 기록이 있다. 모두 1945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석방되었으나 하익봉 선생은 1945년 5월 21일 옥중에서 사망, 순국했다.

강필진 선생은 사상범 피의자로 관련되었다고 기록이었고 1946년 6월 20일 졸업장을 받았다. 정규섭 선생은 진주의 나동면 귀곡리 253 출신으로 1928년 6월 20일생이나 정규섭 선생은 초등학교 교사를 지내고 진주시민상도 받았다.

하익봉 선생은 순국이 인정되어 동급생보다 높은 등급의 훈장이 추서되었다

포상신청 후 10여 년 만에 결국 성사되었다.

★ 참고문헌

부산구치소장 발행 2009년 4월 29일자 입소확인서
진해헌병대사건 지주고 동창회작성
경남신문 2005년 2월 28일, 10월 13일, 2006년 2월 15일, 9월 26일, 8월 24일
진주고등학교 학적부
진주항일운동사 추경화 2008년 391면, 470-471면, 478-525면
부산구치소장 발행 1995년 4월 29일자 발행 입소확인서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9권 국가보훈처 2000년 506-507
대구신문 2010년 3월 1일
오마이뉴스 윤성효기자 2010년 2월 28일
부산일보 2010년 2월 26일
경남도민일보 2010년 2월 26일, 3월 2일, 3월 17일
경남도민신문 2018년 6월 7일
산청항일운동사 2010년 추경화 183-184면, 252-253면
진고 80년사 2005년 129-137

▣ 하치량(河致亮) 선생

- 이명: 하본량(河本亮)
- 생몰년월일: 1922. 5. 18 ~ 1950. 9. 29
- 출신지(본적): 경남 사천시 사남면 죽천리(竹川里) 324
- 공적요점
  - 일본대판에서 항일결사 백두회 조직
  - 친목과 협력으로 조선의 독립을 기한다
  - 민족의식의 고취, 항일활동의 전개
  - 경북 청도에서 피체되어 혹독한 고문으로 혼절
  - 1944년 대구지법에서 징역 3년형 언도
  - 고문후유증으로 28세 때 사망, 순국
- 정부포상: 건국훈장 애족장 (1996) 추서

하치량(河致亮) 선생의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인 : 하치량 외 3인 각 징역 3년에 처함

이유

피고인 하치량은 본적지 사천 사남에서 소학교를 마치고 소화 13년에 고학할 뜻을 품고 일본 대판에 건너가서 대판시립 계천실업학교 전수과를 마치고 대판부립복야 제 2중학교 야간부에 입학하여 고학 한 끝으로 소화 18년 3월 학교를 졸업하였는데 그가 일본에서 조선인에 대한 언동을 듣고 본 바로는 이는 대단히 차별적이라고 보고 차차 민족의식이 농후하게 되어 결국에는 조선의 독립을 열망하게 된 자이며 이는 조선으로 하여금 일본제국의 통치로부터 이관하여 독립하고 그러므로 국체를 변혁케 할 것을 기도하였다.

피고인 하치량은 소화 19년(1944) 7월 7일

대구지방법원 형사부 재판장 조선 총독부 판사

<독립유공자공훈록> 체 14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경남 사천이다. 1942년 일본 대판 복야 제2중학교 유학생으로 정승한(鄭承漢) 등 5명과 함께 항일결사인 백두회(白頭會)를 조직, 활동했다.

하치량은 경남 하동에서 소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대판시립 계천실업학교를 거쳐 복야 제2중학교에 재학 중 한국인에 대한 일본인의 심한 멸시와 차별을 경험하면서 독립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항일의식을 키워나갔다.

그리고 1945년 5월 그는 삼천교 근처 제방에서 평소 절친하게 지내던 동교생 정승한, 안갑시(安甲時), 박희열(朴喜烈), 김병기(金炳基) 등과 비밀별사 백두회를 조직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북야 제2중학교 3,4학년 한국인 학생인 학생 전원을 회원으로 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력을 도모하며 한국문화를 개발시켜 앞으로 독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하치량은 한국인 학생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조직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등 항일활동을 전개시켜 나갔다.

그 후 하치량은 1943년 3월 복야 제2중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하였지만 그가 조직한 백두회는 계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오다가 일경에 의해 그 전모가 발각되었다.

1944년 2월 그는 고향 사천에서 경북 청도 경찰에 의해 피체되었다. 그는 이 일로 1944년 7월 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임시취제법 등으로 징역 3년을 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광복이 되어 출옥하였다.

★ 참고문헌

대구지법판결문(1944년 7월 7일)
사천문화 3호 2000년 161-165면
독립유공자 공훈록 14권 2000년 824면
신분장지문조회서(경찰서)
형사사건부(대구지법 판결)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2001년 마산보훈지청 164면
사천시사 2003년 편찬위원회 736면

▣ 한용운(한용운) 선생

- 속명: 봉완(봉완) 법명: 용운(용운) 법호: 만해(만해)
- 활동지: 사천 다솔사, 합천 해인사(원적: 충남 홍성군)
- 생몰년월일: 1879. 7. 12 ~ 1944. 5. 8
  1879. 8. 29 ~ 1944. 6. 29
- 공적요점
  - 민족대표 33인이며 불교인
  - 1905년 백담사의 승려
  - 불교학원 강사, 불교대전 저술
  - 1916 월간 유심(惟心)발간, 계몽운동을 전개
  - 독립청원서를 독립선언서로 변경하고 공약삼장을 첨가시킴
  - 다솔사와 해인사에 독립선언서 전달
  - 일경에 피체,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형 확정
  - 1927년 신간회 중앙집행위원, 경성지회장
  - 1931년 조선불교청소년 동맹위원장 활약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
- 정부포상: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1962) 추서

법호 : 만해(萬海, 卍海), 본명 : 정옥(貞玉), 아명 : 유천(裕天)

한용운(韓龍雲) 선생은 민족대표 33인으로 널리 추앙되는 분이다. 아버지는 한응준(韓應俊)이다. 14세에 성혼식을 하고 4세-14세까지 한학을 배웠다.

출생지는 충남 홍성군이며 4세 때 임오군단이 있었다. 항일투쟁대열에 있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설악산의 오세암(五歲庵)으로 들어갔다. 백담사에서 연곡(連谷)을 스승으로 하여 득도했다. 만주로 건너가 간도 일대에서 조국 광복을 위하여 많은 인사들을 만났으니 그 당시에는 광복운동이 적극성이 없고 모두들 헛구호 뿐임을 알고 실망하고 귀국했다.

1905년(광무) 강원도 인제군에 소재한 백담사(白潭寺)에서 승려가 되었다.

깊은 산중으로 출가, 입산하였으나 전국에서 애국독립지사들이 찾아 왔다.

조국이 없는 백성은 서러운 것이며 백성은 애비 없는 고아와 다름없는 비애가 있음을 강조하며 조국 광복을 위해 여러 방책을 논의했다.

1910년 8월 일제가 강제적으로 한일 병합을 실시하자 금식, 탐식을 실시했고 중국으로 건너가 독립군 군관학교를 방문하여 격려, 위로하고 만주를 거쳐 시베리아까지 답사하며 조국 없는 서러움을 토로했다. 박은식, 이시영, 윤세복 등과 교류하며 독립운동을 하였다. 채근담 주해본을 저술했다. 이때 대승불교의 반야사상에 입각하여 종래의 무능한 불교를 개혁하고자 외치고 불교와 불교도들도 현실참여를 실시해야 된다고 강조하여 많은 감동을 주었다.

1916년부터 서울의 종로구 계동(桂洞)에서 불교계 월간지 유심(惟心)을 발간하여 불교정신을 알리고 민중계몽사상을 널리 펼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였다. 이후 계속해서 서울에 거주하면서 문화계몽운동과 애국애족심의 고취에 힘쓰니 많은 이들이 존경했고 전국에서 찾아와 자문을 구하였다.

1919년 2월 24일 손병희, 권동진, 오세창 등과 만나 독립운동의 시작에 대하여 의논하고

최린 선생으로부터 독립운동에 관한 계획안을 듣고 최남선, 이관 선생 등이 기초한 독립선언서와 고지문, 기타문서 등의 기초 안을 읽고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독립선언서의 수정을 도우고 공약삼장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여 시행케 했다.

합천 해인사에 머물고 있던 승려 백용성(白龍城)에게도 진행 사항을 알리고 경남 일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장서 달라고 연락하여 승낙을 받았고 민족대표로 서명 할 인장을 대신 받기도 했다.

손병희, 최남선 등이 독립선언서를 기본으로 작성할 때 독립간청서 또는 독립청원서라는 이름으로 선포하려는 것을 즉시 강력하게 <독립선언서>로 수정할 것을 주장해 관철시키고 또 공약삼장(公約三章)을 첨부함으로써 결의 넘치는 의미가 되도록 지도하였다.

2월 27일에는 다시 최린을 찾아 방문하여 민족대표로 서명날인 하였고 해인사 백용성으로부터 위임받은 도장으로 서명날인 하였으므로 민족대표 33일 가운데 불교인 2명이 동참하게 되었다.

3월 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인사동 태화관에 모인 민족대표를 대표하여 한용운 선생이 인사만을 하고 독립선언식을 끝내고 탑골공원에서도 <독립선언서>를 낭독케 했다.

독립선언서를 낭독 직후 일경이 출동하여 33인들이 체포되었고 엄중한 조사와 고문을 받았다. 미결기간을 거쳐 경성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1920년 10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이 언도되어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게 된다.

동아일보 1921년 12월 23일자 3면 1란에 의하면 최린, 함태영, 오세창, 권동진, 이종일, 김창준, 한용운 등은 22일 오후에 가출옥하여 이인환, 오화영, 이갑성 등은 재감 중이라고 했다.

동아 1921년 12월 24일 옥중감상이 실렸다. 지옥에서 극락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 소설 불교계에서 명성이 높은 한용운 씨(사진 등재)라고 소개했다.

조선일보 1922년 12월 7일 2면 5단에 의하면 후진을 위하여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민립대학 설립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기 위한 포고문의 선포되었는데 준비위원들은 이상재, 한용운, 장덕수, 송진우 이었고 한달 만에 3백 여명이 동참하고 각 시, 군 발기인 대회가 개최되고 서부 경남에서도 진주를 중심으로 산청ㆍ사천에서도 발기인대회가 개최되었고 한용운 선생이 1922년 4월에는 민립대학 설립을 위한 대강연회가 개최되었는데 강연 내용은 역사가 있는 우리 문화를 빛내자 였다는 것이다. (1923년 4월 10일 3면 5단)

<한국근대 민중운동사> (1989년 한철희 지음)에 다음과 같이 민립대학설립 운동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표현했다.

1922년 11월에는 일제의 관립 경성제국대학 설립에 대응한다는 기치 아래 이상재, 현상윤, 한용운, 이승훈, 허헌, 송진우, 장덕수 등 1천여 명이 넘는 전국의 유지들이 민립대학 기성준비회를 조직하였다.

발기 취지는 “지식의 기갈과 교육의 낙오가 이천만 공명(共鳴)의 최대문제이지만 국내에는 그 지식욕을 충족시킬만한 고등교육기관이 없으므로 수천의 학생들이 매년 수백 만원의 학비를 유출시키면서 해외로 유학하는 실정 속에서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제일의 동기로 삼기

로 했다고 밝혔다.

이 운동은 물산장려운동과 비슷한 시기에 전개되어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으나 역시 큰 성과를 보지 못하였다.

각지에 순회강연회를 열면서 참가를 호소하였지만 취지 자체에 관념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자금이 모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과다한 문명인구의 퇴치가 우선적 과제이고 고등교육은 그다음 문제라는 이유로 사회주의자들의 거센 반발을 받았다. 고등교육을 받을 대상자가 미미했고, 교수진, 경영방식, 구체적 내용이 부족해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말았다.

1924년 11월 1일 '생이냐 사(死)냐' 라는 전제의 계몽 강연을 실시할 때 김종범은 사생구생(死生求生) 스스로 살자

현상윤 일일교육 - 사회교육도 급무

이돈화 단결하자 다른 길은 없다

한용운 가르치자 이 길이 제일

조봉암 합치어야 살길이 있다

서정희 약자상결(弱者相結) 유일의 살길 등의 제목으로 강연했다.

조선일보 1929년 1월 13면에 조선청년에게 고하는 글이 실렸다.

한용운 선생은 출옥 후에도 조국의 독립과 애국계몽을 위하여 애쓴 기록을 볼 수 있으며 민립대학을 설립하여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자 했다.

1926년 시집 「님의 침묵」(총 88편)을 발간하여 독립의지를 나타내고 저항문학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

1927년 2월 서울 YMCA에서 설립된 항일단체인 신간회에 가입하여 중앙집행위원이 되었고 경성지회장을 겸하였다. 광주학생 의거 후 민중대회를 개최하고 구국운동체인 만당(卍黨) 비밀결사를 조직했으나 일제의 감시를 벗어나고자 다솔사로 옮기자 김범부, 김법란, 최범술, 문영빈, 이기주, 설창수, 강달수 등이 찾아 왔다.

1931년 조선불교청년회를 조선불교청년동맹으로 개칭하여 불교를 통한 청년운동을 전개, 강화하였다.

1931년 월간지 <불교>를 인수하여 많은 논문을 발표하여 불교의 대중화, 호국불교 그리고 항일독립 투쟁의 정신을 널리 고취한 공적이 심대하다. 1931년에 다솔사 주지는 최범술인데 주지를 맡게 되면서 다솔사를 중심으로 독립지하조직인 만당(卍黨)이 조직되었는데 한용운 선생이 당 대표였다.(1938년)

1939년 다솔사에서 회갑 자축연이 있었다. 이시영, 최범술, 신재호, 정인보, 홍명희 등과 친하였다. 신채호의 비문을 지어주었다.

한용운, 최범술, 백성욱, 김범부, 김법린, 이용근, 문영빈, 김상호, 박근섭, 장도환 등은 일제의 감시망을 피해 다솔사로 들어와 활동했는데 일경에 의해 시도 때도 없이 감금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소설가 김동리도 한용운 선생의 영향을 받아 글을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솔사 일원에 전해오는 전설을 중심으로 한 글이(황토가)이고 다솔사에 있었다.

소신대를 바탕으로 한용운 스님과 김범부가 최범술 3명의 소신공양에 대한 Story에 글 재주를 더해 쓴 글이 유명한 <등신불>이다. 또 소설가 김동리의 결혼 일화를 듣게 된 제자 박경리가 들었고 그 후 <소설 토지>를 쓸 때 참고했다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진주항일운동사>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신간회 본부 창립> 신간회(新幹會)라는 애국단체는 1921년 2월부터 1931년 전반기까지 존속한 민족협동정신으로 일제의 묵인하에 결성된 전국최대규모의 항일운동단체였다.

신간회의 뿌리는 (조선청년연합회)와 무산자 동맹회라고 할 수 있으며 그 후 사상단체들이 모여 만든 정우회(政友會), 서울 청년회, 조선민흥회 등이 하나의 구심체를 이루어 자치운동으로 정환하려는 움직임이 곧 신간회를 창립케 했다.

오산학교 교장인 홍명희가 신석우, 안재홍, 신재호, 권동진, 박동환, 한용운 등의 찬동을 얻어 고목에서 순이 나온다 라는 말에서 취하여 신간회라는 단체명을 정하였다.

이날 창립대회는 28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했으니 방청객까지 합치면 1천여 명이 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조선일보 부사장(후에 사장) 신석우가 임시의장이 되어 서기, 사찰 등을 선출하고 회원 점명이 있은 후 조선민흥회와 협동한 경과보고가 있었다.

1967년 용운당(龍雲堂) 만해(만해) 대선사비가 서울 파고다공원에 건립되었다.

만해 선생의 시집 「님의 침묵」은 김소월의 「진달래 꽃」과 함께 널리 애송되어 그의 민족정서의 깊은 사상은 조국의 아픔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주옥같은 옥편이다.

만해 선생의 전집간행위원회가 조직되었으나 여러 사정으로 계속 밀리다가 최범술, 민동선, 김관호, 문후근, 인권한, 이철우, 이화형, 박노준, 조위규 등에 의하여 재구성되어 1975년에 한용운 전집(全集) 6권이 발행되었다.

★ 참고문헌

신간회 연구 이균영 1993년 42, 57, 94, 96, 101, 208, 209, 297면

독립유공자공훈록 제2권 1986년 국가보훈처 413면

기려수필 송상도 235, 413면

박은식 전서(上) 514면

무장독립운동 비사 21면

일제침략하 한국 36년사 167, 391면

민족독립투쟁사료(해외편) 12면

명치백년사 총서 김정명 제1권 307, 309, 853면

조선독립운동년감 2면

고등경찰요사 경찰국 18, 22, 49면

독립운동사 2권 국가보훈처 71, 77, 91, 102면

독립운동사 3권 국가보훈처 135, 187, 338면

독립운동사 3권 국가보훈처 644면

독립운동사 9권 국가보훈처 166, 262, 266, 576, 792면

독립운동사 10권 330, 338, 714, 752, 753, 768면
독립운동사 자료집 5권 12-50면
독립운동사 자료집 12권 273-293면
독립운동사 국가보훈처 13권 88, 239, 255, 1002, 1717면
독립운동사 국가보훈처 14권 292, 294, 341, 840, 841면
한국독립운동사 문일문 88-148, 174, 225, 485면
한국독립사 김승학 하권 296면
곤명면지 1987년 361-364면
진주항일운동사 추경화 2008년 32-33면
한국근대민중운동사 한철희 1989년 306, 313, 369
독립운동사적지 부산경남울산 2010년 국가보훈처 427면
계몽운동 조선일보 1924년 11월 1일
조선일보 문학 1929년 1월 1일
조선일보 문화재 1931년 7월 8일
민립대학 설립운동 조선일보 1922년 12월 7일, 1923년 4월 10일(사진게재) 1932년 1월 8일
신간회-민중대회사건 조선일보 1929년 12월 4일, 12월 28일(나의 추억) 1928년 12월 7일 ~ 12월 9일

제2장. 미포상 항일투사(102)

강대진(姜大振)선생

경남 사천시 (삼천포) 동림동 131번지 출신이다. 생년월일은 1916년 3월 27일이다.

1930년대 일제는 조선을 대륙 병참기지로 삼으려 할 때, 흥남. 원산. 함흥에서 활발하게 노동운동이 일어났다. 이에 1931년부터 적색노동운동으로 체포된 이들이 1759명이나 되었다.

1930년대 항일운동 노동운동이 비합법적 운동으로, 일제의 엄청난 탄압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 일제 탄압과 함께 시대적 영향도 있었다.

이때 전 세계는 대공항으로 전쟁과 혁명이 빈번할 시기로, 국제노동기구인 적색노조 인터내셔날이 직접 영향을 주었다.

적색노동조합은 옛 노동조합의 낡은 조직으로 옛 모습을 지키려는데 급급함이 문제라고 여기고 노동조합의 새로운 추진력을 가지고자 하였다.

'가자 농촌으로' '광산으로 공장으로' 외치는 시대였고 그것이 통하던 시기였다.

한편 깨친 노동자들은 파업을 통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고 계급의식을 높이려 했다. 노동동맹을 실행하고 비밀 독서회를 통해 가슴속의 응어리를 풀려고 했다,

강대진 선생은 박일기 등과 함께 1939년 당시 24세 청년으로서 삼천포농민조합에 가입하여 항일애국 활동을 전개하다 일경에 체포되어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 집행유예 5년형이 선고되어 석방되었다. 고문 후유증으로 수년간 고생했다. 선생의 가출옥 서류(1939년 8월 30일)가 보존되어있다.

전주이씨 이종석(선구동 출신)의 딸과 혼인해 유일한 혈육 강연숙(1942년생)을 낳았고,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으로 이주해 살았다.

<출처>

-경남 항일독립운동 참여자록 2001년 마산보훈지청 14면

-한국 근현대지역 운동사 역사문제연구소 1993년 197면

-사천 시사편찬위원회 2003년 736면

-일제하 사회 운동집 역사문제연구소 1992년 12면

강대창(姜大昌)

*이명: 강대익(姜大翼)

*출신지(본적): 경남 사천시 축동면 길평리

*생몰년월일: 1896.5.25.~1948.1.26.

강대창(姜大昌) 선생은 이명 강대익(姜大翼)이며 1919년 경남 진주시 대안동 유일여관에서 권도용(함양군 병곡면).김형권(사천시 축동면). 박재수(朴在秀: 진주 내동면)등 4명이 만나 비밀모임을 가지고 격문을 작성하고 인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립충고문><독립책선문><독립선언서>등 5종을 2백부씩 등사하여 인근 유생들에게 배포하여 경남유림대회를 개최하면서 항일운동을 하려다가 일경에 체포되었다.,

일경의 혹독한 고문을 받고 혼절하였고 1919년 8월 12일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보안법 위반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이 언도되었다.

강대창 선생은 공소하여 1919년 9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1년형이 확정되어 대구 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강대창 선생은 진주청년회가 창립되자 동참하고 위원으로 활동(1922년)화고 재외동포들을 위문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아 진주 촉석루 등에서 위문공연을 할 때 쌀 300Kg을 기부하고 현금 20원을 기부한 분이다.

전국적인 항일독립운동 단체인 신간회가 창립되자 신간회 진주지회를 창립할 때 간사로 활동(1927년 10월)하고 언론계에 종사하기도 했는데 동아일보 진주지국장(1927~1935년)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노동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흥남 태평양노조의 활동을 지지했고, 서울의 이재유 그룹의 활동을 도우고 원산의 혁명적 노조활동을 지지했다.

강대창 선생이 직접 원산까지 찾아가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하며 지지성명서를 배포했다는 말도 있다.

선생은 일제와 자본가들을 상대로 싸우고 실업자 문제에도 관여하는 등 오직 민족을 위하여 활동한 순수한 애국지사로 볼 수 있다.

영남약조(주)사장이 되었고 중앙공중보(진주)기자와 남선공론(진주)주임을 지냈다.(1935~1938년)

1944년에는 일제가 망할 것을 예상하고 진주시 옥봉동 양옥진 여사 자택에서 비밀모임을 개최하고 고려구국동맹을 조직해 회장이 되어 광복을 준비하기도 했다.

해방이 되자 모두들 애국지사인척 했지만 강대창 선생은 남북통일을 위하여 서울을 왕래하며 친일파 처단과 미군을 철수해야 됨을 강조하고 1946년 10월 진주에서 10월 폭동이 발생하자 맨 선두에서 투쟁하게 된다. 진주지역의 중요 관공서 문서가 상당 부문 소실되어 없어졌는데 10월 폭동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폭동(인민항쟁) 주동자로 경찰에 체포되어 엄중한 조사와 혹독한 고문을 받고 혼절하기도 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서대문감옥에서 사형집행을 기다리다가 폐결핵으로 숨졌다.

유일한 아들(진주고 학생)이 있었으나 남강에서 수영하다 죽고 친조카 강구중(姜九中)은 부산 금정여고 주임 교사를 역임하고 부산아동문학인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강구중의 주선으로 진주시 모 공동묘지로 이장해 안장한지 10년이 넘었다.

-사천시사 편찬위원회 2003년 737면
-독립운동사적지(부산경남울산)보훈처. 독립기념관 2010년 407면.
-일제하 사회운동집 역사문제연구소 1992년 12면
-근현대지역 운동사 역사문제연구소 1993년 274면
-항일투사 열전 1권 1995년 추경화 226면

-항일투사 열전 2권 1997년 추경화 305면
-경남일보 1996년 3월 2일자
-진주신문 1996년 3월 25일 8월 19일자
-동아일보 1923년 3월 3일자 1927년 9월 8일자

강대철(姜大喆)

강대철(姜大鐵) 선생은 경남 사천시 곤양면 성내리 출신이며 생년월일은 1916년 5월 16일생이다. 진주시 수정동 171번지에 거주했다.

1940년대부터 일제를 비난하고 일제 정책을 비판하다 일경에 피체되어 치안유지법 위반 및 총동원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강대호(姜大浩)

강대호(姜大浩) 선생은 경남 사천시 축동면 길평리 출신이고 생년월일은 1895년 2월 12일생이다.

일정한 거주지 없이 항일운동과 군자금 활동을 전개하다 일경에 체포되어 치안유지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조선일보 1925년 3월 23일자에 의하면 시국을 표방한 강도사건으로 강민호(姜玟浩)외 3명을 잡아 조사해 보니 진주시 평안동 334번지 강민호와 사천시 축동면 길평리의 강대호(그 당시 30세)등은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각 부호들에게 자금을 모아 임시정부에 보내기로 의논하고 진주시 금산면 청곡사 정영조(鄭永祚). 함양군 함양면 하동의 박태웅(朴泰雄)과 함께 1925년 7월 10일부터 8월 중순까지

진주시 나동면 박재호. 진주시 수곡면 하영진. 산청군 단성면 조재하. 산청군 남사리 최인환. 산청군 강누리 권재홍. 하동군 옥종면 하식원 등을 찾아 다니며 임시정부를 위한 군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의열단원 이름으로 돈을 요구하게 되는데 진주시 수곡면 하구진(河九珍)에게서 5원을 받고 권재홍(權載弘)에게 두 차례 7원만 받아 교통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수개월이 지난 다음 일경에 피체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강대호의 친족 강민호(姜珉鎬)의 활동상은 다음과 같다.
강민호 선생은 1924년경 경남지역에서 군자금을 수합하다 피체되어 형이 언도되어 옥고를 치렀다1925년 3월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징역 1년

1929년 3월 진주청년동맹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고려공산청년회에 소속 중앙청년동맹 인왕청년회 집행위원이 되어 활동 중 같은 해 7월 일경에 체포되어 1931년 3월 경성지법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형이 언도,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1938년 8월 조선공산당 재건운동과 관련되어 일경에 피체되어 엄중한 조사를 받고 10개월만에 석방되었다.

-지문조회 회보서
-조선일보 1925년 3월 23일자

강몽우(姜夢禹)

강몽우(姜夢禹) 선생은 이명 강일산이며 경남 사천시 (삼천포)동리 133번지 출신이고 생년월일은 1910년 12월 18일생이다.

강몽우, 최효근(崔孝根), 황달봉(黃達鳳), 박영수(朴永秀) 등은 의논하여 표면상 사천청년동맹 삼천포지부의 설립을 위하여 회원들을 모집하여 8월 20일 청립대회를 개최키로 계획을 세워 진행 중인데 일제 당국이 집회를 금지함으로서 8월 27일 서면상으로 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때 삼천포 선구리 강옥서 집에서 강몽우 등은 8월 24일 25일 양일에 걸쳐 원고를 작성하여 공동이름으로 사회주의를 위하여 현재의 모순인 경제 조직과 투쟁해야 한다는 기사의 내용으로 회의록 15부를 인쇄하여 배포한다는 단서를 포착한 일경에 의해 발각되었는데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목적으로 비밀 결사 노동조합을 조직하려다가 8월 26일 일제히 일경에 검거되었다는 것이다.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재판을 받고 삼천포청년동맹 지부준비위원장 강몽우과 그 외 3명은 대구복심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 출판법 위반으로 1929년 11월 벌금 30원을 선고받았다.

1937년 8월 동아일보 사천, 삼천포 지국 기자(記者)와 지국장으로 활동했다.

-고등경찰관계적록 1937년 65면
-신분장 지문조회서
-대구복심법언 판결문 1930년 1월 18일
-1934년 1월 21일 동경공소원
-일제하 사회운동 인명집 역사문제연구소 1992년 17면
-사천시사 2003년 737면
-동아일보 1929년 8얼 28일 9월 2일 9월 7일
-조선일보 1929년 11월 9일

강상조(姜尙祚)

*출신지(본적): 경남 사천시(삼천포)동리 130
*생몰년월일: 1898, 2.12~1953.4.22.

강상조(姜尙祚) 선생은 사천시(삼천포) 동리 130번지 출신이며 1898년 2월 12일생이다.

1919년 3월 전국적으로 시위가 전개하자 삼천포지역까지 시위운동이 확산되어 1919년 3월 25일 삼천포지역에서 3·1운동 지도자로 활동하고 앞장서서 시위를 지도했다. 일경에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고 혼절했다. 같은 이유로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태형 90도를 맞고 고문후유증과 태형 후유증으로 수년간 고생하다 55세에 순국했다.

강상조 선생의 부모는 강찬수. 김혜완이다. 아들은 강태중(姜台中)강효중(姜孝中) 2명은 모두 죽고 손자들 강념(1944년생). 강삼선(1949년). 강희수(姜希守 1952년생) 등이 있다.

조상의 명예회복과 정부포상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등 활동하고 있다.

-한국근현대사 지역 운동사 165면
-사천시사 2003년 737면
-조선에 있어서의 치안상황 1938년 337~338면
-조선민족운동년감 동문사 165면
-부산경남3·1운동사 1979년 3·1동지회 829면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마산보훈지청 2001년 15면

강또수(姜又秀)

*출신지(본적): 경남 사천시(삼천포)동리 출신이고
*생몰년월일은 1906.2.2.~1946.9.19. 이다.

강또수 선생은 삼천포 3·1운동 지도자로 1919년 3월 당시 삼천포보통학교 재학.

1919년 3월 25일 졸업식이며 장날이었기 독립만세 모의

일본인 교장이 소위 일본 천황의 교육칙서를 단상에서 읽으려 하자 학생들은 가슴속에 품었던 태극기를 꺼내어 독립만세를 외치며 교문(당시 노산 호연재) 박차고 나가 노산공원에 모여, 이 학교 황병두 교사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자 학생들은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내로 진출하니 일반 시민들도 동참하여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이때 강또수 선생은 시위대 선두에서 지휘하면서 경찰서 방향으로 진격할 때 천지가 진동하고 태극기 물결을 이루었다. 강천수 강또수 등도 일경에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고 혼절했다.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징역7월 집행유예 3년형이 언도되었으나 학생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석방됨.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했다.,

후손들은 강원호. 강준호 등이 있다.

-부산경남 3·1운동사 3·1동지회 1979년 829면
-신분장지문회보서

강천수(姜千秀)

강천수(姜千秀) 선생은 사천시(삼천포)동동 출신이며, 생년월일은 1899년 8월 13일생이다.

전국적인 3·1만세 시위가 삼천포에서 전개될 때, 김우열, 고광세, 손우상, 등과 함께 청년들이 앞장서서 선구동 시장터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시위를 전개하고 군중들을 지도 지휘하니, 삼천포 장터는 만세 소리가 진동하고 태극기의 큰 물결을 이루었다.

강천수 선생은 시위 군중의 선두그룹에서 지도하다 경찰서로 가자는 소리를 외치며 문선교를 지나가자 일경이 나타나 난타하고 시위군중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강천수 선생은 곧 일경에 피체되어 유치장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고 혼절했다.

1919년 5월 5일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어, 수일 만에 귀가하였다.

-신분장지문조회서
-독립운동사 3권 국가보훈처 371면
-독립유공자공훈록 제 2권 국가보훈처 73면
-부산경남 3·1운동사 3·1동지회 1979년 829면
-사천시사 2003년 편찬위원회 737면

강재빈(姜在斌)

강재빈(姜在斌) 선생은 경남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출신이고 일명 성인(聖仁). 진양인으로 은열공후 만송 강염(姜濂)의 후예이다.

기미 3·1만세 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나자 강재빈 선생은 4월 4일 5일 이영근의 모의에 의해 문향근. 조개석. 조관석 형제. 이규현 등과 함께 주민 수백 명을 모아 지휘지도하며 덕천강변에서 독립만세 시위를 전개했다.

일 헌병이 출동하여 주동자들을 색출할 때 피체되었다. 일본 헌병대에 감금된 채 엄중한 조사를 받고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장형으로 혼절했다.

금성리에서 살지 못하고 송림 본가에서 살다가 고문과 장형 후유증으로 고행하다 사망해 순국했다.

유족들은 아들 용수(用銖) 시용(始鏞)이 있고 무용(武鏞)은 교육자로 재임중이다.

손자들은 상덕(湘德), 범석(范奭), 상지(湘枝). 범호(范虎)교사와 창근(昌根)범식(范植)등이다.

-3·1운동비사 이병헌 242면
-곤명면지 편찬위원회 1987년 363~364면

고광세(高光世)

*출신지(본적): 경남 사천시(삼천포)동리(동금동)
*생몰년월일: 1896.10.5.~1965.2.11.

고광세 선생은 삼천포 3·1운동의 주역으로 활동했다. 삼천포 이금동 장태영 선생이 동학의거에 가담 활동하고 천도교 포덕사 종법사로 서울 손병희 선생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받아 귀향하면서 진주에 사는 5촌 조카 장덕익에게 전하고 삼천포지역 천도교인들과 인근 마을 대표들에게 배포하면서 서울의 시위 상황을 설명할 때 고광세 선생이 듣고 삼천포 역시 만세시위가 긴요함을 깨닫게 된다.

남양면의 박종실 선생도 진주로 달려가 강달영. 박진환 지사를 만나 시국에 관하여 의논하고 <독립선언서>를 받았다. 박종실 선생은 삼천포보통학교 교사 황병두를 만나 설득하고 학생들 동원을 부탁했다.

1929년 3월 25일 삼천포 보통학교 졸업식이 거행되고 장날이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였다.

1대 2대 3대로 나누어 의거키로 하고 제1대는 보통학교 학생들이 노산공원에서 졸업식 전

에 흥분한 학생들이 가슴속의 태극기를 꺼내어 시위한다는 소식을 듣고 청년들도 마음에 급해 시장으로 달려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군중들을 모아 만세시위를 진행했다.

고광세 선생 등 청년들은 시내로 진출하며 시위하다 일경에 잡혀 유치장에 감금되었다. 혹독한 고문을 받고 혼절하기도 했다.

1919년 5월 5일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징역7월 집행유예 3년형이 언도되어 석방되었다.

아들 고철재는 마산 합포구 해운동에서 합동인쇄소를 경영했으나 지금은 알 수 없고 차남 고상재는 부산에 거주했으나 지금은 소식을 듣지 못했다.

-독립운동사 제 3권 국가보훈처 270면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 2권 국가보훈처 74면
-부산경남 3·1운동사 3·1동지회 1979년 829면
-신분장지문조회서
-항일투사열전 1권 추경화 1995년 225면
-사천시사 2003년 편찬위원회 737면
-경남지역 3·1독립운동사 문화원 경남도지회 2007년 61면

고남진(高南鎭)

*이명: 고길상

경남 사천시(삼천포) 동진리 출신이며 1914년 4월 13일생이다.

삼천포 동진(동금동) 출신이며 재판기록이 있으나 구체적 활동 내용이 미비하여 명예회복이 어렵다.

-신분장지문조회서

구재수(具在秀)

*이명: 김강일(金剛一) 김인철(金仁哲)

경남 사천군 출신으로 본명은 김인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중외일보 사천지국에 근무하면서 통신원으로 활동했다.

1934년 5월 중국 남경으로 망명하여 1935년 2월 김구(金九)선생이 건립한 특무부대에서 훈련을 받고 엄중한 교육을 받았다. 그 때가 26세로 기록됨.

1935년 8월 조선민족혁명당에 입당하였다. 이어 민혁당 제3차 전당대회에서 중앙검사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혁명당을 탈당하고 전시 복무단에 들어갔는데 조선청년전위동맹으로 변경되자 동참하고 간부가 되었다.

1941년 여름 청년전위동맹이 화북 팔로군으로 이동했으나 충칭(중경)에 그대로 남아 민족해방 투쟁 동맹과 민혁당의 중앙위원이 되어 활동했다. 김탁(진주에 묘소)과 함께 만주로 파견되어 가다가 1945년 8월 광복이 되자 귀국했다.

1946년 조선독립동맹 경성특별위원회 책임자 한빈과 함께 남조선 신민당 비서실장이 되어 활동했다. 또 노동당 중앙위원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생몰년과 묘소를 알 수 없다. 그 후 중국으로 들어가 귀국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경남각지 항일투사 열전 1987년 206면
-일제하 사회운동 인명집 1992년 역사문제연구소 1992년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 5권 국가보훈처 315면
-조선통치사료 한국사료연구소 472면 475면

김경집(金慶執)

김경집(金慶執) 선생은 경남 사천시 사천읍 중선리(현 사천공항내)에서 1915년 5월 24일 태어났다.

사천공립보통학교 재학중 성적이 뛰어나자 선생님이 우수학생으로 추천해 주었기 때문에 진주공립농업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진주시 옥봉동에 거주하며 농업학교 재학중인 1931년 1월 박봉찬, 백남욱, 설창수, 구연욱, 조용기, 김상해, 김대기, 하종수 등과 문예 연구를 위해 친목 단체를 조직하고 메월 20일마다 모이고 <반역>이란 잡지를 발간하여 나누어 보게 했다. <반역> 잡지를 2호까지 발간했다는 기록이 있다.,

1931년 11월 7일 진주노동연맹 위원장 김장환 집을 수색하다가 TK단 회지를 발견한 일경이 회원들을 모두 잡아가기 시작했다.

일경의 엄중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동급생 백덕삼(白德三)은 혹독한 고문으로 옥중에서 사망해 순국했으니 일제가 얼마나 악독한지를 알게 해주는 사건이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지지 않았고 용서하는 자세가 없었음을 알게 해주는 사건이다.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을 알게 해준다.

김경집 선생은 출옥 후 일제정책을 비판하고 반대하다 또 체포되어 징역형을 언도 받고 1936년 11월 6일 부산 형무소에서 석방되었다.

선생은 1931년 12월 26일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재판을 받고 1936년 또다시 피체되어 1936년 11월 6일 재판을 받고 부산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1936년 11월 6일 부산형무소에서 석방되었다.

-일제하 사회운동 인명집 1992년 역사문제연구소 167면
-사천시사 2003년 편찬위원회 738면
-조선일보 1931년 12월 3일

김경찬(金敬贊)

김경찬(金敬贊) 선생에 대하여 마산보훈지청에서 발행한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과 <고등경찰관계적록> 19면에 의하면 사천시 곤명면 연평리가 출신지(본적)라고 기록되었으나

1987년에 발행한 곤명면지 364면에 의하면 1897년생으로 곤명면 정곡리(正谷里)출신이라고 기록되어 서로 다르다.

김경집 선생은 기골이 장대하고 의협심이 강하여 전국의 만세 시위 메아리에 충격과 의분을 느끼고 시위 선봉에 서게 되었다.

1919년 기미년 4월 17일 연평 완사주민들은 인근 산 옥녀봉(玉女峰)에 집결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할 때 지도자로 활약하였다.

일제 헌병들은 충격을 받았고 시위자들이 산위 까지 올라 시위하고 횃불 까지 동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출동하여 주동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김경집 선생은 곧 체포되어 엄중한 조사를 받고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재판을 받았으며 석방되었으나 일제의 감시와 감독을 받게 되자 이웃의 시선이 두려워 은둔의 생활 피신의 생활이 계속되었다.

아들 김태윤(김태윤), 김태옥 등이 그 당시 증인으로 구순 노인 연또금의 증언을 수집하고 진주법원. 교도소 등지로 근거기록을 찾아 나섰으나 발굴하지 못했다고 전해 온다.

손자들 영배, 수배, 홍배, 차배, 진배가 있고 태준의 아들은 성배, 점배, 석배가 있고 태옥의 아들은 창배는 김해시 진영읍에 산다.

-고등경찰관계적록 1937년 19면
-경남독립운동참여자록 마산보훈지청 2001년 26면
-사천시사 2003년 편찬위원회 738면
-곤명면지 편찬위원회 1987년 363면~364면

김기문(金基文)

김기문(金基文) 선생은 삼천포 3·1운동에 앞장선 항일투사로 기록되었다.,

김기문 선생은 경남 사천시(삼천포)읍내리 출신이고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책에도 기록되었으나, 재판기록이 발견되지 않아 명예회복이 성사되지 않고 있다.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 2권 국가보훈처 87면
-독립운동사(3·1운동사) 제 3권 국가보훈처 272면
-부산경남3·1운동사 3·1동지회 827면
-사천시사 2003년 738면

김기봉(金基鳳)

김기봉(金基鳳) 선생은 경남 사천시(삼천포) 관긍리 (읍남면 관동?)출신이고 생년월일은 1913년 12월 27일생이다.

1936년경 일제 정책을 비판하다 일경에 검거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고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김기현(金箕炫)

김기현(金箕炫) 선생은 경남 사천시 (삼천포)선구동 출신이다.

1931년 5월 삼천포농민조합 서면대회에서 집행위원으로 선임되었다.

1931년 9월 26일 9월 29일자에 의하면 삼천포 외곽에 있던 동양척식(주)소유의 토지를 관리하는 자와 4두락 정도를 소작하는 소작인 사이에 소송문제가 발생하자 삼천포농민조합 대표급 최효근(崔孝根), 최갑환(崔甲煥), 김기현(金箕炫), 최남형(崔南亨) 등이 소작인 편을 들어 항의하다 소송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다.

삼천포 농민조합원들은 업무방해죄로 검사국으로 송치되어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1945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전국농민연맹 결성대회에서 정인호(鄭寅鎬),박삼갑(朴三甲), 김기현(金箕炫) 등 3명이 사천지역 대의원으로 참석했다.

-일제하사회운동 색인집 1992년 207면

-한국사회주의 인명집 1996년 역사문제연구소 52면

-서대문감옥 기록 원부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 6권 국가보훈처.

-조선일보 1931년 9월 26일 9월 29일

김범부(金凡父)

*이명: 김정설(金鼎卨)

*출신지(본적): 경북 경주시 북부리(성건리)

*활동지: 경남 사천시 곤명면 용산리 186(다솔사)

*생몰년월일: 1897.2.18.~1966.12.10.

*공적요점

-백산상회 장학생으로 일본에 유학

-다솔사에서 해인사 사건으로 체포되어 약 1년간 옥고

-광복 후 동래지역 2대 국의의원 당선

-계림대학장

-부산대.동양대.건국대에서 동방사상을 강의

김범부(金凡夫) 선생은 경북 경주시 선산 김씨 가문에서 태어났다.

점필제 김종직(金宗直)의 15세손으로 부친은 김임수(金壬守), 모친은 김해 허씨 허임순 이다.

4세부터 13세 까지 김계사(金桂史))문하에서 명심보감, 논어, 대학, 맹자, 효경, 중용 등을 배웠다.

15세 때 경주 김씨 김옥분(金沃粉)과 혼인했다.

청소년기에 일제와 대항하기 위해 창의를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안희제, 안효제, 추한식 등이 설립한 백산상회 (1914년 설립)가 장학생을 뽑아 일본 유학을

보낼 때 김범부 학생이 선정되어 동경제대 경성제대 등에서 청강생으로 많은 지식을 쌓았다. 귀국 후 불교중앙학림에서 강의하고 천도교 월보 (162호)에도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

승려 최범술의 주선으로 사천 다솔사에 거주하게 되고 강의도 했다.

다솔사에서 해인사 사건으로 일경에 체포되어 약 1년간 옥고를 치렀다.

다솔사 인근에 설립된 광명학원이 1942년 폐쇄될 때까지 동생 김동리 와 같이 열성적으로 지도했다.

일제는 광명학원에서 군가를 가르쳐 부르게 하고 기미가요를 가르칠 것을 강요하다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학원을 폐쇄한 것이다.

광명학원에서 정반대로 민족정신 애국정신을 강조할 뿐이기 때문에 일제가 가시처럼 여기고 있었다.

학생들에게 반달. 해와 달. 뻐꾹새 등의 노래를 가르치고 다솔사를 독립운동 비밀지대로 만들어 만당(卍黨)을 조직해 한용운 선생을 당수로 하고 범부 선생이 함께하니 다솔사(多率寺)를 왕래하던 인사들이 상당한 고초를 당하였고 수시로 경찰서에 잡혀가 일주일 또는 3~5일간 유치장에 감금(監禁)되었으니 어려움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한용운, 김범부, 백성욱, 강상호, 김법린, 김홍권, 최범술, 이용근, 장도환, 문영빈, 박근섭 등이 일제의 감시망을 피해 다솔사로 들어왔다가 갔으나 그 대신 시도 때도 없이 잡혀가 옥고를 치르는 형편이었다.

하동군 양보면 출신으로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을 2번 역임하고 재무위원이었던 김홍권 선생이 진주도립병원에서 사망했다는 말을 듣고 애석해 하며 비(碑)를 세워 준 분이 김범부 선생이다. 당시로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비를 세웠는데 비문에 이르기를 “세상이 뜻대로 되지 않아 항상 근심하던 우국지사”라고 새겨 두었다.

비석 위치는 진주에서 양보면사무소 가기 약 500m 직전 오른 쪽 도로변에 현존하고 있다. 건립당시는 일제 강점기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했음이 확실하다.

김범부 선생은 양산지역 부호 지영진(광복후 국회의원)의 주선으로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에 거주할 때 해방을 맞이했다. 일제의 항복 소식을 듣자 아~소리를 지르며 ‘나라를 되찾고 자유를 되찾은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이가’ 라고 집을 뛰쳐나가 큰길 한복판에서 만세를 고창했다고 전해 온다.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할까 고민하던 김범부 선생은 부산 동래에서 2대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되어 4년간 국정 발전을 위하여 크게 봉사하였다.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고 경주 교동(교촌)으로 옮겨 계림대학 학장으로 추대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애국애족을 강조하고 가르치게 되는데 역시 <화랑세기>를 해군본부에서 발행케 한 일도 했다.

건국대학교 동양사상연구소장으로서 동양사상과 철학을 가르치고 부산대학교에서도 정치와 철학을 가르쳤다.

5·16 군사혁명 세력의 외곽 조직인 오월동지회 부회장이 되어 자문 역할을 하고 재건국민운동본부 중앙위원 50명중에 한 명으로 뽑히기도 했다.

1966년 70세에 서울 서대문 적십자 병원에서 간암으로 별세했다.

영결식은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거행되었는데 제자인 서정주가 울면서 조시를 읽었다고 전해 온다. 장지는 도봉구 수유동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되었다.

1975년 김범부의 제자인 이종익(李鍾益)동국대 교수의 박사학위 기념논집에 <동방사상 총서>가 실렸다. 2005년 김범부의 막내 사위인 진교훈 서울대 교수는 범부 김정설의 생애와 사상을 발표했다. 2009년 영남대학교 제2회 범부연구회 학술세미나 개최되었다. 세미나엔 진교훈, 이완재, 김정근, 김화수, 신주백, 김영수, 김석근, 이용수, 박맹수, 손진은 등이 발표했다. 김범부의 외손 김정근 박사의 "김범부를 찾아서"를 참고했음(김동리 다솔문학 2호 2017년 9월간 52면~79면에서 등재되었음).

김범부의 아우 김법린(1899~1961)김법린은 한용운 선생 한테<독립선언서>를 받아 범어사의 독립만세를 주도하고 일경에 피체되어 옥고를 치르고 상해로 망명했고 승군 의용군을 모집하고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피압박민족대회 위원이 되고 1928년 귀국해 조선어학회 편찬준비위원이 되었다.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또 옥고를 치르는 등 대단한 활동으로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선생은 법윤(法允), 범산(梵山)이라 호칭되고 부산 동래구 청룡동이 본적지로 기록되었다.

-독립운동사 제 3권 해인사 학생운동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 8권 만당결사운동
-김동리 다술문학 2호 2017년 28~79면 김동리다솔문학회 편집위원회
-하동독립유공자 공훈록 2000년 추경화 72면
-도교와 과학 도광순
-김범부의 건국사상을 찾아서 2014년 김정설 김정근
-풍류정신의 사람 김범부의 삶을 찾아서 김정근 2010년 서울 선린
-범부 김정설 단편선 선인출판 최재묵 정다운
-진교훈 범부 김정설의 생애와 사상 2009년

김성언(金成彦)

김성언(金成彦) 선생은 사천시 사천읍 3·1운동 지도했다.

애국지사 김성언 등은 진주3·1운동지도자 강대창을 찾아갔다. 사천에서도 시위할 것을 약속하고 그의 주선으로 강달영을 만나 의거를 설명하고 <독립선언서>를 입수하는데 성공했다.

황순주, 박기현, 김종철, 임순백, 윤상수, 김성언 등과 사천보통학교 졸업반 이윤조를 찾아가 의거 동참을 논의하였다.

의거일은 1919년 3월 21일 보통학교 졸업식으로 정하고 태극기 200매를 만들어 은밀히 배포했다.

졸업식 직전에 축구시합을 하고 경기 진행에 따라 졸업식이 시작할 시간에 축구시합에서 이윤조 편이 이기자 흥분한 학생들이 태극기를 꺼내어 흔들며 말하였다. 시내로 진출하자 만세를 외치고 학생들이 일제히 태극기를 흔들며 시내로 행진했다.

시민들도 처음에도 깜짝 놀라더니 이어 학생들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했다.

주동자들은 모두 검거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고 석방되었으나 고문후유증으로 수년간 고생했다.

-독립운동사 3권 국가보훈처 267면
-부산경남3·1운동사 3·1동지회 1979년 814면
-독립운동사적지 2010년 독립기념관 4097면
-사천시사 2003년 편찬위원회 738면

김우열(金瑀熱)

*출신지(본적): 경남 사천시(삼천포)선구동 151
*생몰년월일: 1900.8.22.~1951.8.27.

김우열 선생은 사천(삼천포)출신이고 1900년 8월 22일생이다.

고종 황제의 인산 소식이 전해지고 전국적으로 시위가 전개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지자 사천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남양면에 사는 박종실 선생은 진주로 달려가 진주 의거의 지도자 강달영 박진환 등을 만나 삼천포 향촌동 장지린을 만났다.

장지린과 박종실은 노산공원에서 삼천포보통학교 교원 황병두를 만났는데 박종실 선생과 평양대성학교 동창생이었기 때문에 설득이 쉬운 줄 알았다가 여러 번 설득 끝에 겨우 동참시키고 애국청년들 감금수, 고광세, 손우상, 김우열 등을 만나 다함께 투쟁하기로 의논하였다.

1919년 3월 23일 삼천포 장날을 기하여 시위하고 보통학교 졸업식이 거행되는 날이기 때문에 인원 동원은 쉬운 일이었다.

학생들이 먼저 시위하고 독립만세를 고창하자 청년들도 마음이 급해 선구리 장터로 달려가 강금수 청년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곧 모인 군중의 선두에서 시위를 전개하게 된다.

애국청년들은 문선교를 지나 경찰서 방면으로 시위군중을 이끌고 진격하게 된다. 이때 일본 경찰들이 나타나 총검으로 찌르고 난타하니 부상자가 속출했다. 군중들은 동서로 흩어지고 주동자들은 일경에 체포되었다. 강금수. 손우상. 김우열. 고광세. 장지린 등은 일경의 혹독한 고문을 받고 혼절하였다.

김우열 청년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일제가 도적이고 죄인이라고 큰 소리치다가 곤봉으로 맞아 유혈(流血)이 낭자했다.

1919년 5월 5일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이라면서 징역 7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고 석방되었다.

김우열 청년은 삼천포청년회(연구회)에 가입해 활동하고 애국계몽운동에 동참하고 1925년 1월 11일 혁신총회를 개최하고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사천군의원에 출마했으며, 고문 후유증이 재발하여 1951년 8월 27일 51세로 별세했다.

장남 김기훈은 의사로서 삼천포보건소장(1977~1991)을 역임하고 그 외 아들들은 김기형, 김기우, 김기도 등이 있고 김기도는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사천지역에서 제14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4년간 크게 활약했다.

-독립운동사 제 3권 국가보훈처 230면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 2권 국가보훈처 113면
-부산경남 3·1운동사 3·1동지회 1979년 828면 829면
-신분장지문조회서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마산보훈지청 2001년 45면
-사천시사 2003년 편찬위원회 738면.1749면. 1923면.

김의진(金義鎭)

*원적: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본적지: 경남 진주시 상봉동 943-4
*생몰년월일: 1897.9.25.~1941.8.5

김의진(金義鎭) 선생은 김해 김씨 숭록공파보(1993년 발간)이며 호가 일사(一沙)이다.

김의진 선생의 부친은 김경선(金敬善)이고 모친은 천군선의 장녀 천임순이다. 천임순은 사천보통학교 교원으로 근무했다.

선생은 독립운동 단체인 신간회가 창립될 때 경남지역에서 최초로 사천에서 창립되도록 지도한 분이다.

선생은 소년시부터 영리하여 하나를 보면 백을 깨닫는 분이었다. 그러므로 천자문, 명심보감, 논어, 맹자 등을 배우실 때도 항상 우등을 차지할 정도이었다.

1910년 8월 한일합방 소식을 들으시고 일주일간 통곡하시고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애국심이 대단하였다.

천도교의 인내천 사상과 애국 활동에 매료되어 손병희 선생을 찾아 만난 후부터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온갖 정성과 온몸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1915년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 고등과정과 대학 과정의 수업을 받을 때 설산 장덕수 강주한 등과 교제하며 장차 항일독립을 위해 몸을 바치기로 서약하기도 했다.

1919년 3월 18일~22일 사이에 진주시위자 2만~3만명 군중 속에서 3·1운동에 동참하고 선두그룹에서 격문을 붙이고 배포하였다.

동아일보 1920년 4월 27일자에 의하면 손병희 선생이 보내준 이돈화(李敦化)선생과 진주 천도교인 박태준(朴台俊)선생 등과 특별 애국 강연회를 개최하여 1천여 명이나 운집할 정도로 대성황(大盛況)을 이루었다.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까지 지내신 박은식(朴殷植)선생께서 1920년 말에 탈고한 <한국독립운동지혈사>서울 신문사 발행 198~199면에 의하면 경남 결사대장 황태익. 천도교 경남청년회장 김의진 선생 등이 서울에서 손병희 선생을 만나 보니 세계가 개조되는 기운이 있으니 정치에 가담하여 국가를 위해서 중임을 맡아서, 국권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달라고 하셨

다. 이 요청을 듣고 동지들과 함께 독립운동에 뛰어들게 되었으니 1920년 3월 9일 진주시 옥봉동에서 경남 결사대를 조직한 것이다.

그 목적은 조선의 독립이었다. 결사대 명부를 만들고 항일역사서를 구입하는 등 진주, 사천, 고성, 창원, 산청, 함안, 영산, 의령, 합천 등지로 광범위하게 동지들을 포섭해 나갔다.

경성(서울)을 왕래하면서 상해와 연계하여 일을 진행하면서 총독 제등실(齊滕實)이 남부지역을 순회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 기회에 총독을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를 눈치챈 일경의 감시가 심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그 후 일본 정무총감 수야 및 고관들이 부산 축항식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곧 암살을 기도했으나 역시 경계가 엄하여 실행하지 못했다.

다시금 동지들을 모아 경남 고성군 구만면 화림리 산중에서 비밀히 시국 좌담회를 개최하려다 8명이 모두 진주 고등계 형사대에 검거되고 말았다. (동아일보 1920년 6월 5일자)

이때 마침 일제가 고도의 정치 술책의 일환으로 소위 문화정치를 실시할 때였으므로 바른 말 하라는 식으로 고문과 각종 회유 및 조사를 받았으나 1921년이 들어서자 곧바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전원 석방되었고 황태익 선생만 홀로 이전에 3·1운동을 지도한 일로 재판에 회부되어 1년 6개월 형을 받고 옥중 고생하였다.

동아일보 1921년 3월 11일자에 의하면, 김의진 선생은 동아일보 진주지국장이 되었으니 이는 사천(泗川), 하동(河東), 남해(南海), 산청(山淸), 함양(咸陽) 등지를 포함하는 담당자가 되었는데 총무는 박태준, 회계 하태룡 두 명의 항일투사 윤병은, 조기홍 등도 기자로 동참하였다.

김의진 선생이 일본에서 대학을 다녔다는 근거로 동아일보 1921년 7월 5일자에 동경유학생 순회 강연단의 일원으로 강연한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어 1921년 6월 29일에는 경주를 거쳐 울산 등지로 다니며 울산 청년회 후원을 받아 순회강연을 개최한 바 있다.

이때 김의진 선생은 오늘날 조국이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누구의 죄냐”라는 제목으로 열열한 웅변을 토하여 5백여명이 넘는 청중들에게 뜨거운 감동과 자극을 주었다고 보도했다.

1921년 4월 15일자에 의하면 1921년 4월 10일 진주제일보통학교 강당에서 진주청년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회장 박재표, 총무 강주한, 이하 부장들이 총사직함으로서 회장제에서 위원회제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위원 8명, 의사원 15명이 다음과 같이 선출되었다.

위원 박재표, 김찬성, 박태준, 강주식, 김영태, 김주석, 정성호이며 의사원은 이현중, 조우제, 조기홍 등이다.

김의진 선생은 1920년 7월 27일 창립할 때부터 간부급이었고, 이번에위원 8명 가운데 한분으로 선출된 것이다.

동아일보 1921년 5월 15일자에 의하면 평양천도교 청년회에서 1921년 5월 11일 오후 8시에 동아일보 진주지국장 김의진 선생과 순안군 김운걸 선생 등 양씨를 초빙하여 회관내에서 대 강연회를 개최하였는데 김의진 선생은 “금후의 인생관”이란 제목으로 김운걸 선생은 “파괴와 건설”이란 제목으로 각각 강연하여 만장 청중들에게 무한한 감동과 결심을 주었고 박

수갈채를 받았다고 하였다.

그날 밤 11시까지 3시간 동안 뜨거운 자각심을 심어주었고, 다음 날 진남포에서 강연하기 위해 길을 떠났다고 보도되었다.

동아일보 1921년 5월 7일자에 의하면 천도교 청년회 춘계 총회가 5월 1일 진주 천도교구실에서 김의진 선생의 사회로 개최되었는데 각 항에 대한 토의 진행이 있은 다음 김의진 선생은 경성(서울)천도교 순회 강연회 연사로 추천되어 지역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 대신 박태준씨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동아일보 1921년 6월 3일 자에 의하면 천도교 청년회 울산지회(지회장 허준해)에서 지난 5월 23일 오후 4시에 특별 대강연회를 울산 전교실에서 개최하고 전교사 백남철씨의 사회로 경성 특파 연사 김의진 선생이 “사람의 엄숙한 의무는 무엇인가”라는 연제로 약 3시간 동안 열변을 토하여 일반 청중들에게 다대한 감동을 주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1923년 1월 11일자에 의하면 동아일보 진주지국에서는 신년기념으로 지난 1월 5일 낮 12시부터 진주시 계동 청년회관에서 신년 강연회를 개최하고 연사 남홍씨는 “조선아 살기를 도모하라” 김의진 선생은 “계해 첫날 아침”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실시하여 오후 6시까지 계속 진행되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진주고 60년사><진주여고 60년사>등에 의하면 1920년부터 전개된 민족학교 설립 운동이 전개될 때 민족자본 50만원을 모아 남자고등학교를 설립하려고 진행했으나 일제의 방해공작으로 여자고등학교로 변경 승인되고 말았다. 이때 김의진 선생은 학교 설립발기인으로 활동하였고 학교 터고르기 작업에도 함께했음을 알 수 있다.

동아일보 1923년 3월 29일자에 의하면 1923년 3월 23일 진주청년회관에서 진주 금주단연회(금주를 위한 모임)를 조직했는데 발기인은 천석구, 백남옥, 이영배, 신현수 등이며 회장 박재화, 총무 심두섭. 등으로 조직되었다.

이때 김의진 선생은 열변과 달변이신 김의진 선생이 금주 금연을 위한 강사로 초빙되어 청소년들의 가슴을 보호하는데 큰 공을 세운 분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일보 1924년 11월 9일자에 의하면 소문뿐인 진주 사건 곧 공산당 혐의로 인치되었다는 제목이 있다. 내용은 지난 11월 1일 진주경찰서 형사 십여 명이 조선일보 진주 지국장 강달영, 조선일보 진주 지국원 박태준, 노동공제회 박태홍, 진주시 비봉동 함태진 등을 체포했었다.

이들은 진주시 비봉동 이재순 집에서 공산당을 조직하고 장덕수, 오상근 으로부터 공산당 선전비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김의진 선생은 설산 장덕수 선생으로부터 서적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동경유학생 시절부터 잘 아는 친한 사이였기에 우정으로 주고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사건으로 일주일간 구류된 채 각종 조사를 받았으나 아무런 혐의가 없어 무사히 집으로 방면될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조선일보 1927년 6월 20일자. 1927년 6월 24일자 등에 의하면 1927년 2월 20일 서울 기독교청년회관에서 신간회가 창립되어 이상재, 권동진. 신석우, 홍명희. 한용운 선생 등이 추대되었고 전국 시군마다 신간회 설립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그러나 경남에서는 아무도 앞장서서 항일단체 신간회 설립을 위한 희생, 봉사에 나서지 않고 있었다.

이때 김의진 선생이 솔선수범하여 신간회 사천지회 설립을 지도하니 남들이 알지 못하는 분야에서 남보다 앞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신간회 사천지회를 설립하게 된 것은 부친을 따라 사천읍에 거주한 김의진 선생의 희생 봉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모친 천연순님이 사천보통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 중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천읍과 관련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사천보통학교에 재학함도 신간회 창립을 위해 앞장선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사천보통학교 출신자들 하용수, 하용호, 김준호, 박남준, 최병민 등과 사천 3·1운동 지도자 임봉래, 이윤조 등을 설득시키고 포섭하였다.

김의진 선생의 공로가 헛되지 않아 1927년 6월 19일 드디어 경남 최초의 신간회가 설립되었다.

일반적으로 신간회 항일 단체가 사회주의 요소가 많은데 신간회 사천지회 함양지회만은 그 같은 사상적 요소가 전혀 없는 순수한 민족주의자. 깨끗한 농민들로 구성되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김의진 선생은 신간회 사천지회 창립의 산파 역할을 담당했으나 임원 선거에는 전면에 나서지 않았고 오로지 뒤에서 도와주고 후원자 역할만으로 본분을 다한 것으로 여긴 분이다.

<광주학생독립운동사>(1974년 11월) 362면, 동아일보 1929년 12월 5일자 등에 의하면 12월 3일 새벽부터 고등계 형사가 공,사립학교의 동정을 살피며 수상한 청년학생들을 모두 체포하게 되는데 이는 각급학교에 과격한 문구의 격문이 살포되었기 때문이다.

120여 명이 긴급 체포되었을 때 청년.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내용이다. 이 격문 사건으로 신간회 중앙청년회 간부들과 함께 피체된 김의진 선생은 1929년 겨울 동안 차가운 철창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서울 시내 살포된 항일격문의 글씨가 김의진 선생의 필체가 서로 다르고 선동자 주체가 아니라는 판단한 일경이 혐의 없다고 곧 석방을 결정하게 된다.

혹독한 고문과 옥고를 겪으며 극도로 허약해진 그는 겨우 목숨만 유지한 채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사천시 사천읍에 사는 친인척의 도움으로 작은 구멍가게를 열었으나 일제의 감시가 심하고 군자금이 오고 가는지 밤낮으로 감시하고 수시로 경찰서에 보고해야 되는 고통을 겪었다.

김의진 선생은 1919년 3월 3·1만세 운동에 동참한 후 1920년 천도교 청년회장으로 추대되자 곧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1930년 석방될 때 까지 10년간 항일 루쟁하신 일.

또 일본 사이또우 총독과 정무총감 등을 암살하기 위해 준비하신 기나긴 세월 만주, 중국, 일본. 미국에서 항일운동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국내 항일운동을 감당하신 분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젊은 청춘, 가장 고귀한 시간을 오직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거룩한 삶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는 분이다.

10여 년간 항일투쟁하고 체포되어 각종 고문에 시달리고 혹독한 고문을 받고, 혼절하신 일

등으로 결국 1941년 8월 5일 세상을 떠났다.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시던 조국 광복을 보지 못한 채 광복 4년 전 1941년 8월, 만 48세로 세상을 마감하신 훌륭한 항일투사로 기억될 것이다.

부인은 임진 공신 천만리 장군의 후손 천성숙(千聖淑)과 혼인하였고 슬하에 김현영(金玄英), 김혜자(金惠子)를 두었는데 자부는 탐진 최씨 최주원의 장녀 최기연(崔基淵)이다.

손자녀는 김진옥(유만석), 김수향 두 딸을 두었고 김직(金直)(1958년생), 김건(金建)(1960년생) 등 2남 2녀 등은 부산 구서동에 살고 있다.

-동아일보 1920.4.27. 천도교 강연회
-동아일보 1920.6. 5. 총독암살자 경남결사대 체포
-동아일보 1921.3·11. 동아일보 진주지국장(사천 하동 남해)임명
-동아일보 1921.4. 15 진주청년회 위원
-동아일보 1921.5 .7. 천도교 청년회 총회
-동아일보 1921.5.15. 천도교청년회 강연(평양.진남포)
-동아일보 1921. 6.3 천도교 청년회 강연(울산 지역)
-동아일보 1921. 7.5 동경유학생 강연단(경주. 울산)
-동아일보 1923,1.11 신년강연회(진주)
-동아일보 1923. 3.29 진주 금주 금연회 강사로 결정
-조선일보 1924.11. 9 소문뿐인 진주 사건 모두 석방
-조선일보 1927,6. 20 신간회 사천지회 설립자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서울신문사 198면 199면 총독미수사건 등재
-부산일보 1998년 8.15 총독암살 구국일념
-진주고 60년사 진주고 설립발기인
-진주여고 60년사 진주여고 설립 발기인
-일제침략하 한국 36년사 제 5권 국사편찬위원회 325~326면
-독립운동사 자료집 제 14집 국가보훈처 462~463면
-독립운동사 제 7권 국가보훈처 379~380면
-광주학생독립운동사 서울에서 피체 362면
-한국청년운동사 선우기성 천도교청년회 위원 395면
-김해김씨 숭록공파 세보 1972년 4월 15일 발간
-김해김씨 숭로공파 세보 1993년 종친회 발간
-신간회 연구 이균영 신간회 사천지회 창립자 김의진
-항일투사열전 제 2권 추경화 부록에 신간회 사천지회 창립
-한국독립운동사 문일문 241면
-독립유공자공훈록 제 8권 국가보훈처 79면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2001년 마산보훈지청 47면

김종철(金鍾喆)

김종철(金鍾喆) 선생은 경남 사천시 사천읍 출신이다.

1919년 3월 21일 사천보통학교 졸업식을 기하여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키로 했으나 학생들이 마음이 급해 졸업식이 끝나기 전에 가슴속의 태극기를 꺼내어 시내로 진출하며 시위하니 청년들도 군중을 모아 시위를 전개하게 된다.

황순주, 박기현 등이 진주3·1운동을 목격하고 진주의 중심인물인 강대창을 만나 사천에서도 거사키로 결의한 후 강달영, 박진환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입수하는데 성공했다.

사천으로 돌아온 황순주. 임순백. 윤수상. 김성언 등과 함께 사천보통학교 졸업반 이윤조를 동참케 하고 태극기 200매를 등사하여 각자 휴대케 했다. 학생들이 축구시합을 하고 이윤조 편이 이기자 흥분된 학생들이 선두에서 시위하고 가슴속의 태극기를 꺼내 시내(읍내)로 진출해 대한독립 만세를 고창했다.

만세시위를 전개하다 잠시 피신했던 청년들은 모두 일경에 검거되어 유치장에 감금(監禁)되었다. 혹독한 고문으로 혼절하고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재판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사천보통학교는 1905년 현 청사 터에 세우고 명달학교(강갑수 후원, 최연국 설립)가 사천보통학교로 발전하고 1911년에 설립인가를 받고 1913년에 교사(校舍)를 신축하였다.

-독립운동사 제3권 267면 268면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 2권 국가보훈처 123면
-부산경남3·1운동사 1979년 3·1동지회 814면~815면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마산보훈지청 2001년 51면
-사천시사 2003년 편찬위원회 739면 1747면

김직성(金直成)

김직성(金直成) 선생은 경남 사천시 곤명면 초량리 출신이며 1902년 10월 12일생이다. 이명은 김해성이다.

거주지는 마산시 성호동 60번지라고 기록되었다.

1923년 8월 마산공산청년회를 결성할 때 참가하고 이어 1924년 8월 마산 공산당의 조직에 참가해 활동하고 마산 세포조직에 가입해 활동했다.

1926년 4월 마산 노동야학회 동창회에서 총무부장이 되고 이어서 마산노동회 상무 집행위원이 되어 회계부장으로 활동했다.

제 1차 조공사건으로 일경에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고 혼절했으며 1928년 2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형이 언도되어 서대문 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1929년 5월 마산노동연맹 정기총회에서 집행위원이 되고 같은 해 가을에는 마산노동조합 정치문화부와 소비자 집행위원으로 활약했다.

1938년 3월 마산 적색 문예부 사건으로 일경에 피체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고 혼절했다. 또다시 수 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그는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탈피할 곳이 없어 가입 활동했으며 오히려 순수

애국지사로 볼 수 있다.

-한국사회주의 인명록 강만길 성대경 1996년 125~126면
-일제하 사회주의 운동 인명집 역사문제연구소 559~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 7권 국가보훈처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국사편찬위원회 별집 2권 1992년
-사천시사 2003년 편찬위원회 739면

김판연(金板淵)

김판연(金板淵) 선생은 경남 사천시 (삼천포)동림동 출신이다.

1922년경 독립자금을 수합하다 일경에 검거되어 재판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왔다는 정연태(鄭連泰)가 일의 성공을 위하여 고액의 고용을 시켜 준다는 조건을 내걸고 조선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라고 지시를 받아 말하는대로 1922년 10월 2일 협박장을 작성해 하동군 악양면 정동리에 사는 한권진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그 당시 일제는 수상한 편지는 내용을 뜯어보고 재발송하기 때문에 모든 조선인들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중요단서를 포착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을 모르고 일반인들은 풀로 붙였으니 그대로 온전하게 상대에게 배달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김판연 선생이 보내 편지(협박장)은 우편으로 발송하자마자 즉시 바로 검거될 근거가 되는 수밖에 없었고 다행스럽게 정연태는 도주했다.

-고등경찰 관계적록 1937년 38면
-경남독립운동 참여자록 마산보훈지청 2001년 55면
-사천시사 2003년 759면

김학주(金鶴柱)

김학주(金鶴柱) 선생은 경남 사천시 (삼천포)이홀동(耳笏洞) 290번지 출신이며 1909년 4월 15일생이다.

1931년 12월 13일 용산독서회 관계자 교사들 학생들 20여 명이 일경에 피체되어 엄중한 조사를 받고 혹독한 고문으로 혼절하였다.

김학주 선생은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언도받고 대구복심법원에서 1932년 5월 7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선고되어 약 6개월간 옥고를 치르고 석방되었다.

5~6년이 지난 다음 농어촌 자제 30여 명을 모아 가르칠 때 일경은 순수 학문만 가르치는 줄 알고 있었으나 조선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선 민족의 차별화를 가르치는 등 일제를 은근히 비판하는 내용이 있음을 포착한 일경이 교사 학생 150여명을 검거해 유치장에 감금(監禁)했다. 결국 12명은 검사국에 송치되어 1939년 5월 4일 약 8개월간의 예심 끝에 전원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조선일보 1932. 3.23
-동아일보 1939. 5.9. 8.26.
-신장지문회보서 1937년 경찰청
-고등경찰관계적록 1937년 84~85면
-경남독립운동참여자록 마산보훈지청 2001년 면
-한국현대사자료총서 12 559~560면

김택(金澤)

김택(金澤) 선생의 이명은 김봉희이다.
경남 사천시 축동면 길평리 출신이며 1899년 7월 23일생이다.
일본으로 망명해 대판과 동경을 오가면 조선민족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투쟁하다 일경에 검거되어 옥고를 치렀다.
조선인들은 대판(오오사카)에 대거 거주하고 있었는데 가서보니 너무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통탄함을 금할 길 없어 땅을 치고 울었고, 이때부터 조선인을 위하여 투쟁하고 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신분장지문회보서
-경남각지 항일운동사 제 1권 227년

김환기(金桓起)

김환기(金桓琪) 선생의 이명은 김환기(金桓琪)이다
경남 사천시(삼천포)동리 100번지에서 1913년 10월 28일생이다.
독립운동 당시 거주지는 진주시 수창동 132번지로 알려져 있다.
김환기 선생은 경남의 명문 진주고등보통학교 재학중 동급생과 후배들을 이끌고 항일시위 및 격문을 살포하다가 일경에 검거되어 1932년에 재판을 받게 되었다. 시위전력이 있다하여 학교 당국에서 제적 처분하여 졸업장을 받지 못했다.
진주 적색노동조합을 조직할 때 동참하고 반일운동을 전개하자 일경에 피체되어 일경의 혹독한 고문을 받고 혼절하였고 1933년 10월 4일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이 언도되어 옥고를 치루고, 1934년 12월 13일 부산형무소에서 출옥하였다.

-신분장지문조회서
-진고 60년지 1985년 133면
-독립유공자공훈록 제 6권 국가보훈처 137면
-독립운동사 제 9권 국가보훈처 608면
-판결문 원부 부산지법 1938년 10월 4일
-조선일보 1938년 10월 7일

-사천시사 2003년 편찬위원회 739면

김환일(金環逸)

김환일(金環逸) 선생은 경남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花田里) 출신이고, 삼천포 농민조합 활동으로 일경에 검거되어 옥고를 치렀다.

김환일 선생은 삼천포 농민조합 간부인 박영갑(朴英甲), 김용구(金用九)등과 조합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경찰 당국에 집회신고를 했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거절당하게 되었다, 다시 요구했으나 계속 거절당하자 반항적 요소가 나타나 1932년 4월 8일 조합원 1백 여명을 모아 농기구 등을 휴대하고 일경 주재소를 향하여 큰 소리 지르며 진격했다. 경찰 한 명을 잡고 왜 집회가 안되느냐고 따지자 사천경찰서 본서에서 일경 40여명이 나타나 난타하고 총검으로 위협하였다.

주동자들은 피체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재판을 받았으나 진주 법원. 교도소가 1945년 ~ 1950년 사이에 소실되어 문서가 없어져 명예회복이 불가능하다.

-고등경찰관계적록 1937년 95면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2001년 마산보훈지청 57면
-사천시사 2003년 739면

동방옥모(東坊沃模)

동방옥모(東坊沃模: 창씨 개명) 선생은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540번지 출신이며 1943년 당시 20세 청년이었다.

1943년에 일본 오오사카(대판)지역에 거주하면서 조선민족을 위해 충성한다는 충성회를 조직해 회원을 확보하고 조직을 운영할 계획으로 항일투쟁을 전개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어 재판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일제가 강압적으로 최전방 인도네시아로 투입시켜 죽게 했으며 유족이 시신을 찾지 못하고 말았다.

혹은 일본 동경에 전사자들을 모아 제를 지내는 신사(神祠)에 합사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소화 특고탄압사 명석박융(明石博隆)제 8권 149~154면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마산보훈지청 2001년 60면
-사천시사 2003년 740면

목용찬(睦容贊)

목용찬(睦容贊) 선생은 경남 사천시 평화동 출신 항일투사이다.

목씨는 사천을 본관으로 하는 명문 대족에 드는 집안이며 사천읍에서도 명문(名門)에 속한다.

김종서, 정인지 등이 만든 <고려사>와 <고려사 절요>에 의하면 목충(睦忠), 목인길(睦仁吉), 목자안(睦子安)등이 크게 부각된 인물이며 모두 정 3픔 이상의 무신들이다.

조선시대에는 문과 급제자 33명, 진사생원 합격자 2백여 명이 넘어 4촌 이내가 한명 이상은 모두 벼슬을 지냈다는 계산이 나온다.

목서흠(예조판서(禮曹判書)), 목장흠(호조참판(戶曹參判)), 목대흠(강릉부사), 목내선(좌의정(左議政)), 목행선(관찰사(觀察使)), 목창명(병조판서(兵曹判書)), 목만중(대사간(大司諫)) 등이다.

목용찬 선생은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의 신용희(申鎔熙)등 2명이 함께 의논하여 독립군 명의로 1921년 1월 16일 사천시 곤명면 삼정리에 사는 황정렬(黃正烈)에게 찾아 가서 요구하기를 군자금 1천원이 긴요하니 경성(서울)로 송금할 것을 희망하였다. 2개월이 지난 1921년 2월 16일 일경에 피체되어 엄중한 조사를 받고 혹독한 고문을 받아 혼절했다.

1945년 해방이 되자 친일파들은 부호로 잘사는데 독립운동하신 분들과 후손들은 못사는 것을 보고 통탄하면서 살았다고 한다.

경오년 가을 1930년에 건립하고 1990년에 복원한 사천읍 수양공원(산성공원)에 건립된 수양루에 가보면 위쪽으로 현판이 걸려 있는데 목용찬 선생이 지은 글이 걸려 있다.

1934년 4월 경무국 위생과에 의생(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생계속 면허를 신청했다는 기록이 있다.

1930년대부터 의사로 활동한 근거가 된다.

-고등경찰관계적록 1937년 32면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마산보훈지청 2001년 61면
-사천시사 2003년 편찬위원회 740면

문형근(文馨根)

문형근(文馨根)선생의 본관은 남평문씨로 경남 사천시 곤명면 금성리 613번지 출신이며 부모는 문영철(文永澈),재령 이씨 이수곡(이재성의 딸)이다. 본적지에서 18888년 8월 22일 태어났다.

기미년(1919년)4월 4일 금성리 만세 시위의 주동자 역할을 하다가 헌병대에 잡혀가 엄청난 고문을 받고 혼절했다.

유치장에 감금되었다가 진주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6개월간 진주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석방되었으나 옥에서 생긴 병과 고문 후유증이 심하여 일을 하지 못하고 식물인간처럼 거동을 하지 못했다.

호적상으로 1951년 12월 11일 사망신고를 했으나 그 이전에 순국했다고 전해 온다.
아들은 문병학(文炳學)이명: 문외준(文外俊)이며 공적비 건립을 추진한다는 말이 있으며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성사되지 않아 안타까운 일이다.

손자는 문쌍규(文雙圭),문갑규(文甲圭),문형규(文亨圭),문맹규(文孟圭)이며 증손자는 문창현(文昌鉉).문효진(文孝晉),문성용(文聖龍)이다.

후손들이 명예회복을 위해 기록보존소를 방문하는등 노력중이다.

-곤명면지 편찬위원회 1987년 363면~364면
-3.1운동사 이병헌 242면

문명진(文命振)

문명진(文命振) 선생은 경남 사천시 정동면 소곡리 42번지 출신이다. 일제가 최후 발악하며 동남아에서 하와이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는 총동원법을 만들어 민간, 군인, 군속들, 마을 구장, 반장들을 동원해 위안부 차출하기, 자진 입대를 빙자한 강제동원을 실시할 때 문명진 선생은 일본 오오사카(대판)에 있었다.

1942년 당시 16세 학생으로서 일본의 독립동맹에 관련되어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다 일경에 체포되어 엄중한 조사를 받고 혹독한 고문으로 혼절하기도 했다. 일본 대판 형무소에 가보면 재판 원본을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재판 결과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소화특고탄압사 제 8권 207~210면
-독립운동사 자료집 13 별집 국가보훈처 1407~1410면
-독립운동사 자료집 별집 국가보훈처 210~213면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 6권 국가보훈처 140면
-사천시사 2003년 편찬위원회 740면

문순곤(文順坤)

문순곤(文順坤) 선생은 경남 사천시 용현면 출신으로 1914년생이다.
사천군 사남보통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1931년 8월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 노동자로 일하게 된다.

1932년 3월 일본 노동조합 전국 협의회 토건노조 성북지구 미까야시마(三澗島) 분회에 소속되어 활동했다. 이후 토건노조 중앙상임위원을 역임하고 1932년 4월 일본 공산당에 입당하고 미까야시마의 야체이카 소속이 되었다.

1933년 3월 일본 공청북부지국 위원장으로 활약하고 동경시 의원 동경시 위원장이 되었으나 곧 일경에 피체되어 엄중한 조사와 혹독한 고문을 받고 혼절했다가 다시 깨어났으나 바른말 하지 않는다고 고문을 받다가 다시 깨어나지 못하고 숨졌으니 순국이다. 이때가 1933년이니 약관 20세 청년이었다. 일제의 악독한 고문 실태를 보여 주는 사건이다.

일제는 영원한 원수요 타도대상이다.
수 천 년이 흘러가도 반드시 갚아야 할 일이며 기억해야 할 원수임이 확실하다.

-한국사회주의 운동 강만길 성대경 174면
-신분장 지문조회서
-제국신문 1933년 5월 21일

문영빈(文永斌)

문영빈(文永斌) 선생의 호는 학산(鶴山)또는 황남이며 하동군 북천면 출신이지만 사천시 곤명면과 상당한 인연이 있고 직계손이 사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활동지역이 다솔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등재한다.

문영빈(1891~1961)선생은 1920년 전후에 진주여고. 진주고 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한 명으로 기부금을 기부한 분이다.

1919년 이후 중국 상해로 망명한 이시영 주석(여운형 외교부장)이 이끄는 상해 임정의 전신인 배달학회 총무부장이 되어 활동했다.

백산 안희제, .최준, 정재완, 허만정, 김기태, 추한식, 최용환 등이 참여한 독립자금 조달처인 백산상회가 조직되었을 때, 상임감사로 활동하고 직하정에서 지방 인재 양성을 위하여 봉사하고 시와 차를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케 했다.

문영빈 선생은 만당 비밀 결사의 일원이었고 1910년 한일합방이 되자 조국 독립기구에 참여하기 위해 이시영 선생과 함께 상해로 건너갔다.

자금 조달책으로 다시 귀국하여 백산상회의 감사역으로 취임하였다.

백산상회는 독립자금 조달자들은 각 지역 부호들이었다. 1920년대 한용운. 김범부. 김법린. 최범술. 이기주. 김홍권 등과 함께 다솔사에서 구국운동을 전개했으니 만당(卍黨)비밀 결사를 가르키는 것이다.

1925년부터 하동청년회가 청년회관을 신축할 때 창건유공자로 새겨져 있고 기부금을 납부한 분이다.,

양보면 김홍권과 최용환. 정창국 등은 백산상회 안희제 선생과 밀약한 다음 하동군내에서 독립운동과 군자금 모금을 위해 활동하다 일경에 피체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고 혼절했으며 죽기 전에 석방되었다는 기록도 있다. 그러나 문영빈 선생은 옥고 기록을 찾지 못해 명예회복에 어려움이 많다.

<북천면지>에 기록된 내용을 요약해 본다.

삼우당 문익점의 17세손이며 입북천 직하재 헌상(憲商)의 6세손이시다.

이는 만당비밀결사의 일원으로 1920년대에 한용운, 김범부, 이기주, 김법린, 최범술 등과 함께 사천 곤명의 다솔사를 거점으로 하고 구국운동을 하였다. 상해로 건너가 배달학회 주석 이시영에서 총무부장(외교부장 여운형)으로 활약하다 자금 조달책으로 귀국하여 백산 안희제 씨가 운영하는 백산상회 감사역으로 취임하여 독립자금을 모았고 가내 전답도 한성은행에 담보로 독립자금을 조달하여 백산상회로 투자했다.

'국치 5년 째인 1914년 상해로 다시 들어갈 때 아는 친구들과 촉석루에서 송별연을 하면서 시를 한 수 지었으니 최범술이 읊고 안명언이 글을 받아쓴 것이 근년 손자인 여항이 찾았다'는 내용이다.

해석하면 '한숨의 한소리로 촉석루에 오르니 루는 쓸쓸한 가을 기운만 깊어가고 삼장사가 돌아 가산지 천년의 한을 긴 남강 물도 흐르지 않고 흐느끼기만 하네'

아들 문형근(文炯根)은 세상을 떠났고 손자는 문여황이고 손녀가 진주시 주약동 아파트에 거주한다.

-곤명면지 1987년 357면
-다솔사 입구에 전시된 게시물
-하동군사 여종엽 1978년 277면 306면 426면
-하동읍에 건립된 항일 추모비에 성명을 새김(2014년 3월1일)
-북천면지 2004년 편찬위원회 325면. 328면

박기현(朴基鉉)

박기현(朴基鉉) 선생은 경남 사천시 정의동 357번지 출신이며 1903년 1월 15일생이다.

고종 황제 인산을 당하여 온 국민이 슬품에 잠겨 있을 때 고종 황제가 일제에 의해 당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일제에 대한 반감이 점점 확산되고 있었고 전국에서 만세 시위가 전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진주에서도 고종 인산에 다녀온 인사들이 <독립선언서>태극기, 격문을 휴대하고 진주로 귀향해 시위를 준비하게 된다. 3·1운동이 일어나자 사천읍내 애국청년들 박종실이 강대창 강달영 박진환 등을 만나 시위 상황을 듣고 <독립선언서>태극기를 받아 오는데 성공하게 된다.

박기현 선생은 김기철 등과 진주시위에 동참하고 1919년 3월 19일 밤에 사천읍 정의동에 사는 이윤조 집에서 사천의거를 논의하고 준비했다.

3월 21일 사천보통학교 졸업식 날에 의거를 위하여 눈부신 활약을 했다.

이날은 사천보통학교 교내 축구를 빙자해 기회를 엿보다가 오전 9시에 흥분한 학생들이 가슴속의 태극기를 꺼내어 만세를 외치고 학교 대문을 박차고 나가 시내로 진출하게 된다. 청년들도 시내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자 사천읍은 태극기 물결을 이루고 만세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항일전단지가 뿌려지고 시민들의 참여가 점점 많아지자 일 헌병이 나타나 주동자 박기현 선생등을 체포했다.

헌병과 경찰의 혹독한 고문을 받고 혼절했으며 1919년 4월 22일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재판을 받고 1919년 7월 22일 진주형무소에서 석방되었다. 3개월 이상 옥고를 치른 셈이다.

-3·1운동실록 이용락 1969년 709면 7010면
-부산경남3·1운동사 3·1동지회 1979년 813~814면
-신분장지문회보서
-경남독립운동참여자록 2001년 마산보훈지청 64면
-경남지역3·1독립운동사 문화원 경남도지회 2007년 60면 67면
-독립운동사적지 독립기념관 보훈처 2010년
-사천시사 2003년 편찬위원회 740면 1747면

박낙종(朴洛鍾)

출신지(본적): 경남 사천시 곤명면 금성리
생몰년월일: 1899년 3월 3일~1950년 6월 29일

박낙종(朴洛鍾) 선생의 호는 혜관(慧觀)이며 경남 사천시 곤명면 금성리에서 태어났다. 하동군 옥종면 유학자 사와(士窩) 하재도(河載圖)선생의 사위이며 담원 (澹軒)하우선(河禹善) 학자의 매부이다.

소년시 명심보감, 논어, 맹자, 대학 등을 배울 때 가르치는 선생이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을 정도로 영리하고 똑똑하다고 말했다.

서울 중동학교에 입학했다가 중퇴하고 1922년 일본 정측영어학교에 입학해 2년간 수업을 받았다.

1926년 와세다(早稻田)대학 전문부 정치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대학재학중 구월회(九月會)를 조직하고 사상단체인 북성회(北星會)와 일월회(一月會)에 가입해 사회주의 운동을 전개했다. 일월회 기관지 <사상운동>발행인이 되었다.

1926년 12월에는 조선공산당 제 2차 대회에 재일 조선인 대표로 활약하고 1927년 4월 조공 일본부를 재조직하고 책임비서로 선임되었다.

일본 동경에 거주하면서 조선어인쇄사 동성사(同聲社)를 설립해 <대중신문>등과 정기 간행물을 간행해 사방에 배포했다.

1928년 2월 제3차 조공사건으로 피체되어 1930년 경성지법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5년형이 언도되어 서대문 감옥에서 이감되어 1934년 1월 대전형무소에서 출옥했다.

1945년 8월 조공(장안파)결성에 참가하고 9월에는 조선인민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1946년 2월 민족주의 민족전선중앙위원이 되었다.

서울에서 조선 정판사 사장으로서 각종 신문 등을 발행했다. 그러나 정판사 사건으로 체포되어 징역형을 언도받고 목포형무소에 수감 중 1950년 6월 한국전쟁 중 총살되고 말았다.

-고등경찰관계적록 1937년 106면
-서대문감옥 기록물
-고등경찰요사 1934년 160면
-근현대지역 운동사 194면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2001년 마산보훈지청 64면
-신분장지문회보서
-기려수필 송상도 306면
-독립유공자공훈록 제 7권 국가보훈처 133면
-조선일보 1930년 7월 10일 1936년 5월 21일
-동아일보 1928년 2월 7일 1929년 11월 1일
-사천시사 2003년 740면
-한국독립운동사 자료집 별집 3권 국가편찬위 478면
-경성지법 판결문
-하동유학의 맥 하동문화원 2012년 278면 296면 301면
-신간회 연구 이균영 1993년 61면

박남준(朴南遵)

*출신지(본적): 경남 사천시 사천읍 평화동 731

*생몰년월일: 1892~1956

박남준(朴南遵) 선생은 사천읍 정의동에서 태어나 평화동 731번지로 옮기고 다시 선인동 539번지 옮겨 살면서 상업에 종사했다.

생원, 진사 정태석, 하재화 선생의 지도를 받아 경남 최초의 신간회 사천지회를 설립했다. 이 때 창립준비 모임을 박남준 선생 자택에서 실시되었고 원적이 사천인 김의진 선생, 사천청년회 재무부장 강휘생 등 3명의 청년들이 창립 준비위원들이다.(조선일보 1927년 6월 20일)

창립 임원을 선출할 때 박남준 선생은 서무부 총무간사가 되고 사천보통학교 선배 하용수(河容守)를 회장으로 세웠다.

1927년 12월에는 박남준 선생이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신간회는 한글보급운동, 농민권리의 신장, 애국강연회 실시, 야학교 운영 등을 실시했다.

후손들이 주로 서울 강남동에 거주한다.

-제적등본

-신간회 연구 이균영 1993년 592면

-조선일보 1927년 6월 20일 6월 24일

-조선일보 1928년 2월 7일

박대영(朴大暎)

박대영(朴大瑛) 선생의 이명은 박대영(朴大榮)이고 사천시(삼천포) 동동 혹은 선구동에서 1914년 9월 25일 태어났다.

2008년 독립운동으로 큰 공적을 쌓으시고 대통령 표창을 받으신 이금복(李今福) 여사의 전 남편이다.

삼천포 이치리에 소재한 사설 용산(龍山)독서회에서 좌익분자들이 적화 선전기관의 경향을 가진 3-9 교사 최을환 외 2명이 삼천포경찰서 주재소에 검거되어 유치장에 감금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학부모 학생들 수백여 명이 교사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주재소로 투석하고 쇄도하는 등 투쟁하자 사천경찰서 본서에서 급파된 경찰에 의해 주모자 12명을 검거하고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야학회를 폐쇄키로 했다.

삼천포 동리의 최효근, 정한영, 활달봉, 배장영 외 28명은 권태형을 중심으로 조선공산당 재건협의회가 사천지방의 박대영 지도를 받아 1931년 5월 중순 삼천포 동리 소재한 빈집에서 회합해 비밀결사 독서회를 조직하고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실천 투쟁에 노력하였다. 일경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31년 9월에도 또 옥고를 치르게 되는데 삼천포청년동맹이 검거되었을 때 집회를 하려다가 집회를 금지당하자 불응하고 강행하려다가 9명이 모두 체포되었다.

박대영, 배성기, 박영수, 배장영, 탁철, 김석원, 김진권, 김실백, 배두환 등이 체포되어 재판

을 받게 되었다. 재판 결과는 알 수 없다.

광복 후 남해군 서면에서 사회주의 계통에서 활동했다.

-조선일보 1931년 9월 14일
-고등경찰관계적록 1937년 92면 101면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2001년 65면
-한국근현대지역운동사 역사문제연구소 1993년 227면
-사천시사 편찬위원회 2003년 740면

박두수(朴斗守)

박두수(朴斗守) 선생의 이명은 박두수(朴斗洙)이며 경남 사천시(삼천포)동리 출신이고 그 당시 주소는 선구동이다.

생몰년월일은 1892년 2월 14일생~1961년 10월 15일일 이다.

사천시 남양면 노룡리에 사는 박종실 선생이 3·1운동 소식을 듣고 참을 수 없어 진주로 달려가 진주3·1운동 지도자인 강달영, 박진환 등을 만나 <독립선언서>를 구하는데 성공하였다.

귀향한 그는 노산공원에서 삼천포보통학교 교원 황병두를 만나 동참케 하고 애국청년들 김우열, 박두수, 강금수, 고광세, 손우상, 이계철, 강상조 등의 호응을 받았다.

1919년 3월 23일 삼천포 장날을 기하여 3곳에서 3대로 나누어 시위하기로 결정했다.

학생들과 청년들 시민들 수백여 명을 이끌고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시위대가 문선교를 지나 경찰서로 향하자 일경 50여 명이 나타나 총검(銃劍)으로 찌르고 난타하니 선두에서 지휘하던 청년지도자들도 다치고 피가 낭자하였으며 피체(被逮)되었다.

이때 군중들은 동서로 흩어지면서 더 큰 소리로 독립만세를 외쳤다.

박두수(1892~1961)선생은 일경의 혹독한 고문을 받고 혼절할 정도가 되었다.

1919년 5월 6일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재판을 받고 태형 90도를 맞고 5월 9일 석방되었다.

박두수 선생은 고문후유증과 태형 후유증으로 수년간 고생했기 때문에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으나 지금까지 명예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아들 박섭은 세상을 떠나고 손자 박종환은 회사원이다.

-독립유공자공훈록 제 2권 국가보훈처 150면
-부산경남3·1운동사 3·1동지회 1979년 829면
-독립운동사 제 3권 국가보훈처 272면
-신분장지문회보서
-사천시사 편찬위원회 2003년 741면
-3·1운동실록 1969년 713면
-경남지역 3·1독립운동사 문화원 경남도지회 2007년 63면

박상윤(朴相潤)

박상윤(朴相潤) 선생은 고성군 하이면 석지리 307번지 출신이며 생몰년월일은 1897년 9월 10일생~1972년 2월 8일몰이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 공원에서 3,1운동의 봉화가 요원의 불길처럼 퍼질 때 삼천포 사천 지방 천도교 교구장 법도집(뒤에 법장) 장태영 선생이 상경하여 전부터 천주교 관계로 친분이 있었던 민족대표 손병희 선생을 만나 <독랍선언서>를 입수했다.

버선목에 <독립선언서>를 숨겨가지고 내려와 진주 사천 삼천포 등지로 전달했다.

한편 남양면의 박종실 선생은 감격과 흥분을 가눌길 없어 진주로 달려가 강달영 박진환 등을 만나 태극기 <독립선언서>를 등을 구하게 된다. 박종실 선생은 평양 대성학교 동문이었던 황병두를 찾아가 보통학교 교원으로서 학생동원이 쉬우니까 애국시위에 동참해 줄 것을 설득시키고 보통학교 졸업반 학생인 자신의 장남 박형얀을을 통해 반장 전영조를 설득 포섭하는데 성공했다.

고성군 하이면 출신 박상진, 박상윤, 박두수, 박종두, 유상재, 남두관 등을 포섭했다.

장태영 선생도 자신의 장남 장주학이 졸업반이기 때문에 비밀연계를 가지고 은밀하게 준비했다. 장주학 선생은 김태섭, 김태근 형제를 설득해 학생들을 동원하도록 했다.

전국적인 3·1 독립만세 운동의 소식을 전해 들은 청년 애국지사들은 불타는 애국애족심으로 김우열, 강또수, 고광세, 박두수, 장지린 등이 비밀 작전회의를 개최하고 1919년 3월 25일 삼천포보통학교 졸업식 날이며 삼천포 장날을 택하여 거사키로 결정하였다.

제1대, 2대, 3대로 나누어 의거키로 하고 졸업식을 기다리던 학생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박상윤, 박상진, 박상인, 장주학, 박형안, 전영조, 김태섭, 김태근 형제, 박종두, 우상재, 남두관 등 각 조장을 선두로 하여 학생들이 교문을 박차고 읍내로 진출했다.

박상윤 선생은 시위대를 지도하다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고 혼절했다.

박상윤 선생은 하이면 석지리 양촌마을에 노동야학회를 설립(1920년)하고 유치자(劉致子), 조태규(趙泰奎), 김용권(金容權), 박인욱(朴仁煜) 등이 교원이 되어 가르쳤다.

그러나 하이면장 최재황(崔載滉)이 강사들과의 사감으로 학교를 폐쇄시키고 김용권, 박인욱 등을 경찰서로 연행하여 곤욕을 당하게 했다.

박상윤 선생은 1972년 2월 8일 별세하고 장남 박동영은 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손자 박재석, 박재표 등은 부산에 살고 있다.

-부산경남 3·1운동사 3·1동지회 1979년
-독립운동 사적지 2010년독립기념관 413면
-사천시사 2003년 편찬위원회 741면
-동아일보 1931년 7월4일
-3·1운동실록 이용락 1969년 712면

박상진(朴相璡)

*출신지(본적): 경남 고성군 하이면 석지리 311(499)

*생몰년월일: 1901년 3월4일~1973년 9월 30일

박상진(朴相璡) 선생은 고성군 하이면 석지리 출신이며 1919년 3월 삼천보통학교 재학생이었다.

1919년 3월 25일 삼천포 보통학교 졸업식하는 날이 삼천포시장 장날이었다. 학생들은 졸업식이 끝나면 시위를 시작하기로 약속했으나 참지 못하고 가슴속의 태극기를 꺼내어 만세를 외치고 시내로 돌진하기 시작했다.

학생들 150여 명이 시위하자 청년들도 마음이 급해 장터로 나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바로 시민들과 함께 시위를 주도했다.

박상진 선생은 시위대 앞에 서서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고 혼절했다.

선생은 하이면 석지리 양촌마을에 노동야학회를 1920년에 설립하고 유치자, 조태규, 김용권, 박인욱 등이 교원이 되었다. 문맹자들에게 글과 수학을 가르쳤다. 그러나 1931년 7월 4일 하이면장 쵀재황이 강사들에게 사감으로 학교를 폐쇄하고 일본 순사부장을 앞세워 김용권, 박인욱 등을 고성경찰서로 잡아가 감금(監禁)했다.

박상진 선생은 1973년 9월 30일 별세하고 장남 박용욱은 전 공무원을 역임하고 손자들 박재두, 박재윤 등은 부산지역에서 사회 귀감이 되고 있다.

-독립운동사적지 국가보훈처 2010년 413면
-사천시사 2003년 741면
-동아일보 1931년 7월4일

박수영(朴守榮)

박수영(朴守榮) 선생은 경남 사천시 출신이며 정확한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다.

중국 상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와 관련된 일과 항일투쟁의 모임을 통해 애국활동을 전개하다 일경에 탐지되었으나 피체되지 않았다가 16개월이 지난 다음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35년 당시 27세로 알려져 있다.

-독립유공자공훈록 제 5권 국가보훈처 340면
-사상정세시찰보고서 사회문제연구소 247면
-사천시사 편찬위원회 2003년 741면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마산보훈지청 2001년 69면

박영갑(朴英甲)

박영갑(朴英甲) 선생은 경남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출신이다.

1935년도 <고등경찰관계적록> 95면에 의하면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의 삼천포 농민조합 간부 김환일, 박영갑, 김용구 등은 조합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반항적

태도가 나타나 4월 8일 조합원 2백 여명을 동원하여 농기구 등을 휴대하고 주재소로 쇄도, 폭거하여 경찰서 본서에서 경찰이 대거 출동하여 주동자 41명을 체포하여 시위가 진정되었다. 박영갑 선생도 일경에 피체되어 엄중한 조사를 받았으나 재판 결과는 알 수 없다.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마산보훈지청 2001년 70면
-사천시사 편찬위원회 2003년 741면

박영수(朴永秀)

박영수(朴永秀) 선생은 경남 삼천포에 거주하면서 청년동맹 활동을 전개하다 결국 옥고를 치른 항일투사이다.

사천시 동리(동동)의 강몽우, 최효근, 황달봉, 박영수 등이 다함께 표면적으로는 사천 청년동맹 삼천포지부를 설립하기 위해 회원을 모집하여 1929년 8월 20일 창립대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집회가 금지 당하자 8월 27일 창립을 위한 서면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삼천포 선구리 강옥서 집에서 강몽우, 박영수 등이 24일 25일 양일간 원고를 작성하여 4명이 공동으로 공산당 막스에 부하여 현재는 모순 덩어리 이고 경제조직의 투쟁하는 방법 등을 알리는 기사로 회록 45부를 인쇄하여 배포하였다는데 단서내용은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할 목적으로 비밀 결사 <노동조합>을 조직하려는 불온한 책동이 일경에 발각되어 1929년 8월 26일 4명을 모두 검거했다는 것이다.

혹독한 고문을 받고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재편을 받고 대구복심법원에서 금고 3월집행유예 3년이 언도되었으니 약 6개월간 옥고를 치른 셈이다.

-고등경찰관계적록 1937년 65면
-판결문 (대구복심법원)1930년 1월 8일
-사천시사 2003년 741면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마산보훈지청 2001년 70면

박이기(朴二基)

박이기(朴二基) 선생은 경남 사천시(삼천포)동리(동동)출신이고 생년월일은 1914년 8월 29일생이다.

삼천포농민조합 사건과 관련되어 징역 3년형이 언도되어 2년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1929년 3월 삼천포공립보통학교를 졸업했다. 4월부터 2개월간 중앙일보 삼천포지국 신문배달원으로 일했다.

경남 직물검사소 삼천포 출장소 급사로 약 1년간 일하기도 했다.

1931년 삼천포소년회가 창립되자 자진해서 가입했다. 1931년 10월 삼천포농민조합 대회에서 행한 축사가 불온하다는 이유로 삼천포 소년동맹원 11명과 함께 구류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다. 함께 활동한 동지들은 박대홍. 탁호관. 박영준. 배두환. 김실백 등이다.

삼천포독서회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형유예 3년형이 언도되었으나 결국 벌금형이 부과되

었다.

1933년 삼천포농민조합에 가입하여 부두 하역부로 일을 했다. 부산 초량동 863번지로 옮겨 거주한 시기도 있었다.

1934년 3월 삼천포 노동자농민그룹에 동참해 조직부 책임자가 되었다.

1934년 11월 부두노동자들을 모아 놓고 일제에 대항하기 위해 우리끼리 단결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와 같이 끝없이 투쟁하기 때문에 노동운동의 주동자로 감시를 받아 오다 노동자들을 선동한다는 혐의로 일경에 피체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고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징역 3년형이 언도되어 옥고를 치르고 1942년 3월 4일 부산 형무소에서 석방되었다.,

광복 이후에도 조합운동을 계속하게 되는데 1945년 12월 전국농민조합 총연맹 결성대회에 사천지역 대표로 참석했다.

-한국근현대 지역운동사 역사문제연구소 1993년 197면
-일제하 한국36년사 12권 279면
-독립유공자공훈록 제 7권 142면
-신분장지문조회서
-판결문 1939년 8월 30일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마산보훈지청 2001년 72면
-동아일보 1939년 9월 3일 1931년 8월 8일
-일제하 사회운동 잍명록 역사문제연구소 1992년 873면
-사천시사 2003년 편찬위원회 741면

박영준(朴泳俊)

박영준(朴泳俊) 선생은 창씨개명은 신천영준이다. 경남 사천시(삼천포)서리 출신이며 생년월일은 1913년 11월 28일생이다.

사천시(삼천포)의 박영준, 이민호(李敏鎬) 등은 다함께 1934년 2월 8일 삼천포소비조합 창립을 기념하기 위한 3주년을 맞아 조합원 모집의 수단으로 <노동자 농민 소시민>에게 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인쇄 배포하여 조합원 확대를 강화하려고 했으나 일경에 의해 출판법 위반으로 검거한다는 단속으로 실천하지 못했다.

삼천포 소년동맹 임원으로 활동 중 일경에 피체되는 등 수시로 유치장에 감금(監禁)되어 옥고를 치렀다(동아일보 1931년 8월 8일)

일경의 혹독한 고문을 받고 혼절했다.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기소유예로 석방되었다.

-경남항일독립운동 참여자록 2001년 마산보훈지청 70면
-고등경찰관계적록 1937년 113면
-사천시사 2003년 741면

박인욱(朴仁煜)

박인욱(朴仁煜) 선생의 이명(창씨개명)은 중성수항(竹成守皇)이다.

박인욱 선생은 경남 사천시(삼천포) 선구리(동)에서 활동했으나 고성군 하이면 석지리 451-4번지가 본적지이며 죽산 박씨 박상종(朴相淙)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생몰년월일: 1913년 9월 11일~1968년 8월 23일

박인욱 선생의 애국애족심을 알 수 있는 사건으로, 삼천포지역에 살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가차 없이 퇴학시키는 일을 중단해 달라는 운동을 전개했으니, 참으로 훌륭한 투쟁이 아닐 수 없다.(1931년 11월)

정한영과 함께 삼천포청년동맹 임원으로 활동하고 노동 노동자 운동을 전개하다 일경에 피체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고 혼절했다.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징역 2년 6월형이 언도되어 옥고를 치르다가 1년 3개월 만인 1940년 11월 9일 가 출옥 하였다.,

고문 후유증으로 수년간 고생했다.

김금안과 혼인해 박정희, 박정숙 딸을 두었다. 수년 전 포상신청서와 각종 문헌과 함께 제출했으나 무슨 사유인지 몰라도 포상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

-고등경찰관계적록 1937년 89면

-경남독립운동참여자록 2001년 마산보훈지청 72면

-일제하농민조합운동 연구 지수걸 434~435면

-동아일보 1939년 8월 26일 9월 3일

-부산일보 2007년 11월 15일

-경남매일 2007년 11월 16일

박종대(朴鍾大)

박종대(朴鍾大) 선생은 삼천포 3·1운동을 지도한 삼천포보통학교 학생이다. 사천시(삼천포) 노룡동에 거주하면서 보통학교 재학중인 1919년 3월 25일 독립만세시위에 동참하고 일경에 의해 검거되었으나 기소유예로 석방되었다.

삼천포 3·1운동은 삼천포 장날과 학교 졸업식이 같은 날이기 때문에 인원 동원이 수월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시작된 것이다.

삼천포 시위는 3곳 3대에서 동시에 시작하자는 뜻을 결의한 것이며 각자의 위치에서 시위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졸업식이 진행되는 중간에 반장의 신호에 따라 교문을 박차고 나갈 때 박종대 선생도 가슴에 품고 있던 태극기를 꺼내어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내를 행진하고 문선교를 지나 경찰서 방면으로 진격하니 왜경 출동하여 마구 난타하였고 부상자가 속출하였다.

수십 명이 체포되었고 박종대 선생도 앞장서서 시위했다는 이유로 피체되었고 부상자 명단에 들었기 때문에 곧 석방되었다.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2001년 마산보훈청 74면

-독립운동사(3·1운동사)3권 국가보훈처 270면 271면
-독립운동사 9권 국가보훈처 260면
-부산경남3·1운동사 3·1동지회 1979년 791면
-사천시사 2003년 편찬위원회 742면
-독립운동사적지 보훈처 독립기념관 2010년 413면

박종실(朴琮實)

*출신지(본적): 경남 사천시 남양면 노룡리
*생몰년월일: 1890년 4월 22일~1965년 2월 1일, 또 다른 기록에는 1888년 4월 22일생으로 기록되었다

박종실(朴琮實) 선생의 이명은 박종실(朴鍾實)이며 지역에서 존경받는 학자로 알려져 있다. 전국적인 만세소리와 함께 고종황제가 시해되었다는 소문이 들리자 더욱더 흥분된 마음으로 진주로 달려간 박종실 선생은 강달영. 박진환 등을 만나 <독립선언서>를 입수하여 삼천포로 귀향했다.

박지사는 평양대성학교 동문 황병두가 삼천포보통학교 교사로 근무중임을 알고 찾아가 이번 독립만세 시위에 동참하고 학생동원을 도와 달라고 말했으나 처음에 거절했다가 뒤에 승낙하였다.

박지사는 자신과 관계된 박형안(1909.10.14.일생) 보통학교 재학생을 통해 학생들을 동원하였다.

전영조(반장), 박상윤, 박상진 등과 연락하며 독립선언서를 대량으로 등사하였다.

1919년 3월 25일은 삼천포보통학교 졸업식이며 삼천포 장날이었다.

제1대는 학생중심으로 노산공원, 제2대는 해변에서 청년들 중심, 제3대는 선구동 장터에서 각각 시위를 전개키로 결정했다. 일제 측 기록은 학생 일백 여명으로 되어있음.

선두자 고광세, 박종실 등은 부상을 당하고 (동아일보 1922년 6월 10일)시위 주동자라 하여 일경에 체포되어 진주 검찰 지청에서 재판 거부투쟁을 전개하였음.

경남일보 1912년 2월 5일자에 보면 평양대성학교 재학중 신문을 구독한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그 당시 신문을 구독한다는 것은 지식층이라는 뜻도 있지만 상당한 재력가라는 의미를 가진다.

1920년경부터 연령관계로 배우지 못한 청소년들을 모아 이민호 면장과 지역 유지들과 협력하여 학생 150여명을 모아 가르친 교육 봉사요 교육적 항일운동을 실천한 분이다.

1922년 6월 5일 박종실 선생은 의연금을 모아 교실을 신축하고 보명학교(普明學校) 낙성식을 거행하고 기념운동회를 개최했다는 기록이 있다. 남양중학교와 남양초등학교 설립당시 공을 세웠으며 또 저수지를 공사할 때도 솔선수범하신 분이다. 박종실 선생은 애국애족을 실천하고 애향정신이 투철한 분으로 기록된다. 1965년 2월에 세상을 떠났다.

아들은 박장원, 박두원이 있고 후손 박홍박, 박재두, 박실구(부산 거주하다 별세)와 장손 박기영(처: 강재열)은 남양면에서 벌리동 149번지로 이주해 살다가 직계는 모두 별세했다.

박기영 장손이 15년 전에 남양중학교에 근무할 때, 대아고 손상봉 선생과 남양면 노룡리에

거주하는 박일우 선생이 필자에게 보내온 우편물의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박종실 선생은 송파(松坡) 박진규(朴鎭圭)선생의 외아들이며 호는 단춘(檀春)이다. 7세 때 한문을 배우고 17세 때 고성향교에 들어가 명심보감,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등 점점 깊은 학문을 배웠다.

진주 낙육고등학교에서 수학하다 평양대성학교로 진학하니 도산 안창호 선생을 만나 그의 사상의 영향을 받게 된다.

졸업 후 귀향하여 남양지신학교를 인계받아 경영하고 야학당을 개설하여 신학문을 가르치니 일제의 감시가 심하였다.

일제는 수시로 잡아 조사하고 6하 원칙에 따라 엄중한 조사를 하고 혹독한 고문을 가하였다. 만주로 건너가 북간도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석주 이상용 선생을 만나 군사훈련을 받았고 작전도 수행했다. 2년 만에 고향에 나타난 박종실 선생은 일경에 의하여 무조건 피체되어 2년간의 행적을 따졌으나 실토하지 않았다.

1919년 3월 전국적으로 3·1운동이 전개되고 진주에서도 시위가 전개되자 진주로 달려가 강달영, 강대창, 박진환 선생 등을 만나 시위에 동참하고 <독립선언서>를 입수하는데 성공하였다.

삼천포지역 3·1운동을 지도하기 위해 대성학교 동문 황병두가 보통학교 교사로 근무하기 때문에 찾아가 시위를 논의하고 동의를 받고 보통학교 학생들에게 태극기를 나누어 주고 졸업식하는 날. 삼천포 장날 3월 25일을 의거일로 결정했다.

결국 일경에 피체되어 고문을 받았으나 재판을 거부하여 이목을 끌었다. 옥고를 치르고 석방되었으나 좌절함이 없었다.

박종실 선생은 양진재(養眞齊)와 보명(普明)학원을 세워 힉생들을 가르치고 애국계몽 운동을 전개하고 강연회, 소인극, 문자 보급운동을 전개하여 민족의식을 심어주었다.

1922년 3월 9일 대구에서 개최된 남선노농동맹 대회에서 중앙상무집행위원으로 선정되었는데 진주 박태홍, 하동 조동혁과 함께 선정되었다. 서울에서 개최된 조선청년회 연합회에도 참석했다.

1926년에는 남양초등학교 창립을 발기하여 남양교육의 발판을 세웠다.

1928년에는 일본 농촌을 시찰하였고 농민들과 소작인들이 만주 등지로 이주해 감을 애석하게 여기고 우리 농촌을 지키자고 외치고 농토를 구입해 나누어 주기도 했다. 또 가마니 공장과 생산조합을 만들어 농민운동을 펼쳐 농가 소득을 높이는 일을 했다.

저수지 축조공사를 진행해 6개 처를 만들고 청소년들을 위해 독서운동을 펼쳤으며 충의효열 하신 분 들을 찾아 포상하고 이순신 장군 공덕기념비를 구등산(거북등)에 세우고 부산 수영대에 안정복 장군비를 건립할 때 큰 공을 세웠다.

남양중학교 창립은 이 고장 교육의 터전이 되었다.

끝으로 1965년 향년 76세를 일기로 눈 감으시니 그의 고난에 찼던 생애의 역사는 민족과 나라의 수난사 바로 그것이었다.

1912년 2월 경남일보에 의하면 평양대성학교 학생 박종실 이름으로 신문을 구독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경남일보1912년 2월 5일
-독립운동사적지 독립기념관 2010년 413면
-독립운동사 3권 국가보훈처 270면
-독립유공자공훈록 제 2권 국가보훈처 161면
-부산경남3·1운동사 3·1동지회 1979년 827면
-3·1운동실록 이용락 1969년 711~712면
-항일투사 열전 2권 추경화 1997년 193면 225면
-경남지역 3·1독립운동사 문화원 경남도지회 61면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이대수 2001년 74면
-사천시사 2003년 편찬위원회 742면 1748면
-한국청년운동사 선우기성 1973년 570면

박진(朴震)

박진(朴震) 선생은 경남 사천시 혹은 고성군 하이면 출신이라고 전해 온다.

빈농 출신이기 때문에 보통학교 졸업도 하지 못하고 일본 경도(쿄오토)로 건너가 신문배달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일본 공산청년동맹에 가입하고 경도지부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1932년 8월 반전시위 운동을 앞두고 일제의 대대적 검거에 의해 박진 선생도 피체되어 마쯔하라(松原)경찰서에 유치된 채 혹독하고 무지한 고문이 이어지자 9월 30일 30대 청년이 고문으로 옥중에서 사망했으니 순국(殉國)이다.

-신분장지문회보서
-사회주의 인명색인집 1992년 1973면

박학봉(朴學鳳)

박학봉(朴學鳳) 선생은 경남 사천시 서포면 선진리 83번지 출신이고 생년월일은 1905년 3월 24일이다.

사천시 서포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진주공립농업학교에 입학했다. 1919년 3·1운동 열기가 점차 식어지고 있을 때 1920년 8월 일제 천장절을 이용하여 크게 독립운동을 하기로 작정하고 독립문서 300장을 인쇄하였다.

8월 30일 오후 7시경 진주공원. 농업학교 앞, 재판소 앞, 3곳으로 정하고 동시에 각기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높이 부르기로 하고 독립선언서와 비슷한 독립문서를 등사해 돌리기로 하고 제 1보통학교. 제 2보통학교(봉래). 광림학교(기독교계) 기독교계청년회. 청년 친목회 등 여러 곳에 동지들을 운집하기로 하고 태극기 다수와 손 깃대, 격문 100장을 배포하려다가 제1보통학생 2명, 제2보통학생 1명, 광림학교 1명, 기타 15명 총 72명이 검거되었는데, 결국 주동자 19명은 검찰로 송치되고 57명은 석방되었다.

문위동(김해 가락면), 신영안(사천읍), 김익상(양산 동면), 박학봉(사천 서포면) 등은 부산지

법 진주지청에서 1920년 10월 15일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또는 2년형이 언도되었다.
박학봉 선생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언도되었다,

-독립운동사 자료집 13권 741면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 2권 국가보훈처 164면
-부산경남3·1운동사 3·1동지회 1979년 431면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마산보훈지청 2001년 76면
-신분장지문조회서
-사천시사 2003년 편찬위원회 740면

배장영(裵章榮)

배장영 선생은 경남 사천시(삼천포) 동리 22번지 출신이다. 생년월일은 1911년 1월 14일이다. 진주고보를 졸업하였다.
사천시 선구리의 배장영 선생은 사회주의자 박대영(朴大榮)의 지도교양에 의해 사상이 좌익화로 실천투쟁의 전개를 지도하고 노동체험 동지들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삼천포 청수정미소(일제)에 일하는 취업자에게 불만을 말하게 하고 선동하였고 1932년 2월 22일 고용주에 대하여 쌀값은 자주오르는데 반하여 임금은 평균 10전 가치를 요구하고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취업자 20여 명을 모아 동맹파업을 결행하고 고용주에 대하여 강경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임시고용이면 조업을 속행토록 하였다
또 삼천포 동리 최효근, 정한영, 배장영, 황달봉 외 28명은 권대형(하동 옥종면)을 중심으로 조선공산당 재건협의회 사천지방 야체이카의 박대영(이금복 선생의 남편)지도에 의해 1931년 5월 중순 삼천포 동리 소재 빈집에서 회합을 갖고 비밀 결사 독서회를 조직하고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할 목적으로 의식 배양을 도모하고 삼천포전기회사와 석탄 하역 인부들의 동맹파업을 유도하는 등 실천투쟁에 노력하는 것으로 인지되어 각각 일경에 체포되었다.
일경의 혹독한 고문을 받고 혼절하고 또 혼절했다.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재판을 받고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5년형이 언도되어 약 6개월 이상 옥고를 치렀다.

-경남독립운동참여자록 2001년 마산보훈지청 78면
-고등경찰관계적록 1936년 92면 101면
-신분장지문회보서
-대구복심법원 1933년 3월 23일
-사천시사 2003년 편찬위원회 742면
-한국청년운동사 선우기성 1973년 92면

성중호(成重鎬)

성중호(成重鎬) 선생은 경남 사천시(삼천포) 출신이다.

동아일보 1922년 4월 6일 자에 의하면 동아일보 사천지국장에 임용되었다. 그 당시 기자(記者)겸 총무는 박두석(朴斗石)이라고 했다.

삼천포 청년연구회가 창립될 때 동참하고 1922년 4월 30일 제 4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때 부회장은 박영주(朴永周), 재무담당 김을수(金乙秀), 덕육부장 장지학(張地鶴), 지육부장 강한수(姜漢秀), 체육부장 원철상(元喆常)이다.

1923년 4월 22일 제6회 정기총회에서 성중호 선생은 평의원이 되었다. 이때 회장은 장지린, 부회장 손우상, 총무 박두석 등이 선출되었다.

성중호 선생이 회장으로 재임 중 외부 강사를 초빙해 강연할 때 수백명이 몰려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보도되었으니 놀라운 일이다.

1920년대에는 문화적 욕구는 많으나 수요가 따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청년운동사 1973년 선우기성 392면
-일제하 사회운동 인명집 1992년 역사문제연구소 1037면
-동아일보 1922년 5월 12일 1923년 5월 2일

손영섭(孫泳燮)

*출신지(본적): 경남 사천시 동림동 296(선구리 89번지로 전적)
*생몰년월일: 1914.년 8월 16일~1950년 6월 30일

손영섭(孫泳燮) 선생은 삼천포 동림동에서 부모 손우상, 안정덕 슬하에 장남으로 태어났다. 선생은 삼천포 중류가정에서 성장했다.

1931년 3월 삼천포공립보통학교를 졸업했다. 부모님이 양조장을 경영하고 식료품점과 정미소를 경영할 정도로 지역 부호로 알려져 있다.

1932년 2월 삼천포 소년연맹에 가입 활동하고 같은 해 4월 삼천포농민조합 소년부에 가입해 활동했다.

1933년 10월 삼천포지역에서 야학회를 비밀로 결성하였다.

1934년 3월 삼천포 노농운동그룹 결성에 참가하고 농민운동 책임자로 활약했다.

1934년 8월 농민운동 그룹의 조직에 참가했다.

1934년 12월 적색노동운동 그룹의 조직을 주도적으로 하고 교양분야 책임자 등으로 활약했다. 박이기와 함께 활동한 기록이 있다.

1939년 8월 일경에 피체되어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징역 3년형이 언도되어 출옥직전 출옥사유서를 쓰고 가 출옥했다. (판사는 미결 180일 인정)

1950년 6월 어느 날 밤중에 자택에 자다가 대한민국 군경에 끌려가 반성면 또는 산청 덕산골짜기에서 죽으니 순국(殉國)이 아니겠는가.

아들들 손문수, 손문우, 손문영 등이 진주와 사천에 거주한다.

-고등경찰요사 184면

-한국사회주의 운동사전 강만길 244면
-일제하한국 36년사 12권 395면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 7권 국가보훈처 160면
-신분장지문회보서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마산보훈지청 2001년 86면
-사천시사 2003년 편찬위원회 742면
-동아일보 1939년 8월 26일 1939년 9월 3일

손우상(孫雨常)

*출신지(본적): 경남 사천시(삼천포) 서금리 12
*생몰년월일: 1897년 7월 20일~1961년 5월 4일

손우상(孫雨常) 선생의 생년월일에 대하여 경찰청 기록에는 1898년 8월 12일생이고 1995년 <항일투사열전 제 1권>에는 1897년 7월 20일생으로 기재되어 서로 다르다.

1910년 8월 경술국치에 대하여 부모님과 이웃에 사는 이들도 모두 일제에 대하여 증오하고 비분강개하는 모습을 목격했고 탄식하는 소리가 높았다. 복수의 마음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1919년 2월 손우상 선생은 20대 초반 청년으로서 고종 황제의 붕어 소식을 듣자 곧 통곡하고 금식 단식하며 슬픔을 가누지 못했다.

1919년 3월 1일 고종 황제 인산에 참여한 진주 인사들이 내려와 3월 18일 대대적인 시위가 전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남양면의 박종실 선생은 진주로 달려가 <독립선언서>를 입수하는데 성공했다.

삼천포에서는 3월 25일 삼천포 장날을 의거일로 정하였는데 삼천포보통학교 졸업식이 같은 날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로 여기게 되었다.

진주가 여러 곳으로 나누어 시위한 것처럼 삼천포 역시 3곳 3대로 나누어 시위하기로 정하였다.

제1대는 보통학교 제2대는 청년들 제3대는 남녀노소가 장터에서 하기로 했다.

제1대 보통학교 학생들은 졸업식장에서 교장이 그들의 소위 교육칙서를 낭독하면 그것을 신호로 봉기하기로 했으나 학생들은 흥분하여 참지 못하고 가슴속의 태극기를 꺼내어 만세를 부르면서 교문을 박차고 시내로 진출하게 된다.

의거가 빠르게 진전되자 손우상, 강금수, 장지린, 고광세, 박두수 등은 계획을 변경하여 선구리 장터로 달려가 봉기를 일으키게 된다.

장터중앙에 가설된 단상에서 강금수로 하여금 <독립선언서>를 낭독케 하고 애국청년들은 군중을 향하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선창하자 상인들도 일제히 호응하였고, 태극기를 흔들며 시위하자 삼천포는 태극기 물결로 온통 물들고 독립만세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게 되었다.

애국청년들은 시위대열 선두에서 지도하게 되는데 손우상, 김우열, 강금수, 장지린, 강천수, 고광세, 김기문, 박두수, 이계철, 강상조, 장지제 등이 군중을 지도 지휘하고 시위행진을 계속하였다.

상인들을 괴롭힌 경찰들을 생각하며 문선교를 지나 경찰서로 진격하며 시위행렬이 이어져 흥분과 감격이 넘치는 상황이었다.

이때 일본 경찰이 나타나 군중들을 향하여 난타하고 총검으로 압박하였고 앞장선 청년들을 잡아가기 시작하자 군중들은 동서로 흩어지고 말았다.

애국청년들 수십 명이 유치장에 감금되었고 엄중한 조사와 혹독한 고문을 받아 혼절하였다. 진주 검사국으로 송치된 애국청년들은 1919년 5월 5일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선고되었다. 손우상 선생도 징역 7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선고되어 석방되었다.

자택에 돌아왔으나 고문후유증으로 고생하였고 요양이 필요했다.

1920년경 출옥 동지들이 중심이 되어 청년회(청년연구회)가 창립되자 앞장서서 동참하고 삼천포 청년연구회가 1922년 4월에 창립할 때도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1923년 4월 22일 제6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자 회장에 장지린 선생이 선출되고 부회장에 손우상 선생이 선출되었다.

애국청년들은 청년회 이름으로 계몽운동을 전개하고 야학교를 개설해 글과 글씨를 모르는 청소년들을 가르쳤으며 강연회 연극을 통해 깨우치게 했으며 문맹률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 청소년들에게 문자보급 운동을 전개했다.

글자를 제대로 쓰고 읽지 못하는 까막눈을 밝혀 주는 일이야말로 큰 공적이 아닐 수 없다.

1925년 1월 11일 혁신총회에서 회장 김우열, 부회장 손우상 선생이 선출되었다.

삼천포 청년들은 야학교를 운영하고 연극 공연을 통해 간접적 지식을 쌓게 하였고 외부 강사들을 초빙해 강연을 실시하게 되는데 문화적 욕구가 많았으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으나 건물 밖에서 듣거나 다 듣지 못하고 자택으로 돌아가는 시민들이 많았다.

1925년 8월, 테니스대회 등 체육 행사를 통해 체력향상에 힘쓰기도 했다.

손우상 선생은 동아일보 삼천포 분국 기자(記者)로 임용(1925년 12월)되어 활동하였다.

1926년 순종황제 인산일에도 애국 시위를 전개하다 체포되어 엄중한 조사를 받았다.

삼영(三英)유치원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장기상 선생과 함께 앞장서서 개원을 도우고 교원을 모집하여 근무토록 지도했다.(동아일보 1931년 4월 13일, 4월 16일)

손우상 선생은 김해 김씨 김창우의 딸과 혼인해 손병준. 손석. 손정준. 손태준 등을 슬하에 두었고 장손 쪽으로 손현배. 손인배 등이 있고 손자들이 삼천포에 살면서 조상들의 빛나는 업적을 계승코자 노력하고 있다.

-신분장지문회보서
-독립운동사(3·1운동사)국가보훈처 제 3권 271면
-독립유공자공훈록 제2권 국가보훈처 177면
-경남 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마산보훈지청 2001년 86면
-항일투사열전 제1권 1995년 추경화 225면
-한국청년운동사 1973년 선우기성 392면
-부산경남3·1운동사 3·1동지회 1979년 829~833면

-사천시사 편찬위원회 2003년 743면 1748면
-경남지역 3·1독립운동사 문화원경남도지회 63면
-3·1운동실록 1969년 이용락 713면 711~713면
-동아일보 1921.8.2. 1921.9.10. 1922. 5.12. 1922. 6.19
-동아일보 1923.5.2. 1925. 1.6. 5.27. 12.16
-동아일보 1931. 8.27.

손재식(孫在植) 외 의병활동

손재식(孫在植) 의병장은 경남 사천시 곤양면 묵곡리 또는 금진리 출신 의병장이다.

손재식 장군은 사천에서 태어나 사천에서 의병장으로 활동한 분으로 기록되었다.

활동 시기는 1907년 후기 의병전쟁 때이며 곤양 성내리에서도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동학 접주로 활동했거나 뒤에 군인 장교로 근무 중 군대가 해산되자 일제에 대한 분노가 애국심으로 변해 의병장이 되었다는 설이 있다.

사천군과 서부 경남 일원에 활빈당이란 의병 부대가 활약했는데 이찬구(이명 이진태)가 대장으로 기록되었고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에도 의병들이 활동하게 되는데 안범성. 신임전. 이용운 등은 군자금 수합을 위해 서부 경남(사천, 고성)일원에서 활동하다 피체되기도 했으나 재판기록이 소실되어 명예회복이 어렵다.

<사천시사> 720면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손재식은 곤양면에서 출생, 1907년 유생으로 의병장이 되어 곤양군 일원에서 활약하였다. 일제는 1907년 7월 정미7조약을 체결하고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시켜 우리 민족의 무력을 박탈하는 등 식민지화 정책을 가속하여 나갔다. 이에 분격한 그는 국권 회복을 위한 격문을 내고 의병이 봉기하여 일본군을 축출하고 친일 주구배를 처단함으로서 무너져 가는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의병장 손재식(孫在湜)은 의병 70여 명을 규합하여 일본군 수비대를 습격하는 등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의병의 화승총은 일제의 신식 총과 비교할 수 없었다.
미약한 의병은 동서로 흩어지고 말았다.

-독립유공자 공훈록 국가보훈처 제 1권 360면
-독립운동사(의병편)국가보훈처 제 1권 537면
-의병투쟁사 국가보훈처 1907년 활동명단
-경남독립운동참여자록 마산보훈지청 2001년 360면
-사천시사 2003년 편찬위원회 720면

송찬홍(宋贊洪)

송찬홍(宋贊洪) 선생은 사천시 서포면 구평리에서 1899년에 태어났고 서포 3·1운동 지도자로 기록되었다.

“서포면 구평리 송찬홍외 3명 및 서포면 외구리 이주효(李柱孝) 등은 4월 10일 4월 16일 마을 서당을 출입하는 학생들을 선동하여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운동을 전개하자 사천헌병대에 의해 검거 감금되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사천시 서포면 서포초등학교 교정(정문을 지나 오른쪽 방향 꽃밭)에 -독립운동한 이들의 기념비-가 1968년 광복절에 건립되었다.

비문은 다음과 같다.

“이 서포 고장 땅에서 생을 받은 일곱 동지의 기미년 3월에 있었던 독립운동 사실을 적는다.

송지환, 송수완 나이 17세. 박또살동은 그 보다 한 살 위, 고 송찬홍은 22세. 송용수는 그 보다 한 살 더 위고 신영범은 26세의 최연장이며 임응주는 14세로서 당시 산 역사를 지니고 있는 주인공이기도 하며 이 글을 적는 나는 16세 되던 그해 3월 중순에 곤양장날 묵발리 일대의 모든 사람들이고 <독립선언서>를 읽고 독립만세를 높이 외치고 태극기를 흔들며 일제와 싸웠던 것이다.

우리는 8인을 드디어 왜적에게 잡히어 왜헌의 총검을 이들 몸에서 굽어지고 수많은 대막대, 주릿대를 이들 몸에서 부셔졌던 것이다. 또 그들의 팔목에 오라가 채워져 그 허리엔 포승줄이 사리었고 그리하여 일제 법관은 그들에게 수년 후 형장이기 하였고, 그 혹형에 못 이겨 향년을 다하지 못하고 죽은 분이 여섯 분이나 된다.

필자는 <독립선언서>를 가져 온 주모자라 하였으나 만 15세가 못되므로 체형을 감면하였던 것이다. 이제 그 때의 일월들을 회상하니 감개무량하여 이 시를 읊는다.

‘청춘의 애끊는 조국애와 우렁찬 소리 그 외로움에 끝내 빛나고 광복이 오고 유지들이 배우던 교정에 이 비가 서노니 이 강산이 조국이 가히 빛나네’

광복절 1968년 최범술 글을 짓고 오제봉 글을 쓰다.”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이대수 지음에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기록되었다.

‘서포면 구평리 송찬홍외 3명과 외구리 이주효 등이 4월 10일, 16일 마을 서당 학생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운동을 하다가 일헌에 의해 피체되었다.’

광복의사 기념비 건립추진위원회 -건립연대가 41년이 지났으나 현충시설물로 등재되지 않았다. 10년전까지 쇠줄로 사면(四面)에 연결되고 보호되고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사라지고 비신(碑身)만 남아 쓸쓸한 느낌을 준다.

-독립운동사 제 3권 국가보훈처 272면
-독립유공자공훈록 제 2권 국가보훈처 181면
-고등경찰관계적록 1937년 18면
-경남지역 3·1독립운동사 문화원 경남도지회 2007년 68면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마산보훈지청 2001년 88면 188면.
-사천시사 2003년 편찬위원회 743면

신용희(申鏞熙)

신용희(申鏞熙) 선생은 1921년 1월경 사천시 사천읍 평화동의 목용찬(睦容贊)과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의 신용희 양인(兩人)이 공모하여 독립군 명의로 1월 16일 사천시 곤명면 삼정리에 사는 황정렬(黃正烈)에게 희망하기를 군자금 1천원을 경성(서울)으로 우편을 이용하여 송금해 주기를 협조를 구한바 있는데 한 달이 지나 일경에 탐지되었고 2월 16일 검거되어 감금(監禁)되었다.

그러나 재판기록을 찾지 못했는데 1921년은 일제가 소위 문화통치를 실시(1929년 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활동을 했을 경우에만 처벌되고 그렇지 않으며 훈계방면. 자술서 작성 후 석방, 기소유예로 석방했기 때문에 재판기록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고등경찰관계적록 1937년 32면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마산보훈지청 2001년 91면
-사천시사 2003년 743면

의원태순(義原泰順)

의원태순(義原泰順) 선생은 경남 사천시 사남면 우천리(牛川里) 200번지에서 태어났으니 1944년 당시 17세 소년이었다.

독립동맹과 관련되어 옥고를 치렀다. <소화특고 탄압사> (明石博隆 지음)에 기재되어 확실하다.

일본 오오사카(대판(大阪)에서 독립동맹에 가입해 활동했으며 일본에서 재판을 받을 때 17세 소년이었다.

부산 하단동 출신 추용업(秋龍業), 의령군 용덕면 출신 신정수석(新井壽碩), 하동군 금남면 출신 향산일태(香山一泰), 사천 정동면 출신 문명진(文命振), 경북 의성군 출신 금본봉철(金本鳳喆), 김낙중 등은 학생들인데 일본 대판 천북초등학교 고등과 1학년 2학년 재학 중 <나의 투쟁> 등을 탐독하며 조선을 광복시킬 것을 결의하고 중등학교 입학시험에 조선 학생들을 불합격 시키는 등 불만이 고조되자 1943년 4월 조선독립연맹을 조직하여 임금일을 회계부장 추용업을 외무부장, 향산일대를 내무부장으로 선출해 김봉철의 원조를 받아 학생 5학년 이상 50여 명을 소집하여 목총훈련, 제식훈련을 실시하였다.

충군 애국정신의 철저, 심신훈련을 한다고 다시 신흥단 50명을 조직하여 부장이 되어 활약하다가 일경에 발각, 체포되었다.

1943년 12월 대판재판소에서 집행유예 등으로 석방되었다.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2001년 마산보훈지청 108면
-독립운동사 자료집 13집 (학생독립운동자료집)1407~1409면
-항일투사열전 2권 추경화 1997년 248면
-사천시사 2003년 743면

윤상수(尹相守)

윤상수(尹相守) 선생의 이명은 윤수상이며 경남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貞義里)에서 1905년 11월 25일 태어났다.

사천 향교(鄕校)에서 한학을 배웠다. 한편 수석리 135번지가 본적지라는 기록도 있다.

1919년 3월 21일 사천읍 3·1운동 지도자로 큰 공을 세운 분이다.

전국에서 3·1운동이 일어나고 서부경남 중심지 진주에서도 3월18일부터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황순주 박기현 등이 진주로 달려가 강대창 강달영 선생을 만나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를 입수 하는데 성공했다. 애국 청년들을 구합하니 임순백. 윤상수. 김성언 등이 동참하고 사천공립보통학교의 졸업반 학생 이윤조(李允祚)를 포섭하는데 성공했다.

비밀 회의를 거쳐 3월 21일 보통학교 졸업식이 끝나면 바로 의거하기로 결정했다. 비밀리에 만든 태극기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졸업식 하는 날 학생들은 편을 갈라 축구시합을 하다가 시위를 시작하기로 했으나 축구시합에 이긴 이윤조 편이 흥분해 가슴속의 태극기를 꺼내어 독립만세를 외치고 교문을 박차고 나가고 시내로 진출했다.

교장이 흥분해 큰소리치자 학생들이 의분을 부채질 한 꼴이 되었다.

학생들은 대열을 이루고 독립만세를 고창(高唱)하고 시내 행진을 계속했다.

일제 헌병이 출동하여 어린 학생들을 향해 총검을 휘두르고 앞장선 지도자들을 포박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의거를 주도하고 태극기 2백 여개를 만들어 배포했던 황순주, 윤수상, 박기현, 김종철 등은 한문을 배우던 서숙(書塾)으로 피신했다.

황순주, 윤수상, 박기현 등은 일제의 살육(殺戮)을 중단하고 철회하라는 격문을 작성하여 일본 헌병대장 자택에 던졌다. 이때 흥분한 헌병대장은 범인 잡기에 혈안이 되었다. 수일 만에 체포된 청년 지도자들은 혹독한 고문을 받고 혼절하였다.

윤수상 선생과 박기현 선생 등은 불구자가 되고 고문후유증으로 고생했다. 약 3개월 만에 석방되었다.

-독립운동사(3·1운동사)제 3권 267면 268면
-독립유공자공훈록 제 2권 국가보훈처 211면
-부산경남 3·1운동사 3·1동지회 1979년 814면~815면 819면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마산보훈지청 2001년 105면
-독립운동사적지 독립기념관 2010년 407asus
-사천시사 2003년 743면 1748면

이갑용(李甲龍)

이갑용(李甲龍) 선생은 경남 사천시 (삼천포) 봉남리(鳳南里)가 본적지 이며 거주지는 일본 광도현(廣島縣) 오시(吳市) 아하정 동연기이다.

이갑용(1939년 당시33세)은 해탄 공장에서 운반인부로 일하다가 광고지 한 장을 습득하여 읽고 있을 때, 같이 일하고 있던 경북 청도군 화양면 화로동이 본적이고 일본 오시에 거주하는 양기범(梁基範)당 22세가 무슨 내용이냐 묻자 “11월 3일까지 저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2할

을 공제한다고 쓴 것이다“라고 말하여 아무 근거가 없는 유언과 함께 그 종이 조각을 양기범에게 주었는데 양기범도 그 유언을 같이 일하고 있는 이들에게 전하여 우편국에서 저금을 찾아간 금액이 6건 818원 53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위경죄(違警罪)로 물어 이갑용에게는 과료 3원을 처하고 양기범에게는 과료 2원을 부과했다.

-독립운동사 자료집 13권 1367면
-독립유공자공훈록 제 7권 국가보훈처 296면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마산보훈지청 2001년 108면
-소화특고탄압사 명석박융(明石博隆)6권 286면
-사천시사 2003년 743면

이계철(李啓喆)

이계철(李啓喆) 선생은 본적은 경남 사천시 (삼천포) 동금동(東錦洞) 743번지이며 생년월일은 1896년 4월 4일이다.

삼천포 3·1운동을 지도하고 태형 90도를 맞고 태형 후유증과 고문 후유증으로 수년간 고생한 항일투사로 인정된다.

사천시 남양면의 박종실 선생을 통해 진주에서 독립선언서를 입수한 청년들은 삼천포 장날 1919년 3월 25일 시위하기로 결정했는데 삼천포보통학교 졸업식 날이었다. 이계철 선생은 군중 동원과 학생동원을 진행하고 인근 마을에도 비밀 연락망으로 연결했다.

삼천포에는 제1대 학교, 제2대 해변 백사장, 제3대 선구리 장터로 나누어 일제히 시위 만세를 외치기로 했으나 삼천포보통학교 학생들은 졸업식이 끝나기 전에 박상윤 박상진 박종대 등은 흥분하여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내로 진출하자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애국청년들도 마음이 급해 해변에서 선구리 장터로 달려가 장터 한복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태극기를 흔들며 시민들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강금수, 장지린, 강천수, 김우열, 고광세, 손우상, 강상조, 박두수, 김기문, 박상윤, 박상진 등은 시위를 지도하다 일경에 잡혀 유치장에 감금(監禁)되었다.

일경의 혹독한 고문을 받고 혼절하였다. 이계철 선생도 일경에 피체되어 고문을 받고 혼절했다가 깨어났는데 1919년 5월 6일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태형(笞刑) 90도를 맞고 석방되었다. 태형 후유증과 고문 후유증으로 수년간 고생하다가 순국했다.

지방자치 단체가 앞장서서 명예회복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독립운동사 제 3권 국가보훈처 272면
-독립유공자공훈록 제 2권 국가보훈처 216면
-부산경남3·1운동사 3·1동지회 1979년 830면
-신분장지문회보서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마산보훈지청 2001년 109면

-사천시사 2003년 편찬위원회 743면 1748면
-3·1운동실록 이용락 1969년 713면

이광종(李光種)

이광종(李光種) 선생의 이명 이광종(李光淙). 경남 사천시 곤양면 맥사리 출신이다.

1914년 5월 곤양향교 발기인. 초대 교장을 역임했다. 그 이전 1907년 전국적으로 금모으기와 같은 국권 회복운동 즉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할 때 곤양일원에서도 나라가 진 빚을 갚고 국권을 회복하자는 운동이 전개될 때 선두에 서서 지도하니 쌀 60Kg 5가마에 해당되는 30원의 의연금을 납부했으며 부인 손씨와 아들 4명도 보상운동에 동참했으니 전 가족이 동참한 귀한 집안이다.

이광종 선생의 4명의 아들들 이기환(李起煥), 이기용(李起鎔), 이기진(李起鎭). 이기호(李起鎬) 등이 동참한 일이다.

선생은 곤양위생조합 조합장(1913년)이 되고 곤양 향교 제5대 유도회장(1921년)을 역임하고 곤양청년회가 창립되자 후원자 역할을 하고 고문(1920년 8월)이 되었고 1923년 진주여고. 진주고 설립 당시 100원을 기부한 분이다. 또 해외동포들이 항일운동을 하다 일시 귀국하자 위문할 때 의연금을 수차례 내신 분이다.

-대한매일신보 1907년6월 22일 ~28일 9월 20일
-동아일보 1923년 3월 30일
-곤양면 향토사 2004년
-사천시사 2003년 편찬위원회 2342면

이민호(李敏鎬)

이민호(李敏鎬) 선생은 경남 사천시 (삼천포)선구동 30번지 출신이다.

1934년에 삼천포의 박영준(朴泳俊), 이민호 등이 함께 의논하여 3월 8일 삼천포 소비조합의 창립 3주년 기념일에 맞추어 조합원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노동자 농민 소시민에게>라는 제목의 불온문서를 인쇄하여 사방에 배포하여 조합원 확장을 도모하다가 출판법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일경이 잡아간 사건이다.

일경(日警)의 혹독한 고문을 받고 혼절하였고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재판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고등경찰관계적록 1937년 114면
-신분장지문회보서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마산보훈지청 2001년 113면
-사천시사 2003년 744면

이우적(李友狄)

이우적(李友狄) 선생의 이명은 이응규(李應奎: 호적명)이다.

경남 사천시 곤명면 금성리 209번지 출신이고 합천이씨의 후손이다. <한국성씨 보감>에 의하면 합천 이씨의 시조는 강양군(江陽君) 이개(李開)이다. 11개 파가 있고 전서공파, 목사공파, 참화공파, 전객공파 4파가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전객공파의 이희문, 이희증, 이희안 삼형제가 호조참판를 지낸 이윤겸의 아들들인데 중종~명종 때 대학자들이다. 이희문은 이조정랑, 이희안은 학자로 고령현감을 지냈다.

선생은 합천 이병년(李炳年)과 전주최씨 최인천(崔仁川)의 슬하에서 1907년 9월 8일 태어났다.

소년시부터 똑똑하고 영리하여 하나를 보면 백을 깨달아 이구동성으로 천재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다. 1924년 진주의 양정학원을 졸업했다. 졸업 후 일본 도오꾜오(동경)으로 건너가 1925년 1월 사회주의 계열의 일월회(日月會)가 조직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입해 안광천(경남 진영), 하필원(하동 옥종) 등을 만나 교류하고 함께 활동했다.

1925년 4월 칸다(神田)의 사립연수학관 초등 영어과에 입학하여, 1926년 3월 졸업했다. 재학중 토오쿄오 조선무산청년동맹회 서무부 위원으로 선출되었고 조선청년동맹에도 동참하게 된다.

이어 연수학관 고등과에 입학했다. 또 6월에는 조선무산계급 전위운동이 통일촉진에 공헌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대중신문>기자(記者)로 활약했다.

귀국해 1926년 8월 10일 유학회 이름으로 진주시 진명학원(한규상. 김연호. 김찬성 설립자)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때 두 그룹으로 나누어 문화에 대하여 열열한 토론으로 청소년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주었다.

토론 제목은 '문화향상에 투쟁이냐 협동이냐' 이었고 토론자는 이우적, 강춘순, 천용근이었고 상대편 토론자는 김찬성, 임영달, 한규상, 최돈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우적 선생 등은 연수학관, 칸다 영어학교에서 모두 퇴학당하였다.

사회주의 잡지<이론투쟁>의 기자와 집필진이 되었다. 이어 고려공산청년회가 조직되자 선전부장 겸 북부 야체이카 소속이 되어 활동했다.

전국적으로 신간회가 창립되자 일본 동경, 대판등지에도 지회가 조직되었는데 동경지부 출판부 간사로 선출되었다.

1928년 2월 고려공청 일본총국 기관지 <현계단>의 편집위원이 되었을 때 일본 내에서 대대적 검거작전이 전개되자 1929년 7월 귀국했다.

1930년 8월 이종림, 김상혁 등과 조공재건운동을 전개하고 1931년 7월 대구에서 개최된 조선 공산주의자협의회에 전남 대표로 참석했다.

그해 12월에는 전남지역 ML과 열성자 대회를 개최하고 17개 사회운동단체를 규합하여 좌익노동조합. 농민조합을 결성하고 전남노농협의회를 조직했다.

전남 협의회 반제부와 교육부장이 되고 출판부원을 겸하였다.

조공주의자협의회 기관지 <코뮤니스트>와 <봉화>를 대량으로 만들어 경남, 전남, 전남, 전북, 대구지역에 배부했다.

1932년 3월 일경에 피체되어 엄중한 조사와 혹독한 고문으로 수십 번 혼절했다가 깨어났다. 1933년 대구지법에서 징역 4년형이 언도되어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이재유, 인정식 등과 조공재건운동을 진행 중 일경에 발각되어 재판을 받고 옥고를 치르고 1943년에 석방되었다. 최소한 10년 이상 옥중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근대민중운동사>등에 의하면 하동 출신 권대형, 유영준, 하필원, 사천 출신 이우적, 박낙종, 정희영, 진주출신 김종범, 송봉우, 강달영 등 서부경남 인사들이 조선의 사상계를 이끌었다는 증거가 된다고 했다.

1945년 8월 광복이 되자 너무 기뻐 춤을 추었다고 하며 서울로 달려가 최익한, 하필원과 만나 당을 조직하기로 하고 조공 장안파에 들어가 열성자 대회에 참가했다.『해방일보』주필(主筆)이 되었고, 1946년 2월 조공연석회에서 박헌영을 비판하고 사회노동당 선전부장을 거쳐 임시중앙위원이 되어 활약했다.

그가 지은 글이 <조선지광> 61호, 73호에 실리고 <이론투쟁>11호에도 실렸다.

1950년 9월 서울에서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1956년 12월 2일 진주시 상봉동 1015번지에서 사망했다고 사망신고 되었다.

이응규 선생은 진주정씨 정재철의 딸 정정순과 혼인해 슬하에 아들, 딸 이종철, 이정순을 두었고 손자녀 이승환, 이정환, 이정은 등이 있으나 향리를 떠나 주로 대전, 충남, 경기도 일원에 거주한다.

-독립유공자공훈록 제 7권 국가보훈처 219면
-국외용의 조선인 명부 총독부 302면
-고등경찰요사 1934년 경북경찰국 160면
-<재감 인명록>총독부 형무소 기록부
-일제하 한국 36년사 제 8권 647면
-사상월보 제3권 4호 11~21면
-현대사자료색인 338~345면
-대구지법판결문 1933년 4월 20일
-독립운동사 자료집 14권 국가보훈처 303면
-일제하 사회운동색인집 1992년 1586~1588면 1607면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마산보훈지청 2001년 121면
-동아일보 1926년 8월 15일 1927년 12월 30일
-진주항일운동사 추경화 2008년 490면
-한국근대민중운동사 돌베개 한철회 1996년 306면. 313~316면

이윤조(李允祚)

이윤조(李允祚) 선생은 사천시 사천읍에서 1906년에 태어나 1959년 4월 세상을 떠났다. 사천 3·1운동을 지도한 분이다.

황순주(黃順柱), 박기현(朴基鉉), 김기철(金基喆) 등은 진주의 삼일 의거 소식을 듣고 태극

기 200여 장을 제작하여 각기 배포하고 학생들에게도 배포하였다. 사천보통학교 학생들은 축구시합을 하게 되었는데 이윤조 편이 이기자 흥분하여 가슴속에 품었던 태극기를 꺼내어 흔들면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일본인 교장이 '저놈 잡아라'라고 소리치자 더 흥분하여 학생 150여 명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시내로 돌진하였다.

일본인 교장이 헌병대에 연락해 출동하였고 학생들에게 무력을 행사했다. 학생들이 대열을 이루고 시가행진을 계속하자 일본 헌병대는 총검을 휘두르고 난타하였다. 무조건 주동자들을 체포하니 수십 명이 유치장에 감금(監禁)되었다. 주동자들은 피체되어 학생들을 선동한 일이 죄인인 것처럼 다루고 혹독한 고문을 가하였다.

1920년대 청년운동이 전개될 때 사천청년회에 가입하고 1925년에는 사천청년동맹 간부로 활동하고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였고 문자보급운동을 전개하여 글과 글씨를 못 알아보는 이들이 없도록 문화적 항일운동을 계속하였고 1927년 6월 경남에서 최초로 신간회가 창립되자 신간회 사천지회 설립에 앞장서고 상무간사로 활약하는 등 공적이 지대한 분이다.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267면
-독립운동사 9권 국가보훈처 267~268면
-독립유공자공훈록 제 2권 국가보훈처 239면
-3·1운동실록 이용락 709~710면
-한국청년운동사 1973년 선우기성 391면
-부산경남3·1운동사 3·1동지회 1979년 814면
-독립운동사적지 독립기념관 보훈처 2010년 407면
-사천시사 2003년 편찬위원회 744면
-사천문화 1997년 167~178면

이주효(李柱孝)

이주효(李柱孝) 선생은 경남 사천시 서포면 외구리(外鳩里) 출신으로 서포면 3·1운동을 주도한 항일투사라는 기록이 있다.

<고등경찰관계적록>18면에 의하면 간단하게 기록되었다.

'서포면 구평리의 송찬홍(宋贊洪)외 3명 및 외구리의 이주효(李柱孝) 등 주모자들은 1919년 4월 10일 4월 16일 마을에 있는 서당학생들을 선동하여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고 시위운동을 전개하므로 사천 헌병분견소가 출동하여 검거했다'라고 했다.

송찬홍, 이주효 외 3명이 기미년 3·1운동을 주도하였고 헌병대에 잡혀 감금(監禁) 되었으나 재판기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독립운동사 국가보훈처 제 3권 272면
-독립유공자공훈록 국가보훈처 제 2권 245면
-고등경찰관계적록 1937년 18면
-부산경남3·1운동사 3·1동지회 1987년 816면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마산보훈지청 2001년 126면
-사천시사 2003년 편찬위원회 744면

이화일(李和一)

이화일(李和一) 선생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는 기독교를 신봉하는 신도로 1921년 1월 7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에 소재한 사천교회에서 최성봉(崔聖奉) 전도사(목사)와 함께 예수교 예배당에서 예배를 위하여 모인 30여명 교인들에게 조선독립에 대하여 설교하고 기도시간이 되자 이화일 선생이 조선독립은 조인인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하나님께서 애급(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인도하시고 각 민족을 진멸하여 이스라엘 시대를 열게 하신 것처럼 우리 조선도 독립을 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며 일제의 침략정책은 반드시 분쇄될 날이 있을 것이다. 우상숭배가 많은 일제는 패망의 길로 갈 것이다'라는 내용이다

일경에 피체되어 엄중한 조사와 혹독한 고문을 받고 혼절하였다.

이 시기는 일제가 종교인이고 문화통치기간이었기 때문에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기소유예로 석방되었을 것이다.

-고등경찰관계적록 1937년 36면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마산보훈지청 2001년 130면
-사천시사 2003년 편찬위원회 744면

이화준(李華俊)

이화준(李華俊) 선생은 경남 사천시(삼천포) 서리(西里)107번지에서 태어났다. 생년월일은 1908년 1월 3일생이다.

이화준 선생은 삼천포공립보통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교장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진주사범학교에 입학하였고 졸업장을 받을 때 역시 성적이 우수하여 진주 제1보통학교(중안) 교사로 발령장을 받았다.

2년이 지나 창녕보통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면서 경남교원노조를 조직하고 학생들에게 애국 애족심을 고취하고 사유재산제도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훈육하였다.

1933년 1월 2일 야간에 진주시 대안동 이기영의 집에서 사범학교 선후배들 김두영, 이명상, 강용운, 정두명 등이 모여 비밀 회합을 하여 적색교원노동자협의회라는 명칭을 세우고

-생활권 옹호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획득
-제국주의 교육의 타파
-조선인 본위의 교육의 실시

등을 강령으로 하고 35개 세부항목을 설정하였다.

1933년 3월 28일 김두영, 이화준, 이장호, 최명석, 강용운, 정두명, 장영수 등 사범학교 선, 후배들 20여 명이 수시로 비밀회합을 가졌다.

마산 해변 선상에서 비밀 회합을 가지고 강령과 실천항목을 실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경에 발각되어 엄중한 조사를 받고 혹독한 고문을 받아 혼절하였다.

1934년 7월 5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이 언도되어 3년간 옥중고생하다 1937년 5월 6일 부산형무소에서 석방되었다.

구속된 중요인물들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주영, 김두영, 최명석, 이명상, 박두복, 황보현, 강용운, 장영수, 이재성, 정두명, 박승호, 김기찬, 신영갑 등이고, 광복 후 부산에서 조공경남도당 간부가 되고 1946년 2월 민주주의 민족전선 결성대회에 참석하고 중앙과 지방 동지 연석회의에도 참석했다. 윤일, 강영순, 한인식, 김태영 등과 함께 활동했다.

-부산교도소 가출옥 관계서류(1936년 3월)
-일제하사회운동색인집 역사문제연구소 1735면
-일본현대사 자료 색인 384면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2001년 이대수 130면
-진주항일운동사 2008년 추경화 525면
-사천시사 2003년 편찬위원회 744면
-동아일보 1933·12.12. 12.3, 1934. 4.22 5. 31. 6.28, 1995. 8. 9.
-조선일보 1995.8.9.
-경남매일 1994년 8월 15일
-산청항일운동사 2010년 추경화 사천문화원 314면

이활인(李活仁)

이활인(李活仁) 선생은 경남 사천시 남양면 정리 출신이다.

1921년 6월 15일 이활인외 1명은 사천시 남양면에 사는 이용언 집에 들어가 상해 임시정부의 임용장 등을 보여주고 군자금이 필요함을 설명하니 훌륭한 일이라면서 현금 451원을 주기 때문에 받아 중국으로 가기 위해 육로. 선편 등을 알아보는 도중에 일경에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1921년 6월 15일 일경에 피체되었고 그 당시 26세 청년이었고 1895년 생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일제가 소위 문화통치를 실시하고 유화정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재판기록을 찾지 못했다.

-고등경찰관계적록 1937년 36면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마산보훈지청 2001년 130면
-사천시사 2003년 745면

임순백(林順伯)

*출신지(본적): 경남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생몰년월일: 1903년 7월 22일~1969년

임순백(林順伯) 선생은 경남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출신이고 1903년 7월 22일생이다. 사천공립보통학교 12회 졸업생이다.

1919년 3월 18일 진주지역에서 독립만세 시위가 전개되었다는 소식이 사천에 전해지자 황순주, 박기현, 김종철 등은 진주로 달려가 시위에 동참하고 강대창, 강달영 등을 만나 <독립선언서>를 입수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들은 임순백, 윤상수, 김성언 등과 사천보통학교 졸업반 학생 이윤조 등을 동참시키고 비밀로 태극기를 배부하고 <독립선언서> 1장을 주었다. 졸업식 하는 날 3월 21일 오전에 시위하기로 결정하였다.

학생들은 축구시합을 하면서 졸업식이 끝나면 시위에 동참하기로 했으나 축구시합에 이기자 이윤조는 흥분해 가슴속의 태극기를 꺼내어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다.

동급생 후배들을 선동하고 다함께 교문을 박차고 나와 시내로 나갔다. 대열을 지어 태극기 물결을 이루며 독립만세를 고창하자 주민들도 동참하게 된다.

흥분한 일본인 교장은 일본 헌병대에 헌병대 출동을 요구하게 되고 앞장선 지도자들은 총검에 의해 부상을 입었다.

임순백, 윤수상, 김성언 등은 학생들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유치장에 감금한 채 혹독한 고문을 하게 된다. 임순백, 이윤조 등은 고문후유증으로 수년간 고생했다.

1920년 봄이 되자 전국적으로 청년들이 일어나 청년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사천청년회가 창립되자 동참하고 애국계몽운동과 문자보급운동을 전개해 문화적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전국적인 항일단체인 신간회(新幹會)가 창립되자 경남지역 최초로 신간회 사천지회를 창립할 때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사천지회 재무부 총무간사 등으로 활약했다.

1969년 사천읍에서 세상을 떠났다. 자녀들 임상경, 임상래 등이 명예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으나 재판기록을 찾지 못했다.

-독립운동사적지 2010년 독립기념관 407면
-독립운동사 국가보훈처 제 3권 207면
-독립유공자 공훈록 국가보훈처 제 2권 255면
-부산경남3·1운동사 3·1동지회 1979년 814면
-경남항일운동참여자록 이대수 2001년 131면
-사천문화 1997년 167~178면
-사천시사 2003년 편찬위원회 745면

임응주(林應柱)

임응주(林應柱) 선생의 이명은 임응주(林應周)

임응주 선생은 경남 사천시 서포면 구평리(舊坪里)출신이며 해인사 항일운동과 서포3·1운동 2곳에 동참한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해인사 측에서는 대구로 달려가 <독립선언서>를 입수해 밀실에서 일만매를 인쇄하고 학

생대표 30여 명이 뒷산 숲속에서 비밀 회합을 거듭하여 각지역별로 나누어 주었다.

송복만, 송복용, 최범술 등은 합천, 삼가, 초계, 의령, 진주, 사천, 곤양, 하동지역까지 책임지고 <독립선언서>를 배부하고 시위운동을 전개토록 했다. 지방의 동지 박운균, 이석순, 이승기, 조우제, 강달영, 임응주, 송지환 등과 합세하여 크게 활약하였다.

해인사 의거에 동참하고 이어 사천 서포면 구평리에서도 시위가 이어지도록 주선했다.

사설 한문서당과 야학교를 설치하여 청장년 아동들을 모아 애국사상, 민족의식을 심어주고 있었으므로 4월 10일, 4월 16일 양일간 시위를 할 때 주민들의 호응이 적극적이었다.

국내 시위 상황과 해인사 의거 상황을 설명하고 독립선언서와 공약3장을 설명하고 길거리로 나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했다.

일경에 탐지되어 주동자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유치장에 감금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고 혼절하였다.

그 뒤 2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56세 때 남양면에서 일제의 정책과 일제를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다 일경에 잡혀 엄중한 조사를 받고 수개월 만에 석방 되었다.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337면
-독립운동사 국가보훈처 제 9권 243면
-독립유공자공훈록 제 2권 국가보훈처 255면
-부산경남3·1운동사 1987년 3,1동지회 499면 821면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2001년 이대수 131면
-사천시사 2003년 편찬위원회 745면 2373면

장백윤(張伯允)

장백윤(張伯允) 선생은 경남 사천시 (삼천포)이홀동(耳笏洞)에서 1905년 9월 13일 출생했다. 수남리는 거주지로 생각된다.

1930년대가 되자 일제의 감시 감독이 심하고 통제가 극에 달하고 있을 때 조직을 만들거나 활동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장백윤 선생은 삼천포농민조합을 조직해 활동하고 일경의 금지정책에 반하여 단체를 운영하는 일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불을 들고 섶으로 들어가는 짓이다.

1939년 일경에 검거되어 엄중한 조사와 혹독한 고문을 받고 혼절했다.

1939년 8월 30일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언도되어 석방되었다.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마산보훈지청 2001년 133면
-가출옥 서류(1939년 8월 30일 부산지법 진주지청)
-사천시사 2003년 편찬위원회 745면

장지린(張志麟)

*출신지(본적): 경남 사천시 동리
*생몰년월일: 1898년 6월 4일~1970년 8월 8일

장지린(張志麟) 선생은 사천시 동리 출신이고 1898년6월 4일생이다.

삼천포 3·1운동 지도자로<3·1운동 실록>에 징역 7월형이라고 기재되어 정부포상이 가능하다고 여기고 포상신청을 했으나 경찰청 기록에는 징역 7월에 집행유예라고 기재되어 정부포상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포상신청자들은 매우 실망했다. 포상 자격이 완화되면 포상이 될 것으로 믿고 기다려 본다.

사천시 남양면의 박종실 선생은 진주 강달영, 박진환 선생을 찾아가서 <독립선언서> 등을 입수하여 귀향하고 장지린 선생을 만나 투쟁 결의를 하고 노산에 있던 삼천포보통학교 교사 황병두을 만나 설득시키고 삼천포 장날이요 보통학교 졸업식이 실시되는 3월 25일을 정하고 준비하게 되었다. 사전에 태극기를 대량으로 만들어 은밀히 배포했다. 학생들과 졸업식이 끝나면 시위하기로 약속했으나 일본인 교장이 교육칙서를 다 읽기도 전에 흥분한 학생들이 가슴속 태극기를 꺼내어 독립만세를 부르고 교문을 박차고 나가 독립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다.

해변에서 대기했던 청년들은 마음이 급해 선구리 장터로 나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시민들을 모아 독립만세를 외치기 시작했다.

애국청년들은 모두 체포되고 혹독한 고문을 받고 혼절하였고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되었다.

1923년 4월 22일 삼천포청년연구회 회장이 되어 애국활동을 전개하고, 1925년 1월 11일 문태동, 손우상, 최재문 등과 함께 활동하고 평의원이 되었다.

1925년 5월 10일에는 장지린 선생이 선출되고 박두석, 강금수, 장지홍, 천병식 등과 함께 강연회 실시 연극을 통한 계몽, 문자보급운동, 야학교 운영과 지원을 실시했다. 1925년 12월 20일 박두석, 강금수, 장지학 등과 함께 활동했다.

장지린 선생은 언론계에도 종사하게 되는데 동아일보 사천·삼천포 지국장으로 3년간(1934.10~1937.8)활동했다.

-독립운동사 제 3권 국가보훈처 271면
-독립유공자 공훈록 국가보훈처 제 2권 261면
-부산경남3·1운동사 1979년 3·1동지회 827~828면
-3·1운동 실록 1969년 이용락 771~7762면
-항일투사열전 제 2권 추경화 1997년 2235면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이대수 2001년 134면
-경남지역3·1독립운동사 문화원 경남도지회 61~62면
-한국청년운동사 선우기성 392면
-사천시사 2003년 편찬위원회 745면

장지제(張志齊)

장지제(張志齊) 선생은 경남 사천시(삼천포)3·1운동 지도자로 선구동 출신으로 알려져 있

을 뿐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박종실 선생이 진주의 강달영 박진환 선생한테서 받은 <독립선언서>를 삼천포 독립지사들에게 배포하고 삼천포보통학교 대표를 통해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나누어 주었다.

3월 25일 삼천포 장날이며 보통학교 졸업식을 거행하면서 일본인 교장이 교육칙서를 읽고 나면 바로 시위하기로 의논하고 결정했으나 흥분한 학생들이 졸업식이 끝나기 전에 태극기를 꺼내어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고 곧 시내로 진출하였다.

애국청년들 장지린, 강천수, 강금수, 손우상, 고광세, 김우열 등도 선구동 장터로 나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먼저 선창하고 군중이 뒤이어 외치는 방식으로 경찰서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김기문, 박두수, 이계철, 강상조, 장지린 등도 선두그룹에서 시위를 지도하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니 삼천포는 태극기가 큰 물결을 이루고, 만세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장지제 선생은 <독립가>를 부르며 군중사이를 왕래하며 지도했다.

-사천여년 찬란한 역사국으로 오늘날 이 지경이 웬일인가.

-천부의 자유권은 사가 없거늘

-우리 민족 무슨 죄로 욕을 당하는가

-철사줄로 결박한 욕된 이 줄을 우리 손으로 끊어 버리고

-독립만세 우레소리 더 높은 곳에 바다가 끓는 듯 산이 동하네

이때 일경의 순사보조원 강일선은 시위대로 향하여 달려 들더니 유도로 몇 명을 내 던지자 장대한 체력의 장지제 선생도 맞서 주먹 다짐을 하다 부상을 입었다.

장지제 선생도 피체되어 엄중한 조사를 받고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1919년 5월 5일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상당기간 요양하던 장지제 선생은 1922년 삼천포 청년연구회가 창립될 때 동참하고 1923년 4월 22일 삼천포청년연구회 체육부장이 되었다.

삼천포 청년들이 애국 계몽운동을 전개할 때 또 체육행사 즉 축구대회, 테니스대회를 개최할 때 앞장서서 지도역할을 했다.

1930년 28세 되던 해 문선면(현 삼천포)에서 일경에 체포되어 엄중한 조사를 받는 등 수시로 체포, 구금, 석방이 계속되었다.

-독립운동사 제 3권 국가보훈처 270면

-독립유공자공훈록 제 2권 국가보훈처 261면

-부산경남3·1운동사 3·1동지회 1979년 828~829면

-경남독립운동참여자록 마산보훈지청 2001년 134면

-3·1운동실록 이용락 711면

-경남지역3·1독립운동사 문화원 경남도지회 61면

장용기(張鎔基)

장용기(張鎔基) 선생은 경남 사천시(삼천포)동동 77번지 출신이며 부호 장지명(張志明)의

아들로 1914년 4월 30일 태어났다.

1928년 3월 삼천포공립보통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교장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진주공립농업학교(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입학하여 재학중 인 1931년경 비밀결사 동반회(同伴會)를 조직 창립할 때 앞장서서 활동하고 일경에 검거되어 옥고를 치렀다.

<고등경찰관계적록>77면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진주공립농업학교 학생 손태준(孫太俊), 허맹도(許孟道), 장용기(張鎔基), 최남정(崔南程), 김철호(金喆浩), 변학규(卞鶴圭), 강순갑(姜舜甲), 박태조(朴泰祚), 서장근(徐長根), 강영진(姜榮鎭), 정인규(丁仁奎), 전이수(全二秀), 전병수(全秉洙), 김재곤(金在坤), 이성찬(李性贊), 박헌오(朴憲五), 이홍우(李洪羽), 권점수(權点秀), 구윤석(具允錫) 등이고, 재학중에 공산주의를 연구하고 졸업 후 농촌에 들어가 실천운동을 행하게 되는데 1월 30일 동반회라는 비밀 결사를 조직하여 동경, 경성 방면에서 공산주의 사상에 관계된 서적을 구매하여 회원들에게 윤독(輪讀)시키는 일을 계속하다 일경에탐지되어 검거되었다.”

장용기 선생은 1931년 3월 11일 학교 당국으로부터 퇴학처분되고 졸업장을 받지 못했다.

손태준 투사는 징역 1년형이 언도되었기 때문에 필자가 포상신청서, 이력서, 공적서 등을 작성해 제출한 결과 건국포장(2008년)이 추서되었으나 다른 학생들은 집행유예라는 이유로 포상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당년에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전원 포상을 실시해 줄 것을 간절히 희망한다.

일경에 한번 잡히면 무지한 고문을 하기 때문에 다함께 고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마땅히 응분의 정부포상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진주항일운동사 2008년 추경화 468면
-고등경찰관계적록 1937년 77면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이대수 2001년 133면
-진농 80년사 1990년 119면

장주홍(張主弘)

장주홍(張主弘) 선생은 경남 사천시(삼천포)이금리(梨琴里)20번지에서 준암(俊菴) 장태인(張台仁)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생년월일은 1915년 8월8일생이다.

천도교인 가정에서 태어나 일제치하에서 엄중한 감시와 감독을 받고 삼천포 독서회 사건으로 삼천포경찰 주재소에 잡혀가 혹독한 고문을 받고 혼절했으며 냉수를 얼굴에 뿌리고 깨어나면 다시 혹독한 고문을 받게 되었는데 약 1개월이 지난 다음 사천읍 평화동의 사천경찰서에서 다시 통영경찰서로 이송되어 또 엄중한 조사와 혹독한 고문을 받게 되었는데 약 3개월간 가족들이 전혀 소식을 모르고 있었다. 혹독한 고문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죽으면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한 일경이 가족들에게 연락해 반시신을 가져가라는 식이었다.

1937년 7월 25일 출감했으나 고문 후유증으로 폐결핵과 위 확장. 전신마비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는 고통을 받고 살았다.

이때 가족들이 의논한 결과 고성 운흥사에서 심신수양을 하게 되는데 백약이 무효라 1942년 3월 4일 별세하시니 28세 청년이었다.

삼천포 독서회 사건으로 100여 명이 감금(監禁)되었고 이 사건으로 당시 교회 금전출납부와 각종 서류를 모두 압수당하여(이후 금전출납부만 남았음)당시 천도교 교역자들 최봉권, 최현순, 김경진, 장주학, 하석주, 최영준, 손기복 등이 일경에 의해 감금되어 엄중한 조사를 받았다.

장주홍 선생과 사촌간인 죽암 장정주(張丁柱)씨의 중언에 위하면 장주홍 동덕은 당시 용산강습회(야학교)지도 선생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당시 봉전마을 김인구, 구실마을 김학주, 문두봉 등과 함께 주재소에 감금(監禁)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고 혼절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독서회는 교양과 독서를 목적하기보다 일제의 감시 감독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면으로 내세운 이름이고 일제의 눈을 피해 항일운동을 목적으로 활동한 단체라고 할 수 있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우다가 옥고를 치르고 고문으로 순국(殉國)했으나 지금까지 명예회복이 성사되지 않았다.

-천도교 사천 삼천포 100년사 편찬위원회 2013년 168~169면

장준(張駿)

장준(張駿) 생의 본적은 경남 사천시 동리 55번지이며 뒤에 삼천포 선구동 154번지로 전적신고를 했다.

생몰년월일은 1915. 1.21~1957.9.14. 이다.

삼천포지역 부호로 중추원 참의(1930년 6월) 장응상(張(鷹相)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장응상님은 동산 1만원, 밭 56정보, 대지 2051평, 화전(火田) 7정보 등을 소유한 부호로 삼천포 광명의숙을 설립하고 보흥학교를 설립해 뒤에 삼천포보통학교로 발전시키고 진주고(여고) 설립 발기인이다.

장준 선생은 삼천포보통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1929.3)하고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진주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다.

1929년 11월 전남 광주에서 일어난 광주학생사건이 발생해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투쟁이 전개되자 진주고보생들도 떨쳐 일어나 1, 2, 3학년들이 중심이 되어 격문을 준비해 살포하고 태극기를 제작해 흔들면서 시위할 때 담장 넘어 여고생들을 동참토록 독려하니 시위하는 함성이 진주시내를 진동(振動)하였다.

고성 출신 이기윤, 진주 황진생, 거창 전사옥 등이 시위대 선두에서 지도하다 다함께 일경에 체포되어 유치장에 감금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고 혼절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이고 형사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석방되었으나 학교측 으로부터 정학처분을 받았다.

3학년으로 진급하면서 학업이 긴요하게 되자 독서회를 조직해 열심히 배우고 연구했다. 그러나 일제의 폭압정치와 세계적 정세의 변화를 볼 때 참을 수 없었고 일제의 식민지 정책을 비판하고 조선에 대한 교육이 차별받고 있음을 불만스럽게 여기고 성토하는 일이 많아지자 일경(日警)에 발각되어 유치장(留置場)에 감금(監禁) 되었다. 일경의 무지한 고문을 받고 혼

절하기도 했다.

1934년 8월 12일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예심(豫審)을 거쳐 재판(裁判)을 받게 되었다.

1934년 12월 27일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공판을 받은 학생들은 다음과 같다.

한계수(진주출신, 1993년 건국포장 추서)

장준(사천 출신, 미포상)

황진생(진주 출신, 1993년 건국포장 추서)

전사옥(거창 출신, 미포상)

이증삼(고성 출신, 1993년 건국포장 추서)

이들은 1934년 7월 27일 징역 1년형이 구형(求刑)되었고 1934년 8월 3일 징역 1년 집행유예(執行猶豫) 3년형이 선고되어 석방되었다.

애국 학생들 5명중에 2명은 지금까지 정부포상을 받지 못했다.

삼천포지역은 특별히 미포상자들이 많음을 통탄스럽게 여긴다. 정부는 포상기준을 완화하여 포상을 실시해 주시를 간절히 호소한다.

장준 선생은 김두찬(창녕읍 유지)의 6녀 김봉자(金順榮)와 혼인해 슬하에 여러 자녀를 두었으니 장계자, 장혜원, 장귀원, 장완자, 장규오, 장규성, 장화원, 장정원 등이다. 장귀원(정원규)은 진주에 살았고, 장혜원은 삼천포 벌리동 287-2번지에 살았다.

-신분장지문회보서

-예심종결결정서 1934년 4월 30일

-동아일보 1934.5.9. 1934. 7.31. 1934. 8. 27.

-조선일보 1934.1.22. 1934. 2.4. 1934. 5. 9.

-진주고 개교 67주년 기념호 1992년 65면(정학용 기고문)

-독립유공자 공훈록 11권 국가보훈처 1994년 231.309.324면

장태영(張台永)

*출신지(본적): 경남 사천시 이금동 20번지

*생몰년월일: 1880년 6월 2일~1945년 5월 14일

장태영(張台永) 선생은 1896년 동학의거에 동참하고 천도교에 입도하여 포덕사, 종법사를 거쳐 당부 대표. 교구장이 되었고 종정(宗正)에 해당되는 최고위직 법정에 오른 그는 민족대표 손병희 선생과 자주 만나고 교류한 분이다.

사천 지역은 접주 이규정을 비롯해서 많은 동학교도들이 농민군에 적극 참여하여 지하에서 동학교를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

1895년(음)5월 26일 개혁파 정권은 대대적적인 지방제도의 개혁을 단행했는데 23부 제하의 경상도 진주부에 속해 있던 곤양군이 사천군으로 통합되자 동학교도의 반대가 있었다,

삼천포 지역 동학교가 최초로 들어 온 것은 1893년 사천군 남양면 이금리에 살던 항암 최진규가 전북 장수군 일대에 담배설대 장사를 다니던 중 고성군 상리면 동산리가 고향인 김

숙희의 소개를 받아 장수군 고백리 동학교도 김성진 포덕사로부터 동학에 입교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1905년 12월 1일 동학이 천도교로 교명을 바꾸면서 본격적인 포교 활동이 시작되었고 삼천포 이치, 궁지, 향촌 등지로 퍼지게 되었다. 이 때 최진규, 박치포, 김응두, 김응욱, 장두용 등이 있었으며 1910년 8월 한일합방 직후 김응두, 김응옥 두 사람의 권유로 천도교에 입도하면서 당시 진주 대교구 산하의 전교당을 이금리 장태영 선생의 자택으로 옮겨 설치하고 천도교기인 궁을교기를 세웠으니 이 때가 1911년 1월이고 현재까지 108년간 이어지고 있다.

1913년 3월 8일 사천 삼천포 천도교구 설립을 위한 의연을 내게 되는데 장태인. 장태한과 함께 수 천만원에 해당되는 700원 84전을 납부했다.

1927년 7월 천도교 사천청년당 대표가 되었고 1접 대표는 강석한 2접 대표는 강석홍이 되어 봉사와 애국강연 등을 실시했다.

1930년 12월 천도교 청년당부 대표로 사천은 장태영, 장태한, 최현순이 활동했다.

1934년 4월에는 천도교 청년당 제 8차 전당대회에서 장태영 선생은 지방당부 대표가 되고 사천대표는 최현순이 선정되었다.

장태영 선생의 부모님은 장두현(張斗鉉),김동산(金東山)이며 동학과 천도교인들 이다. 호는 후암(厚菴)이다. 부인은 호가 신미당(信美堂)이신 노문선(盧文善)이다.

그러므로 3·1운동 때 <독립선언서>, <격문>, 태극기를 받아 귀향하였다.
진주에 사는 7촌 장덕익을 만나 <독립선언서>등을 제공하고 서울의 상황을 설명했다.

사천 남양면 박종실이 진주에서 <독립선언서>를 가져왔지만 서울에서 가져온 <독립선언서>가 믿음성 있게 보였을 것이다.

박종실 선생은 삼천포보통학교 교사 황병두가 평양대성학교 동문이기 때문에 설득시키고 장태영 선생은 천도교인을 설득시키는데 유리하였다.

1919년 3월 25일 선구리 장날이며 보통학교 졸업식이기 때문에 인원 동원에 유리하다고 여기게 되었다.

졸업식에서 학교 교장이 교육칙서를 읽으면 시위하기로 정했으나 학생들은 마음이 급해 졸업식이 끝나기 전에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부르고 대문을 박차고 시내로 진출하자 애국청년들이 마음이 급해 해변에서 선구리 장터로 달려가 <독립선언서>(장태영 선생이 가져온 것)을 낭독하고 시민들과 함께 시위를 전개하였다.

주동자들은 피체되어 엄중한 조사와 혹독한 고문을 받고 혼절하였다.

삼천포지역 3·1운동 지도자들은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므로 명예회복이 어렵다.

장태영 선생은 노문선과 혼인해 주학, 주입, 주완 등을 두었고, 손자들 효갑, 정인, 춘갑, 진갑, 준갑, 정갑, 형갑, 의갑, 종갑, 정기, 수갑, 윤갑, 윤갑, 경갑, 정갑 등 14명이다.

장춘갑은 삼천포 이금동 모전마을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장정갑은 사천시에서 동장(사무관)으로 정년퇴직했다.

장태영 선생의 묘소는 이금동 산 10번지 가족묘지에 안장되었다.

현재 삼천포 이금동 소재 천도교 교구 입구에 항암(恒菴) 최진규(崔鎭奎) 포덕불망비가 세워져 있으며 내용을 보면 장태영 선생의 행적내용도 새겨져 있다.

-사천시사 2003년 편찬위원회 722면. 1747면
-항일투사열전 1권 1995년 추경화 5면(사진). 225면
-천도교 창건록 1934년 천도교중앙종리원 493면
-경남도민신문 2018년 7월 12일
-경남지역 3·1독립운동사 문화원 경남도지회 2007년 59면
-천도교 사천 삼천포 100년사 2013년 100년사 편찬위원회 54~61면 94, 96, 129면, 166~173면, 220면. 294~342면

전영조(全永祚)

*출신지(본적): 경남 사천시(삼천포)동리
*생몰년월일: 1906년 12월 4일~1965년 7월 26일

전영조 선생은 1919년 3·1운동 당시 삼천포보통학교 재학생이었고 학급 반장이었다.

1906년 12월 4일생이니 3·1운동 당시 13세 소년이었다.

전국적인 시위로 진주 하동 고성 등 경남각지에서도 시위가 전개되자 장사꾼을 통해서 왕래하는 사람들에 의해 독립만세 시위의 소식이 전해졌다.

삼천포보통학교 학생들의 시위는 삼천포지역 청년들이 지도하고 선도하여 이루어진 의거로 볼 수 있는데 남양면 박종실 선생이 받아 온 <독립선언서>와 장태영 선생이 천도교 종법사 등 지도급으로 서울에서 받아 온 <독립선언서>, <태극기> 등이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삼천포보통학교 학생들이 졸업식이 끝나기 전에 흥분한 전영조 반장과 동급생 하급생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교문을 박차고 나갈 때 반장의 역할이 주효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반장이 시위 학생들에게 교문을 나서게 하고 태극기를 가슴에 숨겨야 하고 교문을 나서면서 독립만세를 고창할 것을 사전 사후에 숙지 시켰다.

해변 가에 대기하고 있던 애국 청년들은 사태가 급박하게 움직이는 것을 듣고 즉시 선구리 장터로 달려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군중들을 독려하여 시위를 진행하니 학생, 시민, 청년들, 장사하는 이들, 외지인들이 총동원되어 다 함께 시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위 주도자들은 모두 피체되었으나 그 당시 형사 책임이 없는 미성년 소년들이지만 엄중한 조사를 받고 훈계 방면되었음이 거의 확실하다. 옥고기록을 찾지 못했으나 아름답고 훌륭한 투쟁 기록을 남겼다.

1965년 7월 26일 삼천포에서 별세했으며 후손들 전상준, 전상용, 전경자 등이 사천 일원과 서부 경남에 거주한다.

-사천시사 2003년 편찬위원회 723면

정순종(鄭順鍾)

*이명: 정순종(鄭淳鍾)

정순종(鄭順鍾) 선생은 경남 사천시 곤양면 성내리(城內里) 216번지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진양이다. 곤양보통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학교의 추천을 받아 진주공립농업학교에 입학했다. 1학년 재학중 "태극기를 만들어 가슴에 숨겨있어라" 라는 선배의 지시를 듣고 준비하고 있다가 밤중에 교내 기숙사로 기습적으로 쳐들어 온 일경에 잡혀 유치장에 20일간 감금되었고 엄중한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다. 부친의 노력으로 퇴학을 면하고 1923년 제11회 졸업생이 되었다.

1927년 10월 30일 동아일보 삼천포지국 기자가 되었다가 일제가 친일 감정을 가졌다는 이유로 1928년 1월 12일 사직처리 되었다. 그 후 함양, 고성지역에서 기수가 되고 종묘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1945년 신탁통치반대 인민대회 준비회를 조직할 때 동참하고 김철수(金喆壽)는 위원장이 되고 정순종 선생은 재무부장이 되어 활동했다.

1946년 10월부터 8개월간 진양군수가 되었다. 1948년 5월 10일 진양군에서 제헌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1951년 10월부터 7개월간 진주시장을 역임했다.

-민중일보 1945년 1월 5일
-한국근현대지역운동사 역사문제연구소 261면
-동아일보 1927년 10월 30일. 1928년 1월 12일

정재흥(鄭在興)

정재흥(鄭在興) 선생은 초명 정희순이고 사천시 곤양면 대치리 663번지 출신이다. 후손들이 25년간 사천읍 선인동에 거주하기 때문에 여기에 등재한다.

곤양 3·1운동에 동참하고 진주 3·1운동에도 동참하고 큰 감동을 받아 일생동안 항일독립운동에 뛰어들기로 결심하게 된다.

1921년부터 군자금을 모아 안희제 선생의 백산상회를 통해 활동하고 향리 출신 유림(儒林) 정재완과 함께 활동한 인물이다.

진주노동공제회 소작부 위원 대표로 활동하고 농민총동맹 대표와 노농연맹 대표로 활동중 일경에 피체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5년 4월 서울에서 개최된 전조선(全朝鮮) 기자(記者) 대회(大會)에 조우제, 정동석, 김기완 등과 함께 참석했다가 <시대일보>, <사상운동> 기자들은 반항요소가 많다면서 일경에 체포되어 엄중한 조사를 받고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1927년 11월 2일 합천군 부호 문재규의 차남 문석봉으로부터 일만원의 거액을 빌려 각기 군자금을 제공하는데 사용토록 하고 어음 편치 및 군자금 제공으로 대구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6월형이 언도되어 옥고를 치렀다.

고문후유증과 옥중에서 생긴 병으로 고생하였다.

광복 이후 부산경남지역의 전매서를 재건하는 일을 열심히 했고 부산(경남) 전매청장으로 열심히 일을 할 때 과로가 겹쳐 1950년 11월 일 청장 책상에서 숨을 거두었으니 순국(殉國)이고 순직(殉職)이다.

그러나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했으니 억울한 사연이 있다.

정재홍 선생은 안동 권씨 권단계와 혼인해 슬하에 정휘석(鄭輝錫: 부인 강옥선)을 두었고 손자녀들은 정한웅(鄭漢雄), 정한성(鄭漢成), 정한미(鄭漢美), 정한현(鄭漢鉉) 등이 있는데 조상의 빛나는 업적을 널리 밝히고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동아일보 1922.1.20. 1923.8.16. 1923.9.4
-동아일보 1924.10.31. 1925.4.12. 1927. 12.18
-1920년대 경남지역 청년단체의 조직과 활동 부경역사연구소
-국가기록원 전매청 인사관련 자료참고
-1927년 10월 16일 홍기수 재판기록물
-중외일보 합천지국 기자 활동
-시대일보 1924.10.26.
-1927.6.21.정재홍 대구지법 판결문
-동아일보 1931.12.7. 재만동포 위문금 제공
-동아일보 1927.6.21
-경남도민신문 2017년 9월 20일
-경남일보 2017년 9월 13일
-뉴스경남 2017년 10월 11일

정주성(鄭周成)

정주성(鄭周成)선생은 사천시 곤명면 조장리(助場里) 출신으로 1902년 12월 16일생이다.

이명(異名)은 정주선, 정석이 두 가지이며 주로 경남 김해 옥산지역에서 활동하였다.

정주성 선생이 이름을 여러 차례 변경한 것은 독립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일제의 수사망을 따돌리고 도주하기 쉽게 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할 수 있다.

김해 옥산지역에 거주하면서 김해 3·1독립운동에 동참하고 감화.감동을 받아 일생동안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할 결심을 가지고 활동하게 된다.

청년학생들과 일반 주민들에게 말하기를 일본보다 우리 민족이 우수한 민족이며 옛적부터 우리 민족이 일본인을 훈계하고 가르친 선진국임을 강조했다.

우리 조선의 역사는 5천년이지만 일본 역사는 2천년이 안된다는 것을 말하고 일제가 우리보다 후진국이다 라고 선전하였다.

일제는 가장 악랄한 족속이며 야만족이기 때문에 일제의 정책을 반대하고 투쟁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일제는 치안유지법 위반이라고 말하면서 정주성 선생을 체포해 혹독한 고문을 가하였고 혼절하였다.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신분장지문조회서

-항일투사열전 2권 1997년 224면

정희영(鄭禧泳)

정희영(鄭禧泳) 선생의 이명은 정희수, 정희면이며 경남 사천시 곤명면 용산리(龍山里)에서 1893년 9월 7일 태어났다.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 진주로 이주해 진주 양정학원을 다녔는데 중퇴 했다(1925년).

일본으로 건너가 정칙(正則)영어학교에 다녔다. 조선무산동맹회에 가입하고 동경조선청년총동맹으로 단체명을 바꾸고 <청년조선>을 월간으로 발행했다.

1926년 4월 니혼(일본)대학 경제과에 입학했으나 곧 중퇴했다.

1926년 11월 동경에서 조선신흥과학연구회를 만들었다.

1929년 조공일본 총국의 재건을 주장했다.

1931년 3월 일경에 피체되어 동경재판소에서 징역 3년형이 언도되어 옥고를 치렀다.

1932년 5월 전북에서 전북혁명전위동맹에 가입해 활동중 일경에 피체되어 1937년 10월 전주지법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이 언도되어 옥고를 치렀다.

1941년 이정윤. 김태준 등과 함께 노동운동을 전개하고 1945년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상임준비위원이 되었다.

광복 이후 사회노동당 준비위원회 중앙위원이 되었다.

1947년 1월 사회노동당을 해체하고 남조선노동당에 참가할 것을 주장하며 박헌영을 비판하면서 사회노동당 탈당계를 제출했다.

1950년 한국전쟁 때 사망했다는 설이 있다.

-서대문감옥 자료
-일제강점기 인명전 민족문제연구소 2005년 491면
-한국사회주의 운동 인명집 강만길 1996년 447면
-한국청년운동사 선우기성 1973년 608년
-일본현대사자료색인 일본 255면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5권 국가보훈처
-이기하의 조선공산운동사

정희협(鄭禧協)

정희협(鄭禧協)선생은 경남 사천시 곤양면에서 태어났다.

1901년 정릉참봉 벼슬을 했고 현산(峴山)학교를 설립할 때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공적을 쌓은 분이다.

진주로 이주해 살면서 진주보통학교 학무위원으로 활동하고 경남일보가 창간되자 1909년 대판 총무를 역임했다(1910년 4월), 한일합방 후 명예직인 도참사를 지냈다.

1911년에는 경남일보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경남토지조사를 실시할 때 자문위원 역할을 했다.

일제가 단군조를 모독하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모욕감을 느끼고 시민들이 떨쳐 일어날 때 정희협 선생도 앞장서서 투쟁하고 시위하다 일경에 피체되어 엄중한 조사와 혹독한 고문을 받고 혼절하였다.

현재 국조 단군조의 좌상이 사천읍 산성공원 입구 학교와 유치원 사이 언덕에 세워져 있다.

1919년 3·1운동에 동참하고 시위하였고 감화 감동을 받고 애국심이 발동하였다.

-승정원 일기 1901년 참봉 벼슬을 제수함
-경남일보 축쇄판 상권 영남대학교 1996년 해제편
-현대사자료 강덕상 597면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2001년 마산보훈지청 145면
-경남일보사 100년사 2009년 71~74면 561면

정희택(鄭熙澤)

정희택(鄭熙澤)선생은 1899년 11월 17일생이다.

1919년 3월 전국적인 독립만세시위를 목도하고 감화. 감동을 받아 일생동안 항일독립운동에 헌신하기로 결심하게 된다.

1920년 11월경 북간도 관전(寬甸)현으로 건너간 정희택 선생은 항일무장 투쟁을 전개하는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에 입단하여 국내지단에서 활동하게 된다.

정기두(鄭基斗) 선생 등과 평안도 일원에서 군자금 모집을 하였다.

1920년 12월경 평북 철산군 백량면 일본경찰관 주재소에 근무 중인 김의주(金義柱) 집을 습격하여 친일파를 처단한다고 외치고 그를 총살하였다.

그 장소에서 벗어났으나 일제의 추격을 받아 마침내 피체되고 말았다.

일경의 혹독하고 무지한 고문을 받고 혼절하기도 수없이 했다.

1921년 3월 28일 신의주지법에서 소위 저들이 말하는 제령 7호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이 언도되었다.

경성형무소로 옮겨 추운 겨울과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석방되었다.

출옥 후 한쪽 팔을 절단할 정도로 혹독한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했다고 전해 온다.

정부에서는 정희택 선생의 공적을 기리어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그러나 광복을 40여 일 앞두고 세상을 떠났으니 순국(殉國)이 확실하다.

장남 정부남(鄭富男)님은 광복회 지회장으로 봉사하고 부인 노춘자 님과 슬하에 2남을 두었는데 경상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서 크게 활동중이다.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 11권 국가보훈처 273면
-신분장지문조회서
-동아일보 1922년 4월 10일. 4월 23일
-조선일보 1921년 9월 5일

-경남신문 1994년 8월 15일 (김명현 기자)

정태석(鄭泰奭)

정태석(鄭泰奭) 선생은 1870년 1월 18일생이며 1938년 4월 9일 세상을 떠났다.

자는 주응(周應)호는 야천(也川)이고 해주정씨 농포 정문부(鄭文孚) 장군의 11세손이고 통정대부 행 군수 정홍교(鄭鴻敎)의 손자이며 학자 정기석의 장남이다.

1894년 성균 진사에 입격하신 분이기에 진사 정태석이라 한다.

사천시 곤양면 홍사리에 청덕인애비가 세워져 있는데 비석 내용을 보면 어진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여 베푼 은덕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새겨져 있다.

1908년 일제에 진 빚을 갚고 국권을 회복하자는 국채보상운동이 부산에서 시작하고 대구에서 본격화 할 때 정태석 선생도 동참하였고 주민들을 설득하여 동참토록 주선하고 선생도 23원의 의연금을 냈으니 쌀 8가마에 해당되는 돈이다.

그 당시 일반인들은 십시일반(十匙一飯)이라 하여 10~20전씩 의연했으나 23원을 낸 것은 애국애족심이 투철했다는 증거가 된다.

1910년 봄에 보릿고개로 어려워 하는 이웃 주민들을 위해 10원을 기부한 기록도 있다.

1921년 진주고 진주여고를 설립할 때 당시 6500원 이라는 초유의 거금을 의연했으며 토지를 기부하여 지금도 그 땅에 학교가 세워져 있다.

1922년 7월 23일 이승호가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독립공채 1천원 짜리를 받고 20원을 여비로 지불했는데 이승호은 전남 구례군에서 피체되어 옥고를 치렀다. 2006년 건국훈장이 추서되었다.

1920년대 독립군들과 보천교도들이 군자금을 요청하면 몰래 지원해 두었고 1923년 전후에는 해외동포들을 위문하고 촉석루에서 위문 행사를 진행할 때에도 위문금품을 제공했다.

1927년 2월 전국적인 항일단체인 신간회(新幹會)가 창립되자 생원 하재화 선생과 함께 신간회 발기인 겸 중앙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신간회가 각 시,군마다 지회가 조직될 때 경남 최초의 신간회가 사천에서 조직되었는데 정태석 선생이 김의진 선생을 지도해 신간회 사천지회가 창립되도록 했다.

사천 곤명면 수리조합이 시행하는 호안공사를 위해 800원을 기부했다.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에 소재한 충렬사(忠烈祠)가 심히 퇴락해 있을 때 중건후원회를 조직하게 되었는데 서부경남 부호들이 동참하였고 정태석 선생도 동참하여 후원금 수백 원을 기부하였다.

1934년 3월 임진공신 김천일. 최경회. 고종후. 황진 장군 등을 모신 창렬사(彰烈祠)를 중건할 때 중건회 회장으로 크게 봉사하였다.

잡지 영남춘추사 고문으로 봉사했다.

1935년 11월 영세민에게 부과된 사방공사비 1500원을 단독으로 부담하여 많은 이들이 칭송하였다.

죽기 2~3개월전에 일제 위해 기부금을 내고 친일 광고를 냈다는 설은 거짓이며 일제로부터 어떤 벼슬도 받지 않았고 일제의 혜택을 받지 않았고 도리어 재산을 빼앗기는 지경이 되

고 말았다.

선출직에도 나가지 않았고 창씨 개명도 하지 않았다.

자제는 정종근(광복후 하동군수), 정희근(초등학교 설립자)가 있고 손자들은 찬섭, 호섭(교장), 민섭(작곡가), 영섭, 진섭, 동섭, 정섭, 충섭, 우섭 등이 있고 경상대학교 농대학장 김병호(사위)가 있다.

-한겨레신문1997년 2월 25일
-부산일보 1996년 8월 15일
-경남도민신문 2913년 5월 9일, 2014년 10월 2일, 2015년 12월 30일,
2017년 10월 29일, 11월 15일
-신간회 연구 이균영 1993년 101면
-항일투사열전 2권 추경화 1997년 186~187면
-함양문화 제 5집 1997년 125면
-진주문화 24호 1998년 62면
-일제하 사회운동인명집 하권 1992년 1981면
-독립운동사 자료집 제 14집 대중투쟁사 국가보훈처 274면
-독립운동사 자료집 10권 대중투쟁사 749면

조개석(曺介石), 조관석(曺寬石)

조개석(曺介石), 조관석(曺寬石) 선생은 형제간으로 형제가 3·1운동을 지도했다.

조개석 선생의 족보명은 재석(在碩)이며 창녕 조씨 후손이다.

1896년생이고 곤양면 본촌리(本村里)출신이며 창녕 조씨 후손이다.

조씨의 시조는 신라 진평왕의 사위 창성부원군 조계룡(曺繼龍)이다.

5대손 조겸(曺謙)은 중시조이다. 조겸은 고려 태조의 딸인 덕공공주와 혼인하여 부마가 되었다. 이후 8대까지 문하평장사(장관급)가 배출되었다.

조민수는 문하시중 창성부원군이다. 조선시대 문과급제자 113명, 진사, 생원이 500여명으로 명문대족임이 확실하고 남명 조식 선생 등 문인 학자들이 많다.

전국적으로 3·1운동이 발생하자 곤명면 금성리에서도 만세시위를 전개했는데 이영근, 문향근, 정원주 등과 함께 2백여 명을 이끌고 덕천강변에서 독립만세 시위를 전개하였다.

일본 헌병대의 출동으로 감금(監禁)되었고 혹독한 고문을 받게 된다. 장형(杖刑)이 극심하여 옆에 있던 접시를 깨어 물어 깨뜨리고 머리로 책상에 부딪히니 책상이 부러질 정도였다. 석방 후 장독으로 치아 전체가 낙치되고 쇠약한 몸이 되고 말았다고 전해온다.

조국 광복을 맞이했으나 지병이 생기고 고문 후유증으로 일찍 죽으니 순국(殉國)이라고 말할 수 있다.

훌륭한 애국지사로 인정되는 분이다. 장남 조정덕(曺正德)은 진주에서 합동중기를 경영하고 있다고 한다.

조관석 선생은 조개석 선생의 아우로 1900년 생이다. 형과 함께 곤명면 덕천강변의 3·1만

세 시위를 총 주도하고 일제 헌병대를 피해 도피중이었다.

헌병보조원 이모가 동족이면서 악랄하기 때문에 사생결단으로 야음을 틈타 이모씨를 기다리다가 잡아 수로에 넣고 혼미하도록 때려 준 사건을 일으켰다.

조관석 선생은 같은 마을 이규필의 도움을 받아 일본으로 망명했다. 결국 귀향하지 못하고 일본국에서 별세하시니 순국(殉國)이라고 말 할 수 있는 분이다.

유족 조점덕(曺點德)은 부산에 산다고 전해 온다.

-사천의 편모
-곤명면지 편찬위원회 1987년 361~362면

천병식(千炳植)

천병식(千炳植) 선생은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571번지 출신이다.

거주지는 정의리로 알려져 있다.

일제의 문화통치가 시작되자 전국적으로 약 8~9년간 약간의 자유가 부여되었는데 이 때 전국적으로 청년단체가 발족하게 되는데 우수죽순(雨後竹筍)이란 말로 표현될 정도로 시, 군마다 청년회가 창립되기 시작했다.

천병식 선생은 사천읍내 청년들이 사천청년회를 창립하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1923년 4월 22일 사천청년회 제 6회 정기총회에서 재무부장이 되었다.

1925년 5월 10일 혁신 후 제1회 정기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부회장은 박두석(朴斗石)이다.

청년들은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했는데 문자보급운동, 강연회, 연극회, 야학운영을 실시하고 재외동포의 위문, 기근구제. 소년과 여성의 권리, 소작인 권리 신장 등을 위해 활동하고 테니스 대회, 축구대회 등 체육활동을 전개할 때 협력 했다.

-사천시사 2003년 편찬위원회 746면 1177면
-한국청년운동사 선우기성 1973년 372면
-일제하사회운동인명집 역사문제연구소 1992년 2109면

천성욱(千星旭)

천성욱(千星旭) 선생은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출신이다.

일본 니기시(尼琦市)에 거주할 때 1943년 당시 20세 청년으로서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동지규합을 위해 활동 중 일경에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엄중한 조사를 받고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다.

-소화특고탄압사 명석박융(明石博隆) 제 8권 109면
-사천시사 2003년 편찬위원회 746면

-독립유공자공훈록 제 7권 국가보훈처 290면

최긍민(崔兢敏)

*출신지(본적): 경남 사천시 정동면 수청리

*생몰년월일: 1883~1970년 8월 7일

최긍민(崔兢敏) 선생은 삭녕 최씨로 1883년에 경남 사천시 정동면 출신이다.

정돈호, 최긍민, 정기석, 하우선 등이 면우(俛宇)선생의 제자들이다. 특히 최긍민 선생은 면우 곽종석(1846~1919)선생이 고모부가 된다.

삭녕은 고려 때 평장사를 지낸 최천로(崔天老)를 시조로 한다.

증조는 최윤진(崔允鎭)이며 조부는 최익상(崔益相)이다. 부친은 수정 최효근(崔孝根)이며 모친은 정도인(鄭道仁)의 딸 진양정씨이다. 부인은 한진완(韓鎭完)의 따님인 청주 한씨로 그 슬하에 2남 3녀를 두었다.

최긍민 선생의 자는 시중(時中)이며 호는 신암(愼庵)이며 스스로 열심 공부하였다. 13세 때 부모님을 따라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로 이주하고 1900년 조모의 상을 당하여 여묘 살이 하는 부친을 모시다 보니 전국적인 의병전쟁에 참가하지 못했다.

1910년 8월 한일합방(국치일)이 되자 두문불출(杜門不出)하여 단식투쟁하고 통곡하다가 혼절하였다.

단발령이 내리자 "나라는 망해도 도(道)는 망할 수 없다. 머리는 자를 수 있어도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고 말하며 관공서에 의견을 제출했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안중근 의사가 여순 감옥에서 순국했다는 소식을 듣자 조의문을 지어 애도하며 유림들에게 배포했다가 일경에 잡혀 옥고를 치렀다.

창산(昌山) 성재기(成在棋)가 지은 행장의 일부를 적어 본다.

공의 휘(諱)는 긍민, 자는 시중, 호는 신암이다.

형제의 의가 돈독하여 힘을 합해 나무를 하며 어버이에게 올릴 반찬을 빠뜨린 적이 없었다. 1913년 모친상을 당하였으며 1914년 다시 부친상을 당하였으나 예법대로 3년 상을 마칠 수 있었다.

단발령을 반대하다 왜놈에게 체포되었으나 공은 항변하고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 광복이 되자 시를 지어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유림들을 지도했다.

신암 최긍민이 1966년에 지은 한진완의 묘표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노응규, 정한용이 의병을 일으키자 조정이 이 사실을 듣고 일군과 관군을 발함에 의병들이 한 때 해산하였기로 경병이 이르러 그 전말을 알 길이 없어 한공이 성중의 장로라 응당 그 일을 알 것이라 하고 드디어 집을 포위하고 한진완 장의를 잡아 병영에 이르러 사실을 자백하게 하니 선생은 향리를 위협하고 공략할까 두려워하여 모른다고 버티면서 혀를 물고 말하자 아니하자 경병이 혹독하게 악형을 가하여 허벅다리 뼈가 부서지고 전신이 피투성이 되어 호흡이 불통하게 되자 경병이 드디어 단념하고 철거하니 이로서 진주인들이 무사할 수 있었다."

1970년 8월7일 88세에 세상을 떠나 하동군 옥종면 용수동 유좌(酉坐)에 안장했다. 장례식에 참여한 자가 천여 명이나 되었다.

2남 3녀를 두었으니 아들은 인국(寅國), 인찬(寅纘: 유학자)이며 딸은 이기원, 박휴종, 정무영에게 각각 시집갔다. 장손자는 춘경(春卿)이다.

-경남일보 2008년 9월 11일
-하동유학의 맥 하동문화원 전병철 2012년 280~284면
-진주항일운동사 2008년 추호석 497면

최병민(崔昞敏)

*출신지(본적): 경남 사천시 사천읍 용당리
*생몰년월일: 1908년 ~1960년

최병민(崔昞敏) 선생은 사천 사천읍 용당리 출신이다. 사천보통학교 13회 졸업(1924년 3월)하고 일본 유학의 길을 떠나 일본 중앙대학에 입학했으나 사정에 의해 중퇴하고 귀향하게 된다.

일제의 소위 문화통치가 실시되자 전국에서 우후죽순처럼 청년회가 창립되어 한시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을 때 사천청년들도 사천청년회가 창립되었고 이에 최병민 선생도 동참하게 된다.

1927년 6월 전국적으로 신간회가 설립되자 경남에서 최초로 신간회를 설립하게 된다.

사천출신 김의진, 생원 진사 출신인 하재화, 정태석의 지도를 받았다

최병민 선생이 적극적으로 앞장서기 때문에 조기에 설립될 수 있었다.

1927년 12월 신간회 사천지회 재무부 상무간사로 활동하고 이어 1929년 3월 신간회 사천위원장이 되어 애국계몽운동, 문자보급운동, 야학교운영, 노동자 농민들의 권리 신장, 소작료 문제의 해결, 해외동포 위문과 행사, 기아, 기근 문제, 여성인권 문제 등등 다루지 않는 일이 없었고 무료 변호사요, 사회 보호자 역할을 하였다.

1939년 2월부터 동아일보 기자와 사천지국장으로 활동했다.

자녀는 연태, 연경(초등학교 교장), 연철(진주 명석면) 등이 있다.

-사천문화 1998년 167~178면
-신간회 연구 이균영 1993년 593면
-조선일보 1929년 4월 4일. 1930년 1월 5일.

최성봉(崔聖奉)

최성봉(崔聖奉)선생은 1921년 11월 7일 이상일과 함께 경남 사천 사천읍에 소재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위해 집합한 신도들 30여 명에 대하여 말하기를 조선독립의 필요성을 말하고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해 준 것처럼 우리 민족도 구해 주실 것을 염원하는 기도와 설교를 하였다.

최성봉 전도사는 손덕언(孫德彦) 등과 함께 교회를 성립하고 초가 3칸을 매수하여 예배당을 처음으로 설립, 완성한 분이다.

일경에 발각되어 최성봉 전도사를 체포되고 엄중한 조사와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다음 해 1922년 2월 3일 경남 진주시 평안동의 한규상(1896~1971) 집사와 남해군 북변동의 심취명(1875~1958) 목사가 사천시 사천읍 위의 교회 예배당에서 신도들을 향하여 성경을 연구해 보니 하나님이 우리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처럼 구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등 조선독립을 선전하다가 일경에 탐지되어 엄중한 조사를 받고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검거되었다라고 했다.

심취명은 경남 최초의 장로와 목사가 되고 민족정신이 투철했다.

최성봉, 심취명, 한규상, 손덕언 등은 기독교회사에 보면 상당한 공적자로 기록되었다.

-고등경찰관계적록 1937년 36면
-일제강점기 인명록 2005년 604~605면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2001년 이대수 93. 156. 165면
-사천시사 2003년 편찬위원회 740면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5년 114면 295면

최영범(崔榮範)

최영범(崔榮範) 선생은 경남 사천시 곤양면 출신이다.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는 소위 문화통치를 하게 되는데 일제와 대항해 적극적 투쟁을 하면 구금 구속하지만 평화적 집회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7~8년간 이어졌다. 구속된 이들을 석방하고 징역형에 해당되는 이들을 집행유예, 기소유예, 훈계방면을 하게 된다.

최영범 선생은 전국적으로 우수죽순처럼 일어나는 청년단체처럼 곤양지역에서도 곤양청년회를 조직할 때 동참하고 전국적인 청년단체인 조선청년연합회가 서울에서 개최 될 때 참석하기도 했다.

동아일보 곤양지국장(1934년 1월~1940년 8월)이 되어 활동하고 이어 동아일보 사천지국장(1939년 11월~1941년 8월)이 되어 활동했다.

-명치백년사총서 1분권 김정명 493면
-독립운동사 제 4권 국가보훈처 466면
-독립운동사 제 10권 국가보훈처 984면
-독립운동사 자료집 국가보훈처 제 14권 477면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 7권 국가보훈처 290면
-한국청년운동사 선우기성 1973년
-일제하사회운동인명집 역사문제연구소 1992년 2176면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이대수 2001년 157면

최을환(崔乙煥)

최을환(崔乙煥) 선생은 경남 사천시 (삼천포)187번지 출신이다.

생년월일은 1912년 4월 4일이다. 삼천포 이금리에 설립된 사립 용산(龍山)야학회가 좌익분자가 적화전선의 기관화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1932년 3월 9일 교사 최을환 외 2명이 삼천포 경찰서에 검거되어 감금되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여론이 악화되었고 아동과 학부모 100여 명이 교사 석방을 요구하며 경찰주재소로 쇄도하여 투석전을 하는 등 협박하므로 본서 경찰이 나타나 난타하고 공포탄을 쏘자 동서로 흩어지고 시위주동자 12명이 검거되고 군중은 해산되고 말았다.

용산(龍山)야학회(夜學會)는 폐쇄되었다.

이와 같이 경찰이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진주, 하동, 산청보다 극심한 탄압을 가하는 것은 다른 지역보다 일본이 가까운 바닷가이기 때문에 일제가 퇴로 확보를 위한 정책 때문이었다.

최을환 선생은 일경의 엄중한 조사를 받고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1932년 8월 3일 기소유예로 석방되었다. 그러나 징역 8월형이 언도되었다는 증언하는 이들도 있다.

-고등경찰관계적록 1937년 93면
-신분장지문회보서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이대수 2001년 158면
-사천시사 2003년 편찬위원회 746면

최복근(崔福根)

최복근(崔福根)선생은 이명 최효근(崔孝根)이며 경남 사천시(삼천포)동리 171번지가 본적(本籍)이며 1909년 6월 2일생이다.

3·1운동 이후 일제의 문화통치가 시작되어 약 9년간 지속되다가 1929년 이후에는 자유가 없어지고 사회단체(社會團體)의 모임조차 개최할 수 없었다.

문화통치 기간에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발생한 청년단체, 언론, 출판사 등이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고 탄압을 받고 있었다.

삼천포청년들은 달라진 상황을 알지 못하고 허가(許可)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행동했다가 당황하고 항의하는 일이 발생하가도 했다.

최복근 선생 등은 이전의 일경(日警)이라고 여기고 집회 신고도 없이 활동하다가 1929년 8월 16일 일경에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았고 항의하다 더 가혹한 고문을 받고 혼절했다.

일제(日帝)는 삼천포 지역에 대하여 엄중한 자세로 탄압, 감시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해안지역 삼천포가 만약을 대비해 일본으로 도주할 통로이기 때문이었다.

최복근 선생은 사천청년연구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1929년부터 삼천포청년동맹 정치부장(政治部長)이 되어 활약하게 되는데 수시로 일경에 피체되어 엄중한 조사를 받게 되는데 1929년 10월 20일 강일산, 황달봉, 박영수, 강몽우 등은 사천청년동맹 삼천포지부 이름으로 8월 20일 창립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으나 허가를 해 주지 않았다.

이 때 청년들은 인쇄물로 회록(會錄) 45매를 만들어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産制度)를 부인하는 내용을 등사하여 사방에 배포하다가 일경(日警)에 발각(發覺)되어 피체(被逮)되었다.

1929년 11월 6일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재판을 받고 금고(禁錮) 3월에 집행유예(執行猶豫) 3년을 언도받고 곧 석방되었다.

황달봉 선생은 어업상, 강몽우 선생은 학생, 박영수 선생은 약업상, 최복근 선생은 곡물상 점원이었고 곧 석방될 수 있었다.

1930년 9월 14일 제1회 청년대회에서 최복근 선생은 정치부장에 당선되었다. 그 당시 회장은 황달봉 선생, 조사부장은 김홍 선생, 조직부장은 최홍석 선생, 소년부장은 배장영 선생, 체육부장은 이봉필 선생, 서무부장은 김석귀 선생, 여성부장은 탁철 선생이 되었다.

최복근 선생은 1931년 1월 18일에 삼천포(三千浦)농민조합(農民組合) 서면대회에서 집행위원(執行委員)으로 선출되었다.

조선일보 1931년 9월 26일자 9월 29일자에 의하면 삼천포 외곽지역에 있던 동양척식(주) 소유의 땅을 관리하는 자와 4두락 정도를 소작하는 소작인(小作人) 사이에 분쟁(紛爭) 문제(問題)가 발생하자 삼천포농민조합의 최복근 선생, 최갑환 선생, 김기현 선생, 남형 선생 등이 소작인(小作人) 편을 들어 항의하다 도리어 소송(訴訟)을 당하게 되었다.

동양척식(주)는 완전한 친일기업으로 농민들의 땅을 강압적으로 빼앗아 일제통치 자금으로 전용한 악덕기업(惡德企業)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다.

삼천포(三千浦) 청년(青年)들은 업무방해죄(業務妨害罪))로 진주검사국에 송치되어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1932년 최복근 선생은 정한영 선생, 황달봉 선생 등 애국 동지 28명을 모아 권대형 선생을 중심으로 조선공산당 재건협의회 사천지방 야체이카 박대영(朴大暎, 이금복 여사의 남편)의 지도를 받아 1931년 5월 중순 삼천포 동리 소재 빈집에서 비밀 회의를 개최하고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産制度)를 부인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는 일을 추진하고 삼천포전기회사와 석탄 하역작업을 하는 인부들이 동맹파업(同盟罷業)을 하도록 지도하고 실천 투쟁을 책동하다가 일경에 모두 검거되어 유치장(留置場)에 감금(監禁)되었다.

최복근 선생은 금고 3월 집행유예를 언도받았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혹독한 고문을 받았고 이번에는 엄중하여 치안유지법 위반, 출판법위반 등으로 징역(懲役) 1년형이 언도(言渡)되었다.

1933년 1월 31일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確定)되었고 옥고(獄苦)를 치렀다.

청년 활동과 소작인을 위한 투쟁, 출판법과 치안유지법 위반 등으로 옥고를 치르는 등 활약상이 뛰어 나지만 지금까지 명예회복(名譽回復)이 되지 않았으니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끝난 다음 10년 안에 거의 다 공적을 가리고 상벌을 가리는 일이 진행되었으나 3·1운동 100주년이 다 되었고 항일투쟁 90주년이 지나도 포상 여부를 가리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스런 일이다.

2019년에는 사천문화원과 함께 협력하여 최복근(최효근)선생의 포상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조선일보 1931년 9월 26일 9월 29일

-고등경찰관계적록 1937년 65면 101면
-신분장지문조회서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이대수 2001년 161면
-사천시사 2003년 편찬위원회 746면
-일제하 사회운동 인명집 역사문제연구소 1992년 2237면
-한국청년운동사 선우기성 1973년 392면
-동아일보 1929.8.14. 9.2. 9.7. 11. 4.(농민조합 사건)
-동아일보 1930.2.20. 4.6. 1931.9.6. 9.13. 9.17(독서회 사건)
-동아일보 1929.8.9.(출판법 위반)
-중앙일보 1933. 2.1. 2.3. (독서회 사건 유죄)

최흥석(崔興錫)

최흥석(崔興錫) 선생은 사천시(삼천포) 동리(동동)에서 1909년 10월 17일 태어났으며 거주지도 동일하다.

동아일보 1929년 10월 20일자에 의하면 최흥석 선생은 삼천포 청년동맹 위원으로 농민들의 권리 신장과 노동자 편을 들어 인쇄물을 돌려 보았다는 이유로 일경에 피체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고 혼절하였다.

사유는 강일산, 황달봉, 최효근, 박영수, 강몽우 등과 함께 사천청년동맹 이름으로 창립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신고를 했으나 허가를 해 주지 않아 인쇄물 45매를 만들어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내용으로 등사하여 사방에 배포하다가 일경에 발각되어 피체되었다. 일경의 엄중한 조사와 혹독한 고문을 받고 혼절하기도 했다.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재판을 받고 징역 1년형이 집행유예를 언도 받아 석방되었다.

-한국청년운동사 선우기성 1973년 392면
-신분장지문조회서
-일제하사회주의운동인명집 역사문제연구소 1992년 2238면

추태련(秋泰蓮)

*출신지(본적): 경남 사천시 수남면 늑도동(勒島洞)
*생몰년월일: 1888. 4. 3.~1925. 2. 1

추태련(秋泰련) 선생은 경남 사천시(삼천포)늑도동에서 1888년 4월 3일 출생하여 늑도동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1919년 3월 25일 삼천포지역에서 독립만세가 전개된다는 소식을 듣고 삼천포 장날이기 때문에 선구리 장터로 나갔다가 시위에 동참하고 늑도에서 배를 타고 건너온 주민들(어민(漁民))을 이끌고 독립만세 대열에 들었다가 일본 헌병대에 잡혀 유치장에 감금(監禁)되었다. 일제 측의 혹독한 고문을 받고 혼절(昏絶)하였다. 그 날 장터에 물건을 사러 나왔을 뿐이며 시위대를 보고 구경하다가 갑자기 잡혀왔다고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언도되어 옥고를 치렀다.

같은 마을에 사는 추동집(1866.2.27.~1934.2.1.) 선생도 독립만세 시위에 동참했다가 재판을 받고 옥고를 치렀으나 지금까지 명예회복이 성사되지 않았다.

손자 추대식, 추대세 등이 늑도동에 거주한다.

-항일투사열전 제 1권 1995년 281면
-신분장지문회보서 경찰청기록

탁철(卓轍)

탁철(卓轍) 선생은 이명 탁철(卓哲)이며, 경남 사천시 (삼천포)출신으로 삼천포 농민조합에 관련되어 활동하다 일경에 피체되어 옥고를 치렀다.

<고등경찰관계적록>에 기록된 내용을 적어 보면

"사천군 삼천포면 이금리에 소재한 삼천포농민조합에서 1931년 10월 21일 삼천포 이홀리 삼홍양잠소에서 제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출석자 1천 여명에 달하였는데 삼천포 선구리의 탁철 외 12명이 말하기를 현재 사회제도의 모순을 지적하고 잘못되었으므로 공산주의에 대하여 선동하는 연설을 하였기 때문에 각각 검거하였다"라고 했다.

엄중한 조사와 고문을 받았으나 특별한 혐의가 없다고 여기고 곧 석방되었다. 한국청년운동사에는 여성부로 기록되었다.

동아일보 1931년 9월 20일자에 의하면 동아일보 삼천포지국 기자로 임명되었다.

-동아일보 1931년 9월 17일
-고등경찰관계적록 1937년 87면
-한국청년운동사 선우기성 1973년 392면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이대수 2001년 161면
-사천시사 2003년 편찬위원회 392면

한위준(韓偉俊)

한위준(韓偉俊) 선생은 사천시 곤명면 조장리(助場里)에서 1905년 1월 26일 출생했다.

이명(異名)은 한태일(韓泰一)이다.

중외일보 1928년 2월 25일자 등에 의하면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1927년에는 고등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언도되어 석방되었다.

한위준 선생은 김해시 금산면에 거주할 때 전조선맹휴사건에 관련되어 일경에 피체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고 혼절하였다.

-일본현대사 자료색인 86
-중외일보 1928년 2월 25일. 8월 2일
-일제하사회주의운동 인명집 하권 1992년
-신분장지문조회서

한종일(韓宗一)

한종일(韓宗一) 선생은 경남 사천시(삼천포)서금동(西錦洞) 97번지에서 태어났다. 생년월일은 1920년 6월 20일 이다. 창씨개명은 서원송치이다.

1940대 초기에 일본 대판으로 건너가 대판시(大阪市)와 시외를 다녀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생활하는지 보고도 애국 애족심이 생기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닐 것이다.

오사카(대판)에서 애국청년들이 모여 독립청년당을 조직하여 조직적으로 일제에 대항하기 위해 활동하니 일본 경찰에 발각, 피체되고 말았다.

국내보다 일본에서의 항일운동이 수월하다고 하지만 조직을 만들고 전단지를 살포하는 일은 엄중한 조사와 혹독한 고문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대판재판소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형이 언도되어 옥고를 치르고 1945년 8월 조국이 광복되어도 석방되지 않고 1946년 12월 6일 출옥할 수 있었다.

출옥 후 귀국하지 못하고 일본에 그대로 머물었다고 말하는 자들이있다.

-소화특고탄압사 제 8권 明石博隆 154-157면
-신분장지문회보서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이대수 2001년 166면
-사천시사 2003년 편찬위원회 747면

황달봉(黃達鳳)

황달봉(黃達鳳) 선생의 이명은 황차돌이다. 창씨개명은 공전달봉(孔田達鳳)이다. 경남 사천시(삼천포) 동리 259번지 출신이고 생년월일은 1908년 4월 15일이다. 일부기록에 황연봉(黃連鳳)은 잘못이다.

1929년 사천군 삼천포읍 동리 강몽우(姜夢寓). 최효근(崔孝根). 박영수(朴永秀)등은 의논하여 표면적으로는 사천청년동맹 삼천포지부 설립을 위해 회원을 모집해 8월 20일 창립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집회를 금지하여 27일 창립 서면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삼천포 선구리 강옥서 집에서 8월 24일 25일 양일에 걸쳐 원고를 작성하여 강몽우 등 4명의 아름으로 공산당의 뜻에 현재 모순은 경제조직의 투쟁이라는 내용으로 회록 45부를 인쇄 배포한다는 단서를 잡아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목적으로 비밀 결사 <노동조합>을 조직하므로 8월 26일 모두 검거되고 유치장에 감금(監禁)되었다.

동아일보 1929년 8월 13일자는 동아일보 삼천포지국 기자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20일 만에 사임하게 된다. 그 이유는 노동조합을 통해 일제와 대항하기 때문에 압박에 의해 사임하게 된다.(동아일보 1929년 9월 3일자 6면)

1931년 사천군 삼천포읍 동리 최효근 정한영(鄭漢永) 황달봉. 배장영(裵章榮)외 28명은 권대형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공산당 재건협의회 사천지방 야체이카 박대영(朴大暎)의 지도에 의해 1931년 5월부터 삼천포 동리 소재 빈집에서 회합하여 비밀결사 독서회를 조직해 사유

재산제도를 부인할 목적을 위해 의식 앙양을 도모하고 삼천포전기회사와 석탄하역부의 동맹파업을 획책하는 등 실천투쟁에 노력하다가 일경에 발각 검거되고 유치장에 감금되었다.

황달봉 선생은 정식 재판을 받은 지 3번이었고 청년동맹의 노동조합의 사건으로 대구복심법원에서 금고 3월형이 선고되었고 독서회 사건으로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형이 선고되었다.

또 일제 정책을 비판하고 반대하다 일경에 잡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징역 1년형이 언도되어 옥고를 치렀다.

-고등경찰관계적록 1936년 65면 101면
-신분장지문회보서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이대수 2001년 169면
-사천시사 2003년 747면
-조선일보 1931년 9월 26일 9월 29일
-동아일보 1929.8.24. 8.30. 1929.9.2. 9.7. 10.20. 11.8(농민조합 사건)
-동아일보 1930.2.20. 1931.9.6. 9.13. 9.17(독서회 사건)
-동아일보 1929.8.29.(출판법 위반)

황성칠(黃性七)

*출신지(본적): 경남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貞義里)
*생몰년월일: 1904~1980

황성칠(黃性七) 선생은 경남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출신이다.

사천보통학교 제 12회 졸업(1923년 3월)하고 서울 휘문고에 진학했으나 중퇴하고 귀향했다. 부모님의 병환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귀향했다고 전해 온다.

1920년이 되자 일제가 소위 문화통치를 하면서 약간의 자유를 가지게 되자 전국적으로 청년들이 조직을 만들고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지게 되고(조선일보. 동아일보. 종교신문 창간), 각 시군마다 혹은 면지역까지 청년회. 청년연구회. 청년당 이란 이름으로 청년단체를 조직하여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사천읍에도 청년회가 조직되었으니 황성칠 선생도 사천청년회에 가입하고 활동했으며 전국적인 항일단체인 사천지회가 조직되자 회원으로 가입했는데 1927년 신간회 사천지회를 조직하게 되었고 경남에서 최초로 신간회를 조직하였다. 그도 신간회 사천지회 회원으로 가입하고 1927년 12월 사천지회 선전부 상무간사가 되고 일제의 방해로 직접 만나서 회의하는 일이 성사되지 않자 서면으로 회의할 때 1929년 10월 지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신간회는 강연회, 소인극, 위문회, 야학교 운영, 애국계몽운동 등을 실시했으며 소작인과 불우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일을 했다.

자녀들은 후기(해운회사), 세기(한전 부장), 춘기(전 사천초등학교 교장) 등이다.

-조선일보 1927년 12월 27일

-조선일보 1928년 2월 7일. 2월 26일
-동아일보 1928년 2월 22일
-사천문화 1997년 167~178면
-청년문학 35호 진주청년문학회 1998년 112~118면

황숙주(黃淑柱)

황숙주 선생은 경남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貞義里)에서 태어났으니 1914년 9월 2일생이다.

황숙주 선생은 사천보통학교 학생들이 1919년 3월 21일 졸업식하는날 시위할 때 동참하고 동지 정원수와 함께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

진주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여 3학년 재학중 1932년 7월 10일 사상사건으로 피체되었고 혁명기념일을 기하여 동맹휴학을 결행하다 1932년 11월 4일 검속되었고 학교 측으로부터 제적처분이 되어 졸업장을 받지 못했다. 이 사건을 백지동맹 사건이라고 말한다.

광주에서 학생 항일사건이 발생하고 많은 학생들이 구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울분이 넘쳐 항일격문을 진주시내에 배포하고 일경에 발각. 피체되어 약 90일간 유치장과 감옥을 오가며 옥고를 치른 분이다.

1935년 일본 동경으로 유학중 강창중. 정원수. 이수봉과 함께 민족정신의 함양을 기하고 조선인 청년 학생들을 모아 조선말의 사용을 금지함은 민족 말살정책임을 강조하고 고유한 우리 역사를 가르치고 조선어 가곡인 “망향의 노래”를 부르면서 민족의 울분을 토로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경은 국책 위반이고 치안유지법 위반이라고 붙잡아 삼곡경찰서에 이송해 심한 고문으로 혼절케 하고 인사불성이 되자 석방하였다. 그러나 고문의 여독으로 청운의 큰 뜻을 펼쳐보지 못하고 꽃다운 나이에 한 많은 세상을 떠났으니 순국(殉國)이라고 할 것이다.

애국동지 강창중 등이 앞장서서 1985년 5월 19일 사천읍 공설 운동장 입구에 황숙주 항일사적비를 세워주었으니 고인은 스스로 위로 삼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현재 항일사적비는 없어져 보이지 않는다. 체육관계자들에게 문의해도 다른 곳으로 옮겼는지조차 아는 이가 없다.

-경남지역 3·1독립운동사 문화원 경남도지회 2007년 74면
-사천읍소재 황숙주 항일사적비(소재 불명)
-진고 60년지 1985년 편찬위원회 133면
-진주고 80년사(1925~2005)2005년 136~138면

황순주(黃順柱)

황순주(黃順柱) 선생은 경남 사천시 사천읍 정의동 336(234)번지 출신이며 생년월일은 1903년 12월 8일생이다.

1919년 3·1운동 당시 17세 소년이었다. 애국애족심이 강한 황순주 선생은 조용하게 있을 수 없는 의분이 생겨 진주에서 3월 18일 대대적 시위가 전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진주에서 사천으로 지나가는 사람들과 마차를 세워놓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는 사람들만 통과시

킨다는 소문을 들었다.

김기철(金基喆), 박기현(朴基鉉)과 함께 진주로 달려갔다. 진주는 온통 독립만세 소리로 천지가 진동하고 일주일간 계속되었고 선교부의 악대의 주악을 선두로 수천명 수만 군중이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부르고 시가행진하는 장엄한 광경을 직접보고 감화감동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의거에 동참하고 의거의 주동자이며 사천 축동면 출신 강대창 (姜大昌:姜大翼)을 만났다.

그의 주선으로 강달영을 만나 <독립선언서>를 입수하는데 성공하였다.

사천읍으로 돌아 온 그들은 애국 청년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임순백(林順伯), 윤상수(尹相守), 김성언(金成彦)등을 설득, 포섭하고 사천보통학교 졸업반 학생 이윤조(李允祚)를 만나 집으로 들어가 의거를 의논하게 된다. 사천읍 의거는 3월 21일 보통학교 졸업식이 끝나면 즉시 전학생이 시위에 동참토록 하자는데 합의하였다. 그들은 태극기를 나누어 주고 가슴에 품고 있을 것을 당부하였다.

그날 축구시합을 하고 이윤조 편이 이기게 되자 흥분한 학생들이 가슴에 품고 있던 태극기를 꺼내어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다. 교문을 박차고 길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일본인 교장은 '저놈들을 막아라'라고 외치기 시작했으나 이미 학생들은 거리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기 시작했다. 황순주, 박기현, 김종철 등은 일단 피신하였고, 피신처에서 격문을 작성하였다. '일제의 야만성과 살육행위를 규탄하고 즉시 일본으로 물러나라'라는 요지로 쓰고 일군 헌병대 분견소장 집에 투입하였다. 그들은 곧 체포되었고 혹독한 고문을 받고 4개월 만에 석방되었다.

1928년경 민족운동의 결정체인 신간회 사천지회가 발족하자 동참하였고 후원자 역할도 했다.

1929년 큰 뜻을 가지고 부친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대구의학전문학교 (경북의대전신)에 들어가 의학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었다.

1929년 11월 광주학생사건이 발발하고 점차 민족운동으로 확대되자 대구에서 시위에 동참하고 동맹휴학을 단행할 때 동참했다가 일경에 잡혀 갔으나 훈계 방면되었다.

황순주 선생은 사천, 고성, 사남에서 병원을 개설하여 어려운 이들을위해 무료진료를 실시하여 칭송을 받았다.

광복 이후 정치에 뜻을 품고 1950년 5월 제 2대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가 취소되었고, 1954년 5월 20일 실시된 제 3대 국회의원(자유당 소속)에 출마했고, 1960년 8월 18일 제 5대 민의원(국회의원)에 출마했으나 또 낙선되었다.

황순주 선생은 병원에서 얻어진 수익을 민족운동에 헌신하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형편이 어려운 환우들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하여 지방민들에게 추앙받는 인물이 되었다.

수석리에서 사천읍사무소 가기 전 왼쪽에 2층 목조건물이 있었는데 황선생이 개인 자금으로 청년회관을 건립했고 각종 청년단체들의 모임을 가진 곳이 되었고 광복 이후에도 청년들이 유용하게 사용했다. 1960년대에는 스라브 2층을 다시 지었으나 지금도 그 자리에 현존하

고 사천청년회의소로 사용하기도 했다. 지금은 심하게 퇴락되었는데 개수하여 보존해야 할 귀중한 유산이다.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267면 268면
-독립유공자공훈록 제 2권 국가보훈처 314면
-부산경남 3·1운동사 3·1동지회 813면~815면
-독립운동사적지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2010년 407면
-경남항일운동참여자록 이대수 2001년 170면
-사천시사 2003년 편찬위원회 747면. 897~902면 1747면
-진고 60년지 1985년 편찬위원회 173면

황원방(黃元方)

*출신지: 경남 통영시 도천동 156
*본적지: 경남 사천시 (삼천포)봉남리 438
*생년월일: 1891년 6월 9일~1914년 8월 14일

황원방(黃元方) 선생은 경남 통영시 통영면 도천리(道泉里) 156번지가 출적지이며 1921년 9월 12일 경남 사천시(삼천포)봉남리(鳳南里)438번지로 본적했다.

부친은 황종우(黃鍾宇), 모친은 한산 이씨 이정(李貞)이다.

부친 황종우는 박식한 의사 명의로 지성을 다한 분으로 유명했고 조상에 대한 숭상의 뜻이 높아 갑인년 대동보 편찬에 참여한 분이며 진주고와 진주여고 건립시 기부금을 내신 분이다.

황원방 선생은 한일합방으로 경술국치를 당하였을 때, 20세 청년으로서 애국애족심이 투철하여 마당에 거적자리를 깔고 금식 단식을 하면서 일제 타도를 외치자 모친 한산 이씨가 걱정되어 겨우 만류하여 중단케 했다.

황원방 선생에 대하여 기록된 내용을 보면 놀랍고 감탄할 뿐이다.

황원방(黃元方) 先生은 軍資金 活動中 日帝의 使嗾를 받은 馬賊에게 被殺 殉國하신 분이다. 黃元方 先生은 楷山(昌原)黃氏로 黃氏의 原始祖는 中國 後漢時代 黃洛이다. 그는 新羅 瑠璃王 5年에 丘大琳과 함께 使臣으로 가던중 風浪을 만나 平海에 到着해 그곳에 定着하게 되니 사람들이 黃將軍일 呼稱했다.

黃氏는 주로 高麗末 朝鮮時代를 걸쳐 많은 人物을 輩出했다. 朝鮮時代에 171명의 文科及第者를 낳았다. 黃元方 先生의 祖父는 學者로 垂範者로 널리 알려진 黃性信이며 慶南 統營郡 統營面 도천시 大學者였다.

黃元方 先生의 父親 黃醫員는 統營郡 一圓에 널리 알려진 醫師였다. 이는 戶籍에도 分明히 藥師로 記錄되어 確認된다. 무슨 病이든지 黃醫員에게 가면 낳는다고 믿는 이들이 수엇이 찾아 왔다고 하며 그러므로 統營에서는 黃醫員 黃醫聖으로 통했다. 그러나 日帝에 의해 1905年에 乙巳勒約이 締結되고 1910年 8月 韓日合邦으로 日本人 政治가 시작되자 統營은 特別히 海岸都市였기 때문에 日本人의 숫자가 더 많이 몰려와 살면서 行悖를 부리는 일이 많았다.

統營郡에 日本人 게다짝 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자 朝鮮人들만의 조용한 生活은 이미 물 건너 가버린 것이다. 日本人 醫師를 위해 日本人醫師에게 有利하도록 모든 일을 解釋하고 判斷하게 되자 黃醫員은 이에 反旗를 들고 對抗해 보지만 오히려 損害만 보는 形便이었다. 日本人 醫師가 作黨하여 黃醫員을 괴롭히고 追放 方法을 講究했다. 이에 더 이상 살 수 없었다. 이에 鬱憤과 憤怒가 넘쳐 日帝에 對抗하는 方法을 硏究하기 시작했다.

黃醫員와 黃元方 父子는 서로 말하기를 統營에서 日帝와 서로 맞서 싸우겠다는 것은 섶을 지고 불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判斷하고 滿洲로 건너가 터전을 잡는 것이 최우선임을 깨닫고 이를 實行하기로 決定했다.

日帝의 눈치를 살피며 그동안 모아둔 財産을 整理하고 논·밭을 팔아 軍資金을 準備했다. 일본인 醫師들은 자기들이 이겨 妻家宅이든지 어느 시골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黃元方 先生은 이곳 滿洲 吉琳城 額穆縣에서 獨立軍을 모아 訓練시키고 武器를 購入해 銃劍術을 가프쳐 精銳化 하여 張次 日本을 향해 進出하고 朝鮮에서 日帝를 몰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근 計劃을 세웠다. 吉琳城 額穆縣의 軍用用地 40리를 買入하고 代金을 치르려다가 日帝의 使嗾를 받은 馬賊에게 被殺되었다.

日帝의 侵略에 對抗하기 위해서 全財産을 팔아 滿洲 吉琳城 額穆縣에서 遠代한 計劃을 實踐하려는 瞬間. 모든 일이 水泡로 돌아가고 말았다.

日帝의 侵略과 橫暴에 對抗해 오직 朝鮮獨立을 위해 活動하고 遠代한 計劃을 세웠으나 日帝의 操縱을 받은 馬賊團에게 被殺 殉國하신 훌륭한 抗日鬪士로 記錄될 것이다. 黃元方 先生에게 높은 勳章이 追敍되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묻혀 있었으니 抑鬱하고 冤痛한 일이다.

黃元方 先生과 裵天澤, 徐日實 등은 서로 굳게 盟誓하고 義兄弟를 맺고 日帝와 對抗해 鬪爭하기로 굳게 血盟을 맺었으나 日帝의 使嗾를 받은 馬賊 또는 日本 軍警에 의해 잡혀가 痕迹도 없이 사라지니 祖國과 民族을 위해 鬪爭하기 위해 全財産을 모두 바친 분으로 殉國志士로 推仰되어야 마땅한 일이다.

黃元方 先生의 孫女 黃成嬉 女士는 전 國會議員의 婦人이며 지금까지 가슴속에 응어리로 남아 있다고 한다.

항일투사로 공이 많은 김승학(金承學: 건국훈장 추서) 선생이 쓰고 1965년 9월에 발행한 <한국독립사>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통영인으로 4246(1913)년 6월에 길림성(吉林省)액목현에 독립군 양성을 목적으로 군용(軍用)용지 40리를 매수하고 대금을 치르려다가 중로(中路)에서 마적에게 피살되었다"

위의 내용을 밝혀 주는 근거로 동아일보 1926년 6월 15일자 2면에 다음과 같이 보도되었다.

-서왈보(건국훈장 추서)는 본성 유씨로 서석열씨에게 성장하여 서씨가 되었고 경술년 8월 이후 조선을 떠나 표랑(돌아다님)의 길을 떠나게 되었다. 22세 청년이 되어 해삼위에서 어장 어부로 일하다가 광산에서 일을 하기도 했다. 4백 여명의 광부들이 푼푼히 모은 4백 여원을 가지고 북경으로 유학길을 가게 되었다. 북경에서 한신교(韓愼敎)의 도움으로 육영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기미년 전해(1918년)에 모 운동을 계획하려고 만주로 표연히 떠나게 되었는데 학생에서 다시 정치운동으로 변견한 때는 28세가 되었다.

처음에는 조직적 계획으로 성공을 기약하였던 모 운동도 동지 황원방(黃元方)씨가 조선 내지에 들어가다가 중도에서 잡히게 되어 소식이 끊어진 뒤로는 그도 저도 수포로 돌아가고 서왈보(徐曰甫)는 유동열(柳東熱)을 만나 김규식(金圭植), 이태준(李泰俊)씨와 함께 몽고지방으로 가고 여러 가지 위험한 고생을 하였다는 것이다.

서왈보(徐曰甫) 항일투사와 모종의 계획을 세우고 투쟁하려다 황원방 선생이 현금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 마적 또는 적군에 의해 현금을 빼앗기고 목숨까지 잃었을 가능성이 높다. 통영군에서 의원(의사)이었던 황종우의 장손 황원방이 거금을 안고 만주로 가서 넓은 토지를 구입하여 토대를 잡고 독립군을 양성하려다 비밀 계획을 세우고 대금을 치르려다가 마적 또는 일경의 사주를 받은 적군에 의해 돈도 빼앗기고 목숨도 피살됨으로서 독립양성이란 거대한 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독립유공자공훈록> 제4권 국가보훈처 발간에 서왈보에 대한 기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왈보(徐曰甫) 1886~1926함경남도 원산 출신이다. 1910년 8월 국권이 침탈되자 중국 북경으로 망명하여 중국군으로 복무하다가 시기적으로 이 무렵 황원방 선생을 만난 것으로 볼 수 있다.

1919년 중국 육군항공학교에 입학하여 조종사가 되었다. 3·1운동이 일어나자 북경 천진에서 학생들을 모아 대한독립청년단을조직하여 신채호를 단장으로 추대하고 서왈보는 군무장이 되었다.

의열단에 가입해 활동하고 1922년도에 조선일보에서는 중국에 근무 중인 조종사를 대대적으로 소개했다.

1924년 중국군 공군에 편입되고 북경항공학교 교수가 되었다.

1926년 풍옥상군에서 공군장교로 활약할 때 장가구 근처에서 비행기 추락으로 순국했다.

1977년 건국포장 추서,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의형제를 맺은 배천택(裵天澤) 선생은 경북 대구출신으로 1909년 신민회 계열의 국권회복을 위한 비밀 청년단체로서 대동청년당을 안희제, 이시열 등 다수의 동지들과 함께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1910년 8월 일제가 한국을 병탄하여 나라가 망하자 봉천성 유하현에 망명하여 부민간에서 활동할 때 길림성에서 황원방 선생을 만나 의형제를 맺었다.

1963년 대통령 표창 추서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된 분이다.

해외사료총서 제 5권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한국관계 사료 목록에 의하면 재외 한국인 사망의 잡건 1906년에 보면 황원방 이름이 등재되었다. 일본 외무성 외교 사료에 황원방이 재외 한국인으로 사망했음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된다.

황원방 선생은 1914년 이전에 순국했으나 호적상 사망신고가 1914년 8월 14일 사망으로 기재되었다.

황원방 선생의 아들은 황준(黃濬)(1911~1970)이며 손자들은 3남 3녀로(황길환, 황성환, 황도환), (황순희, 황정희, 황성희)등이다.

손자 황길환은 동성전자주식회사 대표를 역임했고, 황성환은 초대사천문화원장을 역임했다. 황도환은 화이트맥주 대표, 삼광클라스 대표를 역임했으며, 손자사위 임익순은 연세대학

교 상경대학장, 연세대학교 경영대학교원장을 했다. 특히 손녀사위인 이방호는 사천, 삼천포 지역 제 16대,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역임하는 등 활달한 활동을 했다.

-한국독립사 하권 김승학 1965년 318면
-독립유공자공훈록 제 4권 국가보훈처 1987년 491면
-경남항일독립운동 참여자록 이대수 2001년 171면
-제적등본 - 황원방 선생 1914년 8월 14일 사망신고
-동아일보 1926년 6월 15일
-경남신문 2012년 8월 14일
-오마이 뉴스 윤성효 2012년 8월 15일
-경남도민신문 2018년 6월 21일

〈참고문헌〉

-동아일보 1920~1940년
-조선일보 1920~1940년
-매일신보 1907~1945년
-중외일보 1925~1930년
-조선일보 항일기사색인 조선일보사 1990년
-동아일보 기사 색인집 동아일보사 1920~1955년
-고등경찰관계적록 1936년
-한국청년운동사 선우기성 1973년
-독립운동사 자료집 국가보훈처 1986~2015년
-독립유공자 공훈록 1~23권 국가보훈처
-항일투사 열전 1권 2권 추경화 1995~1997년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이대수 2001년
-하동독립유공자공훈록 추경화 2000년
-진주항일운동사 추경화 2008년
-산청항일운동사 추경화 2010년
-아름다운 항일정신 추경화 1999년
-사천문화 1997년 사천문화원
-사천문화 2000년 사천문화원
-사천시사 2003년 편찬위원회
-경남일보 축쇄판 상.하권. 영남대학교 1995년
-한국사회주의 운동 강만길 성대경 창비사 1996년
-일제하 사회운동 인명색인 역사문제연구소 1992년
-한민족 독립운동사 자료집 1~20권 국사편찬위원회
-사천시사. 하동군지외 각 시.군지
-사천군지, 곤명면지, 곤양향토사, 사남면지, 북천면지 외 각 면지.

부 록

1. 국채보상운동 의연금 납부자
   (國債報償運動 義捐金 納付者)

2. 사천 3·1운동 지도자
   (泗川 3·1運動 指導者)

3. 사천 청년 단체 임원·회원
   (泗川 靑年 團体 任員·會員)

4. 사천의 학교 설립자, 교원, 후원자
   (泗川의 學校 設立者, 敎員, 後援者)

5. 신간회 사천지회 임원
   (新幹會 泗川支會 任員)

6. 동아, 조선일보 지국장, 기자(1920-1940)
   (東亞, 朝鮮日報 支局長, 記者)

7. 일제하 강제 동원 법령
   (日帝下 强制 動員法令)

1. 국채보상운동 의연금 납부자(1907년~1908년)

1) 국채보상운동 의연금 납부자 명단

사천 곤양면 다솔사 스님(寺中)
월초(月焦), 환허(幻虛), 영암(影庵), 설재(雪齋), 봉문(奉文), 무겸(武兼), 경우(景祐), 상연(相連), 지흔(芝흔) 외 신도들 (황성신문 1907년9월 3일)

2) 경남 18개 군 지역 악공(樂工)들

사천군 악공 장기진(張基眞), 우치백(禹致伯), 한금진(韓金振)
곤양군 악공 서영두(徐永斗), 방송철(方松哲), 이치선(李致先)
진주 악공 안영순(安永淳), 김치관(金致寬), 오명국(吳明國), 박영채(朴永彩), 신덕수(申德守)
산청 권윤종(權允宗), 이성근(李成根), 김치도(金致道), 권학순
남해 김학지(金鶴旨), 진만능(陳萬能), 방우근(方又根)
고성 안맹표(安孟杓), 김계동(金桂同), 안성문(安成文) (황성신문1907년7월 13일)

3) 국채보상운동 대구 취지 발기인

서상돈 회장(부산 동래 상인들이 의견을 내고 대구에서 본격화하여 전국으로 전개됨)
김광제(金光濟) 부회장
회원 장상철(張相轍), 강영주(姜永周), 심정섭(沈廷燮), 김우근(金遇根), 서병오(徐丙五), 윤하준(尹夏준), 정재덕(鄭在悳), 이종철(李鐘轍), 길영수(吉永洙), 이우열(李遇烈), 강신규(姜信圭), 정규옥(鄭圭鈺), 추교정(秋敎廷) (대한자강회보 제9호 1907년3월 24일)

◎ 곤양군에서 1원 이상 의연금 낸 이들
김필권(金弼權), 이광종(李光種), 조상순(趙相淳), 조상도(趙相道), 문창현(文昌現), 문두관(文斗寬), 조상기(趙相近), 최채술(崔采述)(최원형의 부친), 조용익(趙鏞益), 최중호(崔重浩), 김도연(金道連), 손봉구(孫鳳九), 백차성(白且成), 이광종 부인 손씨 아들 4명, 조길암(趙吉巖) (황성신문1907년 9월 20일)

◎ 곤양군 금양리 대현리 (1원 이상 낸 이들)
정규영(鄭奎榮), 정채영(鄭采榮), 정기영(鄭琪榮), 정권영(鄭權榮), 정재순(鄭在詢), 정창영(鄭槍榮), 정상영(鄭相榮), 정진영(鄭震榮), 정낙영(鄭洛榮), 정희린(鄭禧麟), 정경석(鄭景錫), 정희봉(鄭禧鳳, 정몽석(鄭夢錫)의 부친) (매일신보 등)

2. 사천 3·1운동 지도자급 명단

① 사천시 3·1운동 의거

사천읍 의거

황순규(黃順柱), 박기현(朴基鉉), 김기철(金基喆), 강대창(姜大昌), 임순백(林順伯), 윤상수(尹相守), 김성언(金成彦), 이윤조(李允祚), 김종철(金種喆) (독립운동사: 3·1운동사 외)

② 사천시 사천읍 증선포 3·1 운동 의거

유승갑(柳承甲), 손계묵(孫系默), 하말금(河末金), 하점수(河点秀), 유진현, 유상현, 유세형, 유치현, 유치순, 유대형, 유승무, 유승철, 박성도, 정명세, 조갑조, 김진조, 유승현

③ 사천시(삼천포) 3·1운동 의거

박종실(朴琮實), 황병두(黃炳斗), 박상윤(朴相潤), 박종대(朴種大), 강금수(姜金秀), 장지재(장志再), 강천수(姜千秀), 손우상(孫雨常), 고광세(高光世), 김우열(金瑀烈), 김기은(金基文), 박두수(朴斗守), 이계철(李啓喆), 김상조(金相祚), 장지린(張志麟), 전영조(全永祚), 박상진(朴相進), 박상윤(박상윤), 장주학(張柱鶴), 강달영(姜達永), 박지환(朴進煥), 추태연(秋泰蓮)

④ 사천시 곤양면 서포면 3·1운동 의거

김진곤(金鎭坤), 임응주(林應柱), 송찬홍(宋贊洪), 이주효(李柱孝), 이주현(李周賢), 송지환(宋芝換), 송수완(宋守完), 박또살동(박우미동), 송용수(宋龍守) <고등경찰관계적록 18면 외>

⑤ 사천시 곤양면 3·1운동 의거

한용운(韓龍雲), 김범부(金凡夫), 김법린(金法麟), 최범술(崔凡述), 문영빈(文永彬), 오제봉(吳濟峰), 설창주(薛昌株), 강달수(姜達秀), 이기주(李基周), 박근도(朴根度), 이극경(李克鏡), 이영근(李永根), 정원주(鄭元柱), 문향근(文馨根), 조개서(曺介石), 조관식(曺寬石), 강재빈(姜在斌), 이규현(李圭玄), 신영범(申永範), 정성기(鄭成基), 정선기(鄭宣基), 김경찬(金敬贊), 이범호(李範鎬), 정낙영(鄭洛榮), 정재운(鄭在雲), 정희근(鄭禧根), 이경호(李景鎬)

⑥ 사천시 곤양면 오사제(五思濟) 만세 의거

정복와(鄭復窩), 강기형(姜琪馨), 강재희(姜在熙), 황희열(黃喜烈), 김만수(金萬洙), 박종수(朴宗修)

⑦ 사천시 사남면 우천리 3·1운동 의거(17인)

김관일, 김주봉, 김기범, 문종석, 문병표, 김수명, 김또정길, 김몽우, 김재상, 김덕우, 김장언, 곽성삼, 곽응삼, 곽의삼, 문득용, 문석표, 문장표

3. 사천 청년회 임원 명단

1) 삼천포 청년 연구회

회장 성중호(成重鎬), 부회장 박영주(朴永周),
재무부 김을수(金乙秀), 덕육부 장지학(張志鶴), 지육부 강한수(姜漢秀),
체육부 원철상(元喆常)
(동아일보 1922. 4. 30)

2)

회장 장지린(張志隣), 부회장 손우상(孫羽翔), 총무 박두석(朴斗石),
재수부 천병식(千柄植), 경무부 강봉수(姜鳳洙), 지회부 차봉준(車奉俊),
체육부 장지제(張志齊),
평의원 강상기(姜相箕), 성중호(成重鎬), 윤진권(尹鎭權), 윤정상(尹晶常), 박영주(朴永周),
김정원(金晶元), 박재규(朴彩奎), 고인주(高麟柱)
1923. 4. 22.(한국청년 운동사 선우기성 1973년 391-392면)

회장 김우열(金瑀烈), 부회장 손우상(孫羽翔), 총무 최재문(崔載文),
지육부 강봉수(姜鳳秀), 덕육부 강붕수(姜鵬秀), 체육부 김종태(金宗台),
회계 김을수(金乙秀), 기록 문태동(文台東),
평의원 김홍득(金洪得), 장지린(張志麟) 외 5인
1925. 1. 11. 혁신총회 후

회장 천병식(千柄植), 부회장 박두석(朴斗石), 총무 강금수(姜金秀),
덕육부 강붕수(姜鵬秀), 지육부 여중기(呂仲起), 체육부 장지홍(張志洪),
평의원 장지린(張志麟) 외 6인
1925. 5. 10. 혁신후 제 1회 정기총회.

3) 사천 청년 동맹 1925. 12. 30

각 대의원 명단
장지린(張志麟), 박두석(朴斗石) 삼천포, 강금수(姜金秀), 이윤조(李允祚) 사천읍,
하석주(河錫柱) 사남면, 최정호(崔正昊) 사남면, 최학용(崔學龍) 사남면,
김용준(金容駿) 사남면, 신영안(申瑛按) 사남면

4) 삼천포 청년 동맹

회장 황달봉(黃達鳳), 정치부 최효근(崔孝根), 최흥석(崔興錫)
조사부 김홍(金弘), 황달봉(黃達鳳)
조직부 최흥석(崔興錫), ?부 배장영(裵章榮), 체육부 이봉필(李鳳必),
?부 김석구(金錫龜), 김만상(金萬相), 여자부 탁철(卓鐵)
(동아일보 1930.9.14.), (동아일보 1930.9.23.)

5) 삼천포 청년 동맹 창립준비 위원회 피체

손형규(孫珩奎), 김홍(金弘), 최흥석(崔興錫), 김점수(金點秀), 강일산(姜一山),
박영수(朴永秀)
동아일보 1929. 10. 20(피체) 1929.11.6.(벌금형)

6) 삼천포 청년동맹 준비위원회

위원장 박순철(朴淳哲)
서무재정부 전석원(全錫元), 박영수(朴英秀), 영주(泳周)
조사정의부 정한구(鄭漢求), 탁철(卓鐵)
선전부 전석구(全錫龜), 황달봉(黃達鳳)
(조선일보 1929.11.9.)

7) 사천 청년 동맹

위원장 이동우(李東友),
위원 강휘생(姜彙生), 박남준, 이선동, 박남섭, 정태우, 배형윤, 김학권, 전종옥, 목창섭, 김봉현

8) 삼천포 청년 동맹원 9명 무사히 석방자

박형철, 박순철(朴淳哲), 배장영, 탁철, 전석원, 박영수, 배두환, 김실백, 배성기, 김진권
(동아일보 1931. 9. 17)

9) 사천 소비조합 준비 위원회

위원장 김몽기(金夢起), 부위원장 최상향(崔相鄕), 총무 임동기(林東基)

10) 삼천포 동맹원 6명 피체

박대홍(朴大鴻), 박이기(朴二基), 탁효관(卓孝觀), 박기준(朴基俊), 배두환(裵斗煥),
김실백(金實伯)
(동아일보 1931. 8. 8)

4. 사천 삼천포 교원(교사), 후원자 명단

◎ 호연재(浩然齋)

서기 1770년에 창건된 호연재가 1917년 삼천포 공립보통학교가 되기까지 면면히 이어 온 훈장과 설립자 대표인물 등의 계보를 나타내 보이며 다음과 같다.

창설 훈장 강환주, 손억년, 손종일
2대 훈장 여일, 박유진

<삼우 강인황>, <국산 정창환>, <전기 8순장대>
3대 훈장 장춘 송수현
4대 훈장 금강 강상호
남승사, 쌍양사 5대 훈장 규호 김사홍
<광명의숙 보통학교 채정희, 장응삼>
<삼천포 공립 보통학교, 노산 강습소(야학당)>
8문장, 김식엽, 오계남, 박진희, 유의강, 강영모, 최양현, 박봉계, 설진열, 박봉래
노산 호연재 2011년 28년 호연재 보존회

◎ 사천의 학교설립자, 교원, 후원자

사천군 인가된 학교(4)

찬명(贊明)학교, 명달(明達)학교, 보흥(普興)학교, 광림(光林)학교

곤양군-인가된 학교(4)

찬명(贊明)학교, 개진(開進)학교, 개양(開陽)학교, 현산(現山)학교
(경남일보 1910년 1월 9일)

명달(明達)학교는 최연국(崔演國) 설립자 겸 교장
소재지 : 사천 정의동
후 원: 강갑수(姜甲秀) (전 군수)
사천신사 최연국씨가 명달학교를 설립했다.
사천 명달학교를 위하여 강갑수씨가 금화 30원, 책상 10개를 기부했다.

개진(開進)학교 교사 임용 이주현(李周賢)(항일투사)
(경남일보 1909년 11월 6일. 1910년 1월 9일)

사천 최연국(崔演國), 최인훈(崔寅熏) 양씨가 교육이 시급해 자금을 차변하여 사천시내에 명달(明達) 학교를 창설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개교식을 할 예정이니 각 면 신사제씨가 보조금을 연보하여 협심하고 있다. (경남일보 1910년 1월 1일)

사숙에 강습소를 세워 이규열(李圭烈)은 교원(교사)로 정호원(鄭鎬源)은 학감으로 하여 제반물품을 제공했다. (경남일보 1910년 4월 14일)

보흥(普興)학교를 설립하고 장응상, 강영기(姜永基), 정원숙(鄭元淑)등이 후원자로 교실을 신축하여 낙성식에 수백 명이 참석했다. (경남일보 1910년12월21일)

곤양군 성방면(현 곤명면)의 김현기(金鉉基), 조용홍(趙鏞洪), 박원식(朴元植) 등이 명신(明

新)학교를 설립하고 이규열(李圭烈) 등이 교사(교원)가 되었다. (경남일보 1910년 12월 21일)

곤양군 가리면(현 곤양면) 전 군수 김선재(金善在)의 권유에 의해 면장 박상호(朴尙浩), 최창호 (崔昌浩)교장 등이 대성(大省)학교를 설립했다. (경남일보 1910년 11월 25일)

사천 보통학교 훈도 임명
정승주(鄭承周), 민영복(閔永復), 이영완(李永完)

곤양보통학교 훈도 임명
이종운(李種運), 조우제(趙佑濟)

현산학교(사립)교장 정규영(鄭奎榮)
옥성(玉成) 강습소 학생들이 다 함께 삭발했다. (경남일보 1910년 6월 3일)

사천군 남양면 실안동 경속(磬束)학교 교사
이병희(李丙熙) 선생이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 (경남일보 1910년 10월 31일)

* 사천군 수남면, 문선면 양면의 사립 보흥학교(장응상 건립) 의연금을 내신 이들은 다음과 같다.

장응상(張膺相) 50원, 정두기(鄭斗機) 50원, 황성오(黃性五) 52원 50전, 여종하(呂種夏) 15원, 박문규(朴文奎) 15원, 조근수(趙根秀) 20원, 유기훈(劉基訓) 2원, 윤진동(尹鎭東) 30원, 박인교(朴鱗敎) 10원, 이창영(李昌榮) 2원, 천영진(千永璡) 20원, 장규한(張奎漢) 25원, 신준수(申俊秀) 20원, 김상진(金相珍) 3원, 박경홍(朴景洪) 10원, 김재근(金在根) 10원, 이회준(李會俊) 1원, 최위조(崔位祚) 1원, 허완(許浣) 5원, 김기선(金基善) 4원, 김기진(金基珍) 1원, 최귀현(崔龜鉉) 2원, 강영문(姜永汶) 14원, 박용주(朴龍柱) 3원, 강상한(姜相瀚) 1원, 김응주(金應注) 2원, 김사원(金士元) 1원, 김상규(金相奎) 10원, 강영림(姜永琳) 5원, 손종석(孫宗錫) 3원, 구회숙(具會淑) 30원, 김정한(金鋌漢) 1원, 김상규(金相奎) 1원, 원세증(元世增) 3원, 이진우(李震佑) 2원, 김백현(金白賢) 6원, 김정홍(金정 洪) 1원, 김돈희(金敦熙) 3원, 여좌현(呂左鉉) 5원, 김성삼(金成三) 3원, 김근선(金根善) 3원, 정서윤(鄭瑞允) 5원, 박찬극(朴璨克) 2원, 손선유(孫善有) 5원, 강영식(姜永蘊) 1원, 김이순(金而順) 3원, 김만조(金萬祚) 1원, 강우수(姜宇秀) 1원, 강영준(姜永準) 5원, 강희종(姜喜宗) 3원, 전중윤(全中允) 5원, 김봉도(金奉鍍) 1원, 김익선(金翊善) 2원, 김내일(金乃日) 2원, 윤태진(尹泰辰) 4원, 박봉우(朴鳳羽) 2원, 김금표(金錦杓) 2원, 김채홍(金彩洪) 1원, 김두순(金仁順) 3원, 박내옥(朴乃玉) 2원40전, 고원숙(高元淑) 1원, 김익명(金益明) 3원, 김찬옥(金贊玉) 2원, 김중선(金重善) 1원, 박태일(朴泰日) 3원, 정자순(鄭子順) 1원, 김무극(金務克) 2원, 손운경(孫雲卿) 2원, 박정오(朴正五) 2원, 김시현(金時賢) 1원, 기타 연표 12본, 연사 12수(手), 필기장 20권, 기타 23권, 이성춘(李聖春) 1원, 고명선(高明善) 1원, 최경열(崔敬烈) 2

원, 이화견(:현)(李化見) 5원, 정귀영(鄭貴永) 1원, 장기찬(張基贊) 5원, 김정호(金正浩) 2원, 강찬수(姜贊秀) 1원, 양세환(梁世煥) 3원, 강상수(姜相秀) 1원50전, 김두호(金斗皓) 2원, 문선구(文善九) 1원, 장홍범(張洪範) 1원, 장경환(張慶煥) 1원

삼천포 대방리 노동야학회 후원자 1915년 4월 1일 개교
1931년은 후원자 송호묵(宋鎬默), 김용우(金容右), 김황오(金黃午), 김부헌(金富憲) (동아일보 1931년4월29일)

사천군 정동면 대곡리
보통학교 설립기성회 조직 후원자 최보경(崔保卿) 1200원 기부 (동아일보 1931년 5월3일)

◎ 각 마을별 서당

마을명	서재명	마을명	서재명
노산	호연재(浩然齋)	이치리	龍江齋 梨山齋
동리	용남재(龍南齋)	동림리	요산재(樂山齋)
		대방리	용현재(龍見齋)
서리	경운재(景雲齋)	실안리	호상재(湖上齋)
佛堂	불리당재(佛里堂齋)	송포리	의미재(義薇齋)
동금리	연강재(棟江齋)		
동금리	금호재(錦湖齋)	벽동리	양진재(養眞齋)
서금리	노양재(魯陽齋)	대포리	용서재(龍西齋)
벌리	벽남재(碧南齋)		
향촌리	향호재(香湖齋)	신수도	관랑재(觀浪齋)
사등리	사등재(沙登齋)	늑도리	호연재(湖然齋)
궁지리	석천재(石泉齋)		

사천 공립보통학교
훈도(訓導) 김정희(金井喜), 부훈도 정승주(鄭丞周)

곤양 공립보통학교
훈도(訓導) 이종연(李鍾連) (일제 강점기 직원록 1916년1월)

사천공립보통학교
훈도 강재관(姜在寬), 훈도 이명균(李明均)

곤명 공립보통학교
이종연(李鍾連) (훈도(訓導) (일제 강점기 직원록 1917년1월)

삼천포 보통학교

구무회(具武會)(훈도), 권창식(權昌湜), 한중연(韓重淵), 강태수(姜泰秀), 이복우(李福雨), 하영남(河永南), 손정순(孫貞順), 송상만(宋尙萬) (직원록 1926년 5월)

곤양보통학교 훈도(訓導)

강재관(姜在寬), 김규수(金圭洙), 김수용(金壽鎔)

사남보통학교 훈도

강기수(姜奇洙), 이기선(李起瑄), 김종한(金鍾漢), 김정규(金丁奎), 민병덕(閔丙德) 1926년 5월

사천보통학교 훈도

박남숙(朴南淑), 서정실(徐廷實), 송재환(宋在桓), 신양(申揚), 김영섭(金榮燮), 이원찬(李源贊), 장범연(張凡硯), 천임순(千壬順) (천임순 선생은 항일투사 김의진(金義鎭)의 부인)

서포보통학교 훈도

최영준(崔永俊), 김규동(金奎東)

읍남 보통학교 훈도

문용무(文龍武)

곤명 보통학교 훈도

정해석(丁海奭), 조인순(趙仁順) 1926년 5월

사천 보통학교 훈도

박남숙(朴南淑)(항일투사 박남준의 누이), 서정실(徐廷實), 송재환(宋在桓), 신양(申揚), 이원실(李源實), 장범석(張凡碩), 정두명(鄭斗明), 천인순(千仁順), 임순(千壬順)

삼천포 보통학교 훈도

구무회(具武會), 권창식(權昌湜), 한중연(韓重淵), 정재순(鄭再順), 하영남(河永南), 이복우(李福雨), 강영수(姜永秀), 손정순(孫貞順), 송우만(宋禹萬)

곤양 보통학교 훈도

조선제(趙善濟), 김수용(金壽鎔), 김영숙(金英淑)

사남 보통학교 훈도

강기수(姜奇洙), 이기선(李起瑄), 김종한(金種漢), 김정규(金丁奎)

서포 보통학교 훈도
문용무(文龍武)

읍남 보통(송지)학교 훈도
정해석(鄭海奭), 조인순(趙仁順)

남양보통학교 훈도
김종윤(金宗允) 1928. 4 - 현재

사천 보통학교 훈도
박남숙(朴南淑), 서정실(徐廷實), 송재환(宋在桓), 신양(申揚), 차봉준(車夆俊), 장범석(張凡碩), 김기형(金基馨), 진의숙(陳義純), 정두명(항일투사), 신선옥(辛善玉)

삼천포 보통학교 훈도
구무회(具武會), 손득용(孫得龍), 권창식(權昌湜), 정재순(鄭再順), 하영남(河永南), 강영희(姜英姬), 손정순(孫貞順), 김재만(金在萬)

곤양 보통학교 훈도
조선재(趙善濟), 김규수(金奎洙), 김수용(金壽鎔), 김영숙(金英淑)

사남 보통학교 훈도
강기수(姜奇洙), 이기선(李起宣), 김종한(金種漢), 김정규(金丁奎)

서포 보통학교 훈도
최영준(崔永俊), 김규동(金奎東)

읍남 보통학교 훈도
문용무(文龍武)

곤명 보통학교 훈도
김용구(金容九), 조인순(趙仁順)

축동 보통학교 훈도
김양수(金亮洙)

남양 보통학교 훈도
김종윤(金宗允) 1929. 5 - 현재까지

사천 보통학교 훈도

박남숙(朴南淑), 신양(申揚), 최영준(崔永俊), 차봉준(車奉俊), 장범석(張凡碩), 김기형(金基馨), 정두명(鄭斗明), 진의순(陳義純), 김종두(金鍾斗), 신선옥(辛善玉)

삼천포 보통학교 훈도

구무회(具武會), 손득용(孫得龍), 권창식(權昌湜), 정재순(鄭再順), 하영남(河永南), 이복우(李福雨), 김재만(金在萬), 김소보(金小甫)

곤양 보통학교 훈도

조선제(趙善濟), 최익용(崔翼龍), 김영숙(金英淑)

사남 보통학교 훈도

강기수(姜奇洙), 이기선(李起瑄), 고복선(高福瑄)

서포 보통학교 훈도

김규동(金奎東), 박주봉(朴柱鳳)

읍남 보통학교 훈도

문용무(文龍武)

곤명 보통학교 훈도

장지민(張志玟), 김용구(金容九)

축동 보통학교 훈도

김양수(金亮洙)

남양 보통학교 훈도

노수용(盧守用) 1930. 7 - 현재까지

사천 보통학교 훈도

박남숙(朴南淑), 고인옥(高麟玉), 김기형(金기馨), 정자수(鄭子洙), 정두명(鄭斗明), 진의순(陳義純), 김종두(金種斗), 임종이(林種伊), 유광순(柳光順)

곤양 보통학교 훈도

조선제(趙善濟), 최익용(崔翼龍), 박봉이(朴鳳伊)

삼천포 보통학교

손득용(孫得龍), 최창식(崔昌湜), 하영남(河永南), 이용원(李容元), 강영수(姜齡秀), 정익과(鄭翊科), 김재만(金在萬), 김현칠(金鉉七)

사남 보통학교 훈도

강기수(姜奇洙), 고복순(高福順), 차봉준(車奉俊), 강성우(姜性祐)

서포 보통학교 훈도

김규동(金奎東), 박주봉(朴柱鳳)

읍남 보통학교 훈도

박인홍(朴寅泓)

곤명 보통학교 훈도

장지민(張志玟), 김용구(金容九)

축동 보통학교 훈도

김양수(金亮洙)

남양 보통학교 훈도

노수용(盧守用) 1931년 7월 - 현재까지

사천 보통학교 훈도

고인옥(高麟玉), 정자수(鄭子洙), 정두명(鄭斗明) 항일투사, 유원순(柳元順), 강용운(姜龍雲) 항일투사

삼천포 보통학교 훈도

권창식(權昌湜), 하영남(河永南), 이용원(李容元), 강영수(姜齡秀), 정익과(鄭翊科), 진의순(陳義純), 김재만(金在萬), 박봉원(朴琫源), 김현칠(金鉉七)

곤양 보통학교 훈도

최익용(崔翼龍)

사남 보통학교 훈도

강기수(姜奇洙), 차봉준(車奉俊), 최재석(崔在石), 강성우(姜性祐)

서포 보통학교 훈도

김규동(金奎東), 박주봉(朴柱鳳)

읍남 보통학교 훈도

박인홍(朴寅泓)

곤명보통학교 훈도

장지민(張志玟), 김용구(金容九)

축동 보통학교 훈도

김양수(金亮洙)

남양보통학교 훈도

노수용(盧守用)

정동 보통학교 훈도

이정섭(李廷涉), 박남숙(朴南淑) 1932.4 - 현재까지

사천보통학교 훈도

임벽영(林璧榮), 정자수(鄭子洙), 김종두(金種斗), 임종이(林種伊), 조경성(趙敬成), 정갑용(鄭甲龍), 유종혁(兪종赫), 유원순(柳元順)

삼천포 보통학교 훈도

권창식(權昌湜), 이용원(李容元), 강영수(姜齡秀), 정익과(鄭翊科), 진의순(陳義純), 김성태(金性太), 김재만(金在萬), 박봉원(朴琫源), 김현칠(金鉉七)

곤양 보통학교 훈도

김형국(金炯國), 김말준(金末俊), 정복기(鄭福基)

사남 보통학교 훈도

최재석(崔在石), 양규삼(梁圭三), 정해진(鄭海鎭), 강성우(姜性祐)

서포 보통학교 훈도

정태이(鄭太伊), 장달용(張達用)

용현 보통학교 훈도

유도선(柳道仙)

곤명 보통학교 훈도
김용구(金容九), 한효신(韓孝愼)

축동 보통학교 훈도
김양수(金亮洙)

남양 보통학교 훈도
노수용(盧守用)

정동 보통학교 훈도
이정섭(李廷涉) 1933.5 - 현재까지

사천 보통학교 훈도
임벽영(林璧榮), 박경도(朴景道), 정자수(丁子洙), 김석권(金碩權), 김종두(金種斗), 조효성(趙敎成), 조응제(趙應濟), 윤두조(尹斗祚)

삼천포 보통학교 훈도
강영수(姜齡秀), 정익과(鄭翊科), 진의순(陳義純), 김성태(金性太), 김재만(金在萬), 박봉원(朴琫源), 허립(許立), 김삼조(金三祚), 손명석(孫明石), 서학선(徐學先)

곤양 보통학교 훈도
김형국(金炯國), 김말준(金末俊), 정복기(鄭福基)

사남 보통학교 훈도
박남숙(朴南淑), 최재석(崔在石), 강성우(姜性祐), 정해진(鄭海鎭), 정갑용(鄭甲龍)

서포 보통학교 훈도
정태이(鄭太伊), 장달용(張達用)

용현 보통학교 훈도
유도선(柳道仙)

곤명 보통학교 훈도
김석규(金石珪), 한효신(韓孝愼)

축동 보통학교 훈도
김양수(金亮洙)

남양 보통학교 훈도
노수용(盧守用)

정동 보통학교 훈도
양규삼(楊圭三) 1935.10 - 현재까지

사천 보통학교 훈도
임벽영(林璧榮), 박경도(朴景道), 정자수(丁子洙), 김종두(金種斗), 황오윤(黃五允), 조효성(趙敎成), 조응제(趙應濟), 윤두조(尹斗祚)

삼천포 보통학교 훈도
강영수(姜齡秀), 진의순(陳義純), 김성태(金性太), 김기형(金基馨), 김재만(金在萬), 임봉원(林琫源)

곤양 보통학교 훈도
김형국(金炯國), 김말준(金末俊), 정복기(鄭福基)

사남 보통학교 훈도
박남숙(朴南淑), 최재석(崔在石), 강성우(姜性祐), 정해진(鄭海鎭), 정갑용(鄭甲龍)

서포 보통학교 훈도
정태이(鄭太伊), 박인규(朴麟奎)

용현 보통학교 훈도
유도선(柳道仙)

곤명 보통학교 훈도
김석규(金石珪), 한효신(韓孝愼)

축동 보통학교 훈도
김양수(金亮洙)

남양 보통학교 훈도
노수용(盧守用)

정동 보통학교 훈도
양규삼(楊圭三) 1936.7 이후- 현재까지

사천 보통학교 훈도

임벽영(林璧榮), 박경도(朴景道), 정자수(丁子洙), 김종두(金種斗), 조응재(趙應齋), 김돈성(金돈成), 황오윤(黃五允), 윤두조(尹斗祚)

삼천포 보통학교

강영수(姜齡秀), 문무봉(文武奉), 진의순(陳義純), 김성태(金性太), 김재만(金在萬), 손명석(孫明石), 최정현(崔廷顯), 이경열(李敬烈), 김덕휘(金德輝)

곤양 보통학교 훈도

김형국(金炯國), 김말준(金末俊), 정복기(鄭福基)

사남 보통학교 훈도

최재석(崔在石), 강성우(姜性祐), 정해진(鄭海鎭), 정갑용(鄭甲龍), 강복점(姜福點)

서포 보통학교 훈도

정태이(鄭太伊), 박인규(朴麟奎)

용현 보통학교 훈도

유도선(柳道仙)

곤명 보통학교 훈도

김석규(金石珪), 한효신(韓孝愼)

축동 보통학교 훈도

김양수(金亮洙)

남양 보통학교 훈도

노수용(盧守用)

정동 보통학교 훈도

양규삼(楊圭三), 방윤영(方允永) 1937.8 - 현재까지

사천 보통학교 훈도

임벽영(林璧榮), 정자수(丁子洙), 정해진(鄭海鎭), 황오윤(黃五允), 윤두조(尹斗祚), 김종두(金種斗), 김규동(金奎東)

삼천포 보통학교 훈도

강영수(姜齡秀), 박경도(朴景道), 진의순(陳義純), 김재만(金在萬), 손명석(孫命石), 이경열(李敬烈), 문무봉(文武奉), 김기형(金基馨), 김성태(金性太), 최정현(崔廷顯), 김덕군(金德軍)

곤양 보통학교 훈도
정복기(鄭福基), 김한석(金漢錫), 김형국(金炯國)

사남 보통학교 훈도
최재석(崔在石), 강성우(姜性祐), 강복점(姜福點)

서포 보통학교 훈도
정태이(鄭太伊), 하한철(河漢澈)

용현 보통학교 훈도
유도선(柳道仙)

곤명 보통학교 훈도
한효진(韓孝愼), 백봉현(白俸鉉), 정원석(鄭元錫)

축동 보통학교 훈도
김양수(金亮洙)

남양 보통학교 훈도
김원여(金元汝)

정동 보통학교 훈도
방윤영(方允永) 1938.10 - 현재까지

5. 신간회 사천지회 임원 명단

(사천읍 중심)
지부장 하용수(河容守), 부회장 김준호(金樽鎬)
서무부 총무간사 박남준(朴南遵), 상무간사 이윤조(李允祚), 재무부 상무간사 강종래(姜宗來), 정치 문화부 총무간사 최보현(崔保聯), 정치 문화부 상무간사 강휘생(姜彙生), 조사부 상무간사 朴卓?, 활동자 김의진(金義鎭)
(조선일보 1927.6.24) (1927.6.20)

회장 박남준(朴南遵), 부회장 진갑생(陳甲生)
서무부 총무간사 이동우(李東友), 서무부 상무간사 김봉현(金奉顯), 재무부 총무간사 최병민(崔昞敏), 정치 문화부 총무간사 강휘생(姜彙生), 정치 문화부 상무간사 김학권(金學權), 선전부 경무간사 박남섭(朴南燮), 선전부 상무간사 황성칠(黃性七), 간사 서태권(徐泰權), 김준호(金樽鎬), 정규한(丁奎翰), 홍윤권(洪潤權), 강계수(姜桂秀)
(조선일보 1927.12.21.)

삼천포 신간회 설립 준비위원
김덕수(金德洙), 강학수(姜鶴秀)(불법청년들의 습격으로 설립 중단)
(조선일보1928.4.21.) (1928.2.7.)

전형위원
강휘생, 이선동, 황성칠(黃性七), 박남섭(朴南燮), 강종대, 하용우, 박기진, 정규한, 전종옥, 강정애, 강달영(姜達永), 박명조(朴明祚)
회장 황성칠(黃性七), 부회장 박남섭(朴南燮)
서무부 총무간사 강휘범, 서무부 상무간사 이선동, 재무부 상무간사 박기진, 정치 문화부 부간사 강종대, 정치문화부 상무간사 강종대, 조사부 총무간사 하용구, 조사부 상무간사 강달필, 간사 정규한, 간사 전종옥, 간사 박명조(朴明祚)

위원장 최병민, 서기겸
서무부 김학권, 황성균, 재무부 강종태, 강휘생, 체육부 박남섭(朴南燮), 김봉현
간사 박명조(朴明祚), 박용구
(조선일보 1929.4.4.)

위원장 강휘생(姜彙生)
집행위원회 박남섭(朴南燮), 황성칠(黃性七), 이원동(李元童), 김봉제(金奉題), 김학권, 김종옥(金種玉)
검사위원 강종래(姜宗來), 최병민(崔昞敏), 박명조(朴明祚), 이유성(李有成)
(조선일보 1930.1.5.)

대표 후보회원 강종태 박남성
(조선일보 1929.2.26.)

웅변대회
서태권, 강휘생, 박남준, 윤회상, 강종래
(조선일보 1928.2.27.)

6. 동아일보, 조선일보 지국장, 기자

진주지국장 강상호(姜相鎬) 동아일보 1920.4.1
(사천, 진주, 고성, 곤양, 산청 포함)
진주(하동, 통영, 운상, 삼천포, 사천 포함)
지국총무 강기석(姜畿錫), 하동 분국장 유영준(劉榮俊), 통영 분국장 여병섭(呂柄燮)
(동아일보 1920.5.5.-5.10)

진주지국 총무 강기석(姜畿錫) (동아일보 1920.5.7.)
진주지국 기자 윤병은(尹炳殷), 통영분국장 여병섭(呂柄燮) 사임, 기자 사임 정용규(鄭鏞奎)
(동아일보1920.9.24.)

하동분국장 유영준(유榮俊)
총무겸 기자 강우석(姜佑錫) (동아일보 1922.1.16.)

진주지국장 김의진(金義鎭), 총무 박태준(朴台俊), 회계 하태용(河台龍), 기자 윤병은(尹炳殷), 기자 조기홍(趙琪洪)

하동분국장 성낙구(成樂求) (동아일보 1921.3.11.)

합천분국장 지국장 박종근(朴種根), 총무 강홍열(姜弘烈), 기자 강만달(姜晩達) (동아일보 1921.5.7.)

사천분국장 최인(崔寅), 총무 하석주(河錫柱), 기자 김성석(金聖錫) (동아일보 1921.8.8.)
사천분국 기자 해임 김성석(金聖錫)
(동아일보 1921.9.22.)

산청분국장 강기수(姜琪秀), 기자 강익수(姜益秀) (동아일보 1921.5.7.)

진주지국장(서부경남 총괄)
지국장 정준교(鄭準敎)(3·1유공자), 총무 박태준(朴台俊), 회비 박태홍(朴台弘), 기자 조우제(趙佑濟)(항일투사), 기자 남홍(南洪) 항일 투사 (동아일보 1922.1.16)

사천분국장 성중호(成重鎬)(삼천포 청년회 회장)
총무겸 기자 박두석(朴斗石)(항일투사) (동아일보 1922.4.6.)

지국총무 박태준(朴台俊)

2대신기자 조우제(趙佑濟) (사면 동아일보 1922.6.16)

하동분국장 겸 기자 김진두(金珍斗), 고문 김익원(金翼源), 제우용(諸又龍) (동아일보 1922. 6. 1), 지국기자 조우제(趙佑濟)(항일투사), 기자 남홍(南洪) 사임, 지국 기자 윤병은(尹炳殷), 기자 배문옥(裵文玉) 임용 (동아일보 1922.11.3.)

제1회 남선 정구 대회 고성 청년단 참가
시대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지국 주최
(동아일보 1925.6.1, 6.6, 6.7, 6.8)

남선 궁술대회, 진교 복사정
동아일보 지국 주최 (동아일보 1925.5.5)

남선축구대회 노동공제회 후원
동아일보 진주지국 (동아일보 1923.6.3, 6.5)

진주지국 배문옥(裵文玉) 기자 사직 동아일보 1923.2.23
진주(서부경남)지국 기자 윤병은(尹炳殷), 오경표(吳景杓) 사면으로 대신 이상석(李相石) 기자 임용 (동아일보 1925.6.3.)

진주지국장 변경 강선호(姜善昊) 지국장
경무겸 기자 강주식(姜周湜) 임용 (동아일보 1923.11.6)
진주지국 이영만(李英晩) 기자 임용, 지국 기자 임용 확장, 기자 박영환(朴英煥)(항일투사), 기자 이영만(李英晩), 기자 이상석(李相石), 기자 김창욱(金昌郁), 기자 정수조 (동아일보 1925.3.30)

진주지국 삼천포분국 설치 (동아일보 1925.7.11)
진주지국장 변경 정동석(鄭桐錫), 총무겸 기자 조우제(趙佑濟), 기자 신현수(申鉉壽), 박영환(朴英煥)(항일투사) (동아일보 1925.8.19)

진주지국 기자 박영환(朴英煥) 사임 (동아일보 1925.11.16.)

삼천포분국 설치 본사 직영으로 변경
분국장 박채규(朴彩奎), 총무겸 기자 박두석(朴斗石), 고문 고인주(高麟柱), 고문 강상기(姜相箕), 장기상(張箕相) (동아일보 1925.4.19)

조선일보 진주(경남)지국 (1920-1935년)

경남지국장 이훈(李勳)
진주지국장 신현수(申鉉壽)(형평운동가) (서부경남 총괄)
기자 및 지국장 강달영(姜達永)(항일투사), 박태준(朴台俊), 김의진(金義鎭), 박윤석(朴尹錫), 박순명(朴順明), 김경택(金敬澤), 강두석(姜斗錫), 조우제(趙佑濟), 정동석(鄭桐錫), 고경인(高景仁), 박원효(朴源孝)(항일투사) 경남지국장 1923.5.4

조선일보 경남지국 임용
기자 박동수(朴東壽), 기자 성재관(成在官), 영업부 김덕형(金德亨) (조선일보 1923.5.4)

경남지국장 1923.5.4. 박양욱(朴洋昱) (조선일보 1923.5.4.)
경남지국 기자 박점석(朴点錫) (조선일보 1923.5.27.)

경남기자단 (동아일보 1929.4.1.)
준비위원 강대창(姜大昌), 강수영(姜壽永), 백종기(白琮基), 강두석(姜斗錫), 장두관(張斗瓘), 박영환(朴英煥)

사천지국 설치
지국장 김상섭(金相燮), 총무 강휘판(姜彙判) 임명 (동아일보 1928.8.17)

삼천포 지국
지국장 정응주(鄭應柱), 기자 김홍득(金洪得), 기자 강금수(姜金秀), 이규범(李圭凡), 고문 장기산(張基相), 손인수(孫仁守) (동아일보 1927.6.30.)

삼천포 주재 기자
이영주(李永柱) (동아일보 1927.7.27.)
삼천포 총무겸 기자 김홍득(金洪得) 사임 (동아일보 1927.9.8)

사천지국 남해분국
분국장 박진평(朴晉平), 총무 한태준(韓泰俊), 기자 정치린(鄭致麟), 기자 장두경(張斗璟), 고문 정재민(鄭在敏), 서태권(徐泰權)

삼천포지국
기자 정순종(鄭淳鍾), 사진기자 조병원(曺秉源)

삼천포지국
기자 김민인(金岷印), 독자위한 영화상영 (동아일보 1928.6.10.)

사천지국 설치
지국장 최연무(崔演武), 총무겸 기자 유진택(劉鎭澤), 기자 황기풍(黃基豊), 기자 김화영(金和永) 임명 (동아일보 1920.12.27, 12.31)
집금원 전석조(全夕照)
기자 황기풍(黃基豊) 의원 해직, 기자 김주욱(金周郁) 임명, 사건 기자 손두일(孫斗一) 임명 (동아일보 1931. 10.9)

삼천포 지국장 장지창(張志昌) (1933.3.-)
지국장 박문석(朴文錫) (1933.9～), 지국장 장지린(張志麟) (1934.10～), 총무 박주봉(朴柱鳳), 고문 김남계(金南桂) (동아일보 1937.7.10.)

지국장 강몽수(姜夢壽)(1937.8), 지국장 박주봉(朴柱鳳) 임명, 지국장 최연무(崔演武) 의원 해직 (동아일보 1937.10.25.), 지국장 김상문(金尙文) (동아일보 1939.4), 고문 박동식(朴東植), 박남진(朴南振), 집금원 전석조(全夕照) 임명 (동아일보 1937.12.11.)

삼천포지국
기자겸 외교원 정기용(鄭琦鎔) (동아일보 1929.11.31.), 기자 김정인(金正寅) 임명, 기자 강금수(姜金秀) (동아일보 1929.8.13.), 기자 황달봉(黃達鳳) 사임, 이규범(李圭凡) 사임 (동아일보 1929.9.3.), 기자 강일수(姜一秀) (동아일보 1930.1.19.), 기자 이영주(李永柱) 사임, 기자 최용한(崔龍漢) 사임, 고문 김태수(金太守) (동아일보 1930.2.18.), 기자 정기용(鄭琦鎔) 사임, 기자 천봉수(千俸守) 사임 (동아일보 1930.9.16.), 경무 겸 기자 임종명(林鐘明), 기자 강일수(姜一秀) 의원 해직 (동아일보 1931. 6.5), 기자 탁철(卓鐵) 임명 (동아일보 1931.9.20.)

사천지국장 박주봉(朴柱鳳) (1937.10-), 사천지국장 최병민(崔昞敏) (1939.2-), 사천지국장 최영범(崔榮範) (1939.11-)
경남기자대회 동아일보(1929.4.1, 4.10)
경남기자대회 기자동맹주최 (동아일보 1930.3.22.)
경남기자대회 임원 전부 개선 (동아일보 1930.4.15.)
경남기자대회 해인사에서 개최 (동아일보 1931.4.29.)
경남기자대회 (동아일보 1931.5.21.)

사천기자단 창립
규약기초위원 조경제(趙景濟), 박기종(朴箕鐘), 박영진(朴永鎭), 조순제(趙順濟), 한무영(漢珷榮), 집행위원장 한무영(韓珷榮), 위원 조경제(趙景濟), 박기종(朴箕鐘), 박영진(朴永鎭), 정한영(鄭漢永), 박영진(朴永鎭), 조순제(趙順濟) (동아일보 1931.6.27.)

7. 일제치하 강제동원 법령

1938년 2월 22일 육군 특별지원병경령 공포 및 실시
1938년 4월 1일 국가 총동원법(總動員法) 제정(制定) 및 실시(實施)
1938년 6월 28일 국민(國民)보국대 시행요강 발표
1939년 7월 8일 국민 강제 징용령(徵用令) 제정 및 시행(施行)
1941년 11월 19일 해군 분야 징용 규칙령 공포
1941년 11월 21일 국민 근로대 보국 협력법 공포
1941년 9월 26일 조선 기류령(寄留令) 공포 및 실시
1943년 3월 1일 반도인 징병제(徵兵制) 공포 및 실시
1943년 7월 20일 국민 강제 징용법 개정
1943년 7월 27일 해군 특별 지원법 제도와 훈련소령 공포
1943년 10월 20일 육군 필수 특별지원병 채용규칙 공포 및 시행
1943년 10월 31일 군수(軍需) 회사법 공포 시행
1944년 8월 23일 여자 정신 위안부(慰安婦) 근로조정 공포(10세-45세)
1944년 10월 30일 학도병(學徒兵) 근로령 공포 및 즉시 시행령
1945년 3월 6일 반일, 항일 인사 수 백명 처형령 준비·시행
1945년 8월 15일 일본 소화왕의 무조건 항복(降伏) 선언(宣言)

사천 항일독립운동사

집필위원

주필 : 추경화

집필위원 : 김진환, 장병석, 공대원

편집위원

장병석, 김진환, 추경화, 성경찬, 고봉애,
최정경, 한정문, 강신우, 김　일, 문태화

감수

김진환

사천항일독립운동사

등록일 : 2018년 12월
발행일 : 2018년 12월

발행인 : 사천문화원장 장 병 석
집필인 : 사천 항일독립운동사 집필위원회
편집인 : 사천 항일독립운동사 편집위원회
디자인 : 사천문화원 사무국
펴낸곳 : 사천문화원

인쇄소 : 대동인쇄

비매품 : 이 책은 사천시의 보조금으로 제작하였습니다.